濟州文化叢書 ⑨

耽羅詩選

오 문 복

제주문화



仙　境　　沃州道人　金 玉 振



安眠島　　白浦　郭　楠　培

서 문

옛부터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九韓勝地)이라 하였다. 섬을 영주(瀛洲), 산을 원산(圓山), 골짜기를 무협(巫峽), 못을 녹담(鹿潭) 등으로 이름 부쳤고 섬 안 세 고을 관아의 정청을 영주관(瀛洲館), 영양관(瀛陽館), 영안관(瀛安館)으로 편액(扁額)하였다. 이 모두가 신선이 살만한 곳임을 뜻하는 말이다. 또 진나라 동자(秦童), 한나라 사자(漢使) 등 신선의 전설은 부지기수이다. 이르는 곳마다 선담(仙譚)이 오고 가며 전래되는 풍속에는 선풍이 흘러넘친다. 제주도는 실로 신선의 고향이다.

또한 탐라국의 옛터(耽羅舊疆)인데다 조선왕조 오백년간은 이품아문(二品衙門)인 방어영(防禦營)을 두었던 대영문(大營門)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사행(使行)의 화익(畵鷁)이 줄을 이었고 관원(官員)은 도임하여 체임(遞任)을 기다리지 않았다. 또 풍류남아는 이곳에 장유(壯遊)를 소원하여 그 뜻을 이룬 이들도 있다. 수의(繡衣)와 방백(方伯)은 학문도덕이 뛰어난 당대 손꼽히는 문장이 아닌 사람이 없었으며, 유람으로 이 곳을 다녀간 이들은 모두가 청류소객(淸流騷客)들이었다.

문한(文翰)으로 한 세대를 주름잡던 이들이 제주의 수려한 산천에서 찬하(餐霞)의 경지를 노닐면서 제영(題詠)과 서경(敍景), 영회(詠懷)의 시를 지어 금낭(錦囊)에 가득하였다. 이 시들은 사람들의 심금(心琴)을 울리고도 남아 지금까지 회자되는 절창이 많다. 그러나 그 시들 대부분이 물길때문에 내지(內地)에 알려지지 않아 문집(文集)이나 유고(遺稿)에 누락되어 있다. 그래서 더욱 귀한 문자유

산(文字遺産)이다.

유명한 「탐라사(耽羅詞)」도 금남 최선생(錦南 崔先生 : 名簿)의 문집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그 한 예이다. 귀한 시문들이 주지(州誌)에 등재된 약간 편을 제외하고는 노유(老儒)의 구전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인멸될 위기는 눈 앞에 다가와 있다.

한문을 멀리 하는 세태 탓인지 단공(單工) 잡기(雜技)의 전승은 권장하면서도 문자의 전승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통의 계승은 선인들의 문자에서 찾지 않고는 어렵다. 특히 형태로 드러나지 아니한 신선스러운 운치(韻致)는 더욱 그러하다. 전통의 계승을 외치면서 선인이 기록한 문헌을 경시하여 찾아 밝히지 않음은 매독환주(買櫝還珠)의 웃음거리이다. 특히 형태로 드러나지 아니한 신선스러운 운치는 더욱 그러하다. 이 특색을 문자에서 찾아 천양하는 것이 창신(創新)의 지름길이며 제주를 바로 아는 일이다.

제주에 관한 시문을 모아온 지는 꽤 여러 해 되었다. 그러나 책으로 펴내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를 본 김순이 시인이 여러번 권하기도 하였고 책이 나오도록 주선하였다. 항상 시 속에 살면서 선인(先人)들의 시를 아끼는 마음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

팔십 노령이신 미옹(未翁) 이배원(李培遠) 선생의 제첨(題簽)을 얻어 영광스럽고 옥산(沃山) 김옥진(金玉振), 백포(白浦) 곽남배(郭楠培) 양 화백의 축화로 책머리를 꾸미게 되어 기쁨을 금할 길 없다. 사우(社友) 백종진(白宗眞), 손기범(孫基範)과 경신인쇄사 김재환(金宰煥)씨가 편집에 땀을 흘렸다. 제주문화사 홍성호(洪性豪) 사장이 지방문화를 아끼는 뜻에서 이익없는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주었다. 그의 융창을 빈다.

단기 4334년 6월절 후3일 吳 文 福

일 러 두 기

一. 이 책은 제주에 벼슬살이 왔거나 유람으로 거쳐간 이들의 시를 모아 풀이하였다. 적객(謫客)의 시는 제외하였다.

二. 다음과 같이 여섯 조목으로 나누었다.

① 제영(題詠) : 제주의 풍토 풍속 물산 역사 등을 통틀어 읊은 시.
② 절승(絶勝) : 빼어난 풍광을 노래한 시.
③ 서정(敍情) : 보고 들은 느낌과 주고 받은 시.
④ 공해(公廨) : 제주 삼읍의 관아(官衙)와 누정(樓亭)에 관한 시.
⑤ 방호소(防護所) : 9곳 방호소(防護所)에 관한 시.
⑥ 장편(長篇) : 같은 제목으로 여러 수의 시를 썼거나 배율(排律)로 길게 쓴 시.

三. 각 조목에 따라 오언(五言), 칠언(七言), 율시(律詩), 배율(排律)의 순으로 엮었다.

四. 각 조목 안에서는 글자의 획수 차례로 엮었다. 임금이 지은 시(御製詩)만은 획수에 관계 없이 맨 앞에 넣어 경의를 표했다.

五. 고유명사와 본서에 거듭 쓰인 시어는 찾아보기를 두었다.

目　　次

- 題字：未翁 李倍遠
- 祝畵：沃山道人 金玉振
- 祝畵：白浦 郭楠培
- 寫眞：金基三

○ 題 詠

毛羅地圖 / 肅宗大王 …… 18
耽　羅 / 柳得恭 …… 20
耽羅題詠 / 趙泰采 …… 21
耽羅題詠 / 徐居正 …… 22
耽羅題詠 / 李承召 …… 23
耽羅題詠 / 徐居正 …… 24
濟州有吟 / 金應南 …… 25
小　乘 / 林　悌 …… 26
擬見老人星雲暗不果 / 李源祚 …… 27
宿西歸鎭曉見老人星 / 李源祚 …… 28
老人星 / 張寅植 …… 29
老人星 / 金尙憲 …… 30
小樂府 / 李齊賢 …… 31
風　土 / 申光洙 …… 33
觀橋來村田臘 / 李衡祥 …… 34
耽羅十謠 / 李源祚 …… 35
潛女歌 / 申光洙 …… 45
潛水女歌三十九韻 / 作者未詳 …… 49
詠　橘 / 正祖大王 …… 57
詠橘四絶(其二) / 李源祚 …… 58
新橘二首 / 金尙憲 …… 59
姜景愚畵屛八幅 / 徐居正 …… 61
題姜景愚畵屛 / 徐居正 …… 62
詠橘四絶 / 李源祚 …… 63
橘 / 金尙憲 …… 67
蒙賜柚復用前韻示僚友 / 宋相琦 …… 68
送歲貢馬有感 / 金聲久 …… 69
閱馬牛羊 / 李元鎭 …… 70
馬屯 / 金尙憲 …… 71
三姓穴 / 李源祚 …… 73

毛興穴 / 林　悌 …… 74
毛興穴 / 金尙憲 …… 75
毛興穴次金淸陰韻 / 金聲久 …… 76
月臺七星圖 / 金俶 …… 77
尊者庵 / 李元鎭 …… 78
尊者庵 / 李慶億 …… 79
逝川庵 / 慧　日 …… 80

○ 絶　勝

漫題漢拏山 / 林　悌 …… 84
至半洋望漢拏山 / 申光洙 …… 89
重九日見拏頂白雪 / 李源祚 …… 90
漢拏山 / 金　綴 …… 91
楸子前洋望漢拏山 / 申光洙 …… 92
漢拏山 / 金　俶 …… 93
漢拏山 / 李益泰 …… 95
登絶頂 / 金　綴 …… 96
漢拏山 / 金麟厚 …… 97
同李繡衣登高 / 李元鎭 …… 98
漢拏山 / 權　近 …… 99
登漢拏山絶頂 / 金聲久 …… 100
漢拏山歌 / 申光洙 …… 101
白鹿潭 / 李源祚 …… 105
白鹿潭 / 金聲久 …… 108
白鹿潭 / 金　綴 …… 109
靈室石 / 李源祚 …… 110
瀛室遇雨 / 李慶億 …… 113
瀛　室 / 金　綴 …… 114
五百將軍洞 / 林　悌 …… 115
方　巖 / 郭期壽 …… 117
方　巖 / 李元鎭 …… 118
城　山 / 金尙憲 …… 119
山房窟 / 元相堯 …… 120
山房山 / 具齡錫 …… 121
山房窟 / 韓鼎運 …… 122
山房窟 / 鄭運經 …… 123
山　房 / 李元鎭 …… 124
山房山 / 金尙憲 …… 125
松岳山 / 金尙憲 …… 126
登瀛邱 / 李義謙 …… 127
登瀛邱 / 洪重徵 …… 128
次壁上韻 / 韓鼎運 …… 129
次壁上韻 / 趙羲純 …… 130
登瀛邱 / 金　綴 …… 131
登瀛邱 / 李源達 …… 132
登瀛邱 / 李益泰 …… 133
龍頭巖 / 林　悌 …… 134
龍　淵 / 林　悌 …… 135
龍頭巖 / 林亨秀 …… 136

都近川獵魚 / 李源祚 …… 137
斗　泉 / 金尙憲 …… 138
正房淵 / 李源祚 …… 139
正房瀑 / 金　俛 …… 140
正方淵 / 金壽翼 …… 141
正方淵 / 李元鎭 …… 142
正房淵 / 李源祚 …… 143
正房淵 / 李翊漢 …… 146
天池淵 / 李　選 …… 147
天池淵 / 李元鎭 …… 149
天池淵 / 金尙憲 …… 150
次李繡衣天池淵韻 / 李益泰 …… 151
天池淵 / 金　俛 …… 152
牛　島 / 金尙憲 …… 153
楸子夕泊二首 / 申光洙 …… 154
題草蘭島石壁 二首 / 金尙憲 …… 155

○ 敍　情

賑　民 / 肅宗大王 …… 158
橋來 路中 / 李源祚 …… 159
題　詠 / 慧　日 …… 160
新　月 / 金聲久 …… 161
白　鷗 / 金容植 …… 162
玩 / 金聲久 …… 163
卽事有 / 金聲久 …… 164
果園冬栢花爛開綠葉紅萼無異陽春極爲奇絶 / 李原祚 …… 165
迎郎曲 / 林　悌 …… 166
迎郎曲 / 南九明 …… 167
歸　帆 / 金容植 …… 168
元　日 / 金尙憲 …… 169
贈耽羅妓 / 林　悌 …… 170
靈谷歸來不勝仙興乃作步虛詞 / 林　悌 … 171
滯宿水望村 / 李源祚 …… 172
放鹿於飛揚島 / 李衡祥 …… 173
送濟州判官姜聖佐入拜訓鍊院正 / 金聲久 … 174
送郎曲 / 南九明 …… 175
戱　題 / 金聲久 …… 176
遣　興 / 金聲久 …… 177
送奴北歸待風別刀浦 / 南九明 … 178
三月十三日祭海 / 申光洙 …… 179
次梅溪韻 / 金容植 …… 180
朝天館送小妓 / 南九明 …… 182
咏水仙花 / 金左根 …… 183
瓷甁貯水揷兩芙蕖 / 李源祚 …… 186
送郎曲 / 林　悌 …… 188
登　高 / 李元鎭 …… 189
次吳生泰稷水仙花十絶 / 李源祚 … 190
卽　事 / 南九明 …… 200

嘲圓覺經 / 金　垈 …… 201
雪滿漢拏未遂登臨之志…有奇趣乃成一絶 / 林　悌 …… 202
贈 別 / 申光洙 …… 203
日暮轅門胸次輪囷與裨將輩話餘一絶遣懷 / 林　悌 …… 204
初度日値春分州妓綠碧問病餉橘以詩謝贈 / 申光洙 …… 205
聞觀德亭梅花始開　折數枝以來　花心尙早忽起老杜「梅蕊驚愁眼」分韻　作五絶(選二首) / 金尙憲 …… 206
憫　荒 / 申光洙 …… 208
又憫荒 / 申光洙 …… 209
冬栢雪中半開 / 南九明 …… 210
雪夜獨坐 / 金尙憲 …… 211
題洪娘墓 / 趙貞喆 …… 212
次東坡渡海韻 / 金尙憲 …… 213
濟州有吟 / 宋麟壽 …… 214
入防營 / 申光洙 …… 215
醉席口占 / 金尙憲 …… 216
呈安金二人 / 金容植 …… 219
送李御使按濟州 / 金　徽 …… 220
寄濟州崔敬差 / 徐居正 …… 222
寄濟州崔敬差溥二首 / 徐居正 … 223
寄濟州姜分臺遇文李敬差健 / 徐居正 … 225
詠懷呈李御史 / 金聲久 …… 226
送濟州牧使金同年好仁 / 徐居正 … 227
贈送吳進士暹南歸 / 趙緯韓 …… 228
贈別錫爾耽羅之行 / 李慶徽 …… 229
送李御使耽羅之行 / 李明漢 …… 230
李錫爾瀛州御使之行 / 尹文擧 … 231
送眉壽牧濟州 / 洪　暹 …… 232
走筆送高少尹 / 鄭道傳 …… 237
送高將軍奉使還鄕 / 鄭道傳 …… 240

○ 公　廨

客舘東軒(瀛洲館) / 李慶億 …… 244
瀛洲舘 / 李元鎭 …… 245
尊敬閣 / 金尙憲 …… 246
延曦閣 / 崔啓翁 …… 247
延曦閣 / 鄭　曙 …… 248
延曦閣 / 李元鎭 …… 249
延曦閣 / 沈樂洙 …… 251
延曦閣 / 沈　演 …… 252
弘化閣 / 崔海山 …… 253
弘化閣 / 金泰廷 …… 254
弘化閣 / 李約東 …… 255
觀德亭 / 趙士秀 …… 256
觀德亭 / 李約東 …… 257

觀德亭 / 金　緻 …… 258
觀德亭 / 金壽翼 …… 259
觀德亭 / 李希雍 …… 260
觀德亭 / 閔　暉 …… 261
觀德亭 / 沈　演 …… 262
觀德亭 / 沈連源 …… 263
次濟州觀德亭韻 / 金聲久 …… 264
觀德亭 / 金錫哲 …… 265
觀德亭 / 金尙憲 …… 266
觀德亭 / 李民宬 …… 267
觀德亭 / 鄭麟趾 …… 268
觀德亭 / 李元鎭 …… 269
望京樓 / 金永綏 …… 270
望京樓 / 洪重徵 …… 271
望京樓 / 李元鎭 …… 272
友蓮堂 / 李元鎭 …… 273
愛梅軒 / 李翊漢 …… 274
愛梅軒 / 李元鎭 …… 275
愛梅軒 / 金泰廷 …… 276
延敎亭 / 金　俶 …… 277
拱辰樓 / 李元鎭 …… 278
拱辰亭 / 申　纘 …… 279
演武亭 / 李源達 …… 280
演武亭 / 李元鎭 …… 281
運籌堂 / 李元鎭 …… 282
次鄕社堂沈牧使演韻 / 李衡祥 ‥ 283
瀛陽館(旌義客舍) / 李慶億 …… 285
瀛陽館(旌義客舍) / 林亨秀 …… 286
次旌義縣板上韻 / 李衡祥 …… 287
旌義題詠 / 林　悌 …… 288
旌義題詠 / 柳思瑗 …… 289
瀛陽館(旌義客舍) / 金尙憲 …… 290
日觀軒 / 南　漢 …… 291
日觀軒 / 李羽晋 …… 292
倚斗亭(依斗亭) / 李禮延 …… 293
倚斗亭 / 李　熙 …… 294
靈泉館 / 李約東 …… 295
大　靜 / 金穎達 …… 296
大　靜 / 金應南 …… 297
瀛安舘 / 李翊漢 …… 300
大　靜 / 沈　演 …… 301
大　靜 / 李元鎭 …… 302
次鄭桐溪韻 / 李翊漢 …… 303
潤經堂 / 南壽賢 …… 304
次板上韻 / 李益泰 …… 305
題壁上 / 安　塾 …… 306

○ 防護所

禾北鎭 / 朴成珩 …… 308

禾北鎭 / 金　俶 …… 309
禾北鎭 / 宋載恒 …… 310
朝　天 / 趙誠立 …… 311
朝天所 / 金尙憲 …… 312
朝　天 / 李民宬 …… 313
朝　天 / 睦長欽 …… 314
朝　天 / 李元鎭 …… 315
朝　天 / 鄭　岦 …… 316
戀北亭春帖子 二首 / 金尙憲 …… 317
戀北亭 / 趙誠立 …… 319
戀北亭 / 李　選 …… 320
別防鎭 / 金　俶 …… 321
別防所 / 沈　演 …… 322
別防所 / 李元鎭 …… 323
首山城 / 李元鎭 …… 324
水山廢城 / 金尙憲 …… 325
西歸所次壁上韻 / 金聲久 …… 326
西歸所次壁上韻 / 金聲久 …… 327
遮歸鎭 / 金尙憲 …… 328
遮歸城 / 李元鎭 …… 329
次板上韻(遮歸鎭) / 李益泰 …… 330
遮歸防護所 / 林亨秀 …… 331
遮歸鎭次林節制韻 / 柳思瑗 …… 332
遮歸鎭次林節制韻 / 金忠烈 …… 333
涯月鎭 / 李翊漢 …… 334
涯月所 / 李元鎭 …… 335
明月鎭 / 沈　演 …… 336
明月所 / 李元鎭 …… 337
明月鎭 / 李翊漢 …… 338

○ 長篇詩

耽羅詞 / 崔　溥 …… 340
毛羅歌 / 金宗直 …… 374
補毛羅歌敬次佔畢齋韻 / 金尙憲 … 389
壯觀篇 / 金尙憲 …… 398
補毛羅歌 幷序 / 南九明 …… 407
重補毛羅歌 / 南九明 …… 422
又補毛羅歌 / 南九明 …… 436

시인소개 …… 451
찾아보기 …… 475

一

題　詠

- 濟　州(제주도)
- 老人星(남극성)
- 民　俗(풍속)
- 物　産(특산물)
- 古　蹟(고적)

毛羅地圖

肅宗大王

邈在窮溟號毛羅　　茫茫巨海杳無涯
品奇橘柚同仙果　　歲貢驊騮駿種多

탁라지도

멀리 아득한 물가의 탁라라는 나라에는
넓은 바다 망망하여 가볼 수 없네
선과인 귤유는 품종이 기이하고
해마다 바쳐오는 말 중에는 준마도 많았네

【글자풀이】 • 毛羅 : 제주의 옛 이름, 제주를 東瀛洲, 州胡國, 涉羅, 耽牟羅, 儋羅, 耽浮羅, 耽羅 등으로 때와 나라에 따라 달리 불리워졌다. 毛자는 자전에 없는 글자이다. 송나라때 안홍(安弘)의 글에 屯羅라는 나라 이름이 나온다. 몽계필담(夢溪筆談)에서는 毛羅의 오기라 하였다. 점필재(拈畢齋) 선생의 탁라가가 지어진 뒤에 많이 쓰여졌다. • 邈 : 멀 막, 아득할 막, 지초 막. • 杳 : 아득할 묘, 깊을 묘. • 驊 : 준마 화. • 騮 : 검은 갈기에 붉은 말 류. 驊騮馬는 주나라 穆王이 탔던 팔준마(八駿馬)의 하나. 여기서는 임금님이 타는 말을 뜻함. • 駿 : 큰 말 준.

崇岳連天尺不盈　　知非浪得漢拏名
五雲多處仙人降　　白鹿潭邊白鹿鳴

높은 산은 하늘에 닿아 재일 수 없어
은하수를 잡을 수 있다 함이 진실임을 알겠네
오색 구름 짙은 곳엔 신선이 내려 오고
백록담 가에는 신선이 타는 흰사슴도 울지

耽　羅

柳得恭

三乙那城瘴霧開　　耽津江口峭帆廻
厥初還有毛興穴　　何必他人袴下來

탐라

삼을나성에 장기 어린 안개 걷혔는데
탐진 강구에 높은 돛대 돌아들었네
처음에 모흥혈에서 태어났는데
어째서 타인의 사타구니 밑을 지나는지

【글자풀이】 • 瘴 : 장기 장. • 峭 : 산높을 초. • 袴 : 사타구니 과, 바지 고. • 厥初 : 태초. • 毛興穴 : 태초에 삼을라가 태어났다는 곳 지금의 삼성혈. • 袴下來 : 高淸, 高厚와 막내 삼형제가 신라에 입조하여 왕의 사타구니 밑을 지나갔다는 전설을 인용한 말.

耽羅題詠

趙泰采

水國蒹葭雲夢暮　　山城橘柚洞庭秋
石墻板屋民居僻　　異服殊音客子愁

탐라제영

섬나라 우거진 갈대 저녁 마을에 저물고
성 밖 유자는 절경을 이루고
돌담집에 어렵게 사는 백성들이여
갈옷에 사투리 나그네의 수심일세

耽羅題詠

徐居正

地連仙島人居勝　　貢入天朝物産饒
名驥已過宛騶褭　　香柑絶勝漢葡萄

탐라제영

땅은 신선의 섬과 이어져서 사람 살기 좋아
임금님 조정으로 넉넉히 공물 바쳐오네
유명한 천리마는 대완국의 요뇨보다 낫고
향기 있는 밀감은 한나라의 포도보다 더 좋네

【글자풀이】 • 요뇨(騶褭)는 옛날 양마(良馬)의 이름.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신마(神馬). 『후한서』에 "飛兎騶褭 絶足奔放", 『회남자』에 "待騶褭飛兎而駕之 則世莫乘車"라고 하였다. • 驥 : 천리마 기. • 宛 : 나라이름 원. 원나라에서 말이 전해졌다고 함. • 香柑 : 향기로운 유자. • 漢葡萄 : 포도는 한나라 때 서역에서 전하여졌다.

【참고】 본 시는 送濟州牧使 金同年시(228쪽)에서 기구와 승구를 뽑아 제영으로 삼아 전인의 시로 탐라지에 등제되어 있어서 그대로 옮겼다.

耽羅題詠

李承召

俗似朱陳民易使　　地如幽冀馬多良
桑麻雨足家家喜　　橘柚霜濃樹樹香

탐라제영

풍속이 주진과 같아 백성들을 다스려 부리기 쉽고
땅은 유주·기주와 같아 천리마가 많이 나네
뽕나무밭 삼밭에 비가 흡족하여 집집마다 기뻐하고
귤밭에 서리가 짙게 내리면 나무마다 좋은 향기

【글자풀이】 • 주진(朱陳)은 중국의 마을 이름. 주(朱)씨와 진(陳)씨가 한 마을을 이룬 고사에서, '양가(兩家)가 대대로 혼인함'을 이르는 뜻으로 "주진지호(朱陳之好)"라고 하였다(최부 탐라사 9번째 수 참조). • 유(幽)와 기(冀)는 중국 고을의 이름이다.

耽羅題詠

徐居正

雪滿花間鳴翠鳥　　霜深籬落熟黃柑
雲開蓬島鰲岑近　　日出扶桑海氣涵

탐라제영

눈 쌓인 꽃 사이로 우는 물총새
울타리에 떨어지는 서리맞은 노란 밀감
구름이 걷히면 봉래섬의 산과 가깝고
가득한 바다 기운에 부상에 해가 뜬다

【글자풀이】 • 봉도(蓬島) : 신선이 알고 있는 해도(海島)로, 봉래산(蓬萊山)의 이칭이다. • 오잠(鰲岑)은 큰 바다거북이 등에 지고 있다는 해도(海島). • 鰲 : 봉래(蓬萊) · 방장(方丈) · 영주(瀛洲)의 삼신산을 등에 지고 있다는 상상의 동물인 큰 바다거북을 뜻한다(93쪽 열자 탕문편 참조). • 부상(扶桑) : 전설에서, 동해 속에 있다는 신목(神木). 또는 그 신목이 있는 나라를 뜻한다. 『山海經 · 海外東經』에 "湯谷之上 有扶桑十日所浴" 라고 하였다.

濟州有吟

金應南

瀛海漫天未見涯　　蓬山東去路非賒
瑤臺笙鶴月明夜　　開盡碧桃千樹花

제주에서

영주의 바다는 하늘까지 질펀하여 끝을 볼 수 없고
동쪽으로는 봉래산과 거리가 멀지 않구나
달 밝은 밤 요대에 피리 부는 신선 학을 타고 날아들고
천그루 복숭아 나무에 꽃이 만발한 곳

【글자풀이】 • 漫 : 아득할 만, 가득할 만, 물질펀할 만. • 瀛海 蓬山 : 93쪽 한라산시 열자 탕문편 참조. • 賒 : 멀 사, 오랠 사, 세낼 사. • 瑤臺 : 91쪽 김치의 한라산시 참조. • 笙鶴 : 427쪽 남구명의 증보탐라가 王喬 참조. • 碧桃 : 신선이 먹는 과실. 이 과일을 하나 먹으면 천년을 산다고 한다.

小　乘

林　悌

鯨海茫茫接太虛　　一州民物寄浮苴(藁)
漢拏峯頂雲霞古　　星主村邊草樹荒(疎)
園果最稱金色橘　　盤飧多用玉頭魚
木桶汲泉女兒負　　家家築石作門閭

제주의 풍물을 간략하게 씀

아득한 거친 바다 하늘에 닿아 있고
이 고을 백성과 문물은 연꽃에 붙어있는 듯한
한라산 정상엔 구름 안개 고상하고
성주가 살던 마을엔 풀 나무 앙상하다
나랏 과원에서는 금빛 귤이 일품이며
반찬은 옥돔을 많이들 좋아한다
여인은 나무통으로 물을 길러 나르고
집집마다 돌을 쌓아 골목길 만들었네

【글자풀이】 • 小乘 : 간략하게 쓴 풍물이라는 뜻. • 苴 : 마름풀 저, 浮苴는 떠 다니는 해초. 여기에서는 미역을 뜻함인 듯. • 星主村 : 성주는 고대 제주의 군장(君長), 이들이 살던 마을, 토박이가 살던 마을. • 玉頭魚 : 제주특산인 옥돔. • 門閭 : 제주에는 바깥대문이 없고 울담을 돌을 쌓고 출입하는 곳을 대문으로 삼았다. 이를 올레라 부름.
【참고】 苴자는 藁, 荒자는 疎자의 오서인 듯.

擬見老人星雲暗不果

李源祚

今行全爲宿巖扃　　偶値秋宵佇見星
靈躔咈我忱誠薄　　故閃雲旂隱丙丁

노인성을 보려다 구름에 가려 보지 못하고

이번 나들이엔 다 바위 틈에서 잠을 자며
가을 밤 별(老人星) 만나길 기다리는데
신령스런 별자리는 나의 정성을 박하게 여겨
구름 속에서 번쩍하고는 병정방으로 숨는다

【글자풀이】 • 扃 : 빗장 경. • 宵 : 밤 소. 작을 소. • 佇 : 기다릴 저. 잠깐 머무를 저. • 躔 : 별자리 전. • 咈 : 어길 불(拂과 통합). • 閃 : 번쩍할 섬. 언뜻볼 섬. • 旂 : 쌍용그린기 기. • 老人星 : 南極星. 壽星. 老人星이라고도 부른다. 이별을 보면 장수한다고 함. 제주도 한라산 남쪽에서만 볼 수 있다. • 丙丁 : 남쪽 방위. 정남방인 午方의 양옆 방위. 이 방위에 노인성이 보인다고 함.

宿西歸鎭曉見老人星

李源祚

鷄宵鎭吏候門屛　　宿雨纔晴現極星
箕分衡岳遙相望　　天爲吾東錫萬齡

서귀진에 머물렀다가 새벽에 노인성을 보다

닭 우는 새벽 진리가 문 앞에 와 문안 드리길
내리던 비 겨우 개어 남극성이 보인다고
기성(箕星)은 형산에서 아득히 바라다 보이는데
하늘이 우리 나라에만 오래 사는 별 내리었네

【글자풀이】 • 西歸鎭 : 서귀진 방호소(防護所). 제주 정의현에 딸린 조방장(助防將)이 지키는 진. • 門屛 : 대문 안에서 밖을 가리는 나무나 담장. • 極星 : 南極星. 노인성, 수성(壽星)이라고도 부름. • 箕分 : 기성의 분야(分野). • 錫 : 줄 석. • 萬齡 : 많은 나이나(長壽), 여기서는 장수를 주관하는 별. 즉, 노인성을 뜻함(27쪽 참조).

老 人 星

張寅植

何事明從只一方　　不如垂像普呈祥
偶然薄官來南國　　恨未餘輝照北堂
半夜仰看旌義外　　中天隔在漢拏陽
願將此宿壽民後　　移入紫微長放光

노인성

무엇 때문인지 한 지방 만을 골라 비춰줌은
상서로운 빛을 고루 드리워 주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우연히 남쪽 나라에 천박한 관리가 되어 온 뒤로
그 별빛이 북당에 비춰주지 않음이 한탄하네
한밤중 정의성 밖에서만 볼 수가 있게
넓은 하늘을 한라산이 가리워 놓았네
원컨대 이 별이 백성들을 오래 살게한 뒤에
자미궁으로 옮겨 가서 길이 빛을 드러냈으면

【글자풀이】 • 老人星 : 27쪽 참조. • 薄官 : 천박한 관리. 작자 스스로를 낮추어서 쓴 말. • 北堂 : 종묘나 가묘에 신주를 모신 곳. 주부가 거처하는 곳. 어머니. • 旌義 : 조선시대 제주 세 고을 중의 한 고을. 한라산 남쪽인 이 곳에서 노인성을 볼 수 있음. • 漢拏陽 : 한라산 남쪽. 산의 남쪽을 陽이라 함. • 此宿 : 이 별. 즉, 노인성. • 紫微 : 北斗의 북쪽에 있는 별이름. 천제(天帝)가 거처하는 곳. 여기서는 임금님이 계신 서울의 궁궐을 뜻함.

老 人 星

金尙憲

离極靈星在　　狐南號舊仍
曉望疑破月　　昏見奪明燈
王道占享運　　人家賀壽徵
衡山與漢峀　　此外見無曾

노인성

남극에 있는 신령스런 별
호성 남쪽에 이름은 예와 같아
새벽엔 달 조각만해 보인고
저녁엔 밝은 등불을 빼앗은 듯
왕도가 형통한다고 점을 치고
인가에서는 장수하는 징조라 하고
횡산과 한라산에서 말고는
일찍부터 딴 곳에선 못보는 별

【글자풀이】 • 离極 : 离는 남쪽 이극은 즉 남쪽. • 狐南 : 狐는 낭(狼) 즉 낭성(狼星)의 남쪽. • 漢峀 : 한라산. • 衡 : 중국의 횡산, 오악의 하나.

小 樂 府

李齊賢

都近川頹制水防　　水精寺裏亦滄浪
上房此夜藏仙子　　社主還爲黃帽郎

소악부

도근천에 물막는 제방이 무너져
수정사 안에도 또한 푸른 물결
오늘 밤도 상방엔 신선(뱃사람)이 숨겨져 있으니
절 주인이 도리어 황모랑이 되었네

【글자풀이】 • 小樂府 : 한나라 때에 韻律을 관장하던 관청. 후세에 와서 민간에 전하는 가락을 채집하여 보존하는 시를 악부라 했음. 여기서는 시골 백성들의 뜻을 대신하여 부른 노래라는 뜻으로 시의 제목을 삼았다. • 水精寺 : 도근천 부근에 있던 절. • 黃帽郎 : 한나라 때에 배를 관장하던 벼슬. 林白湖의 送郎曲에 黃帽催行이라 하였음을 보면 배를 관장하는 사람 또는 벼슬아치인 듯하나 출전을 상고하지 못하였다. 전구의 仙자는 船자의 오식인듯.

從敎瓏麥到離披　　亦任丘麻生兩枝
滿載靑瓷兼白米　　北風船子望來時

보리는 두둑에 넘어져 이리 저리 흩어졌고
삼은 언덕에 자라 가지가 갈릴 때에
청자와 백미를 가득 실은 배를
북풍 타고 뱃사람이 오기를 기다린다

【글자풀이】 • 瓏 : 두둑 롱, 언덕 롱. • 離披 : 이리 저리 흩어진 모양, 꽃이 활짝 핀 모양.

風　土

申光洙

久我南中客　　頗於土俗詳
方言多細急　　民姓半高良
只見蜂房石　　虛聞馬尾裳
北人如問事　　歸作話頭長

제주의 풍속과 자연

내가 오래도록 남쪽의 손이 되어 있어
자못 지방 풍속을 자세히 알았네
사투리는 조금 가늘고 다급하며
백성들의 성씨는 고씨 양씨가 태반일세
벌집 같은 돌은 볼 수 있으나
말꼬리 치마는 헛소문이었네
육지 사람들이 만약 이 일을 묻는 다면
돌아가서 말(言)꼬리가 길어지겠네

【글자풀이】 • 高良 : 고씨와 양씨는 良으로 쓴때가 있었다. • 蜂房石 : 제주의 돌의 거의 벌집같이 작음 구멍이 뚫려있으므로 지어 붙인 이름. • 馬尾裳 : 제주에는 말(馬)이 많아서 말꼬리로 천을 짠다고 육지에 전해졌다.

觀橋來村田臘

李衡祥

將軍行獵四官偕　　傍海登山棨戟迷
天際淡玄垂障簇　　斗南層翠落提携
驚駒潰陣千兵合　　走獸投林萬馬齊
相橘滿筐冬栢好　　打圍從古最吾濟

관교래촌전렵

장군이 전렵을 나서니 사관이 함께하여
기극이 희미하게 바닷가 산으로 오른다
장족은 하늘 끝 가득한 곳에 드리워졌고
몰잇꾼은 두남의 푸른 산 중턱을 달린다
놀란 망아지 진을 헤칠제 모든 군사들이 모여들고
달리는 짐승 숲으로 뛰어들제 기병이 가즈런히 따른다
감귤을 따 광주리에 담고 동백꽃 피는 시절
에워 싸는 일 옛부터 우리 제주가 으뜸일세

【글자풀이】 • 將軍 : 제주목사. • 四官 : 향청(鄕廳)과 삼반(三班 : 吏, 戶, 兵房)을 뜻함인 듯하나 출전 미상. • 棨 : 창틀 계. 棨戟은 의장용 기구의 하나. 창모양으로 만들어 비단으로 장식하여 관리가 출정할 때 앞에 들고 가던 것. • 層翠 : 층계진 산 중턱 翠는 翠徵(산꼭대기에서 조금 내려 온 곳, 중턱)를 줄여 쓴 말로 보아야할 듯함. • 障簇 : 障은 장지(屛)簇은 簇子(呈才 : 때 쓰던 儀仗具의 한가지). 의장구를 즐비하게 세워 놓은 것. • 提携 : 손을 맞잡음. 서로 도와줌. 여기서는 사냥할 때의 몰이꾼. 즉 보군(步軍).

耽羅十謠

李源祚

淸晨郭四門　牧童嘯且呼
君家十烏牸　我家雙白駒
物性尙愛群　出入與之俱
張稻與李麥　愼勿輕踐蹂
相携下山椒　今年多廢疇
－放牧

탐라십요

아침 네 곳 성문에는
목동이 휘파람으로 부르는 소리
저 집의 검은 암소 열마리와
이 집의 흰 망아지 두 마리를 합쳐
동물들은 무리짓기를 좋아함으로
나가고 들어가기를 함께 한다
장가네 산도밭과 이가네 보리밭을
밟아버리지 말게 조심해야지
줄줄이 산 밑으로 내려오면은
금년 농사 망치는 밭 많으리니
－ 가축을 놓아 기름

【글자풀이】 嘯且呼 : 소리로 부르면 우마가 놀랄까봐 목동들은 휘파람으로 서로 신호한다.
牸 : 암소 자. 駒 : 망아지 구. 蹂 : 밟을 유. 椒 : 산이마 초, 후추 초. 稻 : 山稻, 밭에 심는 벼.

島田多犖确　　犖确又浮燥
不踏苗不生　　愈踏苗愈好
倘微爾馬牛　　人力不勝草
富者自有屯　　貧者賃以布
但願播種後　　十日不下雨
－ 踏田

섬 안 밭에는 돌 자갈이 많은데
돌 자갈이 많은 밭엔 습기가 없어
밟아주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고
밟아줄수록 더욱 싹이 잘 나므로
아마도 저 말과 소가 아니면
인력으로는 풀을 이기지 못하리라
부잣집이 가진 말떼를
가난한 이는 옷감을 주고 빌려다
씨뿌려 밟은 뒤에 바라는 것은
열흘 동안만 비가 오지 말았으면
－ 말떼로 밭을 밟음

【글자풀이】 犖 : 밟을 락, 얼룩소 락, 犖确은 산에 바위가 많은 모양. 确 : 돌자갈 땅 학. 燥 : 마를 조, 물끼없을 조. 倘 : 아마 당, 문득 당, 어이없을 당. 屯 : 모일 둔, 둔전 둔, 제주에서는 여러 집 말을 모아 무리지어 먹이는 일을 둔 짓는다고 한다. 또 그 대표자를 둔주라고 한다.

上品一易田　　十畝價百鏹
粟頭纔出殼　　粟傍草已長
大鉏鉏其土　　除草易反掌
小鉏僅如鉤　　拔草苗不傷
土性本如此　　島農功倍常
- 除草

한결같이 손질된 상품의 밭은
열 이랑에 일백 꿰미 돈을 주어야
서속 싹머리에 껍질이 겨우 벗겨질 즈음
주위엔 이미 자란 풀은
큰 호미로 흙을 호미질 하여
손바닥을 뒤집 듯 풀을 뽑는데
갈고리 만한 작은 호미로
묘가 상하지 않게 풀을 뽑아야 하니
이와 같은 흙의 성질 때문에
섬 농사꾼은 갑절이나 일을 하여야
- 김매기

【글자풀이】 • 除草 : 제주에는 서속이 주곡인데, 서속보다 풀이 먼저 자라므로 한 달 사이에 세 번 김을 메어 주어야 한다. 갈고리만한 작은 호미로 곡식 싹이 상하지 않게 뽑는다. 검질멘다고 함. • 易 : 다스릴 이, 흔하게 여길 이. • 鏹 : 돈꿰미 강. • 殼 : 껍질 각. • 鉏 : 호미 서. • 鉤 : 갈구리 구, 곱창 구.

纍纍山海間　　人少而石多
多石雖費力　　無石又奈何
牛馬不蹊田　　鷄豚各守囲
燒畬遍北邙　　緣莎護蓬科
築築復築築　　一行一拳加
　　– 築場

산과 바다에 겹겹이 쌓여져
사람은 적은데 돌은 많으니
돌이 많아 힘들기는 하지만
돌이 없다면 또 어떠할까
소와 말은 밭으로 넘어들지 않고
닭 돼지를 우리 지어 놓을 수 없으니
북망산과 화전은 물론 많은 무덤들까지
푸른 잔디 더부룩이 덮인 곳에도
쌓고 쌓고 또 쌓은 것은
주먹만한 것을 한 줄에 올려 놓은 것
　　– 담을 쌓음

【글자풀이】 • 纍 : 겹쳐쌓여진 모양 류, 서로 잇다은 모양 류, 죄 류, 가둘 류. • 囲 : 세후릴 와(誘禽鳥卽今鳥媒). • 燒 : 들불 소 • 畬 : 따비밭 여. • 莎 : 비빌 사, 잔디 사. • 蓬 : 더부룩할 봉. • 遍北邙 :밭 가운데 무덤에도 돌로 담을 쌓았다는 뜻.

誰敎爾爲州　　四面環以海
非不念乘危　　此中生理在
大船力未贍　　槎船易釣採
長杠縛爲筏　　泛泛一竿載
幸免風日惡　　猶自唱款乃

– 槎船

누가 이 곳을 고을이라 하였는고
사면이 모두가 바다인 것을
떼배를 타면 위태로운 생각 없지 않으나
이 속에 살아나갈 길이 있으므로
큰 배 마련에는 힘이 넉넉치 못하고
떼배는 쉬이 낚고 캘 수 있으니
긴 깃대를 떼에 묶고선
둥둥 삿대 하나로 실어가네
다행히 거친 바람 편하는 날이면
자연히 노 젓는 소리 흘러나오기도

– 떼배

【글자풀이】 • 槎 : 떼 사(桴), 제주에서는 테우, 테위라 부름. 떼의 몸채가 이층으로 되었음. • 贍 : 넉넉할 섬. • 杠 : 깃대 강, 외나무다리 강. • 筏 : 떼 벌. • 款乃 : 노젓는 소리.

春磨聲正苦　　月夜起四隣
如歌復如哭　　切切怨何人
商販屢失利　　瘠土無饒民
夫壻宿他家　　嬴馬付他屯
朝朝乞米來　　辛苦女子身

– 春磨

정말 괴롭게 들리는 맷돌 소리여
달 밝은 밤 온 이웃에 들리나니
노래를 부르는 듯 곡을 하는 듯
절절함은 누구를 원망함인고
여러 차례 장사에 이익을 못 보고
척박한 땅은 배부를 길 없어
남편과 사위는 남의 집에 잠을 자고
풀어 놓은 말은 남의 떼에 붙혀졌으니
아침마다 쌀을 얻어 와야하는
여자의 몸은 괴롭기만

– 맷돌질

【글자풀이】 • 舂 : 방아찧을 용, 舂磨는 맷돌, 제주에서는 정고래라 부름. 舂磨聲은 맷돌을 돌리며 부르는 노래. • 屯 : 모이 둔, 제주에서는 여러 집 말 50~60필 정도 모아 방목하는 것을 둔친다고 함. • 嬴 : 풀어놓을 영, 嬴馬는 집에 꼴을 주어 먹이던 말을 청명절 부터 방목함.

女人不知戴　　頭閑身不閑
擔重背如傴　　路險履又艱
氈氈短衣裳　　那有好容顔
含羞向隣嫗　　一勺倩人刪
歸來洗破釜　　剛被小姑訕

– 汲筩

여인들은 머리에 이고 다닐 줄 모르니
머리는 한가하나 몸은 한가하지 못하네
짐이 무거워 등은 굽혀야 하니
험한 길은 밟기가 어렵도다
구겨진 저고리와 몽당치마를 입었으니
어느 겨를에 얼굴 치장을 하겠는가
이웃 늙은이 보고도 부끄러워 하니
한 모금의 물도 사람을 빌려야 하네
돌아와서는 깨어진 솥을 씻어야
바야흐로 나무람을 적게 듣는다네

– 허벅

【글자풀이】 筩 : 대통 통, 전통 통(箭筩), 汲筩은 제주지방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옹기그릇, 방언으로 허벅이라 부름, 입이 작아 병과 같이 생겼으나　傴 : 곱추 구, 구부릴 구. 嫗 : 할미 구, 여자 구. 倩 : 빌 천. 倩人은 사람을 고용함. 刪 : 정할 산(定), 깍을 산. 訕 : 나무랄 산, 비방할 산.

家家凉竹板　　織凉如織布
一日斷一立　　十日商船付
商人負債歸　　何以納糶賦
細嫩反無用　　踈統世所取
寄語島陸人　　盡爲奢侈誤

– 織凉

집집마다 양대 짜는 판을 놓고
베를 짜 듯 양대를 짜네
하루에 한 장씩 짜내어
열흘만에 장삿배에 부쳐보내면
장삿치는 진 빚을 받아버리니
환곡을 어떻게 갚아야 할는지
가늘고 고운 것을 쓰지 않고
성긴 것을 모두 다 찾아 쓰네
섬과 육지 사람들께 이르노니
모두를 사치라 함은 잘못된 일이라고

– 양태를 짬

【글자풀이】 • 양대(凉臺, 凉台, 凉太) : 대오리로 짠다. • 糶 : 쌀 팔 조자인데 여기서는 환곡(還穀)을 뜻함, 환곡을 조적(糶:꿔 줌, 糴:받아들임)이라 하였다. • 嫩 : 고을 눈, 細嫩은 명주실(純) 즉 명주실로 짠 검소한 갓. • 踈統 : 마면(麻冕), 삼베로 짠 관, 견고하지 못하여 사치스러운 관, 細嫩踈統은 論語 자한편-麻冕이 禮也어늘 今也純하니 儉이리 吾從衆하리라-의 뜻.

潛女彼亦人　　赤身泅滄溟
前身是鮫魚　　謫罰龍王庭
尺布纔掩骭　　腥髮已如星
不嫌容貌惡　　惟喜漁採盈
歸家夫怒何　　利薄恩愛輕
　　– 潛女

잠녀들도 또한 사람인데
빨간 몸으로 넓은 바다를 헤엄치네
전생에 인어인 몸이
벌을 받고 바다에 귀양온 듯
짧은 천으로 갈비뼈를 감싸고
머리털이 붉기는 이미 별과 같은데
용모가 거치러짐을 꺼려하지 않고
기꺼이 고기잡고 해초 캐네
돌아가서 남편이 노하면 어떻게 할까
이익이 적으면 사랑이 가벼워질 것을
　　– 잠녀

【글자풀이】 潛女 : 潛婦, 해녀. 鮫 : 인어 교, 상어 교. 龍王庭 : 용왕의 뜰, 바다를 뜻함. 泅 : 헤엄칠 수. 骭 : 갈빗대 한. 정강이뼈 한.

生女願爲妓　　始免短布裳
使君一顧眄　　粉黛生輝光
中廳與四學　　各自喜入房
候風別刀館　　人情不可常
新者更修餚　　舊者暗悲傷

– 房妓

딸을 낳으면 기생되길 원함은
그래야 비로소 몽당 치마를 면하기 때문
사또가 한번 곁눈질하면
화장한 얼굴에 생기가 감돌며
중군의 각 청과 네 곳 학관에
제각기 스스로 방에 들길 좋아하고
바람을 기다리는 별도포에
사람의 정리가 한결같지 않아
새로 오는 이에겐 잘 꾸며 보이면서
옛 사람에겐 남몰래 슬픔 품어

– 수청드는 기생

【글자풀이】 始免 : 품음을 면한다. 젖을 뗀다는 뜻. 眄 : 곁눈질할 면. 黛 : 눈썹그릴 대. 中廳 : 중군(中軍)이 거느린 이방(吏房), 호방(戶房), 병방(兵房)등의 각 청. 四學 : 동서남북 네 곳의 학당.

潛女歌

申光洙

耽羅女兒能善泅　十歲已學前溪游
土俗婚姻重潛女　父母誇無衣食憂
我是北人聞不信　奉使今日南海遊
城東二月風日暄　家家兒女出水頭
一鍬一笭一瓠子　赤身小袴何曾羞
直下不疑深靑水　紛紛風葉空中投
北人駭然南人笑　擊水相戲橫乘流
忽學鳧雛沒無處　但見瓠子輕輕水上浮
斯須湧出碧波中　急引匏繩以服留
一時長嘯吐氣息　其聲悲動水宮幽
人生爲業何須此　爾獨貪利絶輕死
豈不聞陸可農蠶山可採　世間極險無如水
能者深入近百尺　往往又遭飢蛟食
自從均役罷日供　官吏雖云與錢覓
八道進奉走京師　一日幾駄生乾鰒

金玉達官庖　　綺羅公子席
豈知辛苦所從來　　纔經一嚼案已推
潛女潛女　　爾雖樂吾自哀
奈何戲人性命 累吾口腹
嗟吾書生　　海州靑魚亦難喫
但得朝夕一薤足

잠녀가

탐라의 여자들은 잠수질을 잘하여
열살 때부터 앞내에서 헤엄치기를 배운다
이 지방 풍속은 혼인에도 잠수를 중히 여기며
부모는 의식걱정 없다고 자랑을 한다는 말을
나는 북쪽 사람이라 듣고 믿지 않았더니
이제 왕사가 되어 남쪽 땅에 와서 직접보니
따뜻한 이월 날씨 성동쪽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여인들이 물가로 나간다
비창 하나 망사리 하나 테왁 하나

소중이에 알몸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고
깊고 푸른 물로 의심치 않고 바로 내려가
날리는 낙엽처럼 공중에 몸을 던지니
북쪽 사람은 놀라워 하는데 이 곳 사람은 빙긋이 웃어
장난으로 물장구치며 물줄기를 마음대로 타기도 하고
문득 오리 새끼 같이 잠기어 간 곳 모르네
다만 가벼이 떠있는 테왁만 보인다가
잠깐 뒤 푸른 물결 위로 솟구쳐 올라
다급히 테왁 줄을 당겨 품고 머물러
길게 휘파람 불어 숨을 한번 토해 낼 제
그 소리 처량하여 물귀신도 감동시킨다
사람이 어찌 이 같은 일을 생업으로 삼아
그대는 이익을 탐내어 죽음을 가벼히 여기는가
어찌 육지에서는 농사 짓고 길쌈하며
산에서 나물 캔다는 말 듣지 못하였는가
세상에서 가장 험난함은 물과 같은 곳이 없는데
능숙한 이는 백척 가까이 깊이 들어갔다가
왕왕 주린 교룡에게 잡혀 먹히기도 한다는데
균역법에 따라 날마다 관에 받치는 일은 없고

관리들은 비록 돈을 주고 사들인다 말하지만
팔도에서 짐봉하여 서울로 올려보내는 것이
생 전복 말린 전복 하루에도 몇 바리인가
금옥 같은 높은 관리의 푸주간
기라성 같은 귀한 이들이 앉은 자리에서
어찌 알리요 이 전복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괴로움을 겪어 왔는지를
겨우 한 번 씹어보고 상을 물린다
잠녀여 잠녀여
그대들은 비록 즐겁다 하나
나는 슬프구나
어찌 사람의 목숨을 노리개로 여겨 배를 채우는가
아! 우리 선비들은 해주의 청어도 맛보기 어려워
다만 끼니마다 부추나물만 있어도 충분한데

【글자풀이】 • 泅 : 헤엄칠 수. • 해 : 염교 해. 해초의 이름. • 暄 : 따뜻할 훤. • 鍬 : 가래초 一鍬는 잠녀가 전복을 따내는 도구. 비창이라 한다. • 笭 : 一笭은 잠수들이 따낸 물건을 담는 노끈으로 짠 그릇. 망사리라 부른다. • 一匏 : 잠수들이 물위에서 몸을 의지하는 큰 박. 태왁이라 부른다. • 小袴 : 잠수들이 물질할 때 입는 옷. 소중이라 부른다. 라고(螺袴)라고도 쓴다. • 均役 : 均役法. 정조 때 시행되었던 조세법. • 㞑 : 물오리 부. • 雛 : 병아리 추.

潛水女歌三十九韻

作者未詳*

我見島中潛水女　　未老髮黃黃而赤
女艻不知稼穡艱　　不稼胡取禾黍稷
女艻不知紡績利　　不績安得布與帛
身上之衣腹中飡　　門前有海海有錯
海有錯艻(兮)海無底　　不遊不泳何由得
女生年纔十四五　　乘水出沒惟母學
身如習鳥數數飛　　狀如浮鴨雙雙浴
生斯長斯慣於水　　不泊風濤怒打石
久久成習漸入深　　簸手弄脚凌波碧
李娘張娘呼作伴　　日出出浦候潮落
百結繩橐掛在腰　　數幅短褌(褌)不掩骼
鬖鬆難髮束爲髻　　對人不羞路赤脚
潮退風靜波如鏡　　底頭直下三千尺
沒入不見令人疎　　渺如滄海投一粟

水府空闊淸見底　　于于可數(?)三百
万狀魚目炯如燈　　千仞石角巉似戟
中有甲虫露甚背　　手裡尺鐵風生力
左視右視如毫察　　大者小者如葵摘
一身裸程輕似葉　　万頃玻瓈踏如陸
稜稜厚殼迎仞(刃)落　　騁目耽耽手勢熟
有時聳身劈浪出　　大瓢當胸氣喘促
一嘯?歇旋入水　　盈筐及筥猶不足
盛夏只偸晝兩閒　　隆冬不避寒雪積
輕舟一片滿載歸　　亂唱棹歌鼓(舟)人擊
且待商船通貨財　　勤苦只爲資衣食
使渠身服西疇事　　瘠田可以生百穀
使渠手執紅女工　　一日何難一匹織
以(?)若披勤移斯二　　一生何患生涯薄

何乃出入危險地　　勞筋苦骨反爲樂
如令手脚失一着　　一髮之危在頃刻
且聞水族多怪奇　　安知不遇鴻罹厄
中有一瓢泛泛影　　岸上觀者亦凜惕
君看南畝把鉏女　　夏畦雖勞冬則息
九月等場納禾稼　　煖堗浹灯坐以績
君看機上當窓女　　十指雖動手如玉
織成剪出裁衣裳　　首不飛蓬顔粉白
何必捨安西(堵)就危　　四時汨汨充其腹
且況裸體非女行　　何不業本移習俗
潛水之女聽我歌　　我今爲名(君)歌一曲

잠수의 노래 39구절

섬에서 잠수하는 여자들을 보면
늙으막엔 머리가 노랗기도 하고 붉기도 하다
여자들은 심는 일을 알지 못하니
심지 않고 어찌 좋은 곡식을 가지리
여자들이 길쌈하는 법을 알지 못하니
길쌈하지 않고 어찌 무명과 명주를 얻으리
몸에 입는 옷과 배부르게 먹는 밥은
문전에 바다가 있고 바다에 섞여 있으니(널려 있으니)
바다에 밑 없이 널려 있다하나
잠기지 않고 헤엄치지 않으면 어찌 얻으리
태어나서 겨우 열네댓 살 되면
물 속의 자맥질을 어머니에게 배운다
몸놀림은 새 새끼가 날아다님을 배우는 듯
나고 자라면서 물에 익숙해져
바람에 노한 파도 돌을 쳐도 멈추지 않는다

자라면서 점점 깊이 들어감을 익혀
푸른 물결 속에서 손은 체질하 듯 다리는 장난치 듯
이양 장양 서로 불러 짝을 짓고선
해 뜨면 포구로 나와 썰물을 기다린다
새끼줄로 맺어 허리에 건 전대
마른 뼈를 다 가리지 못하는 짧은 적삼
더부룩이 흐트러진 머리를 땋아 묶고
붉게 드러난 다리를 사람들이 보아도 부끄러워 않는다
썰물에 바람이 고요하여 물결이 거울 같으면
머리를 바로 내려 삼천척에 이른다
깊이 들어갈 때는 사람들은 멀어 볼 수 없어
아득히 넓은 바다에 한 알의 곡식 같다
물나라는 넓고 맑아서 밑이 보이고
삼백 마리 새우를 한가히 샐 수 있네
온갖 고기들의 눈은 등불 같이 반짝이고
천길 돌뿔은 높기가 창과 같다
속에 있는 조개들은 등을 내보이는데

손에 든 빗창은 풍충의 힘이 있어
왼쪽 오른쪽을 샅샅이 살피어서
큰 것 작은 것을 해바라기 씨 같이 따낸다
온 몸을 드러내어 나뭇잎 같이 가벼이 움직이어
만경창파를 육지를 밟고 다니 듯
모지고 두터운 껍질도 날을 받아 떨어진다
이리저리 살펴 노려보는 솜씨에
어떨 때는 물결을 가르고 몸을 솟구쳐
큰 테왁에 가슴을 대어 바삐 숨쉬고
한 가닥 숨비소리 끝나면 다시 물 속으로
광주리가 가득하여도 만족할 줄 모른다
여름이라도 겨우 이일간을 틈탈 수 있고
깊은 겨울 추위에 눈이 쌓여도 잠수질을 피하지 않아
가벼운 조각배에 가득 싣고 돌아올 땐
어지러이 뱃노래 부르며 사람들은 북을 친다
또한 장삿배가 와 물건을 사고 팔기를 기다리면
부지런하여 괴로웠던 것은 먹고 입는 자료가 될 뿐

저들로 하여금 몸소 서쪽 밭일을 하게 한다면
거친 밭이지만 온갖 곡식 생산하리라
저들로 하여금 길쌈하는 여자의 일을 손수 하게 한다면
하루에 베 한 필 짜는 일이 어찌 어렵겠는가
만약 두 가지 일을 맡겨 힘쓰게 하면
일생동안 각박한 생활을 어찌 근심하리
어찌하여 위험한 곳에 들고나게 하여
살이 고달프고 뼈가 괴로움을 도리어 즐거움으로 여기게 하는가?
만약 다리가 한번 삐그덕하여 한 걸음 실수하면
털끝 같은 위태로움은 경각에 달렸는데
또 듣건데 물고기 중에는 기괴한 것들이 많다하니
어찌 알리요 큰 위태로움을 만나지나 않을는지
물 속에 하나의 표주박이 둥둥 떠있으니
언덕 위에서 보는 이는 섬찟하여라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밭에서 호미 들고 김매는 부인들을
여름 농사일은 비록 괴로우나 겨울은 쉬어 지낸다
구월 달에 타작하여 심은 나룩 거두고 나면
따뜻한 구들 등불 가에 앉아서 길쌈을 한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창가의 베틀에 앉아 있는 부인을
열 손가락을 움직이지만 손은 옥과 같다
베를 다 짠 다음 옷을 마름질하고 나면
머리는 날리지 않고 얼굴에는 하얀 분을 바른다
하필 편안함을 버리고 위태로운 곳으로 나아가
사계절 쉬지 않아야 배를 채운다
또한 옷을 벗는 일은 여자가 할 일이 못되니
어찌 근본을 일삼지 않고 습속을 따르는가
잠수하는 부인들은 나의 노래 들어보소
나는 지금 명(銘)을 지어 한 곡조 노래하네

【글자풀이】 • 芀 : 갈대꽃 조, 勺자의 誤서. • 錯 : 섞일 착, 베풀 착, 둘 조. 먹고 입는 것이 섞여 있다는 뜻. • : 簁(체 시)의 誤서인 듯. • 百結繩橐 : 잠수들이 물속에서 따낸 물건을 넣는 그릇. 가는 새끼를 그물같이 맺어 전대 같이 만든다. • 骼 : 마른뼈 격, 드러난뼈 격. • 鬠 : 머리 더부룩할 봉. • 鬆 : 더벅머리 송. • 髺 : 머리 땋을 괄, 머리 묶을 괄. • 三千尺 : 아주 깊은 곳을 뜻함. • 공 : 새우 공. • 于于 : 유유자득하는 모양. 느릿느릿. • ? : 炯의 誤寫. 빛날 형. • 巉 : 높을 참. 戟 : 갈래창 극. • 玻瓈 : 玻璃. 칠보의 한 가지. 水晶類. • 稜 : 모질 릉. • 騁 : 달릴 빙. 騁目은 마음대로 봄. • 耽耽 : 노려보는 모양. • 大瓢 : 잠수들이 물에서 몸을 의지하는 큰 박. 밖에 작게 구멍을 뚫고 씨를 빼어내어 말린 뒤 씨 세 알을 담아 구멍을 막아 물에 뜰 수 있게 한다. 태왁이라 부른다. • 一嘯聲 : 잠수들이 물 속에 들어갔다 숨이 차면 물위로 나와 숨을 몰아쉴 때 저절로 나는 소리. 마치 휘파람소리 같다. • 紅女(공여) : 베를 짜는 부인(織紝曰紅女). • 移斯 : 이 두 가지 일(밭일과 길쌈)을 하도록 하게 한다면. • 水族多怪奇 : 수족은 물고기의 무리들, 怪奇는 괴이한 것, 즉 사람을 해치는 고래를 뜻함.

【참고】 * 본 시는 潛水女答歌 三十九韻과 함께 추자도에 전하여지는 장시이다. 작자는 알 수 없으므로 제주인의 작품이 아닌가 하여 잠수여답가는 같이 등재하지 않았다. 원문은 제주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詠　橘

正祖大王

洞庭佳種又幽鄕　　十月霜風箇箇黃
海外遙傳千里色　　盤中新供一包香
親頒壁水君恩大　　每薦丹門聖孝長
瓊實也從南極至　　遐邇長享各分嘗

귤

동정호의 좋은 종자인데 또한 조용한 고장에 심어져
시월 서릿바람에 낱낱이 노랗게 익는다
머나먼 바다 밖에서 좋은 빛을 전해와서
한 보자기 향기가 소반 위에 새로 올려졌네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나누어주니 임금님 은혜 크다하고
매양 종묘에 천신하여 군왕이 길이 효도한다고 한다
옥 같은 열매가 다시 남쪽에서 오면
멀고 가까운 곳에 나누어주어 길이 맛보게 하여야지

【글자풀이】 • 盤 : 소반 반, 즐겨놀 반, 어정거릴 반, 서릴 반. • 壁水 : 미상. 白首의 오식이 아닌가 한다. 白首는 白首北面의 준말 나이 많은 신하. • 丹門 : 종묘를 뜻하는 말인 듯한데 출전을 찾지 못했다. • 瓊 : 붉은옥 경.

詠橘四絶(其二)

李源祚

一年風雨海天寒　　愛護常常繞圃看
乳柑落盡橙無結　　物性稀珍葆益難

귤을 읊음

일년 내내 바람과 비 바닷가 기후 싸늘하여
채전(橘園)을 담으로 둘러 항상 아끼고 보호해도
유감은 다 떨어지고 등자는 열리지도 않아
희한(稀罕)하고 진귀한 과일 무성하게 하기 어렵네

【글자풀이】 • 乳柑 : 밀감의 일종. 꼭지가 뾰족하지 않으며 감미가 있다. 크기는 계란 두 개 정도. • 橙 : 橙子. 귤의 일종. 당유자와 비슷하나 향기가 짙음. • 葆 : 더부룩할 보.

新橘二首

金尙憲

金橘經秋正飽霜　噴人霏霧怯初嘗
懷中數日餘香在　幾度思歸感陸郎

새로 따온 귤

가을이 지나 서리를 잔뜩 머금은 금색 귤
처음 맛보려고 할 때 사람에게 안개를 내뿜어 겁이 났네
며칠 동안 품고 있어도 남아 있는 그 향기
육랑을 생각하며 돌아갈 생각 몇 번이나 하였는지

【글자풀이】 • 噴 : 뿜을 분. 재채기 분. 후내불 분. • 怯 : 겁낼 겁. 무서워할 겁. • 陸郎 : 삼국시대 오(吳)나라의 육적(陸績)을 말함. 육적이 원술(袁述)의 집에 초청되어 갔다가 귤을 대접받고 집에 있는 노모에게 드리고 싶어 품에 품었다가 하직절을 할 때에 그 귤이 떨어졌다는 고사에서 인용한 말(陸績懷橘). • 噴人霏霧 : 지금의 귤과 달리 토종 귤 즉, 당유자 등(橙)은 쪼개면 안개같은 즙을 내뿜음.

憶昨承恩在玉堂　　金柑遍賜侍臣嘗
今朝海外逢新採　　宛似當時出尙方

생각컨대 지난 날 옥당에 머무를 은혜를 입었을 때
시신들에게 두루두루 금귤을 나누어 주어 맛보았는데
바다 건너 와서 오늘 아침 새로이 따 온 것을 보니
완연히 그 때에 상방에서 나왔던 것과 같구나

【글자풀이】 • 侍臣 :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 • 玉堂 : 弘文館의 별칭. 당관 부제학 이하 교리(校理). • 수찬(修撰) 등 실무에 종사하는 관리들의 총칭.

姜景愚畵屛八幅

徐居正

黃 橘

秋入霜林葉半無　　黃金磊落壓枝低
后皇有意生嘉樹　　誤被傍人喚木奴

강경우의 여덟 폭 병풍에

- 귤 -

가을 서리 숲에 내려 잎이 성긴데
금덩이 주렁주렁 가지가 무겁다
지신이 뜻이 있어 좋은 나무를 길렀는데
사람들이 종나무(木奴)라 잘못 부른다

【글자풀이】 • 姜景愚 : 姜希顔의 자. • 幅 : 폭 폭, 족자 폭, 행전 핍. • 磊 : 뜻클 뢰, 돌쌓일 뢰. • 壓 : 누를 압, 막을 압. • 低 : 낮을 저, 숙일 저. • 后皇 : 后土, 지신(地神). • 嘉 : 아름다울 가, 경사스러울 가. • 誤 : 그릇할 오, 잘못 오. • 被 : 당할 피, 이불 피, 입을 피. • 喚 : 부를 환. • 木奴 : 귤의 별칭.

題姜景愚畵屛

徐居正

橘

黃金磊落壓枝垂　　霜落江南九月時
味自大酸君莫怪　　文章子固不能詩

강경우의 그림병풍에 씀

- 귤 -

황금덩이 주렁주렁 가지에 무겁게 달렸으니
남쪽지방 서리 내리는 구월일세
맛이 아주 시다고 이상히 여기지 마소
문장인 자고도 시를 잘 짓지 못했으니

【글자풀이】 • 磊 : 뜻클 뢰, 돌쌓일 뢰. 磊落은 과실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양. 뜻이 커서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는 모양. • 壓 : 누를 압, 막을 압. • 垂 : 드리울 수. • 酸 : 실 산, 초 산, 고될 산. • 怪 : 기이할 괴, 의심할 괴. • 子固 : 金紐의 자. • 景愚 : 姜希顔의 자(字).

【참 고】 과일은 단 것을 좋아하고 문장은 매끄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세인의 상정이지만 단것은 양생을 해치고 매끄러운 것은 사치에 흘러들어 도덕을 해친다. 그래서 시에 능하지 않지만 김자고(金子固)가 큰 문장이 됐다. 과일도 단 것보다는 신 것이 덕이 된다는 뜻으로 결구(結句)가 언급된 것이다.

詠橘四絶

李源祚

嫩葉經秋不怕霜　　問渠何處得微黃
金精偏得中央氣　　天敎勻圓不詡長

귤을 읊은 시 네 수

약한 잎은 가을이 지나도 서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 얻었는지 희미하게 노란 빛을 띠었다가
중앙의 기운인 찬란한 금빛을 얻은 뒤에도
천성이 고르게 둥글어 뽐내려 하지 아니하네

【글자풀이】 • 嫩 : 약할 눈. • 勻 : 고을 균. 가지런할 균. • 怕 : 두려울 파. • 詡 : 자랑할 후.

纔劈金丸齒已寒　　餘香猶在手中看
貴人日食緣珍貴　　醒得膏粱口胃難

금색 둥근 것을 쪼개면 이빨이 싸늘
손에는 오히려 남은 향기가
귀한 과일이라 귀한 사람들이 보고 먹지만
그 참맛은 입과 위가 깨닫기 어려워

【글자풀이】 • 纔 : 겨우 재. 잠깐 재. 비로소 재. • 劈 : 쪼갤 벽. • 金丸 : 금색 알. 귤을 가리킴. • 緣 : 따를 연. 인연할 연. • 醒 : 깨달을 성. 술깰 성. • 膏粱 : 기름진 맛있는 음식. 여기서는 참맛.

孤島重溟擇地深　　江南氣候異山林
待它黃熟輸芹曝　　玉宇瓊樓夜夜心

넓은 바닷속 외로운 섬에서 깊은 땅을 가려야 함은
남쪽 지방 기후가 육지 산림과 다르기 때문
누렇게 익기를 기다려 정성들여 보내 놓고
궁성에 닿았는지 밤마다 그 생각 뿐

【글자풀이】 • 重溟 : 넓은 바다. • 孤島 : 외로운 섬. 제주를 가리킴. • 江南 : 중국 양자강 남쪽을 뜻하나 여기서는 우리나라 남쪽지방. 즉, 제주를 뜻함. • 它 : 他의 古字. 저 타. 마음 든든한 타. • 輸 : 보낼 수. • 芹 : 미나리 근. 전의하여 지극한 정성(芹忱). • 玉宇 : 천제가 있는 곳. 즉, 궁궐.

十年纔得過墻高　　一摘猶難下濁醪
民橘反添桑稅苦　　每春課植令徒勞

십 년을 가꾸어야 담장보다 높게 자라니
한 번 따기가 오히려 막걸리 내리기보다 어려워
백성들은 귤이 오히려 공세의 괴로움에 더해져
해마다 심어 봐도 헛수고일세

【글자풀이】 • 下濁醪 : 미상. 桑 : 두손으로 수갑 챌 공. 桑稅 : 혹독한 부세.

橘

金尙憲

萬竹森森護短墻　橘林無數擁成行
津津綠葉三春雨　的的金丸一夜霜
病客白頭止回湯　佳人玉手摘生香
輕包重裹浮滄海　十月年年進尙方

귤

대 숲이 빽빽하게 에워 싼 담장 안에
껴안은 듯 줄을 이룬 헤일 수 없는 귤숲
봄비에는 진액이 흐르는 듯한 푸른 잎
밤 서리엔 환하게 방울진 금색의 열매
병든 나그네는 늙어서 병을 낫게 하는 약을
가인은 섬섬옥수로 생긋한 향기를 짜낸다
거듭거듭 가볍게 보자기에 싸서 푸른 바다 건너
해마다 시월이 되면 상방으로 올려 보내네

【글자풀이】 • 森森 : 빽빽히 들어선 숲. • 津 : 진액 진. 넘칠 진. 나루 진. 津津은 넘쳐 흐르는 모양. • 的 : 밝을 적. 꼭그러할 적. 포준 적. 的的은 명백한 모양. • 病客 : 晋나라의 소탐(蘇耽)이 병든 사람에게 귤나무의 잎과 우물물을 먹여서 병을 고쳤다는 고사에서 인용한 말(橘井 : 의원). • 回湯 : 병을 낫게 하는 약.

蒙賜柚復用前韻示僚友

宋相琦

羅帕珍封手自開　一時恩澤遍蘭臺
勾圓旱向冬前熟　錫貢新從海外來
久覺素餐孤聖渥　更驚嘉貺及微才
從知盛事須歌詠　爲把詩篇要共裁

임금이 내려 준 유자를 받고

진귀한 것을 싼 보자기를 손수 풀어보니
한 때의 은택이 난대에 두루 미쳤네
고르고 둥글게 지난 겨울 무르익어
바다 밖에서 새로이 바쳐 왔다네
공 없는 벼슬아치에게 은혜 두터움 느끼고
재주가 빈약한데 칭찬하여 내려줌 놀라워라
이에 따라 성대한 일 노래지어 부르고 싶어
들고서 모두 함께 시 짓기를 구하네

【글자풀이】 • 帕 : 비단보자기 파. 머리동이수건 말. • 蘭臺 : 궁궐 안 문서를 관장하는 관청을 뜻함. 중국 한나라 어사대(御史臺)의 별칭. • 素餐 : 공로없이 관록만 축내는 것.

送歲貢馬有感

金聲久

送爾今朝入帝城　　嘶風何日謁承明
臨行別有丁寧語　　立仗應須戎一鳴

세공마를 보내며

오늘 보내는 너희들이 제성으로 들어가서
멋지게 울며 어느 날 임금을 뵈일런지
떠나는 길에 조용히 타이른 말은
의장대에 서거든 병기를 따라 한 번 울라고

【글자풀이】 • 歲貢馬 : 제주에서 해마다 조공하는 말. • 帝城 : 임금이 계신 성. 즉, 서울. • 嘶 : 말 울음 시. 목쉴 시. • 仗 : 의장 장.

閱馬牛羊

李元鎭

經秋行色海山隈　　閱盡閑中鬣角回
白馬似驅潮水入　　青牛疑引板車來
壯嫌泛駕堪磋耳　　老免充蟻却幸哉
更叱初平群臥石　　慚無五羖大夫才

소와 양을 살피고

가을이 지난 바다와 산을 두루 다녀
한가히 말과 소를 둘러보고 돌아왔네
한 말떼를 몰면 조수가 밀려드는 듯
검은 소는 널수레를 끌고 가는 듯
젊어서는 가마 띄우기 꺼려하여 헐떡였는데
늙어서는 왕개미에 붙여짐을 면했으니 다행스럽네
다시 황초평이 돌무리를 꾸짖어 양으로 변하게 하듯
오고대부의 재주 없음이 부끄럽구나

【글자풀이】 • 鬣角은 말을 뜻함. • 青牛는 검은 소.(다른 뜻은 金綴詩 「靈室」 참조) • 初平 : 신선 이름. 黃初平이 어려서 양을 치다 도사를 만나 金華山에 들어가 40년간 도를 닦아 신통력을 얻어 훗날 형이 치던 양들은 어데 두었느냐 물으니 황초평이 쌓여 있는 하얀 돌을 꾸짖어 수백마리의 양으로 변화시켰다 고사에서 따온 말. • 361쪽 탐라사 23번째 수 참조. • 羖 : 검은빛 양 고, 암양 고. • 五羖大夫 : 百里奚의 호. 춘추시대에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다섯 마리의 양의 가죽으로 초나라에 죄수가 된 백리해(百里奚)를 속죄하여 국정을 맡겼다.

馬　屯

金尙憲

處處郊原水艸豊　　家家門巷散驊騶
霜蹄滅沒龍遺種　　雲錦離披鳳遡風
齊景未論千駟富　　孫陽難得一過空
淸宵更向危樓望　　正見房精照此中

무리지은 말

들판 곳곳에 물과 풀이 풍성하여
집집마다 골목마다 청총마가 흩어졌네
상제가 없어진 뒤 용종이 남아 있어
아름다운 꽃이 핀 듯 봉새가 바람을 거슬린 듯
제경공의 사천 필 말 부유하다 말할 게 없고
손양도 한 번 지나가 얻기가 어려웠던 것들
맑은 밤 높은 다락에 올라 하늘을 향해 바라보니
방성의 밝은 빛이 이 곳에 비쳐 있네

【글자풀이】 • 霜蹄 : 좋은 말. 준마의 발굽. • 雲錦 : 아름다운 말 또는 문장. 옷. • 離披 : 꽃이 활짝 핀 모양. • 遡 : 거스릴 소. • 房精 : 방성(房星)의 맑은 빛. 방성은 二八수의 하나로 말의 정기를 가진 별. 제주에 이 별이 비쳐 우마가 번식된다고 한다. • 齊景 : 춘추시대 제나라의 景公. 천사마(千駟馬)를 가졌던 임금. • 孫陽 : 伯樂. 춘추시대에 말의 상을 잘 보았던 사람.

曾聞麗季失玆鄕　　輸典元家作牧場
良馬萬群幷脚力　　橐駝千里送艅艎
只今版籍歸東府　　每歲騨騮入御廂
官長向來多濟辟　　漸看秋艸遍山長

듣건대 고려 말엽 이 땅을 잃어
원나라에서 다스려 목장을 만들어
다리 힘이 가지런한 좋은 말들과
천 리 가는 낙타를 큰 배로 실어 왔다네
지금은 땅과 백성 우리나라에 돌아와
해마다 화류마를 임금께 바치지
일찍이 관장들은 많이들 담을 넘어와
가을 풀에 자라는 것을 잠깐 보았네

【글자풀이】 • 橐駝 : 낙타의 일종. • 艅 : 여황배 여. • 艎 : 여황배 황. 艅艎은 큰 배. • 辟 : 담 벽.

三 姓 穴

李源祚

人物權輿氣化初　　至今靈跡有遺墟
繞墻喬木蒼然色　　近穴荒碑赤以書

삼성혈

태초에 조화있어 인물이 처음 나오신 곳
신령스런 자취와 옛 터가 지금도 남아
큰나무들 울창하게 담장안에 둘러 섰고
현 옆의 오랜 비석 붉은 빛 완연하다

【글자풀이】 • 權 : 비롯할 권(權輿始也), 권도 권(反經合道).

毛 興 穴

林 悌

昔有三異人　　湧出於玆島
古穴如鼎分　　埋沒生春草
奇蹤問未能　　日暮牛羊道

삼성혈

옛날에 세 분 신인(神人)이
이 섬에 용출하셨던
오래된 굴(穴)이 솥발같이 나뉘어져
봄풀 속에 묻혀 있으나
기이한 종적(蹤跡)은 물을 곳 없고
소와 양 지나는 길 날이 저문다

【글자풀이】 • 毛興穴 : 지금의 삼성혈(三姓穴). 제주도의 시조인 삼을나(三乙那)가 최초로 탄강했다고 전해지는 곳. 전설의 지혈(地穴) 셋이 남아 있음. • 湧 : 涌자의 속자. 날칠 용. 물넘칠 용. • 鼎 : 솥 정. 鼎分은 솥의 세 발(三足)과 같이 벌려져 있다는 뜻. • 蹤 : 자취 종(蹤跡).

毛 興 穴

金尙憲

荒凉古穴鎖寒烟　　首出三人問幾年
當日自然歸伉儷　　後來應復返神仙
千秋香火遺風在　　百世婚姻舊俗傳
欲起頹碑知處所　　金剛寺外祖壇前

모흥혈

쓸쓸한 옛 삼성혈에 싸늘한 연기 자욱한데
세 어른 어느 시절 처음으로 나오셨나
그 당시에 자연스레 돌아와 짝이 되었다가
훗날엔 응당 다시 신선되어 돌아가셨네
오랜 세월 향화 이어지는 곳에 그 때 유풍 남아 있고
먼 옛날 혼인했던 일 지금까지 전해 오네
살던 곳 찾아보려고 넘어진 비석 일으켜 보며
금강사 밖 조단 앞을 이리저리 서성이네

毛興穴次金淸陰韻

金聲久

樹老苔荒帶晩煙　欲尋遺跡已千年
悲凉城郭遼陽鶴　縹緲雲霞碧海仙
臺列七星餘業在　石留三射舊痕傳
一區耕鑿豊平久　民物依然太古前

김청음의 모흥혈시에 차운함

늙은 나무 거친 이끼에 저녁 연기 감도는데
천년이 지난 유적을 찾아 보았더니
쓸쓸한 성곽에는 요양학이 깃드는 듯
아득한 구름 노을엔 벽해선이 노니는 듯
늘어선 칠성대엔 옛 자취 남아있고
삼사석은 돌만 남아 옛자취 전해오네
한 곳에서 샘 파고 밭을 갈아 풍족하게 살아가니
백성들과 물정(物情)은 태고의 이전인듯

【글자풀이】 • 遼陽鶴 : 遼東鶴. 한나라 때 요동사람 정령위(丁令威)가 영허산(靈虛山)에서 도를 닦아 학이 되어 요동으로 돌아갔다는 고사. • 碧海仙 : 해가 뜨는 벽해채(碧海菜)는 신선의 상등약임. • 臺列七星 : 七星臺가 나열된 것을 시의 형식으로 쓴 말. • 石留三射 : 三射石을 시의 형식으로 쓴 말.

月臺七星圖

金　俶

故都遺跡日荒凉　　着處人爲摠毁傷
往復平坡昭一理　　滿城星月復先光

월대칠성도

옛 도읍지의 유적이 날로 황량하여진 것은
사람들 때문에 모두 허물어졌네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 한 가지 이치이니
성 안에 있는 칠성도가 다시 빛 볼 날 있으리라

【글자풀이】 七星圖 : 옛적 탐라국 시절에 북두칠성을 보면서 일곱 곳에 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하던 유적 月臺는 달같이 둥글게 쌓았다는 뜻

【참고】 月臺七星圖 :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하여 북두칠성 모양으로 일곱 군데에 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이를 七星臺라고 한다. 耽羅志 古跡條에 「七星圖는 州城내에 있는데 石築의 자취가 있다. 삼성이 처음 나와서 탐라를 삼도로 나누어 차지하고 북두성 모양을 본따서 축대를 쌓고 나누어 여기에 살았으므로 인하여 칠성도라고 불렀다」하였다.

옛날에는 州城내에 七개소의 石築舊址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중심지에 七星洞이란 지명이 남아 있다.

尊者庵

李元鎭

地坼蒼龍野　　天連赤雀墟
海山三島勝　　風月九韓餘
眺濶心偏壯　　神淸夢自踈
沈吟仍信宿　　耽句癖難除

존자암

터는 동쪽으로 트였고
하늘은 남쪽으로 이어져
산천은 삼신산의 절승지
구한 끝에 떨어져 있는 곳
멀리 내려다보면 가슴이 트이고
정신이 말끔하니 잠자리도 시원
읊조리며 이틀 밤을 묵으니
글 귀 찾는 버릇 버리기 어려워

【글자풀이】 • 蒼龍은 靑으로 동쪽을 뜻하며 龍은 靑龍으로 역시 동쪽을 뜻한다. • 赤雀은 赤이 남쪽이고 雀이 朱雀을 뜻하여 역시 남쪽을 뜻한다. • 구한은 우리 나라를 동틀어 구한이라 불렀는데 제주도도 그 중 하나.

尊者庵

李慶億

尊者知名寺　荒凉半舊墟
千年孤塔在　一室數椽餘
海客經過少　蠻僧禮法踈
秋霄望南極　塵慮已仝除

존자암

존자암은 유명한 절로 알려졌는데
황량하여 절반은 옛 터만
천년 묵은 탑은 남아 있고
자그마한 집 한 채
바다나그네 지나가는 이 적고
남쪽 지방 중은 예불이 서툴다
가을 하늘의 노인성을 바라보니
세상 생각 다 함께 사그라든다

逝川庵

慧　日

漢拏高幾仞　　絶頂瀦神淵
洑出北流去　　下爲朝貢川
懸瀑亂噴沫　　走若珠璣圓
驚湍激群石　　間作瓮盎穿

서천암

한라산은 얼마나 높은지
정상의 신령한 못에 물이 고여
한 줄기 북쪽으로 흘러가니
아래에 이르러선 조공천이 되었네
매달린 폭포는 분말을 내 뿜고
달려가는 건 구슬을 구르는 듯
구비치는 물살은 많은 돌에 부딪치고
사이에는 시루 같이 뚫어 놀고는

【글자풀이】 • 珠璣는 구슬. 珠는 둥근 구슬. 璣는 둥글지 않는 구슬.

安流得數里　　澄淨涵靑天
道人有宗海　　卓菴何川邊
旣從山水樂　　且寄香火緣
凉秋佳月夕　　掃石開茗筵

어떻게 몇 리를 흘러 와서야
맑게 고여 푸른 하늘을 잠겼는고
도인은 바다의 근원을 다스려
어떤 냇가에 암자를 세웠네
산수를 찾는 즐거움을 따르고
또한 향불 올릴 인연을 만들었으니
시원한 가을 좋은 달밤에
바위를 쓸고 차를 끓이네

嘗新剝棗栗　　談古窮幽玄
因思仲尼語　　頗憶小聖禪
由斯無生理　　名以期遐傳
如能高著眼　　波波皆不遷

새 대추 새 밤을 깎아 맛보고
옛 것을 이야기하며 유현을 궁리하고
따라서 공자님 말씀을 생각하며
자못 소성선을 기억하네
여기에서는 살아 갈 도리가 없으니
이름이라도 기약하여 멀리 전해야지
만약 높은 안목을 갖춘 분이 있다면
계속 이어가 옮기지 않을텐데

【글자풀이】 • 파파(波波)는 바삐 이어지는 모양.

二

絶　勝

- 名　山(명산)
- 勝　地(승지)
- 島　嶼(섬)

漫題漢拏山

林　悌

其 一

長白山南若木東　　靑蓮高揷海波中
九天仙鶴躚躚下　　萬古神鰲氣力雄

한라산을 둘러보고
첫째 수

장백산의 남쪽 해 지는 나무의 동쪽에
바닷물결 가운데 높이 솟은 푸른 연꽃
하늘에서 신선학이 춤을 추며 내려오는데
오랜 세월 받치고 있는 신령스런 자라 기력이 굳세어라

【글자풀이】 • 若木 : 해 지는 곳에 있다는 푸른 잎에 붉은 꽃이 핀다는 나무, 해지는 곳을 상징함(折若木以拂日 : 이소경) • 靑蓮 : 푸른 연꽃, 한라산을 상징한 말. • 躚 : 비틀거릴 편. • 躚 : 춤출 선. 빙빙돌 선. • 鰲 : 자라 오. 신선이 사는 산을 받치고 있다고 함. 한라산이 삼신산이므로 인용하였음(93쪽 김정시 열자탕문편 참조).

其 二

絶頂常時雲物黑　　上方殘夜日輪紅
蔓香細竹藏幽逕　　微磬淸鍾閉梵宮

둘째 수

절정에는 항상 먹구름이 덮여 있고
위쪽에서 바라보는 미명에 솟는 붉은 해
향기로운 덩굴하며 조릿대 뒤덮인 오솔길엔
절집에서 흘러나온 희미한 풍경소리 청아한 종소리

【글자풀이】 • 上方 : 위쪽. 산위의 절. 왕이 쓰는 물건을 만들어 바치는 곳. • 殘夜 : 날샐 녁. 미명(未明). • 蔓 : 퍼질 만. 덩굴 만. 뻗을 만. • 磬 : 경쇠 경.

其 三

須信地靈無如大　　始知奇産此爲豊
七分魁斗流傳古　　三設金湯節制通

셋째 수

지령보다 더 큰 것이 없음을 꼭 믿게 된 것은
이 곳에 기이한 물산이 풍부함을 보아서였고
칠성대가 옛부터 전해오고 있지만
굳은 성 세 고을을 절제사가 다스리네

【글자풀이】 • 須 : 반드시 수. 모름지기 수. 잠깐 수. • 七分 : 일곱 별의 분야. 즉, 북두칠성. • 魁 : 언덕 괴. 우두머리 괴. 으뜸 괴. 魁斗는 별의 형상을 본딴 언덕. • 金湯 :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준말. 방비가 아주 견고한 성. • 三設金湯 : 세 곳에 설치한 견고한 성인데, 제주 삼읍 즉, 제주·정의·대정을 뜻함. • 節制 : 제주목사가 겸대(兼帶)하였던 군직.

【참 고】 고을 성 안에 돌로 축대를 쌓았던 자취가 있는데, 삼성이 처음 나왔을 때 삼도(三徒)로 나누어 점유하고 북두칠성을 모방하여 대를 쌓고 나누어 점거했던 곳이다. 그러므로 성안을 대촌이라 부른다는 기록이 웅와 탐라지에 보인다. 七分魁斗는 이 대(七星臺)가 옛부터 전해 온다는 말이다.

其 四

滿野驊騮盡天育　　千村橘柚足秋風
秖增遠客遊觀富　　休怪貪夫侈欲窮

넷째 수

하늘이 길러준 준마들이 들에 가득
가을 바람에 무르익은 온 마을의 귤나무들
멀리 구경온 나그네 볼거리가 풍부하니
욕심 많은 지아비 사치스레 즐기고자 함을 괴상타 말게

【글자풀이】 • 驊騮 : 천리마. 주나라 목왕(穆王)이 탔던 팔준마의 하나. 여기서는 임금이 타는 말을 뜻함. • 遊觀 : 유람(遊覽). 구경다님. • 秖 : 다만 지. 벼익을 지. • 休 : 말 휴. 그칠 휴. 쉴 휴. 말미 휴. 경사 휴. • 貪 : 탐할 탐. 貪夫는 욕심 많은 사내.

其 五

幾度仙區作短夢　　一年海戍爲孤蓬
我來政値淸明節　　山雨蕭蕭濕桂叢

다섯째 수

꿈 속에서 신선 사는 곳을 몇 번이나 찾았던지
외로운 봉래산에 바다수자리 살기 일년일세
내가 올 때는 바로 청명절이어서
쓸쓸한 비 산에 내려 계수나무 숲을 적셨었지

【글자풀이】 • 蓬 : 봉래산 봉(蓬萊神仙所居). 여기서는 제주도를 뜻함. • 値 : 만날 치. 당할치. 값 치. • 蕭蕭 : 쓸쓸한 모양.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바람부는 소리. • 桂叢 : 계수나무 무더기. 계수나무 숲. 桂는 모든 약재의 으뜸 나무로 첫째를 뜻하여 과거에 급제한 것을 桂林一枝라 한다(晋郤詵故事). 시인이 당시에 과거에 급제하고 제주에 왔음.

至半洋望漢拏山

申光洙

靑靑天水有無間　　使者孤舟回百灣
一片白雲南極外　　舸工道是漢拏山

바다 가운데서 한라산을 바라보고

하늘과 물이 푸르고 푸르러 있는 듯 없는 듯
사자의 외로운 배는 많은 산굽이를 돌아왔는데
남쪽 하늘 끝에 한조각 흰구름 둥실
사공이 이르기를 저게 한라산이라 한다

重九日見拏頂白雪

李源祚

秋分之翌上山迴　　楓葉猶靑菊未開
今朝忽見重陽雪　　始信人間第一嵬

중양절에 한라산 정상에 쌓인 눈을 보고

추분절 다음 날 산에 올랐다 내려올 때는
단풍잎도 오히려 푸르렀고 국화도 피지 않았었는데
오늘 아침은 중양절인데도 봉우리에 눈이 보이니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임을 알겠네

【글자풀이】 • 重九 : 重陽節. 九월 九일. • 上山 : 산을 오름. 등산. • 嵬 : 높은 외.

漢 拏 山

金 緻

衆山如垤海如盃　　脚底長風萬里來
直待峰頭明月夜　　獨看玄鶴舞瑤臺

한라산

뭇 산은 개미둑 같고 바다는 술잔 같고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겨드랑이 밑을 스치는 곳
곧 바로 산머리에서 달 밝기를 기다리면
신선언덕에서 신선학이 추는 춤을 볼 수 있지

【글자풀이】 • 垤 : 개미둑 질. 언덕 질. • 瑤臺 : 신선이 사는 곳. 주나라 목왕이 서왕모를 만났다고 전해지는 곳.

楸子前洋望漢拏山

申光洙

萬里南征始北還　　滄波遠望漢拏山
美人相送孤舟處　　烟雨蒼蒼一宿間

추자도 앞 바다에서 한라산을 바라보고

만리의 남쪽에 왔다 북쪽으로 돌아가며
드넓은 파도 속에 멀리 한라산 바라보니
미인이 외로운 배를 이별하여 주던 곳이
하룻밤 사이에 연기 비 같이 아득히 멀어졌구나

漢 拏 山

金 俶

鰲背三山湧海東　　世人傳說有無中
瀛洲眞面今方見　　兩腋冷冷欲御風

한라산

자라 등의 삼신산이 바다 동쪽에 솟구쳐 올랐다는 말
세상 사람들을 있었다고도 하고 없었다고도 하나
신선이 사는 물가를 이제와서 처음 보니
두 겨드랑이가 싸늘하여 바람을 타는 듯

【글자풀이】 • 欲御風 : 바람을 타고 날고 싶어한다. 仙氣를 느낀다는 뜻. • 鰲背 : 鰲는 鼇와 같은 글자. 발해의 동쪽 머나먼 곳에 큰 물이 있고, 그 가운데 대여(岱輿) · 원교(圓嶠) · 방호(方壺) · 영주(瀛洲) · 봉래(蓬萊) 다섯 산을 자라가 지고 있다는 뜻.

【참고】

- 列子湯問篇抄 -

탕임금은 또 물었다.

"물건에는 크고 작은 것과 길고 짧은 것이 있습니까? 또는 같고 다른 것도 있읍니까?"

하극이 대답했다.

"발해(渤海)의 동쪽으로 몇 억만리나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큰 구렁이 있는데 실은 바닥이 없는 골짜기여서 그 아래엔 바닥이 없으며 그곳을 귀허(歸墟)라 부릅니다. 온 세상 팔방(八方)의 물과 은하수의 흐르는 물이 모두 그곳으로 흘러들지만 물은 늘지도 않거니와 줄지도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 다섯 개의 산이 있는데 첫째는 대여(岱輿)요 둘째는 원교(圓嶠)요 셋째는 방호(方壺)요 넷째는 영주(瀛洲)요 다섯째는 봉래(蓬萊)입니다. 그 산들은 높이와 둘레가 삼만리이며 그 꼭대기에는 구천리 넓이의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산들 중간의 거리는 칠만리인데 그곳에서는 이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 위의 누대(樓臺)와 궁관(宮觀)들은 모두가 금과 구슬로 되어 있고 그 위의 새와 짐승들은 모두가 순백(純白)색입니다. 주옥(珠玉)으로 된 나무들은 모두가 떨기로 자라고 있고 그 꽃과 열매들은 모두 맛이 좋아서 그것을 먹으면 누구나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신선(神仙)과 성인(聖人)의 무리입니다. 하루 낮이나 하루 저녁에 날아서 서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섯 산의 뿌리는 연결되어 붙은 곳이 없었읍니다. 언제나 조류(潮流)와 물결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여 잠시도 멎어 있는 일이 없었읍니다. 신선과 성인들은 이것을 근심하여 그 사실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서극(西極)으로 ㅎㄹ러가 버리어 여러 성인들이 살 곳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시어 곧 우강(禺彊)에게 명하여 큰 자라 열다섯 마리로 하여금 머리를 들고 그것들을 이고 있게 하였습니다. 육년만에 한 번 교대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섯 산은 이에 비로소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용백(龍伯)의 나라에는 거인(巨人)이 있어서 발을 들어 몇 발자국 가지도 않아서 다섯 산이 있는 곳에 다달았습니다. 그는 한 낚시로 여섯 마리의 자라들을 연달아 낚아가지고 모두 짊어진 다음 잽싸게 그의 나라로 돌아와 그것을 구워가지고는 뼈를 세며 작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대여와 원교의 두 산은 북극(北極)으로 흘러내려가 대해(大海) 속에 가라앉아서 옮겨오는 신선과 성인들이 수억을 헤아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노하시어 용백의 나라를 줄이어 좁게 만드시고 용백의 백성들을 축소시키어 작게 만드셨읍니다. 복희(伏羲)와 신농(神農)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그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키가 수십장(丈)이나 되었답니다.

중주(中州)로부터 동쪽으로 사십만리를 가면 난장이 나라가 있는데 사람의 키가 한자 다섯치랍니다. 동북극(東北極)에는 쟁(諍)이라 부르는 인종이 있는데 키가 아홉치랍니다.

…중략…

종발(終髮)의 북쪽의 북쪽에는 명해(溟海)란 바다가 있는데 천지(天池)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넓이가 수천리요 그 길이는 넓이에 어울리도록 길며 그 이름은 곤(鯤)이라 부릅니다. 거기에 새가 있는데 그 이름을 붕(鵬)이라 부르며 날개는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고 그 몸은 날개에 어울릴 정도로 큽니다. 세상에서야 어찌 이런 물건이 있음을 알겠습니까? 위대한 우(禹)께서 다니다 그것들을 발견하시어 백익(伯益)이 그것을 확인한 뒤 이름을 붙이고 이견(夷堅)이 그 얘기를 듣고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漢 拏 山

李益泰

秋日尋眞路　　丹崖琪樹間
天低白鹿岳　　雲鎖赤松關
環海疑無地　　求仙喜有山
平生壯觀最　　此遊豈等閑

한라산

가을 날 신선을 찾아 나선 길은
아름다운 나무 사이 낭떠러지
하늘에 머리 숙인 백록담의 산에
잠긴 구름을 적송자가 가리웠네
바다에 둘러 있어 없는 듯한 땅
신선을 찾는 기쁨이 있는 산일세
평생에 으뜸가는 상쾌한 관광이니
이번 유람을 어찌 한가롭다 하겠는가

【글자풀이】 • 白鹿 : 白鹿潭. • 赤松 : 赤松子. 황제 때의 비를 관장하던 사람. 옥룡수(玉龍水)를 마셔 불에 들어가도 몸이 타지 않았다고 한다. 또는 불에 들어가서 몸을 마음대로 태워버릴 수도 있었다고 한다. 훗날 곤륜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 한나라공신 장자방(張子房)도 그를 배우고 싶어하였다.

登 絶 頂

金 緻

石磴穿雲步步危　　雨餘天氣快晴時
山高積雪經春在　　海濶長風盡日吹
鶴駕不迷玄圃路　　鳳簫留待赤松期
從今欲試餐霞術　　歸去人間莫恨遲

한라산 절정에 올라서

구름을 뚫는 돌길 걸음 거리가 위태롭다
비 온 뒤 하늘 기운이 말끔하게 개인 때도
산이 높아 쌓인 눈은 봄 지나도 남아 있고
바다 넓어 긴긴바람 종일토록 불어댄다
학을 타고 현포로 가는 길 잃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봉소 불며 적송자를 기다린다
여기 와서는 이슬 먹고 사는 술법 배우고 싶어져서
인간으로 늦게 돌아감을 한탄하지 아니하네

【글자풀이】 • 현포(玄圃)는 縣圃이다. 신화에 나오는 땅 이름. 곤륜산에 있는 신선들의 채마밭(朝發軔於蒼梧 夕余至乎玄圃). • 적송(赤松)은 적송자(赤松子). 옛날 신선의 이름. 신농씨 시절에 비를 거느렸다. 『후한서(後漢書)(張良傳)』 95쪽 이익태시 참조. • 봉소(鳳簫)는 대로 봉황의 날개처럼 만든 악기. • 찬하술(餐霞術) : 신선이 되는 술법.

漢 拏 山

金麟厚

怪異神人湧北巒　誰知淑氣此中蜿
標連南極星羅拱　根壓東荒地軸盤
蟄湫有龍雲易暗　点峰餘雪夏猶寒
熊狐豹虎難容跡　惟見溟鵬九萬攢

한라산

한라산 북쪽 구비에서 신인이 용출한 일 괴이하고 이상하다
이 곳에 신령스런 기운이 맺혀 있었을 줄 그 누가 알았으랴
가지는 장수하는 별들을 벌려 서게 하였고
뿌리는 동쪽 거친 땅을 눌러 지축의 반석이 되었네
큰 용이 못에 웅크려 있어 구름이 쉬이 일어나고
남은 눈이 봉우리에 점 찍혀 있어 여름에도 시원하다
곰 여우 표범 호랑이의 자취를 보기 어렵고
구만 리를 날으는 붕새를 오히려 볼 수 있으니

【글자풀이】 • 溟鵬 : 大鵬. 149쪽 李元鎭時 天池淵 참조. • 攢 : 모을 찬.

同李繡衣登高

李元鎭

漢拏山作望鄕臺　　天下登高獨壯哉
五嶠曉光鰲戴出　　二湖秋色鴈拖來
分襟卽是三年別　　落帽休辭九日盃
今夕勝遊應不忘　　異時魂夢幾多回

이어사와 함께 산에 올라서

한라산을 고향을 바라보는 언덕으로 삼으려고
천하에서 높은 곳을 장쾌하게 찾아 올랐네
아침 햇빛에 큰 자라는 나왔고 다섯 산을 이고 나왔고
이호의 가을 경치로 기러기는 갔다가 오네
지금 전별하면 삼 년간 이별이 됨으로
중양절 가을 놀이를 사양치 못하였네
오늘밤 멋스런 놀이 응당 있을 수 없으리니
훗날 꿈속에서 몇 번이나 돌이켜 볼는지
바라보는 언덕으로 삼으려고

【글자풀이】 • 오대(鰲戴)는 큰 자라가 신선이 다섯 산을 이고 있다는 글에 따른 말(93쪽 김정 한라산시 열자탕문편 참조). • 낙모(落帽)는 龍山落帽의 준말. 진나라 때 孟嘉가 중양절에 용산에 올라 놀던 고사.

漢 拏 山

權 近

蒼蒼一點漢拏山　　遠在洪濤浩渺間
人動星芒來海國　　馬生龍種入天閑
地偏民業猶生遂　　風便商帆任往還
盛代職方修版籍　　此邦雖陋不須刪

한라산

푸르고 푸른 한 점의 한라산이
멀리 큰 물결 아득한 곳에
별빛이 움직인 뒤 이 바닷나라에서 사람들이 왔고
용종으로 낳은 말은 궁궐 마굿간으로 들어온다네
땅은 비탈지나 백성들은 농사지어 살아가고
바람이 편할 땐 장삿배 마음대로 오고가는 곳
융성한 나라에서 각 지방 조공물 틀을 짤 때에
이 나라 촌스럽지만 깎아버리지 않았으니

【글자풀이】• 인동성망(人動星芒)은 사람은 움직이는 징조의 별빛. 별빛이 움직여서 사람들이… 신라 때 고후(高厚)·고청(高淸)과 그들의 동생이 배를 만들어 강진으로 들어 왔을 때 남쪽에 객성(客星)이 나타났다는 고사를 인용한 말(一本芒曰象). 高乙那 十五代孫 高厚高淸及季(失名) 兄弟三人 造舟渡海 泊于耽津 盖新羅盛時也 予是 客星見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未幾 厚等果至『耽羅誌』. 芒은 象자로 된 곳이 있다. • 용종(龍種)은 뛰어나게 좋은 말(駿馬·龍駒).

登漢拏山絶頂

金聲久

縹渺神山壓八垓　　龍蟠鰲戴勢雄哉
南臨楚粤雲千里　　北望中原海一盃
萬古興亡如過鳥　　百年哀樂等浮埃
若非聖世蒙恩譴　　爭得仙區恣意來

한라산 절정에 올라

아득한 신선산이 팔방의 땅 끝을 눌러 있어
용이 서려 있는 듯 자라가 이고 있는 듯 웅장한 기세
남쪽으론 오월에 임하여 천리에 구름이 아득
북쪽으로 중원을 바라보며 바다는 술잔같이 작다
오랜 세월 흥하고 망한 일 날아가는 새와 같고
한 생애의 슬프고 즐거운 일 떠 있는 먼지같네
만약 성대를 만나 꾸짖음 당하는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다투어서라도 신선 사는 곳을 마음대로 올 수 있었을까

【글자풀이】 • 垓 : 땅끝 해. 八垓는 팔방(八極界). • 鰲 : 큰자라 오. 鰲戴는 큰 자라가 땅을 이고 있다는 뜻(93쪽 김정 한라산시 열자탕문편 참조). • 百年 : 사람의 생애. 즉, 한 세대를 뜻함.

漢拏山歌

申光洙

君不見漢羅之山　　靈氣磅礴撐南紀
古稱瀛州乃無是　　微茫九州外 環以大海水
其高一萬五千丈　　上有玉堂金闕空
中峙金光奇草日月精　　一服千年而不死
秦漢之君嘗不得　　徒爾年年遣方士
方士何曾到山下　　風引舟回三萬里
我是三韓一布衣　　夢想焉能身到此
昨者奉使耽羅國　　直渡南溟日未昃
君王不使我求仙　　我欲爲君而採藥
淸晨齊沐向山拜　　將見麻姑登白鹿
麻姑主人顔綽約　　羨門安期皆是麻姑之客
今日見我白髮應大笑　　各贈奇草一本含五色
携我絶頂見明星　　南極老人搴手摘
袖中納之大如柸　　大如杯煌煌白然後

借騎白鹿還州城　　皮服島人當大驚
胡爲苦遭神物猜　　風雨日月無一晴
雲霧冥冥掩山面　　擧頭日望天崢嶸
自嗟凡骨非仙徒　　庶幾遇之終失圖
咫尺仙山尙不登　　何況方丈蓬萊隔虛無
風濤湏洞巨魚噴　　不如鼓枻歸江湖

한라산 노래

그대는 한라산이 신령스러운 기운과 한 덩이가 되어 남쪽에 버티어 선 것을 보지 못했는가
옛날 영주라 부르던 곳이 이 곳 아닌가
구주밖에 아득히 큰 바닷물로 둘러 있어
그 높이는 일만오천장이오 정상엔 옥당금궐이 공중에 솟아 있네
금빛나는 기이한 약초는 일월의 정기 정기를 머금어 한 번 먹으면 천년을 죽지 아니하나니
진나라 한나라 임금은 헛되이 방사를 보냈으나 얻지 못하였네
어쩐 일인지 방사가 이 산 밑에 이르면 바람은 끌어다 삼만리 밖으로 돌려보냈네

나는 삼한의 베옷 입은 선비로 꿈엔들 어찌 이 곳에 올 생각을 했으리요
어제 탐라국 사신의 명을 받고 바로 남쪽바다를 건너니 해가 기울지 않았네
임금께선 나에게 신선을 만나보라 하지 않았지만 나는 불사약을 캐고자하여
새벽에 목욕재계하고 산에 절하고 신선을 찾아 백록담에 올랐는데
마고주인은 얼굴빛이 하얗고 선문 안기생이 모두 그의 나그네였네
오늘 나의 흰머리를 보고 크게 웃으며 오색의 기이한 풀 한포기씩을 주고는
나를 데리고 절정에 올라 밝은 별을 보여주고는 남극노인성을 따 주었네
소매 속에 넣으니 크기가 술잔만 한데 술잔만 한 것이 환이 빛을 발하기에
흰사슴을 빌려 타고 주성으로 돌아오니 가죽옷 섬사람들 깜짝 놀라더라
어쩌다 신명의 시기를 받아 날마다 비바람 개이지 않아
구름 안개 아득히 산을 덮으니 날마다 머리를 들어 높은 산을 바라본다
아! 나는 속인으로 신선의 무리가 못 되어 만나려는 계획을 버리게 됐네
신선산을 지척에 두고 끝내 오르지 못하니 항차 봉래방장이야
허무에 가리워질밖에
풍파는 잇달아 솟구치고 큰 고기는 안개를 뿜어대니 차라리 고

깃배를 타고 강호로 돌아감이 낫겠네

【글자풀이】 • 磅 : 땅우툴두툴할 방. • 礴 : 널리덮힐 박, 가득할 박. 磅礴은 가득함 합쳐져 하나로 됨. • 九州 : 禹가 중국을 9고을로 나누었다 여기서는 온천하의 뜻. • 玉堂 : 아름다운 궁궐. 학식이 뛰어난 문장관리들이 머무는 관청 한나라 송나라 때의 한림원(翰林院) 조선의 홍문관(弘文館). • 金闕 : 천제가 사는 궁궐(道家). 삼신산에는 짐승은 모두 순백색이며 궁궐은 금은으로 장식했다(封禪書), 玉堂金闕은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비유하였다. • 秦漢之君 : 진시황과 한무제 모두 불사약을 캐러 사자를 보냈다. • 方士 : 方外之士, 術士, 정당하지 아니한 도리를 쫓는 사람. • 麻姑 : 麻姑仙女. 옛날의 선녀 미모의 여인. • 南極老人 : 27쪽 참조. • 搴 : 가질 건. 줄어들 건. • 被服島人 : 상고에 제주인이 피복을 입고 혁옥(革屋)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 峥 : 가파를 쟁. 嶸 : 산높을 영. 峥嶸은 높고 험학한 모양. • 羨門 : 신선인데 이름은 자고(子高). • 安期 : 신선이름. 109쪽 김치 백록담시 참조. • 頇 : 頇 잇닿을 홍. 수은 홍. 덩어리 질 홍. 頇洞은 어지러운 모양. 서로 연속된 모양.

白 鹿 潭

李源祚

白鹿去不返　　山日暖將夕
安知我非仙　　劃嘯坐岩石

백록담

흰사슴은 떠나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산 해는 따뜻이 저물어 가는데
어찌 알리오 내가 신선이 아님을
암석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으니

茲山滿天下　　傳說自古今
天心嫌太露　　上面窿而深

천하에 명성이 가득한 이 산은
옛부터 지금까지 전설이 많은데
하늘이 아주 드러내길 꺼려하여
윗면을 굴같이 깊이 파 놓았네

仙人吸靈液　　潭在高頂上
區區漢露盤　　其大纔如掌

신선이 신령스러운 물을 길어가는
못이 높은 봉우리 위에 있으니
구구한 한나라의 이슬 쟁반은
그 크기는 겨우 손바닥만한데

【글자풀이】 • 露盤 : 이슬을 받는 쟁반(承露盤)을 줄여 쓴 말. 한나라 무제(武帝)가 건장궁(建章宮)에다 동으로 큰 쟁반을 만들어 이슬을 받아마신 고사.

白 鹿 潭

金聲久

頂上寒潭自在淸　　洧盤難濯俗人纓
仙翁且莫回吾駕　　曾是前身玉界行

백록담

정상의 싸늘한 못 스스로 말끔해서
물가에서 속인의 갓끈 씻기가 어려우나
선옹이 또한 나의 수레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일찍이 나 자신도 신선세계에 다니던 사람일까

【글자풀이】 • 洧 : 물이름 유(穎川水名, 溱洧). 은자인 허유(許由)가 속인의 말을 듣고 귀를 씻었다는 물. 여기서는 물이 맑음을 뜻함. • 盤 : 시경 考槃在澗(衛風)의 槃자와 같은 뜻으로 쓰였음. • 難濯俗人纓 : 滄浪之水가 淸兮어든 可以濯我纓이요 滄浪之水가 濁兮어든 可以濯我足이라(孟子 離婁上 8.2 참조). 물이 너무 맑아 속된 사람의 갓끈을 씻을 수 없다는 뜻.

白 鹿 潭

金 緻

石劍撐空鳥路微　　捫蘿直上倚西暉
天風嫋嫋香生屐　　山靄霏霏翠滴衣
白鶴巢邊朱樹老　　靑鸞駐處彩雲飛
回頭弱水三千里　　爲問安期何日歸

백록담

돌칼이 하늘을 받친 듯한 희미한 좁은 길
넝쿨을 휘어당겨 오르니 해는 벌써 서녘에 기울었다
스스로 이는 바람 솔솔 신발 밑에 이는 향기
산아지랑이 멀리 이어져 푸르름이 옷에 번진다
하얀 학 둥지 곁에 붉은 나무 늙어 있고
푸른 산새 머무는 곳 날으는 듯 채색 구름
머리 돌려 삼천리 밖의 약수를 바라보며
묻노니 안기생은 어느날이면 돌아올런지

【글자풀이】 • 嫋嫋 : 바람이 솔솔 부는 모양. • 屐 : 나막신 극. • 霏霏 : 이어지는 모양. • 鸞 : 난새 란(112쪽 참조). • 弱水 : 張掖河. 속칭 黑河. 장액현에서 발원하여 단산하(丹山河)에 합류되고 백하(白河)와 다시 합쳐져 연해(延海)로 들어간다. • 安期 : 安期生. 진(秦)나라 낭야(瑯야) 사람.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신선되는 법을 배워 바닷가에서 약을 팔고 산다 하여 千歲公이라 불렀다. 진시황이 동유하였을 때 만나 삼일간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금과 비단을 주었으나 모두 두고 떠나면서 수십년 뒤 나를 봉래산에서 찾으시오 하였다. 시황이 사자를 보내었으나 찾지 못하였다. 한나라 무제 때에 이소군(李少君)이 해상에서 안기생을 보았는데 외(瓜)와 같이 큰 대추를 먹고 살더라 하였다.

靈 室 石

李源祚

拏山蓋氣深　　高厚稱其德
終難掩奇峭　　嵓嵓逐外閾

영실의 바위들

한라산은 깊이 영기가 덮혀
그 덕이 높고 두텁다 칭송하지만
기이한 바위들을 감싸주지 못하고
우뚝우뚝 문지방밖으로 내쫓았으니

【글자풀이】 • 蓋 : 덮을 개, 일산 개, 대개 개. • 峭 : 산 높을 초, 가파를 초. • 嵓 : 嵒. 산 높을 암, 바위 암, 굴 암. • 閾 : 문지방 역.

南産粗而黑　　獨也全體白
元章如可拜　　不舍靈室石

남쪽지방 돌들은 거칠고 검은데
유독 이곳 돌은 모두가 흰빛
미원장이 만약 절을 한다면
영실의 돌들을 버리지 않으리

【글자풀이】 • 南産 : 남쪽에서 나는 물건들. 여기서는 남쪽인 제주도의 돌을 뜻한다. • 元章 : 송나라 米芾의 자. 미불이 돌을 아주 좋아하여 태수로 있을 때 모양이 기이한 돌을 보고 예복을 차려 입고 그 돌에 절을 하여 돌어룬(石丈)이라 불렀다는 고사를 인농한 말. • 舍 : 捨와 같은 뜻.

仙人本好奇　　造物亦戱劇
將軍與羅漢　　嚇語傳自昔

선인은 본래 기이한 것을 좋아하고
조물주가 또한 희학질을 잘하여
오백장군과 오백라한들이
성내어 말한다고 전하여 오네

【글자풀이】 • 峭 : 높고 험할 초. • 嵓 : 바위 암, 우뚝할 암. • 閾 : 문지방 역. • 逐 : 쫓을 축. • 靈室石 : 한라산 서쪽 영실이라 불리우는 골짜기에 있는 기이한 바위들. • 粗 : 거칠 조.

瀛室遇雨

李慶億

踏遍仙區載醉歸　　萬林烟雨暗霏霏
山神挽我應相戱　　莫把簑衣被繡衣

영실에서 비를 만나서

신선 땅 들러보고 취하여 돌아오는데
온 숲에 느릿느릿 내리는 연기 같은 비
나를 끌어다 놀려하는 산신령이여
도롱이 옷으로 수놓은 옷을 잡지 말게나

【글자풀이】 • 비비(霏霏)는 눈이나 비가 계속 조금씩 내리는 모양. • 수의(繡衣)는 수놓은 옷. 어사는 수놓은 옷을 입었으므로 어사의 옷. 어사의 뜻으로 쓰임. • 쇄의(簑衣)는 비올 때 입는 도롱이.

瀛　室

金　緻

萬壑杉松一逕幽　每逢佳處暫遲留
峯頭怪石羅千佛　巖底淸泉到十洲
直下洞天騎白鹿　笑看仙子跨靑牛
飄然迥出人間表　自此仍成汗漫遊

영 실

모든 골짜기에 소나무 삼나무 우거져 조용한 오솔길
경치 좋은 곳 만날 때마다 잠깐 멈춰서 보면
산머리의 괴이한 돌들은 천불을 벌려놓은 듯
바위 밑 맑은 물은 신선 사는 곳으로 흘러가는 듯
바로 골짜기로 내려가 흰사슴을 잡아타고
웃으며 선자(仙子)를 보니 푸른 소에 걸터 앉았도다
거침없이 빙 둘러보고 인간세계로 나아가서
이로부터 넓고 넓은 곳에 거리낌없이 놀아 보았으면

【글자풀이】 • 본문에는나천비(羅千沸)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나천불(羅千佛)의 잘못으로 보인다. 나천불(羅千佛)은 영실의 괴석. 오백나한이라고도 부른다. • 십주(十洲)는 신선이 산다고 하는 열 곳 물가(祖・瀛・玄・炎・長・元・流生・鳳麒・聚窟), 三島十洲記가 있다. • 한만(汗漫)은 넓은 모양. 산만하여 치밀감이 없음.

五百將軍洞

林　悌

昔漢有天下　　田橫入海島
相隨五百人　　勁氣磨蒼昊
漢欲王侯橫　　橫死洛陽道
客在海島中　　聞之當若爲
雄心共激烈　　一死須相知
精靈耻漢土　　被髮翩然東
仙洲化爲石　　屹立滄溟中
萬古一片心　　碧海孤輪月
客到起遐想　　英風吹鬢髮
一語慰幽冤　　韓彭亦鈇鉞

오백장군 골짜기(靈谷)

옛날 한나라가 천하를 가졌을 때
전횡은 바닷 속 섬으로 드러갔네
오백사람이나 그를 따라다녀
꼿꼿한 기상이 하늘을 찔렀네
한나라 임금은 제후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는 낙양 가는 길에서 죽고 말았네

섬 속에 남아 있던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는 다 그와 같이 행동했네
영웅의 마음은 모두다 격렬하여
죽음으로써 서로를 알아주었네
영혼마저 한나라 땅에 있음 부끄러히 여겨
머리를 풀어헤치고 동쪽으로 흘러와서
신선 사는 이 섬의 돌로 변하여
넓은 바다 가운데 우뚝 서 있으니
오랜 세월 변치 않는 한 조각 붉은 마음
푸른 바다에 뚜렷한 달과 같도다
나그네 이곳에 와서 옛일 생각할 제
영걸스러운 바람 귀밑을 스쳐가네
원통한 넋을 위로할 한마디 말은
한신 팽월이 모두다 한제의 칼날을 받았다고

【참고】 田橫 : 한(漢)나라와 초(楚)나라가 싸울 때 한신(韓信)이 제(齊)나라를 평정하였다. 제나라 왕의 동생인 전횡은 자립하여 가왕(假王)이 되었다. 한나라가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고조가 등극하였다. 전횡은 무리 500여인을 거느려 동해 바다의 섬(濟州島)로 들어와 살았다. 한고조가 예의를 갖추어 전횡을 불렀다. 어쩔 수 없어 섬을 떠나 가다가 다른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장부의 절개가 아니라 여겨 자기의 뇌는 빼어내어 섬으로 던져두고 가다가 낙양(洛陽 : 漢나라의 서울) 가까이서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500여인도 따라 죽었다. 그래서 500여인의 정령이 열실의 오백장군이 되었다고 전하여진다. 이들은 전횡오백인(田橫五百人) 한객오백인(漢客五百人)이라 부른다.

方　巖

郭期壽

瀛洲絶頂隔海區　　千仞巖間有石樓
天樂中宵飛遠響　　瓊潭翻浪舞蒼虯

방　암

영주산 절정은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
천길 바위 위에 돌다락 솟아 있다
밤중엔 하늘 음악 아득히 메아리 치고
맑은 못 번뜩이는 물결 푸른 용이 춤 춘다

【글자풀이】 • 方巖 : 한라산 남쪽의 높은 벼랑. 밑에는 산버른내(割山川)가 있고 건너쪽에 방아오름이 있다. • 瀛洲 : 신선이 사는 물가. 여기서는 한라산의 별칭인 영주산을 뜻함. • 瓊潭 : 구슬같이 맑은 못. 백록담을 가리킴. • 虯 : 뿔없는 용 규.

方　巖

李元鎭

徒倚方岩霽色新　　四環瀛海闊無津
北辰遠處瞻宸坐　　南極明時見老人
千里不愁常作客　　百年還喜此尋眞
香風遠送笙簫響　　回首中州只一塵

방　암

새롭게 개인 날 방암을 의지하여 바라보니
넓어도 나루터 없는 사면의 영주바다
북두성 아득한 곳 임금님 궁궐 올려다 보일 듯
남쪽 하늘 맑을 때만 보이는 노인성
천리 밖에 떠나와서 나그네 생활 근심 없음은
평생 잊지 못할 신선 땅을 찾았기 때문
향기로운 바람에 메아리쳐 오는 신선의 피리 소리
머리 돌려 바라보니 육지 땅이 티끌 같이 작구나

【글자풀이】 • 老人 : 노인성. 한라산 남쪽에서만 보임. 27쪽 이원조시 참조. • 眞 : 진인. 즉, 신선이 사는 곳을 뜻함. • 中州 : 서울. 육지를 뜻함.

城　山

金尙憲

城山屹立海濤中　氣勢蟠雄漢岫東
南極未論千里遠　西峰纔許一人通
非關戍卒防秋地　合作神仙避暑宮
可惜鴻濛勤用意　漫從荒徼費天工

성　산

바다의 넓은 물결 가운데 성같은 산이 우뚝 서서
한라산 동쪽 줄기에 기세가 웅장하다
남쪽 땅 끝 천리를 멀다 논할 수 없고
서쪽 봉우리로만 겨우 한 사람이 다닐 수 있으니
수졸들이 바꾸어 가며 지키고 있음에는 관계될 게 없고
신선들이 더위를 피하는 궁궐이 되기에 합당한 곳
천지를 개벽할 때 부지런했던 뜻 애석한 일은
헛되이 변방의 거친 곳에 하늘이 공력을 쏟았으니

【글자풀이】 • 防秋 : 때에 따라 군사를 바꾸어 배치하는 일. • 鴻濛 : 천지가 아직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 여기서는 나뉘어지게 한 주체. • 徼 : 변방 요. 순라 요. 荒徼는 순라꾼이 지키는 거친 변방.
【참고】 시인이 이 시를 지을 당시에는 수산진(水山鎭)이 이 곳에 옮겨져 있었는데, 천연의 성세는 험고하지만 식수가 없어 만약 적이 길을 막는다면 사흘을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시 환진케 하였다.

山 房 窟

元相堯

四海環千里　　三山鼎半空
乃知仙子所　　天作一壺中

산방굴

사면에 바다가 천 리를 둘러 있고
삼신산은 반공에 솥을 앉힌듯
알겠노니 신선 사는 곳을
자연히 이루어진 병 속인 것을

【글자풀이】 • 鼎 : 갈래 정. 늘어질 정. 바야흐로 정. 솥 정. • 壺中 : 壺中天. 선경의 뜻. 漢나라 때 신선 호공(壺公)이 하나의 항아리를 집으로 삼고 술을 즐기며 속된 일을 잊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 여기서는 산방굴을 뜻함.

山 房 山

具齡錫

石勢龍頭壓　　禪居鳥夢空
霽雲生瀉底　　靈液滴房中

산방산

바위의 형세가 용의 머리를 누른 곳
스님이 살아 새들은 잠잘 곳을 잃었네
내뿜는 물 밑으로 맑은 구름 솟아나고
신령스런 물방울 방 안에 뚝뚝 떨어진다

【글자풀이】 • 龍頭 : 산방산 밑 바닷가에 있는 바위, 용의 머리와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龍頭巖).

山 房 窟

韓鼎運

衰草山門寂　　蒼藤石室空
如聞笙鶴響　　來自海雲中

산방굴

마른 풀 속 산문은 고요한데
푸른 넝쿨 속 돌방은 비었네
생학의 메아리가 들려오는 듯
바다의 구름 속으로부터

【글자풀이】 • 山門 : 절집의 대문, 중들의 거처. • 笙鶴 : 427쪽 남구명 보탐라가 王喬 참조.

山房窟

鄭運經

霽天危磴上　　巖室土爲床
老釋出山去　　春花供佛香
石局當海白　　苔壁梁雲蒼
南極星相見　　階除動夜光

산방굴

개인 날 위태로운 돌길을 오르니
바위 굴엔 흙상이 놓여져 있네
늙은 중은 산문을 빠져 나가고
봄 꽃은 부처님을 공양 하는듯
돌 문은 하얀 바다를 마주하고
이끼 낀 벽엔 푸른 구름 스며든다
마주 볼 수 있는 남극성은
섬돌에 서서 보면 빛을 드러내네

山　房

李元鎭

巨靈留異跡　　高釋覓祇園
地設山梯級　　天開石室門
臥嘗懸乳液　　坐壓出雲根
流眺旃檀海　　忘歸到日昏

산 방

신령한 큰 산엔 신령스러운 종적이 머물러
높은 스님은 기원정사를 찾아갔는지
지형은 돌 사닥다리 같이 층계를 이루어
자연히 문이 열려 있는 듯한 돌방
높은 구멍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누워서 맛보고
돌 틈에서 솟아오르는 구름을 눌러 앉아서
멀리 인도 쪽 바다를 바라보면서
날이 저물어도 돌아갈 줄 모르네

【글자풀이】 • 기원(祇園)은 祇園精舍. 고대 중인도 마갈타국 사위성에 있던 절. 須達長子가 석가를 위하여 세운 說法道場. • 멱지원(覓祇園)은 절을 찾았다는 뜻. • 전단(旃檀)은 인도의 특산물인 높은 향기가 나는 식물. • 전단해(旃檀海)는 인도 쪽 바다를 뜻함.
【참고】 응와(凝窩)의 『탐라지초본』에는 起句의 有자가 留자로 필사되어 있다.

山 房 山

金尙憲

誰折拏峰揷海傍　流傳異說亦荒唐
果然山腹雖空大　那許虞人乃爾狂
日月爲眸猶薄蝕　江山何罪竟摧傷
徒玆更覺皇穹遠　俗界無由訴彼蒼

산방산

누가 한라산 봉우리를 뽑아 바닷가에 꽂았는지
세속에 전하는 이상한 말 황당하기만
정말 하늘의 배가 과연 크고 넓은가
어째서 우인이 그렇게 경솔했을꼬
하늘의 눈인 해와 달도 조금 밖에 먹어들지 못하는데
강산이 무슨 죄가 있어 잘라서 뽑아 버렸으니
이제야 자못 하늘이 아득함을 깨달아서
속계의 사람들은 저 하늘에 하소연할 수 없겠네

【글자풀이】 • 摧傷 : 꺾이고 헤쳐져서 심히 상함. • 穹 : 하늘 궁. 덮을 궁. 높을 궁. • 彼蒼 : 저 넓은 하늘. 가슴 속에 맺힌 번뇌를 호소할 때 쓰는 말.
【참고】 본 시는 다음의 산방산의 전설을 인용한 시이다. 응와의 탐라록에는 拏峰은 柱峰, 江山은 邱山, 俗界는 俗累로 기록되었다. 양 쪽 모두 뜻과 평측(平仄)이 합치되어 시비를 논할 수 없다.

松 岳 山

金尙憲

由來此地號瀛洲　　環海名山摠可遊
天聳露臺臨萬仞　　石盤雲骨老千秋
笙簫夜日逢仙侶　　簾幕春風見蜃樓
便學飄飄成羽化　　凌虛直欲到蓬丘

송 악 산

옛부터 이 곳을 영주라 불렀는데
바다로 둘러 싸인 이름난 산 모두다 둘러 볼만해
만 길(물가) 하늘에 우뚝한 노대
천 년 늙은 구름의 뼈가 되는 평평한 바위
밤낮 피리 부는 신선을 만날 듯하고
주렴 휘장 봄바람 스치면 신기루가 보여
곧 표표히 날으는 신선되는 술법을 배워
허공을 뚫고 올라 봉구에 다다를 듯

【글자풀이】 • 瀛洲 : 신선이 사는 물가. 제주의 별칭. 81쪽 김정 한라산시 참조. • 仙侶 : 신선의 벗들. • 蜃樓 : 蜃氣樓. • 羽化 : 신선이 되어 날아다님. • 蓬丘 :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

登 瀛 邱

李義謙

浦口呑紅日　　山肩荷白雲
淸遊宜此夕　　携酒且論文

등영구

포구에는 빨간 해를 삼키려 하는 듯
산어깨는 흰 구름을 질머진 듯
고상한 놀이는 오늘밤이 좋을 듯하니
술을 들고 와서 글이나 의론해보세

登 瀛 邱

洪重徵

石竇呀然處　　巖花無數開
花間管絃發　　鸞鶴若飛來

등영구

바위의 큰 구멍이 입을 벌린 곳
돌이끼꽃 바위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라
꽃 속의 음악 소리 따라
난새와 학새가 날아드는 듯

【글자풀이】 • 鸞鶴 : 鸞은 神鳥이며 鶴은 仙鳥이다. 신선이 타고 다니는 새이다. 鸞은 모양이 닭과 같으며 깃은 붉고 오색무늬를 갖추었다. 오음(五音)을 갖추어 운다. 봉황의 일종이라고 한다. 태평성대에 나타난다고 여겨지는 길조이다. • 竇 : 구멍 두, 터질 두, 들창 두. • 呀 : 굴속 빌 아, 입 벌릴 아.

次壁上韻

韓鼎運

亂石沈雲合　　幽花向日開
仙人不可見　　我輩秖空來

절벽 위의 운자를 따라서

구름 속에 잠겨 있는 어지러운 돌들
해를 바라보고 피어 있는 정숙한 꽃
선인은 만나볼 수 없는 걸
우리들이 공연히 찾아왔네그려

【글자풀이】 • 秖 : 다만 지, 벼익을 지.

次壁上韻

趙羲純

線通花徑轉　　斧鑿石門開
已透參同秘　　休嫌俗子來

차벽상운

실 같이 뚫린 꽃길이 꾸불꾸불
도끼로 깍은 돌문이 열려 있는 곳
이미 참동계의 비법(秘法)을 터득하였거든
속객이 오는 것을 꺼려하지 마시오

【글자풀이】 • 鑿 : 뚫을 착, 깎을 착, 구멍 조. • 參同 : 합치된다는 뜻. 여기서는 周易 參同契를 줄여 쓴 말. 주역 참동계는 한나라 위백양(魏伯陽)이 지은 책 이름. 주역의 효상(爻象)을 빌려 연단(煉丹)하여 섭양하는 방법을 논한 책. 불사약을 굽는 시조로 일컬어짐.

登 瀛 邱

金 緻

斲石非神斧　　渾淪肇判開
白雲千萬歲　　仙俗幾多來

등영구

귀신의 도끼로(솜씨로) 돌을 깎은 것이 아니라
천지가 개벽할 때 열려 진 곳
오랜 세월 흰 구름 쌓여 있어
신선이나 속인이 많이 올 수 있을런지

【글자풀이】 • 斲 : 쪼갤 착, 깎을 착. • 淪 : 덩어리 륜, 기운순전할 륜. 渾淪은 하늘과 땅이 열리려 하던 시절.

登 瀛 邱

李源達

遊子窮海外　　圓嶠豈人間
亂石開川口　　飛花解容顔
十年勞君紱　　今日有名山
臨別摩娑音　　孤舟倘載還

등영구

멀리 바다밖에 노니는 사람
한라산이 어찌 인간 세상인가
어지러운 돌 사이로 시내 입 열렸고
꽃이 휘날려 얼굴을 펴게한다
십년간 지방관으로 떠돌다가
오늘은 명산에 이르렀네
떠날 때 춤 너울 거리는 소리를
혹시 배에 싣고 갈 수 있었으면

【글자풀이】 • 紱 : 인끈 불. • 摩 : 만질 마, 갈 마. • 娑 : 춤 너울거릴 사, 옷 너풀거릴 사. • 摩娑音 : 춤 너울거리는 소리. 춤출 때 너울거리는 옷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 • 倘 : 혹시 그러할 당, 진실로 당.

登 瀛 邱

李益泰

雙溪直下漢拏中　　會合臺前燕尾同
岩面暎潭磨似鏡　　石門跨壑臥如虹
落霞殘照秋容淡　　琪樹懸崖暮色紅
絶境天慳應有意　　淸遊此日是仙翁

등영구

한라산에서 두 줄기 냇물 바로 내려
대 앞에서 바로 모여 연미 마을로 흘러든다
못에 비친 바위는 갈아 놓은 거울인듯
돌문은 골짜기를 걸터 앉아 무지개가 누은 듯
석양에 노을 내려 말끔한 가을 경치
벼랑에 매달린 나무엔 저녁노을 빨갛다
빼어난 경지를 하늘이 아끼는 것은 뜻이 있으니
오늘의 놀이는 내가 바로 신선이 된듯

龍 頭 巖

林　悌

海畔巉岏石　　龍頭謾設名
洪濤日夜擊　　猶作風雷聲

용두암

바닷가의 높직한 돌을
용의 머리라 속여 이름 붙였네
큰 파도가 밤낮 내려쳐
바람소리 우뢰소리인듯

【글자풀이】 • 巉 : 산높을 찬. • 岏 : 산높을 완.

龍　淵

林　悌

城西只數里　　有峽淸而奇
石爲白玉屛　　潭作靑琉璃
岸上幾叢竹　　蕭蕭海風吹
扁舟倚桂棹　　吟玩歸遲遲

용 연

제주성 서쪽 몇 리 되는 곳
큰 골짝 맑고 기이하다
바위는 하얀 옥병풍 같고
못은 파란 유리 같은데
언덕 위 몇 포기 대숲엔
슬슬 바닷바람 스쳐간다
조각배 노에 몸을 기대어
구경하고 읊으며 느릿느릿 돌아오네

龍 頭 巖

林亨秀

幽窟龍盤爲擧頭　　應耽節制好風流
蒼波日落生新興　　綠酒盃深蕩舊愁
穴老毛興雲萬古　　灘鳴皇瀆月千秋
使君不是流連飮　　爲惜風光却少留

용두암

조용한 굴 속에 서린 용이 머리를 들었는데
탐라의 절제사가 그 멋스러움을 좋아하여
푸른 물결 떨어지는 해에 새로이 흥취 일으켜
푸른 술 가득 부어 묵은 수심 씻어 낸다
오래된 모흥혈엔 만고의 구름 끼어 있고
황독탄 우는 물결엔 천추의 달이 비쳐
사군은 마시고 노는 일에 빠져서가 아니라
그 경치 아름다워 조금 머물렀을 뿐이네

【글자풀이】 • 應耽節制 : 제주목사가 양 현을 거느리므로 품계에 따라 防禦使, 節制使를 겸대함. • 皇瀆灘 : 한두기를 한자로 음을 따 기록한 듯하나 자세치 않다. • 流連飮 : 물을 따라 흘러 내려가면서 돌아올 줄 모르고, 흘러 올라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끝없는 놀이. 멋대로 놀아 멈출 줄 모른다는 뜻(孟子 梁惠王下 참조).

都近川獵魚

李源祚

都近川中銀口魚　　爲魚何不産海於
魚云物性皆隨分　　小水纖鱗合我居

도근천에서 고기를 잡음

도근천의 은빛 입의 고기는
어찌하여 바다에 살지 않는지
모든 물건은 제각기 따라야 할 분수가 있어
작은 물에서 비늘 번득이는게 나는 좋다고

【글자풀이】 • 都近川 : 제주성 서쪽 외도(外都)에 있는 내 수정천이라고도 함. • 銀口魚 : 은어.

斗　泉

金尙憲

淸冷細脉續天池　　一飮能令百步飛
自笑好仙來告晩　　胡生過後破玄機

말 물

맑고 싸늘한 가는 수맥이 하늘 못에서 이어져
한 번 마시면 능히 백 보를 날 수 있다네
우습구나 신선 좋아하는 이들이 한가히 하는 말
호종단 지나간 뒤 현묘(玄妙)한 기운이 없어졌다네

【글자풀이】 • 天池 : 조물주가 만든 큰 못. 93쪽 김정 한라산시 참조. 장자 逍遙遊에도 나오는 말. 백록담을 뜻함인 듯. • 玄機 : 현묘한 이치. 심오한 도리. • 胡生 : 제주의 수맥을 끊었다는 전설상의 胡宗旦. • 來告晩 : 저녁 때 와서 하는 말. 일이 다 끝난 시간에 한가히 일러주는 말.

【참 고】 斗泉 在州西一里 其形如斗 故名斗泉 世傳 飮者能解飛百步 胡宗旦 來厭其氣 遂亡 旱則淸 將雨下則 金氣浮出水面(海上佚史 心下 325쪽).

正 房 淵

李源祚

水從拏嶽隨雲下　　人自烘爐帶月還
近海猶存溪意味　　一邊林藪一邊山

정방연

물은 한라산에서부터 구름을 따라 내려오고
사람들은 홍로에서부터 달빛을 끼고 돌아온다
바다와 가깝지만 오히려 시내의 뜻이 있음은
한 쪽에는 우거진 숲이 있고 한쪽에는 산이 있기 때문

【글자풀이】 • 正方淵 :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正方으로 표기되었고 후기에는 주로 正房(-瀑布)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곳은 민간에서는 지금도 정모소(시)로 발음하여 부르고 있다. 정(正)은 정모시의 정의 음을 따고 모시는 모지다(方)를 따서 정방이라고 표기한 것을 어떤 사람은 正房으로 바꿔썼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다. • 拏嶽 : 한라산. • 烘爐 : 정방폭포 북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는 정의현(旌義縣 : 烘爐縣)의 치소(治所)이었다. • 藪 : 우거진 천연림을 제주에서는 곶이라 부르고 글자로 표기할 때는 이 글자를 쓴다.

正 房 瀑

金　俶

山爲臺坐海爲淵　　擊劒高歌望西邊
更瞻銀瀑從傍下　　疑入廬山洞裡天

정방폭포

산은 대좌되고 바다는 못이 되고
칼로 치고 서쪽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노래하다
다시 올려다 보니 흰 폭포가 곁으로 흘러
문득 여산의 골짜기에 들어온 듯하여라

【글자풀이】 • 擊 : 칠 격. • 廬 : 풀집 려. 농막 려. 廬山은 중국 구강현 남쪽에 있는 산. 옛이름은 남장산(南障山). 주나라 때 광속(匡俗)이 이 곳에 은거하였는데 왕이 사자를 보내어 찾았으나 신선이 되어 떠나가고 빈집(廬)만 남아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여산·광산(匡山)이라 부른다. 이 산 골짜기에 여산폭포가 있어 명승지가 되었다. 이백의 여산폭포시가 유명하다.

正 方 淵

金壽翼

雷動飛泉海作淵　　怳然光景浩無邊
更看壁上靑蓮句　　閣筆銀河落九天

정모소

우레 치며 나는 물줄기 바다에 못을 만들어
황홀한 광경은 넓기가 가이없네
다시 절벽 위의 이태백 싯구를 올려다보니
은하수가 떨어지는 듯이라 쓰고 붓을 던진 듯

【글자풀이】 • 閣筆은 글 쓰기를 마치고 붓을 놓음.

正 方 淵

李元鎭

絶壁懸崖捲彩霞　　忽看飛瀑掛天涯
銀河直瀉滄溟外　　欲放仙翁八月槎

정방연

매달린 듯 낭떠러지에 채색 안개 걷히니
문득 바라보니 나는 폭포 하늘 끝에 매달려
은하수가 곧바로 바다로 내뿜는 듯하니
신선늙은이는 팔월 배를 띄우고 싶어

【글자풀이】 • 懸 : 매달 현, 떨어질 현. • 捲 : 걷힐 권. • 八月槎 : 이백의 시 張翰江東去正値秋風時의 뜻을 취하여 쓴 말.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라는 뜻.

正 房 淵

李源祚

百尺洪濤鉅海駈　　溪流飛瀑勢還孤
雖然無此難爲勝　　二水三山自一區

정방폭포

넓은 바다를 백척의 높은 파도가 몰고 다녀
시내로 흘러 내리는 폭포는 형세가 외로운 듯
그렇지만 이 곳은 절승(絶勝)이라하기엔 어려움이 없으니
세 봉우리와 두 물줄기가 어우러져 한 구역을 이루었기 때문

【글자풀이】 • 濤 : 큰물결 도. • 二水三山 : 이수는 남경 서쪽 진회하(秦淮河)가 둘로 갈라지는 지점, 삼산은 남경 서남쪽에 있는 세 개의 봉우리로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함. 여기서 이수는 정방폭포와 소정방, 삼산은 섶섬·문섬·삼매봉이 아닌가하나 三山半落青天外 二水中分江自流의 싯구와 같은 풍광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음.

又

水從拏嶽隨雲下　　人自烘爐帶月還
近海猶存溪意味　　一邊林藪一邊山

물줄기는 한라산에서 구름따라 내려오고
사람들은 홍로에서 달빛을 받으며 돌아온다
바닷가이지만 시냇가의 정취가 있음은
한쪽에는 큰 숲이요 한쪽에는 산이 있기 때문

【글자풀이】 • 拏嶽 : 한라산. • 烘爐 : 정방폭포 북쪽 한라산 남쪽 기슭에 있는 마을. 정의·대정 양현이 나누어지기 이전에는 읍치(邑治)가 있던 마을. • 藪 : 숲 수. 덤불 수. 큰 늪 수.

又

鋪島如棋水似枰　　遠看宜色近宜聲
鍾鳴石應扁舟夜　　想起東坡來泊情

둥근 섬은 바둑같고 물결은 바둑판같아
멀리는 좋은 경치 가까이는 맑은 물소리
조각배 띄우고 쇠악기 돌악기를 연주하는 밤
소동파 뱃놀이하던 정취 생각나네그려

【글자풀이】 • 鋪 : 문고리 포. 펼 포. • 棋 : 바둑 기. • 枰 : 장기판 평.

正房淵

李翊漢

夜坐正房石　朝登天池淵
丹崖懸白日　翠壁掛長川
滄海孤吟裡　靑山一篴邊
行尋古寺路　松下澆茶烟

정방폭포

밤에는 정방폭포 돌 위에 앉았다가
아침에 천지연으로 가보면
붉은 벼랑엔 환한 해가 매달렸고
푸른 벽엔 긴 내를 걸어 놓았네
넓은 바다를 외로이 읊조리니
푸른 산에서는 한 가닥 피리 소리
옛 절 찾아 가는 길
소나무 밑엔 엷은 차연기

【글자풀이】 • 篴 : 피리 적, 날라리 적. • 澆 : 엷을 요, 걸칠 요.

天 池 淵

李　選

白龍低首下長空　　半壁青山霹靂雄
一躍前溟通萬里　　世人誰識造化功

천지연

흰 용이 머리를 숙여 반공에 내려옴인지
반 벽 푸른 산에 웅장한 뇌성벽력
한 번 뛰면 드넓은 앞바다에 이를 듯
세상 사람 그 누가 조화의 신비를 알런지

【글자풀이】 • '천지소'는 泉池淵 · 天淵(『탐라순력도』「천연사후」), 天池淵(『탐라지』), 天地淵(「제주지도」) 등으로 표기되었다. 天池는 장자소요유와 열자탕문편에 천지연이라는 말이 나온다.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다는 뜻을 취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 하다. • 霹靂 : 雷聲霹靂. 천지를 깨는 듯한 우뢰 소리. • 溟 : 넓은바다 명. • 造化功 : 천지조화의 신비.

白丈層岩百丈流　　謫仙仙去已千秋
廬山面目依然是　　愧乏淸詩記此遊

백 길 층층 바위 백 길 물줄기
이적선 신선되어 간 뒤 이미 천년
여산의 진면목 이곳에 그대로 있어
청아함이 부족한 시를 쓰며 놀기 부끄럽네

【글자풀이】 • 謫仙 : 이백이 자칭하여 귀양 온 신선이노라 한데서 유래된 말. 이백을 가리킴. • 仙去 : 仙化. 죽음을 고상하게 부르는 말. • 廬山 : 중국 강서성 구강현의 남쪽에 있는 경치 좋은 폭포가 있는 산. 141쪽 김정시 정방폭포 참조. 廬山面目은 廬山眞面目을 줄여 쓴 말. • 淸詩 : 이백의 여산폭포시를 가리킴 日照香爐生紫烟 遙看瀑布掛長川 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

天 池 淵

李元鎭

千壘蒼屛揷紫冥　　白虹雙飮碧泓澄
大鵬何日同風起　　一擧扶搖九萬層

천지연

천 겹의 푸른 병풍이 자명 속에 꽂혀 있어
흰 무지개 한 쌍이 넓고 맑은 물을 마시려는 듯
큰 봉황새는 언제면 바람과 함께 일어나서
구만 층의 하늘을 회리바람 일으키며 날아갈까

【글자풀이】 • 大鵬 : 상상 속의 큰 새. 곤(鯤)이 변하여 된 새이다. 등의 넓이가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한다. 날개를 펴면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壯子 逍遙遊). • 扶搖 : 회오리 바람. 붕새는 이 바람을 타고 구만리를 날아 올라가 6개월을 지나서야 쉰다(搏扶搖而上者九萬里. 장자 소요유).

天 池 淵

金尙憲

奇勝千年鬪朴淵　　要留新語賁南堧
龍公可笑論詩價　　噓送晴虹傳小篇

천지연

오랜 세월 박연폭포와 비견되는 빼어난 경치를 보고
새로운 말을 남겨 남쪽나라 강가를 꾸미려 하였더니
용공이 시의 값어치를 우습게 여겨
짧은 글에 맑은 무지개를 뿜어 보내네

【글자풀이】 • 勝 : 아름다울 승. 이길 승. 奇勝은 기이하고 아름다운 경치. • 朴淵 : 개성에 있는 유명한 폭포. 송도 삼절(松都三絶)의 하나. • 要 : 구할 요. 중요할 요. • 賁 : 꾸밀 비. 클 분. • 堧 : 강가의 땅 연. 빈터 연. • 噓 : 뿜을 허. 불 허. 아아 헌.

次李繡衣天池淵韻

李益泰

蒼崖屛擁瀑飛空　　何似廬山倒漢雄
晴雷動處恒飄雪　　天地無窮造化功

이수의의 천지연시 운을 빌어

병풍같은 푸른 벽에 휭하니 나는 폭포
어찌하여 여산폭포가 한라산에 넘어졌는지
개인 날도 우뢰치며 항상 눈이 날리니
천지조화의 신비 알 수 없구나

【글자풀이】 • 繡衣 : 御使. 巡撫御使로 왔던 李選을 가리킴. • 廬山 : 140쪽 김정시 정방폭포 참조. • 倒 : 넘어뜨릴 도, 엎드러질 도, 거꾸로 도. • 漢 : 한라산의 첫 글자만 쓴 것. 한수 한.

天 池 淵

金　俶

懸崖窈曲樹冥冥　　界瀑爭流落雪澄
正是蛟龍深窟宅　　有時飛躍上雲層

천지연

높은 벼랑 으슥한 골짝 어둑한 나무 빛
선 그은 듯 다투어 흐르는 폭포 눈같이 말끔하여
여기가 바로 큰 용이 사는 깊은 굴집이어서
어떤 때는 날아 뛰어 구름 위로 오른다

【글자풀이】 • 窈 : 고요할 요, 깊을 요. • 澄 : 맑을 증.

牛　　島

金尙憲

曾讀冲菴七字詩　　始聞瀛洲勝環奇
當時每恨仙區隔　　今日還爲颶母欺
咫尺勝遊知有數　　平生壯觀更無期
淸都舊侶如相念　　應許他年夢裡窺

우　도

일찍이 충암의 일곱 자씩 된 시를 읽고
비로소 영주는 좋은 경치로 둘러 있음을 알아서
그 때에는 매양 신선 사는 곳이 멀리 있음을 한탄하다가
오늘은 도리어 회리바람이 나를 속여
지척에 승지를 두고도 운수가 따라야 놀 수 있음을 알게 됐네
평생 동안 장쾌한 놀이는 기약할 수 없게 됐으니
청도의 옛 벗들이 만약 서로 생각한다면
응당 다른 날 꿈 속에라도 엿볼 수 있겠지

【글자풀이】 • 牛島 : 성안 동쪽에 있는 작은 섬(演坪島). • 颶 : 회리바람 구(사면에서 일정하지 않게 부는 바람). 일명 풍치(風癡). • 淸都 : 천제의 궁궐(淸都紫微 鈞天廣樂 帝之所居 列子 周穆王)

楸子夕泊二首

申光洙

歸舟一出鬼門關　　始見靑靑楸子山
瀟灑島中春色早　　竹籬茅屋似人間

저물녘 추자도에 배를 대고

귀문관 빠져나와 돌아가는 배
비로소 보이는 파란 추자도
이른 봄빛 펼쳐진 말끔한 섬
대울 초가집 보여 인간세상 같구나

【글자풀이】 • 鬼門 : 24방위중 귀신이 잠자는 방위. 즉 동북방(艮方). 음악(陰惡)의 기가 모여 모든 귀신이 출입하는 문. 여기서는 험난한 관문. • 瀟灑 : 瀟洒. 산뜻하고 말끔함.

題草蘭島石壁 二首

金尙憲

芙蓉一朶揷天池　　自古帆檣到此稀
香案舊臣來宿日　　夢中仙侶倘無違

초란도 석벽에 쓰다

부용 한 떨기 비단 속에 솟았는데
옛부터 배들은 오기 드문 곳
옛날 향안리이던 신하가 와서 자는데
꿈 속에라도 신선친구들은 어김이 없겠지

【글자풀이】 • 草蘭島 : 추자도 서남쪽에 있는 작은 섬. • 芙蓉 : 작은 산봉우리를 형용하는 말. • 香案 : 香案吏의 준말. 임금 곁에서 모시는 신하를 뜻함(我是玉皇香案吏 謫居猶得近蓬萊) • 截 : 끊을 절, 말할 절.
【참고】 첫 수 끝구절의 倘無違의 뜻은 꿈속에서라도 만날 약속을 어기지 않겠지로 확대 풀이할 수 있다. 꿈 속에라도 만나기를 바라는 뜻.

萬里鯨濤一片山　　孤雲獨客與俱還
明朝又截滄溟去　　回首仙洲縹緲間

초란도 석벽에 쓰다

만리의 거친 물결 속에 산 한 조각
외로운 구름 홀로된 나그네 함께 돌아간다
내일 아침에 푸른 바다를 가르며 떠나면
머리를 돌리면 제주도는 아득한 곳에 있겠지

三

敍　情

- 敍 情(서정)
- 贈 答(증답)

賑　民

肅宗大王

千里南溟移涉難　　風高移粟亦間關
報來船舶皆無恙　　天意分明濟寡鰥

굶는 백성을 먹여 살림

건너가기 어려운 남쪽 천리 바닷길
옮겨가는 곡식을 거친 바람이 막기도 하는데
건너가는 배들이 어려움 없었다고 알려왔으니
하늘의 뜻은 분명 어려운 이들을 구원하여 주려나 보다

【글자풀이】 • 賑 : 굶는 백성 먹일 진, 풍부할 진. • 恙 : 근심할 양, 병들 양. • 寡 : 과부 과, 적을 과. • 鰥 : 홀아비 환. 寡鰥은 어려운 사람들 즉 鰥寡孤獨을 줄여서 쓴 말. 여기서는 가장 어려운 백성이라는 뜻(鰥寡孤獨天下之窮民).

橋來路中

李源祚

馬駭群立視　　鼯黠巧投尋
雪裏眞奇絶　　幽花照客衿

교래촌 길가에서 본 것

말은 놀란듯 무리지어 서서 보고
박쥐는 약삭빨라 높이 몸을 던진다
정말 눈 속에 기이하고 빼어난 건
나그네에게 비쳐오는 조용한 꽃

【글자풀이】 • 橋來村 : 현 조천읍 교래리. 제주에서 깊은 산 속에 있는 마을. 주위의 산야는 국마를 기르는 산장(山場)이었다. • 駭 : 놀랄 해, 북울릴 해. • 鼯 : 박주 오. • 黠 : 약을 힐, 꾀작이 힐. • 幽花 : 동백꽃을 가리킴인 듯. • 奇絶 : 기이하고 빼어난 것.

題　詠

慧　日

海塢方殘臘　　霜枝忽發春
冷香唯可愛　　地僻少遊人

매화 핀 언덕배기 한 해가 저무는데
서린 내린 가지에 문득 봄꽃이 피었네
산뜻한 꽃내음 사랑스러워
치우쳐진 섬이지만 놈팡이는 적어

【글자풀이】 • 유인(遊人)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 있는 사람, 주색잡기에 빠져 놀고만 지내는 사람.

新　月

金聲久

遠客三秋夜　　滄溟萬里天
娟娟一片月　　應照北堂前

신 월

깊은 밤 멀리 떠나온 나그네
넓은 바다와 아득한 하늘
곱디 고운 한 조각 달
저 달은 우리 어머님 방에도 비치겠지

白　鷗

金容植

一生忘世適誰從　　水性閑閑月態濃
獨與漁翁盟不盡　　蘆花深處日相隨

갈매기

일생동안 세상일 잊고 누구를 따라 다님인지
성품은 물과 같고 자태는 달과 같아
홀로 고기 잡는 늙은이와 약속을 잊지 않아
갈대 꽃 깊은 곳에 날마다 따라다니네

玩　月

金聲久

一陣金風掃碧空　　氷輪高湧橘林東
分明此夜娟娟月　　北闕南州兩處同

달을 보고

한 줄기 가을 바람 푸른 하늘 쓸어 내어
귤숲 동쪽으로 둥근 달 높이 치솟는다
분명 오늘 밤 아름답고 아름다운 저 달은
북쪽의 궁궐이나 남쪽 땅을 꼭같이 비칠텐데

卽事有感

金聲久

一葉漂船掛海邱　　將軍氣勢凜秋濤
平生謾讀書千卷　　不向兵家學六韜

일을 당하고 보니

떠밀려 온 조각배가 바닷가 언덕에 메어지니
장군의 기세는 가을 물결 같이 늠름하다
평생에 또한 천권의 책을 읽었지만
병가의 육도삼략은 읽으려하지 않았으니

【글자풀이】 • 漂船 : 적선을 낮추어서 부른 말. • 將軍 : 제주목사가 방어사나 절제사를 겸대(兼帶)하기 때문에 목사를 장군이라 부른 것임. • 凜 : 찰 름. 용기가 왕성한 모양. • 謾 : 또 만, 설 만, 할 만, 느릴 만, 속일 만. • 韜 : 韜. 육도삼략(六韜三略). 병가의 기본서.

果園冬栢花爛開綠葉紅萼無異陽春極爲奇絶

李原祚

千林蕭索雪花欺　　窖竹盆梅亦已奇
如何冬栢華兼葉　　紅綠依然二月時

만발한 과원의 동백

잎 떨어진 모든 숲에 눈이 내려 눈꽃이 속이는데
움막 속의 대나무와 분매를 기이하다 하였더니
어찌하여 동백은 꽃과 잎이 모두 무성하여
붉고 푸른 빛이 의연하여 이월과 같은가

【글자풀이】 • 萼 : 꽃받침 악. • 極 : 지극할 극, 끝 극. • 絶 : 뛰어날 절, 끊을 절, 극진할 절. • 蕭 : 쓸쓸할 소, 쑥 소, 바람소리 소. 蕭索은 蕭條와 같음. 쓸쓸한 모양. • 窖 : 움(地室) 음. • 盆 : 동이 분. • 華 : 꽃필 화, 빛날 화.

迎郎曲

林　悌

三月三日桃花開　　雲帆片片過海來
妍粧調笑別刀浦　　岸上斜陽連袂廻

낭군을 맞이하는 노래

삼월 삼일에 복숭아꽃 피어날 때
구름 같은 돛배 바다를 건너오면
별도 포구에는 곱게 차려 입고 미소지으며
해 기우는 언덕 위로 소매를 끌고 돌아간다

【참고】送郎曲
朝天館裡泣愁紅　　黃帽催行理短篷　　東風不道娘娘怨　　吹送飛舟度碧空

迎 郎 曲

南九明

三時出望別刀堡　　簇簇商帆何處浦
同類相呼促理粧　　櫓聲東入朝天浦

님을 맞이하는 노래

때 마다 나아가 별도성에 올라 바라본다
상선들이 빽빽히 어느 포구로 가는가를
친구들을 서로 불러 몸 치장을 재촉하면
노 젓는 소리는 동쪽의 조천포로 사라지네

【글자풀이】 • 堡 : 작은성 보, 방죽 보, 둑 보. • 簇 : 모일 족, 가는대 족. 簇簇은 빽빽하게 모인 모양.

【참고】 送郎曲
炎海極天風浪多　郎君行李今如何　從前好事入春夢　枉被傍人作笑囮　쪽

歸 帆

金容植

水盡天晴雁亦稀　　輕輕短棹自何歸
不問應知吳楚客　　秋風一葉向南飛

돌아오는 배

물은 맑은 하늘에 이어졌고 기러기도 드문데
가벼운 작은 배는 어느 곳에서 오는지
묻지 않아도 응당 오초의 나그네임을 알았지만
가을 바람에 잎 날리듯 남쪽을 향하여 가네

【글자풀이】 • 吳楚客 : 오나라와 초나라이지만 남쪽나라를 뜻함. • 一葉 : 一葉片舟를 줄여 쓴 말.

元　日

金尙憲

正月思歸自仲秋　　鬢毛猶帶去年愁
誰知一倍驚心處　　今日高堂甲子周

정월 초하루

정월에 돌아갈 생각을 가을부터 해왔는데
지난해의 시름은 빈모와 함께 남아
누가 알리오 깜짝 놀라는 나의 심정을
오늘이 어르신네 생일인 것을

【글자풀이】 • 鬢 : 鬢의 속자. • 驚 : 놀랄 경. • 高堂 : 부모님을 뜻함. • 甲子周 : 갑자는 육십갑자의 첫 번째이나 여기에서는 생일을 뜻한다. 周는 돌아오다. 甲子周는 생일이 돌아오다, 아니면 환갑이 돌아오다.

贈耽羅妓

林　悌

戍角吹殘海日高　　翠帷香盡聽寒潮
佳人睡暈留雲鬢　　手摘黃柑債解消

탐라의 기생에게

바다의 해 높이 올라 수루의 고각소리도 멎었고
푸른 휘장에 향기 다하여 들리는 건 싸늘한 파도소리
미인의 졸음기가 귀밑머리에 감도는데
손수 황감 껍질을 벗기어 풀어준 빚 갚으려 하네

【글자풀이】• 戍 : 수자리 수. • 帷 : 휘장 유, 장막 유. • 暈 : 무리 운. • 鬢 : 여자의 탐스러운 귀밑머리. • 摘 : 들춰낼 적, 딸 적. • 債 : 빚질 채, 빚줄 채.

靈谷歸來不勝仙興乃作步虛詞

林　悌

玉洞朝眞駕鶴歸　　晴雲低濕紫烟衣
殘棊一局海天曉　　月照瑤壇星斗稀

영곡에서 돌아와 신선의 흥취를 어기지 못하여 이에 보허사를 지었다

옥동의 신선을 뵙고 학을 타고 돌아오는데
맑은 구름 신비스런 연기에 옷이 적신다
한판 바둑 끝날 무렵 바다 하늘 밝아오니
희미한 별빛에 요단에 비치는 달

【글자풀이】 • 玉洞 : 신선이 사는 곳. • 紫烟 : 신비롭게 흩어진 연기. • 瑤壇 : 신선이 머무는 곳.
【참고】 • 步虛詞 : 악부의 이름. 신선들이 가벼이 공중을 떠다니는 아름다움을 노래한 내용. 많은 명시인들이 이 제목에 따라 시를 지었다.

滯宿水望村

李源祚

冬栢林中疊石墻　　堦前樹柵馬牛場
主人迎拜頗淳實　　備說今年糴最難

길이 막혀 수망촌에 묵다

동백꽃 숲 속에 돌로 쌓은 울담
섬돌 앞 나무 우리는 소와 말의 마당
절하여 맞이하는 주인은 자못 순박하고 진실되어
금년에는 환상(還上)이 어렵다고 또박또박 말을 하네

【글자풀이】 • 水望村 : 현 남원읍 수망리. • 堦 : 섬돌 계, 뜰 계. • 柵 : 우리 책, 목책 책. • 糴 : 쌀 사드릴 적. 조선시대 관고의 쌀을 백성에게 내어주었다가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일(還穀).

放鹿於飛揚島

李衡祥

我還江閤汝還山　　物理人情各自安
從此參商俱落落　　八公山外海漫漫

비양도에 사슴을 방목하고

너를 산으로 보내고 나는 강가의 집으로 돌아간다
동물의 정리와 사람의 마음이 모두다 편안하게
지금부터 너와 나는 모두다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구나
팔공산을 벗어나서 아득한 바다를 사이에 두고

【글자풀이】 • 飛揚島 : 제주의 서쪽 차귀진 명월진 가까이 있는 섬. 죽도(竹島)로도 불리웠다. • 閤 : 침방 합(寢房), 도장 합(궁내소문), 개구리소리 합. • 參商 : 삼성(參星)은 가장 남쪽에 있는 별 상성(商星)은 가장 북쪽에 있는 별, 반대쪽에 있음을 뜻한다. • 落落 : 떨어져 있는 모양, 늘어져 있는 모양. • 八公山 : 미상.

送濟州判官姜聖佐入拜訓鍊院正

金聲久

牧伯超陞向帝畿　　判官移拜赴梱閫
不知旌義何如者　　長送人歸獨未歸

제주판관 강성우가 훈련원정으로 옮겨감을 전송하다

목사는 진급하여 서울로 들어가고
판관은 훈련원으로 옮겨가는데
무슨 때문인지 알지를 못하겠네 정의현감은
돌아가는 이 전송만 하고 홀로 돌아가지 못하는지

【글자풀이】 • 判官 : 通判, 半刺. • 梱閫 : 병마를 통솔하는 임무. 여기서는 훈련원정. • 超陞 : 승진. • 姜聖佐 : 숙종5년(1679) 제주판관에 도임하여 다음해 5월에 떠나갔다.

送 郎 曲

南九明

炎海極天風浪多　　郎君行李今如何
從前好事入春夢　　枉被傍人作笑囮

님을 보내는 노래

먼 남쪽 끝 바다 풍랑이 많은데
님의 행장은 지금 어떻게 꾸렸는지
앞서는 좋은 일로 봄 꿈을 꾸었는데
잘못되어 곁 사람들의 비웃음만 끌어드렸네

【글자풀이】 • 炎海 : 炎은 남쪽(午, 火)를 뜻함으로 염해는 남쪽 바다. • 行李 : 여행 다닐 짐꾸러미. • 春夢 : 청춘의 잠자리, 정사를 뜻함. • 囮 : 새후릴 와(鳥媒). 여기서는 끌어드리다. 불러 일으키다의 뜻.

【참고】 迎郎曲

三時出望別刀堡　　簇簇商帆何處浦　　同類相呼促理粧　　櫓聲東入朝天浦　　쪽

戱　題

金聲久

雨兼昏霧霧兼風　　如在鴻濛混沌中
須臾開豁分高下　　我是三皇以上翁

장난삼아 짓다

내리는 비에 어두운 안개 안개에는 바람이 겹쳐
천지가 개벽할 때 혼돈세계 같구나
잠깐 골이 내뚫여 하늘과 땅 나뉘어지니
나는 바로 삼황시대 이전의 늙은이

【글자풀이】 • 鴻 : 클 홍, 기러기 홍. • 濛 : 부슬비 몽. 천지가 아직 나뉘어지지 아니한 상태(鴻濛). • 混 : 덩어리질 혼, 섞일 혼. • 沌 : 기운덩어리 돈, 뭉킬 돈. 混沌은 천지가 개벽할 때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어지지 않은 모양(渾沌, 混淪). 사물의 구별이 확실치 않음을 일컫는 말. • 豁 : 내뚫린골 활, 소통할 활.

遣　興

金聲久

香霧霏微擁橘林　　西山蒼翠送輕風
陶然醉後油然臥　　一榻淸風抵萬金

홍취에 따라

귤림을 감싸 나는 듯한 향기로운 안개
푸르른 서쪽 산에서 불어 오는 가벼운 바람
기분 좋게 취한 뒤에 예사로이 누어 있으니
평상에 감도는 맑은 바람 만금에 맞먹겠네

【글자풀이】 • 遣 : 보낼 견, 쫓을 견. • 霏 : 날릴 비. • 擁 : 안을 옹, 옹위할 옹. • 陶然 : 기분이 좋은 모양. • 油然 : 예사로운 모양. • 榻 : 자리 탑, 평상 탑. • 抵 : 당할 저, 닥드릴 저, 대저 저.

送奴北歸待風別刀浦

南九明

故國迢迢隔海門　　征人夜宿別刀村
篙工曉報便風至　　坐看南雲向北翻

별도포에서 바람을 기다려 북쪽으로 가는 머슴을 보내며

바다로 막혀 있는 아득한 고향 땅으로
가는 사람은 별도포에서 하룻밤을 묵었네
이른 아침 뱃사공이 바람 좋다 알림으로
홀로 앉아 남쪽 구름이 북쪽으로 흘러감을 바라본다

【글자풀이】 • 別刀浦 : 지금의 화북포. 육지를 출입하는 이들이 이곳으로 많이 드나들었다. • 北歸 : 작자의 고향이 경주임. • 征人 : 본 뜻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인데 여행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함. • 故國 : 본 뜻은 고향나라이나 여기서는 고향을 뜻함. • 篙工 : 사공.

三月十三日祭海

申光洙

船上三更一炷香　　滿天星月祭龍王
依俙想得神靈意　　雙燭火前海不揚

삼월 삼일에 바다신에 제사하다

배 위에서 삼경에 한 가닥 향을 피우고
달과 별 가득한 날씨에 용왕께 제사 드린다
희미하게 신령님의 뜻을 얻은 듯 생각되고
한 쌍의 촛불 앞의 바다는 잔잔하다

【글자풀이】 • 炷 : 심지 주. • 依俙 : 어렴풋함, 분명치 않음.

次梅溪韻

金容植

尋眞海客問幽棲　　野藪荒原路不齊
別有高人談道處　　寒梅花下月明溪

매계의 시에 차운함

신선을 찾아 온 바닷나그네 유인의 집을 찾으려니
들 숲 거친 평원 길은 가즈런치 않구나
별천지에 살면서 고상한 이가 도를 이야기하는 곳은
싸늘한 매화꽃 밑에 밝은 달 비치는 시냇가

【글자풀이】 • 梅溪 : 제주사람 이한진(李漢震)의 호. 순조 23년(1823)에 낳고 고종 18년(1881)에 졸했다. 추사의 문인. • 藪 : 덤불 수, 숲 수, 큰숲 수.

淡似玉人瘦似翁　　十分風致月明中
尙嫌無處韜淸影　　肯向陶園妍艷紅

담박하기는 옥인 같고 빼빼하기는 늙은이 같아
밝은 달 아래에서 풍치가 제일 좋다
맑은 그림자 감출 곳 없음을 싫어하여
즐거웁게 글 읽는 이의 뜰에 곱게 피었네

【글자풀이】 • 瘦 : 파리할 수, 여윌 수. • 嫌 : 싫어할 혐, 의심할 혐. • 韜 : 韜. 감출 도, 도략 도, 칼전대 도. • 陶園 : 江蘇省 武進縣 소남문(小南門) 밖에 있는 정원. 명나라 唐荊川이 글을 읽던 곳. 곁에 당형천의 묘가 있다. 여기서는 글 읽는 선비의 뜰. • 玉人 : 옥으로 만든 인형, 옥을 다듬는 공인, 옥같이 고운 사람. 미인을 뜻함.

朝天館送小妓

南九明

細馬紅粧到海村　　淡雲疏雨近黃昏
風流恐被傍人笑　　一宿催還生白軒

조천관에서 어린 기생을 보내며

붉게 단장한 좋은 말을 타고 바닷마을에 이르르니
옅은 구름 성긴 빗날 황혼이 접어든다
멋스러움이 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서
하룻밤 지낸 뒤 빈 방으로 돌아가라 재촉하였네

【글자풀이】 • 細馬 : 좋은 말. • 紅粧 : 붉게 꾸밈, 여자의 화장. • 生白軒 : 빈 방 또는 아침 햇볕이 비치는 방. 뚫린 벽을 보면 빈 방에 하얀 빛이 있고 거기에는 길한 징조가 있다(瞻彼闋者 虛室生白吉祥止止(장자 人間世))에서 인용한 말. • 朝天館 : 제주의 아홉 곳 방호소의 하나 (현 조천읍).

咏水仙花

金左根

氣味高爭富貴家　　自持寒素去繁華
窓前葆得春風滿　　想見仙山一種花

수선화를 읊음

기품과 풍미는 고상하여 탐스런 꽃과 다툴만 하지만
한미하고 소탈함을 자처하여 화려한 꽃들과 떨어져
창 앞에 더부룩이 자라 봄바람 가득 채워 주는데
생각해 보면 신선이 사는 산 속에서 옮겨 왔겠지

【글자풀이】 • 葆 : 더부룩할 보. • 仙山 : 제주를 뜻함.

玉潔氷淸出衆芳　　梅花蘭蕙强和光
出門一笑知何處　　伊人宛在水中央

옥과 얼음같이 맑아 모든 꽃에 뛰어나
매화와 난초를 그 빛에 어울리게 한다
문 밖 어느 곳에서 웃고 있음을 알겠는데
그 사람은 완연히 물 가운데 있었구나

【글자풀이】 • 伊人 : 그 사람. 조식(曹植)의 낙신부(洛神賦)에 나오는 물신선인 낙비(洛妃)를 뜻함. • 强 : 강요할 강, 억지로 강, 강할 강. • 和光 : '빛살을 어울리게 하며 보잘 것 없는 것도 같게 한다(和其光同其塵)'는 노자의 글귀를 줄여서 쓴 말이나 여기서는 '어울려 보려 하였다'고 풀이해도 무방함.

盈盈脉脉洛妃來　　擎出金罍玉手開
好是月明相見處　　一團風味個中催

정을 품고 바라보며 낙비가 오는 듯한데
부드러운 손을 펴서 금술잔을 받쳐든 듯
달 밝은 때 바라봐 예쁜 멋을 찾아보면
한 가닥 멋스러운 맛은 그 속에서 드러나네

【글자풀이】 • 伊 : 저 이, 이 이. 이것 저것을 뜻함. 伊人은 수선화를 의인화하여 불렀음. • 盈 : 찰 영, 남을 영. 盈盈은 여자의 용태가 아름다운 모양, 물이 가득한 모양. • 脉 : 脈의 속자. 연달을 맥. 脉脉은 서로 정을 품고 바라보는 모양, 일관하여 끊어지지 않는 모양. • 擎 : 들 경. • 罍 : 술동이 뢰(雲雷의 무늬가 그려진 禮器). 金罍는 금으로 만든 정중한 술잔.

瓷甁貯水揷兩芙蕖

李源祚

瓷甁如玉水如氷　　靜對雙蕖俗慮澄
憐渠落在游泥土　　竹覃牙床拔擢登

사기병에 꽂힌 연꽃 두 송이

옥같은 사기병 얼음같이 맑은 물
두 송이 꽃 바라보노라면 속된 시름 말끔
진흙탕의 저 연꽃이 불쌍하여서
대자리 평상 위로 옮겨다 놨지

【글자풀이】 • 蕖 : 연꽃 거. • 渠 : 저것 거, 무엇 거, 개천 거. • 擢 : 가릴 탁, 뽑을 탁, 앞설 탁.

物欲其全不欲摧　　問渠何事舊池開
芳蘲等是終銷歇　　願被高人採掇來

물욕은 온전히 꺾어버리기 어려운 것
너는 무슨 일로 흙탕물에 피어나서
그토록 맑은 향기녹아 다할 때까지
고상한 사람이 캐어 가길 바라니

【글자풀이】 • 摧 : 꺽일 최. • 蘲 : 향기 향, 곡기 향, 기장 향. • 銷 : 녹일 소, 쇠할 소, 헤칠 소. • 歇 : 다할 헐, 쉴 헐. • 掇 : 캘 철, 주워가질 철.

送 郎 曲

林　悌

朝天館裡泣愁紅　　黃帽催行理短篷
東風不道娘娘怨　　吹送飛舟度碧空

낭군을 보내는 노래

조천관에는 시름 져 우는 여인내
바삐 봉창을 손질하는 뱃사람들
봄바람은 아가씨들 원망 아랑곳 않고
날으는 탄 배에 불어와 푸른 하늘도 넘을 듯

【글자풀이】• 黃帽 : 한나라 때 배의 출입을 관장하던 벼슬을 黃頭라 불렀다(이제현 시 소악부 106쪽 참조). 황모는 황두의 뜻인 듯 하다. • 篷 : 봉창 봉. 道 : 말할 도.
【참고】迎郎曲
三月三日桃花開　雲帆片片過海來　妍粧調笑別刀浦　岸上斜陽連袂廻

登　高

李元鎭

登高南嶽擧深觴　川上歸來興更長
滿眼黃花如昨日　一樽仍作兩重陽

남악에 남쪽으로 올라 술잔을 들고
냇가 따라 돌아오는 길 흥겨움이 절로 인다
지난 날 보았던 국화꽃이 눈에 가득해
한 동이 술로 중양절을 두 번 맞이하네

【글자풀이】 • 兩重陽 : 음력 9월 9일. 9일은 양수(陽數)인데 이것이 거듭되는 날.

次吳生泰稷水仙花十絶

李源祚

愁絶寒花倚短叢　　水仙何日海之東
蘇黃題品多文勝　　不見唐人舊譜中

오태직의 수선화 시 열 수에 차운함

짧다란 떨기에 근심스러운 듯 싸늘한 꽃
물신선이 어느 날 우리 나라로 왔는고
소식과 황정견은 고아하다고 품평했지만
중국인의 옛 화보(花譜)에는 없는 꽃일세

【글자풀이】 • 愁絶 : 근심(絶은 어조사). • 蘇黃 : 송대의 문장 소식(蘇軾)과 황정견(黃庭堅). • 題品 : 고하우열을 매김함. • 文勝 : 지나치게 꾸며졌다는 뜻(質勝則野 文勝則奢 : 論語 雍也篇). • 譜 : 족보 보. 여기서는 화보(花譜)를 뜻함. • 唐 : 중국을 가리킴.

【참 고】 吳生泰稷 : 순조 7년에 나서 철종 2년에 졸한 제주의 선비. 자는 여빈(汝濱) 또는, 여대(汝大). 호는 소림(小林). 사마시에 뽑혔고 시문에 능했다. 작자가 제주목사 재직시에 교유가 깊었음.

• 수선화는 구근(球根)의 절반이 땅 위로 툭 불거져 자란다. 꽃은 싸늘해 보이지만 노란 꽃술이 봄기운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우뚝 솟아 쓸쓸하다(孤寒) 어찌 성품이 봄의 따뜻함을 닮았는고(何似性春溫)'라 한 것이다.

無物含生不土根　　孤寒何似性春溫
詩人梅癖猶多事　　郊島吟邊欲斷魂

흙 속에 뿌리 박히지 않고 자라나는 식물은 없는데
외롭고 싸늘한 것이 본성은 봄인 듯 따뜻하다
시인들 많은 이가 매화를 몹시 좋아하지만
맹교(孟郊)와 가도(賈島)는 이 꽃을 애절하게 읊었지

【글자풀이】 • 含 : 머금을 함, 품을 함. • 癖 : 버릇 벽. 梅癖은 매화를 심히 좋아하는 버릇. • 斷魂 : 단장(斷腸).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짐. • 孤 : 우뚝할 고(特), 외로울 고. • 郊 : 들 교, 시외 교. 당나라 시인 孟郊. • 島 : 섬 도. 당나라 시인 賈島.

物貴希珍遠始佳　　榴紅萄碧滿園開
怪事年來輸異種　　不供籩實只供奢

드문 것을 귀하게 여기고 먼뎃 것을 아름답다 하여
빨간 석류와 파란 포도를 정원에 가득 심는다
기괴(奇怪)한 것을 일삼는 이들이 유별난 종자를 들여와서
제사 그릇에 담지는 않지만 사치함에 한몫 한다

【글자풀이】 • 輸 : 보낼 수, 짐 수. • 籩 : 제기 변. • 實 : 채울 실, 열매 실, 참으로 실. • 奢 : 사치 사, 과분할 사.

越橐來時未葉莖　　孤根何事玉椀盛
蚤知南北皆同臭　　應把庭蘭作弟兄

남쪽으로 왔을 때는 잎과 줄기가 없었는데도
외로운 뿌리를 어쩐 일로 고운 화분에 심었던고
남쪽의 꽃향기와 북쪽의 꽃향기가 같은 줄을 알았다면
응당 정원의 난초 곁에 심어 의형제를 맺어줄 걸

【글자풀이】 • 越 : 월나라 월. 남쪽에 있는 나라이므로 남쪽 지방이라는 뜻. • 橐 : 전대 탁, 풀무 탁, 절구질하는 소리 탁. • 莖 : 줄기 경, 칼자루 경. • 椀 : 주발 완. 玉椀은 고운 화분. • 盛 : 담을 성, 성할 성. • 蚤 : 일찍 조(早), 벼룩 조. • 臭 : 향내 취, 냄새 취, 맡을 후. • 把 : 묶음 파, 잡을 파, 움큼 파.

埋沒蓬嵩山海傍　　凌波仙侶芰荷裳
芳心定似幽閨女　　羞與園花妬艷粧

봉호산 바다 곁에 묻혀 있어도
물결 위의 신선들은 뜯어 엮어 옷을 만든다
향기로움은 규방의 아리따운 아가씨같아
정원의 꽃들과 더불어 요염함을 다투지 않네

【글자풀이】 • 蓬嵩 : 봉래산을 뜻함. • 傍 : 곁 방. • 凌 : 업신여길 릉, 얼음 릉. 凌波는 미인의 걸음이 가볍고 우아함. • 芰 : 마름 기. 芰荷裳과 芰荷衣, 마름과 연잎을 엮어 만든 옷, 전의하여 은인이 입는 옷(離騷經). • 閨 : 규방 규. • 羞 : 부끄러워할 수, 음식 수. • 妬 : 강새암할 투, 시새울 투.

【참 고】 다음 시의 '이 지방 사람들은 수선화를 무명초로 본다(土人曾視無名草)' 함은 수선화의 진가를 모른다는 말인데 추사(秋史)도 적거처(謫居處)를 수선화실(水仙花室)이라 편액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제주 사람 조헌(兆軒) 오정빈(吳廷賓 : 1660~1711)은 이미 수선화시를 지었었다.

京洛逢渠始識姿　　歸來粧點效嚬眉
土人曾視無名草　　半破瓦盆分亦宜

서울에서 수선을 보고 그 자태를 알았는데
이 곳에 와서는 본대로 꾸며 놓았지만
지방 사람들은 유명한 꽃인줄 알지 못하니
조각난 화분에 심는 것이 그럴싸 하지 않는가

【글자풀이】 • 粧 : 단장 장, 단장할 장. 粧點 : 단장함. • 點 : 점 점, 흠 점, 물방울 점, 잎 점, 점찍을 점, 조사할 점, 끄덕거릴 점, 켤 점, 따를 점, 가리킬 점, 더럽힐 점. • 嚬 : 찡그릴 빈. • 眉 : 눈썹 미, 가 미. • 效嚬 : 월나라의 미인 서시가 불쾌한 일이 있어 얼굴을 찡그렸더니 한 추녀(醜女)가 그걸 보고 흉내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서 무턱대고 남의 흉내를 냄을 이름.

南來慣見不時春　　弱植娉婷負雪新
無端學得京華樣　　辛苦移培却費神

남쪽에서는 때아닌 봄을 보는건 으레 있는 일이지만
나약하고 예쁜 꽃이 눈에 덮여 피었으므로
공연히 서울에서와 같이 이 꽃을 가꾸려고
어렵사리 옮겨 심으며 헛수고를 했었네

【글자풀이】 • 慣 : 익숙할 관. • 娉 : 예쁠 병, 장가들 빙. • 婷 : 예쁠 정. • 負 : 짐 부, 업을 부, 등질 부. • 培 : 북돋을 배. • 却 : 도리어 각, 물리칠 각. • 費 : 쓸 비, 넓을 비.

【참고】 제주에서는 로지에서 수선화를 가꿀 수 있는데 육지에서와 같이 분에 심어 헛수고를 하였다는 뜻.

春疑未破蓀爲蘭　　釗脊無香負歲寒
形色終嫌黃白異　　此花宜水更宜山

봄인 듯하나 난초는 꽃망울을 터트리지 못하고
둔한 등성이 추위에 떨어 향기를 내지 못한다
모양과 빛깔은 황백의 특이함을 싫어하지만
물가에 심어도 좋고 산 속에 심어도 좋은 꽃

【글자풀이】 • 疑 : 헤아릴 의, 의심할 의. • 蓀 : 난초 손, 창포 손. • 釗 : 둔할 일. • 脊 : 등성마루 척, 등골뼈 척. • 嫌 : 싫어할 혐, 미움 혐.

一望茅葦萬石墻　　瓊桃瑤草盡荒唐
支離衙閣花三見　　無暇詩騷檢藥方

둘러보면 초가집과 돌담들 뿐이어서
귀한 꽃 귀한 풀도 주착없이 버리네
아각에서 삼년이나 이 꽃을 보면서도
글로 쓴 것과 약에 쓰임을 살피지 못했네

【글자풀이】 • 茅 : 띠집 모, 띠 모. • 葦 : 갈대 위, 거룻배 위. • 瓊 : 옥 경. • 桃 : 복숭아도. 瓊桃는 아름다운 꽃. • 瑤草 : 아름다운 풀. • 荒唐 : 거칠고 주착없음. • 衙閣 : 관청의 건물. • 支離 : 이리저리 흩어짐. • 暇 : 겨를 가. • 騷 : 시부 소, 떠들 소, 급할 소. • 檢 : 조사할 검, 법 검.

翩翩雲鳥久思鄕　　一笑塵纓濯彼滄
莫道山人無雅致　　數畦杞菊足相當

높이 날아가는 새는 고향생각 오래 하여
저 맑은 물에 갓끈 씻음을 비웃는다
산사람에게 고상한 취향 없다고 말하지 마라
구기자나 국화를 심어도 마땅하지 않은가

【글자풀이】 • 翩翩 : 빨리 날아가는 모양, 왕래하는 모양. • 雲鳥 : 높이 날으는 새. • 纓 : 갓끈 영, 노 영. 塵纓은 세속 사람이라는 뜻. • 濯 : 빨 탁, 씻을 탁. • 彼 : 저 피. • 滄 : 큰바다 창, 찰 창. • 道 : 말할 도. • 雅 : 우아할 아. 雅致는 아담한 운치. • 畦 : 두둑 규, 쉰이랑 규. • 杞 : 소태나무 기.

卽　事

南九明

煙臺小卒報船來　故國音書待一開
夕霧乍收帆影近　數聲漁篴向村迴

연대의 소졸이 배가 온다 알려 왔다
고향 소식 편지 펴 보기 기다린다
저녁 안개 잠깐 걷히고 돛 그림자 가까워 오고
몇 가닥 뱃고동 소리가 마을로 울려 퍼진다

【글자풀이】 • 煙臺 : 바닷가에 외적의 정세를 살피기 위하여 쌓은 높은 대. 언제나 병졸들이 지키며 일이 있을 때는 연기를 올려 알렸음. • 乍 : 잠깐 사. • 篴 : 피리 적, 저 적, 날나리 적.

嘲圓覺經

金　　坵

蜂歌蝶舞百花新　　摠是華藏藏裏珍
終日啾啾說圓覺　　不如緘口過殘春

원각경을 조롱하며

온갖 꽃 새로운데 벌의 노래 나비춤
모두 꽃 속에 감추어졌어도 진기하긴 매한가지
온종일 찍찍 원각경을 외우는 것 보다
입다물고 남은 봄을 보내는게 나을텐데

【글자풀이】 • 圓覺經 : 불경의 이름. 당나라 불타다라(佛陀多羅)가 번역했다.(대장경 天帙十一) • 嘲 : 비웃을 조, 조롱할 조. • 啾啾 : 벌레의 우는 소리, 새의 우는 소리. • 緘 : 닫을 함, 묶을 함.

【참고】 時覺國崇信佛法上下奔走要福之場權臣崔沆彫圓覺經令公跋之公不肯許作此嘲之沆怒曰謂我緘口耶遂左遷濟州判官(온 나라가 불법을 숭신하여 위 아래 모두가 복을 빌기에 분주하였다. 권신최항이 원각경을 새기고 공에게 발문을 짓도록 했다. 공이 기꺼이 짓지 않고 이 시를 지어 조롱했다. 최항이 노하여 말하기를 나를 보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말인가 하고 곧 제주판관으로 좌천시켰다.

雪滿漢拏未遂登臨之志二月初五日夜夢登高原遙
見靑巒依舊綠樹重重有一物皎皎如鶴余初以爲鶴
傍有一人曰非鶴也殘雪耳乃諦視則雪也余戲曰白
雪之白何以異於白鶴之白覺來甚有奇趣乃成一絶

林　悌

碧樹千重山寂寥　　旅宵孤夢政迢迢
耽看一隻淸溪鶴　　認是幽巖雪來消

한라산에 눈이 쌓여 오를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월 초닷새 날 밤 꿈에 높은 곳에 올라 멀리 푸른 봉우리 한라산을 바라보니 빽빽한 푸른 나무에 한가지 하얀 물건이 학과 같아 처음에는 학으로 여겼는데 옆 사람이 학이 아니라 녹다 남은 눈이라 했다. 자세히 보니 눈이었다. 나는 흰 눈이 하얀빛과 흰 학의 하얀빛이 어떻게 다른 가라고 말하면서 꿈을 깨었다. 심히 기이한 취향이 있어 한 수 짓는다

푸른 나무 빽빽하고 산은 고요한데
나그네의 밤 꿈은 정말 까마득하기만
한 마리의 청계학을 욕심 내어 보았는데
알고 보니 바위 위의 녹지 않은 눈

【글자풀이】 • 迢 : 멀 초, 높을 초. 迢迢는 까마득한 모양. • 淸溪鶴 : 淸溪는 여러 곳에 있다. 四川省 漢源縣 남쪽 요새에 있는 관(關)의 이름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 관명을 인용하여 변방의 학을 뜻함이 아닌가 한다.

贈　別

申光洙

鼕鼕打鼓放船時　　月落東風滿兩旗
蠻女亦知至事急　　莫將離恨送男兒

이별하면서

둥둥 북을 치며 배를 놓을 때
봄바람에 달은 지고 두 깃발이 펄쳐졌네
남쪽 지방 여자도 나라일 급한 줄 알고
이별하는 슬픔으로 남아를 보내려하지 않네

【글자풀이】 • 鼕 : 북소리 동. • 兩旗 : 어사의 기와 용왕의 기인 듯. • 蠻 : 남쪽 오랑캐 만. 蠻女는 남쪽지방 즉 제주의 기생을 뜻함.
※ 月蟾이 이 때에 想思別曲을 불렀다는 시인의 주가 있다.

日暮轅門胸次輪囷與裨將輩話餘一絶遣懷

林　悌

襟懷歷落有誰知　　談笑同人坐似癡
明月自然無意緒　　一軒淸夜照梅枝

군문에서 마음이 어수선하여 비장들과 이야기하다 한 수 지어 회포를 풀다

뒤섞인 마음 속을 그 누가 알리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다 바보 같아
밝은 달은 아무런 뜻이 없는 듯
맑은 밤 툇마루의 매화가지를 비친다

【글자풀이】 • 轅門 : 군문(軍門)과 같다. 여기서는 제주영문을 뜻한다. • 胸次 : 가슴 속. • 輪囷 : 위아래 좌우로 꺾이고 굽은 모양. 높고 큰 모양. • 裨將 : 목사 밑에 딸린 육방의 우두머리. • 襟懷 : 마음속 깊이 품은 생각. • 歷落 : 뒤섞임. 소리가 크지 않은 모양. 속세를 떠나 청아한 모양(磊落).

初度日値春分州妓綠碧問病餉橘以詩謝贈

申光洙

瀛洲仙子霧鬟青　　白鹿春騎下海亭
聞是使郎初度日　　摘來南極老人星

춘분절에 생일을 맞이했다. 기생 녹벽이 귤을 가지고 문병왔으므로 시를 지어주어 사례하였다

물가에 사는 신선 같은 귀밑 머리여
흰사슴이 봄을 태워 바닷가로 내려온듯
듣건데 어사낭군의 생일날이라 하여
남극노인성을 따 왔노라고

【글자풀이】 • 初度日 : 생일, 환갑날. • 霧鬟 : 안개 같은 귀밑머리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를 표현한 말. • 白鹿 :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흰 사슴. 여기서는 신선을 뜻함. • 使郎 : 使는 어사(御使)의 뜻. 郎은 낭군(郎君)의 뜻. 정분 있는 어사를 아껴 부른 말. • 南極老人星 : 南極星, 老人星, 壽星. 한번 보면 오래 산다는 별.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한라산 남쪽에서만 보인다. 여기서는 귤을 이 별에 비유한 말.

聞觀德亭梅花始開 折數枝以來 花心尙早 忽起老杜「梅蕊驚愁眼」分韻 作五絶(選二首)

金尙憲

觀德亭前二樹梅　　春風昨日數枝開
孤舟萬里思歸客　　獨嗅寒香意未裁

관덕정 앞뜰의 매화가 피었다는 말을 듣고 꺾어오게 하였는데 아직 덜 피어 있었다. 문득 두보의 「매화송이가 놀라 근심스레 눈뜬다」는 싯귀가 생각나서 운을 나누어 다섯 수를 지음(2수 뽑음)

관덕정 앞 두 그루 매화나무에
어제 봄바람에 몇 가지 피었다기로
물 건너 멀리와 돌아가고 싶은 나그네가
혼자서 싸늘한 향기 맛보며 맘 못잡는다

【글자풀이】 • 觀德亭 : 작자가 어사로 왔던 제주의 관정(官亭). • 老杜 : 두보(杜甫)를 일컬음. 두목(杜牧)을 소두(小杜)라 함에 대한 말. • 蕊 : 꽃술 예. • 驚 : 놀랄 경. • 嗅 : 맡을 후. • 裁 : 마를 재, 결단할 재.

菊英故合騷人食　　梅蕊還且詩客眼
他鄕相見莫相驚　　度盡歲寒方一莞

국화는 소인이 따서 먹었고
매화는 시인이 눈여겨 봐왔으니
타향에서 만나도 놀랄 게 없지
추위 다 지나가니 웃을 수밖에

【글자풀이】 • 騷人 : 근심을 푸는 사람, 시인. • 殽 : 먹을 손, 지을 손. • 度 : 건널 도, 법도 도, 헤아릴 탁. • 莞 : 웃을 완, 왕골 완.

憫　荒

申光洙

石田頻歲海民饑　　滿目淒凉物色悲
從古漁塩無市國　　如今風雨絶船時
長毛鎭卒偸廚肉　　黃面蕃姑剝樹皮
我亦王臣來此地　　每當朝夕自停匙

흉년을 고민함

돌밭인데 흉년이 잦아 바다백성 주리니
보이는 것 모두다 처량하고 슬프구나
옛부터 고기 잡고 소금 구어도 저자는 없는 나라
요즘은 비바람 불어 육지의 배도 끊겼으니
늙은 관아의 졸개는 부엌 고기를 훔쳐가고
누렇게 부황난 변방의 아낙네는 나무껍질을 벗긴다
나 또한 왕의 심부름으로 이 곳에 와서
아침저녁 밥상을 대하면 절로 수저를 떨구네

【글자풀이】 • 石田 : 돌 밭. 척박한 땅. • 無市國 : 저자가 없는 나라 사고 팔 물건이 없으니 장이 서지 않는다는 뜻. • 絶船時 : 육지에서 쌀을 실은 배가 끊긴 때. • 長毛鎭卒 : 머리긴 진영(鎭營)의 졸개. 長毛는 나이든의 뜻은 듯 하나 侍考. • 蕃姑 : 변방의 아낙. • 匙 : 숟가락 시.

又憫荒

申光洙

三縣三周供　荒年久客難
日邊頻有詔　海外不無官
草食民啼路　鶉衣吏繞盤
靑衫貧使者　何術救饑寒

또 흉년을 고민함

세 고을에서 돌려가며 끼니를 대 옴으로
흉년이라 오래 머물기가 난처하구나
조정에서는 조서가 자주 내려오고
바다밖이지만 관리는 없을 수 없는데
풀 먹는 백성들은 길에서 울고
헤어진 옷 입은 아전들은 밥상에 둘러 앉는다
가난한 선비인 왕의 사자는
무슨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할고

【글자풀이】 • 三縣 : 제주, 정의, 대정. • 荒年 : 흉년. • 日邊 : 日은 임금. 임금님의 곁, 조정을 뜻함. • 鶉 : 옷 헤어질 순, 메추리 순. • 靑衫 : 靑衿. 향교의 유안에 입적된 유생. 서생. 선비.

冬栢雪中半開

南九明

莫道天時屬季冬　　堂前栢樹有春容
嚴風已積紅猶綻　　毒雪交麾翠且重
淡罷花奴輕洗顔　　醉餘妃子半開胸
願憑健步移靈種　　霑得瓊林玉露濃

눈 속에 동백꽃이 피어

계절이 늦겨울이라 말하지 말게
앞 뜰 동백나무는 온통 봄빛이 아닌가
엄한 바람 몰아쳐도 붉은 꽃 터트리고
지독한 눈 휘날려도 푸른 잎 겹쳐
담담한 무궁화가 가볍게 세수한 듯
비자가 취한 뒤에 가슴을 헤친 듯
빨리 달리는 이 있어 저 꽃을 옮겨다가
궁궐 뜰 짙은 이슬을 맞게 했으면

【글자풀이】 • 綻 : 나타날 탄, 파할 탄. • 麾 : 대장기 휘, 지휘할 휘. • 花奴 : 무궁화. • 妃子 : 荔枝. 양귀비가 좋아하던 꽃. • 胸 : 가슴 흉. • 憑 : 부탁할 빙, 기댈 빙, 의지할 빙. • 步 : 걸을 보. • 霑 : 젖을 점. • 瓊林 : 궁궐 안의 정원.

雪夜獨坐

金尙憲

城門日落斷行人　　城上惟聞擊柝聲
夜雪不知深幾尺　　村舂相伴到三更
鄕心每向燈前起　　詩句還從靜裡成
自笑南來何事業　　空敎白髮滿頭生

눈 내리는 밤 홀로 앉아

해 떨어지자 성문엔 사람 발길 끊기고
들리는 건 성위의 야경군 격탁소리
밤에 내리는 눈 몇 자나 쌓일는지
삼경인데도 짝지어 찧는 절구소리
등불 앞에 앉으니 고향 생각 뿐
고요한 속에서 시구는 이루어져
남쪽에 내려와서 무슨 일 하였는가
헛되이 머리에 백발만 가득

【글자풀이】 • 擊柝 : 야경군이 성을 돌며 치는 목탁.

題洪娘墓

趙貞喆

瘞玉埋香奄幾年　　誰將爾怨訴蒼旻
黃泉路邃歸何賴　　碧血藏深死亦緣
千古芳名蘅杜烈　　一門雙節弟兄賢
烏頭雙闕今難作　　靑草應生馬鬣前

홍낭의 무덤에 쓰다

옥이 묻히고 향기가 묻힌지 몇 년일런고
누구가 그 원통함을 저 하늘에 호소하리
어두운 황천 길을 무엇을 힘입어 갔으며
무슨 인연으로 파란 피를 머금고 죽었는가
곰취같은 짙은 향기 오랜 세월 전해지리
한 집안에서 언니과 아우의 절개가 모두 뛰어났으나
젊은 나이의 두 기둥을 높이 세우기 어려우니
말갈기 껴안으려 응당 푸른 풀 싹트겠지

【글자풀이】 • 瘞 : 묻을 예. • 邃 : 깊을 수. • 蒼旻 : 푸른 하늘, 우러러 보고 탄식할 때 많이 쓰임. • 蘅 : 곰취 형. • 杜 : 두형 두. 杜蘅은 향초의 이름. • 烏頭 : 흑발의 머리. 년소함을 뜻함. • 雙闕 : 궁궐문의 양쪽 루관. 여기서는 열녀문을 뜻함인듯. • 碧血 : 원통하여 머금은 피. • 鬣 : 말갈기 렵. • 馬鬣 : 껴안으려 한다는 뜻으로 썼다. 당나라의 복고회은(僕固懷恩)이 적에게 쫓기어 위수(渭水)에 이르러서 건널 배가 없으므로 말갈기를 껴안고 건넜다는 고사가 있다.

次東坡渡海韻

金尙憲

鞍馬驅馳已飽更　　更從三老侯陰晴
今朝始見北風起　　千里遙看南海淸
舟楫未經斜鼠島　　波濤忽作怒鮫聲
陽侯颶母眞多劇　　應試曜仙了死生

소동파의 바다를 건너며 시에 차운함

말을 달려 이미 올 길을 다 왔으므로
다시 뱃사람들과 날씨를 살폈더니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북풍이 일어
멀리 보이는 남해바다 말끔하다
배들은 미처 사서도를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는 파도소리 고래의 울음인 듯
풍랑귀신 태풍귀신 정말 심하기도 하여라
요선이 죽는가 사는가를 시험하려 함인가

【글자풀이】 • 東坡 : 蘇軾. 송나라 때의 학자, 문인, 명필. • 三老 : 뱃사람의 우두머리(船頭), 뱃사람들(水夫), 다른 뜻이 많다. • 斜鼠島 : 추자도와 제주 사이에 있는 무인도. 이 섬에서부터 제주까지는 망망대해이다. • 鮫 : 암고래 예. • 陽侯 : 물결을 일으키는 귀신. 진(晉)나라의 양릉후(陽陵侯)가 익사하여 물귀신이 되어 풍랑을 일으킨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 • 颶母 : 태풍을 맡은 신령(夏秋之間 有暉如紅 謂之颶母 必有颶風). 전의하여 태풍. • 劇 : 심할 극, 다급할 극, 아플 극, 어려울 극. • 曜仙 : 미상

濟州有吟

宋麟壽

學得詩書三十年　竹符今領濟山川
一生憂患頭鬚白　萬里飄零歲月遷
毒霧瘴烟迷澤國　鯨波駭浪蹙蠻天
殊方日落離懷苦　渭北江東眼舒穿

제주에서

삼십 년간 시경 서경을 배워 익히다
이제 와서 부절을 받고 제주 산천을 다스리네
근심 걱정 속에 살다보니 머리는 희어졌고
먼 고장 떠돌아 다니며 세월을 보냈네
독무와 장연이 흐릿한 바닷가 나라
하늘도 찡그리게 하는 큰 물결 거친 파도
낯설은 지방에 온 나그네 심사 더욱 괴로워
위수 북쪽 강동 땅으로만 눈길이 돌아간다

【글자풀이】 • 竹符 : 죽간(竹簡)의 부절(符節). 명령서를 뜻한다. • 鬚 : 수염 수. • 駭 : 놀랄 해. • 蹙 : 닥칠 축.

入 防 營

申光洙

鑼鼓喧喧下瀨聲　　船頭羽笠助防迎
日明漁浦紅蛟舞　　春入巒山白雉鳴
虛放大宛天馬種　　尙傳崔瑩荻灰城
于今聖代輿圖壯　　一帆書生萬里情

방어영으로 들어가며

소라와 북소리 떠들썩 여울물이 내리는 듯
우립을 쓴 조방장이 뱃머리에 서서 맞이한다
해맑은 갯마을에 홍교무 한창이고
산골엔 봄이 들어 흰꿩이 운다
대완마는 넓은 들에 풀어놓아 길러지고
최영장군이 쌓은 적회성을 여태까지 남아 있구나
장대한 판도 안에 태평성대가 되었으니
돛배 타고 만리밖에 온 서생의 심정이여

【글자풀이】 • 鑼 : 징 라. • 羽笠 : 아병(牙兵)의 장관들이 의식에 쓰던 군모 털벙거지에 꿩깃이 꽂혔다. • 助防 : 助防將. 화북진의 조방장을 뜻함. • 紅蛟舞 : 어사를 맞이할 때 추는 춤. • 白雉 : 흰 꿩. 상서로움을 상징한다. • 大宛 : 大宛馬. 대완국에서 전해온 말. • 荻灰城 : 최영장군이 고려 공민왕 21년에 제주의 목호를 토벌할 때 성을 쌓을 겨를이 없어 탱자나무 가시로 성을 쌓았다 하여 제주성을 지성(枳城)이라 부르는데 같은 뜻이 아닌가 한다.(待考) • 防營 : 防禦營의 준말. 제주목사가 방어사(防禦使)를 겸대(兼帶)함으로 제주영을 방어영이라 한다.

醉席口占

金尙憲

天涯邂逅時　　佳節重陽日
莫起故鄕心　　令人白髮生

취한 자리에서 부르다

아득한 하늘 끝에서 함께한 때는
좋은 가을날 중양절일세
고향 생각 일지 않게 함은
사람이 머리가 희여지기 때문

南登漢拏山　　東望扶桑日
玉女待吾歸　　披雲梳綠髮

남쪽으로 가서 한라산 오르면
동쪽으로는 해 뜨는 곳 보이겠지
왕이 보배로 여기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며
막힌 구름을 헤치고 까만 머리를 빗질하리

【글자풀이】 • 玉女 : 임금이 보배처럼 중히 여기는 사람(시경 大雅民勞에 王欲玉女 是用大諫의 구절이 있다). 선녀, 미녀를 뜻하기도 한다.

明年對誰人　　何處思今日
世事自多端　　離愁看鬢髮

명년에는 누구와 마주하여
어느 곳에서 오늘 일을 생각할런지
세상 일이 본래 시끄러운 것이니
머리털 바라보면 일어나는 이별시름

【글자풀이】 • 鬢 : 구렛나루 빈, 귀밑털 빈. 鬢髮은 귀밑털과 머리. 머리를 뜻하기도 한다.

呈安金二人

金容植

處士園中陰小柏　　名儒庭畔扇蒲葵
柏陰葵扇淸無盡　　不趁炎涼與世移

안씨 김씨 두 사람에게

처사의 뜰 가운데 그늘을 드리운 작은 잣나무
선비의 뜰 가에 부채를 만드는 부들풀
잣나무 그늘과 부들풀 부채 끝없이 청초하여
세상의 무덥고 서늘함을 따라 옮겨다니지 않으니

【글자풀이】 • 蒲 : 부들풀 포. • 葵 : 아욱 규. 蒲葵는 葵扇. • 趁 : 쫓을 진, 머뭇거릴 진. • 安 : 安達三(호는 小栢). • 金 : 金羲正(호는 蒲葵 또는 海隱). 포개와 소백은 이매계의 제자.

送李御使按濟州

金　徽

忠信神明仗到頭　　何渠一水使人愁
雖然萬里黿鼉窟　　不得颶風莫放舟

이어사를 제주로 보내며

충신은 신명을 의지하여 뱃머리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저 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름 짓게 하는가!
그렇지만 머나먼 곳은 원타의 소굴이니
빠른 바람을 만나지 못하면 배를 띄우지 마시게

【글자풀이】 • 李御使 : 李慶億. 자는 錫爾 호는 華谷. 효종 원년에 어사로 제주를 다녀갔다. • 仗 : 의지할 장. • 渠 : 저것 거, 개천 거. • 黿 : 큰 자라 원. • 鼉 : 자라 타. • 颶 : 회오리바람 구.

吾輩玆行且幾回　　方知世味劇酸梅
空將詩句送君去　　祝早歸來韻用來

우리 친구 이번 떠나면 언제나 돌아올 수 있을는지
세상 살아가는 맛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네
공연히 시를 보내어 그대 전송하면서
빨리 돌아오라는 뜻으로 來字 운을 썼다오

【글자풀이】 • 李御使 : 李慶億.

寄濟州崔敬差

徐居正

鯨濤浩渺漢拏山　　蓬島瀛洲咫尺間
十幅籧篨高萬丈　　東風隱送使船還

최경차관에게 보냄

큰 물결 넓고 아득한 한라산은
신선이 사는 곳과 가까이 있다지만
십폭의 대자리돛 만길이나 높이 달고
아득한 봄바람에 어사의 배 돌아오길

【글자풀이】 • 鯨 : 고래 경. 鯨濤는 큰 물결. • 渺 : 물결 질펀히 흐를 묘. • 蓬島瀛洲 : 15쪽 김정시 열자탕문편 참조. • 籧 : 대자리 거, 상바라기 거. • 篨 : 대자리 저, 천상바리 저.

寄濟州崔敬差溥二首

徐居正

滄海茫茫天一涯　　憶君時復費相思
相逢軟脚知何日　　桃李春風二月時

최부 경차관에게 보냄(二수)

푸른 바다 아득한 저 하늘 끝에서
그대 생각 나면 편지로 그리움 달래
부은 다리로 돌아와 만날 날 언제일런지
봄바람에 복사꽃 피는 이월로 알고 있지만

【글자풀이】 • 軟 : 부드러울 연. • 脚 : 다리 각. • 軟脚은 軟脚痛(다리가 붓는 병)을 줄여 쓴 말.

橘柚黃時雪正霏　　山茶花上翠禽飛
得詩已滿三千首　　自去堂堂得得歸

누렇게 익은 귤나무에 히끗히끗 눈 내리고
꽃핀 동백나무 위에 물총새 날아 다니는 곳
지은 시 삼천 수에 가득 차거든
당당하게 뜻을 얻어 돌아오시오

【글자풀이】 • 山茶花 : 동백꽃의 별칭. • 翠禽 : 물총새.

寄濟州姜分臺遇文李敬差健

徐居正

水國三千里　　相思十二時
翠禽翻雪萼　　黃橘厭霜枝
君作江南賦　　吾吟渭北詩
何時軟行脚　　春樹聽黃鸝

제주의 강분대와 이경차에게

삼천리 물나라를
온 종일 잊지 않는다
눈꽃에 나는 파란 새
서리를 싫어하는 가지의 노란 귤
그대는 남쪽에서 글 지어 오소
나는 위수 북쪽의 시를 짓겠네
언제면 부은 다리 걷고 나서
봄나무에 꾀꼬리 소리를 들을런지

【글자풀이】 • 分臺 : 벼슬아치의 감시하고 살피기 위하여 사헌부의 감찰을 파견하는 일 또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 또는 집무하는 곳. • 敬差 :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특별한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 벼슬. • 姜遇文 : 미상. • 李健 : 미상. • 萼 : 꽃받침 악. • 江南賦 : 남쪽 경치를 읊은 시. • 渭北 : 위 수의 북쪽 渭水는 한강을 뜻한다. • 軟行脚 : 연각은 연각통의 준말. 염법(廉法)에 맞추기 위하여 행(行)자를 끼워넣었다.

詠懷呈李御史

金聲久

萬里離家客　　三危放逐臣
鯨濤攪枕急　　妖雨打窓頻
戀闕丹心苦　　思親白髮新
南來多歲月　　朔易未盈旬

이어사에게 감회를 적어 올림

멀리 집 떠나 온 나그네는
위태로운 곳에 쫓겨온 신하입니다
큰 파도 베개를 급히 흔들고
요우는 자주 창을 칩니다
임금을 사모하니 충성된 마음 괴롭고
어버이 생각에 머리가 희어집니다
남쪽으로 온 지 시간이 흘러
달이 바뀌어 열흘이 되지 않습니다

【글자풀이】 • 攪 : 어지러울 교. • 妖 : 벌레 꿈틀거릴 요. 妖雨는 장마비인듯. • 攪 : 흔들 교, 손놀릴 교. • 多 : 더할 다, 넘칠 다, 많을 다. • 三危 : 순임금때에 삼묘(三苗)를 귀양보낸 곳. 귀양보내는 땅 제주를 뜻함. 少德而多寵才下而位高身無大功而厚祿(淮南子 人間訓)을 삼위라고도 한다.

送濟州牧使金同年好仁

徐居正

海上神山負六鰲　東風催興上蘭橈
地連仙島人居勝　貢入天朝物産饒
名驥已過宛腰裹　香柑猶勝漢葡萄
滄溟不動明如鏡　柳細春深馬自驕

제주목사 김동년을 전송함

여섯 자라가 받치고 있는 신선산을 향해
동풍에 흥겨웁게 배에 오르네
사람들이 사는 경치 좋은 곳은 신선섬에 이어졌고
물산이 풍부하여 궁궐로 조공을 보내오는 곳
이름나고 뛰어난 말들은 대완국의 종자보다 뛰어나며
맛이 좋고 향기로운 밀감이 포도보다 나은 곳

【글자풀이】 • 六鰲 : 81쪽 김정 한라산시 참조. • 腰裹 : 명마의 이름. 22쪽 서거정시 탐라제영 참조.

贈送吳進士暹南歸

趙緯韓

耽羅人物舊山川　　未破天荒近百年
泰伯句吳傳世遠　　歐陽閩越擅場先
榮疏北闕祥鸞舞　　恩溢東溟畫鷁牽
相得彩衣歡慶畢　　鄕閭樽酒賀無前

오선 진사가 남쪽으로 돌아갈 때 지어 주어 보냄

탐라는 인물이 있는 오래된 산천인데
천황이 깨침이 없은 지 백년이 가까웠네
오나라는 태백에서 구천까지 아득히 세대가 전해졌고
월나라 민땅에서 구양수가 과장에서 이름을 드날렸네
영광된 상소 북궐에 닿으니 상서로운 새 춤을 추고
은혜가 동해에 넘치니 꾸며진 배 떠나가네
서로 색동 옷 얻어 즐거운 잔치 끝마칠 제
고향에선 동잇술로 축하하는 일 전에는 없었던 일

【글자풀이】 • 吳進士 : 吳暹. 광해군 10년(1618)에 사마시에 인조 1년(1623)에 대과에 급제한 제주인. • 畫鷁 : 익은 새이름. 배돛대 머리에 달았으므로 배를 뜻한다. 화익은 벼슬하는 사람이 타고 가는 배를 뜻한다(297쪽 김상현시 연북정 춘첨시 참조) • 句吳 : 오나라의 마지막 왕인 句踐. • 泰伯 : 오나라의 시조.

贈別錫爾耽羅之行

李慶徽

耽羅御使要才賢　　上相知名豈偶然
聖化百年流絶域　　仙槎八月泛秋天
孤忠許國寧辭險　　壯歲探奇亦有緣
今日風波宜得力　　莫須臨別淚雙懸

탐라로 가는 석이를 전별함

탐라의 어사는 재주가 뛰어난 이를 뽑는데
영의정이 그의 이름을 기억함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멀리 떨어진 곳에 일백년간 임금님의 교화가 미쳐
시선의 배는 팔월달 가을 바다에 떴네
임금님이 충성심을 알아주니 어찌 험한 곳이라 하여 사양할 것이며
한창 나이에 기이한 곳을 구경하는 것도 또한 인연이 있어서이지
오늘은 바람과 물결이 마땅한 힘을 얻었으니
모름지기 이별하는 자리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

【글자풀이】 • 錫爾 : 李慶億의 자. 213쪽 참조.

送李御使耽羅之行

李明漢

漢拏高揷海中天　　第一人登最上巔
大老當奈分物色　　詞仙此日續淸篇
明王愼恒群工罪　　使者貪乘萬里船
暮境關門唯遠別　　君歸吾已賦歸田

제주로 가는 이어사를 전별함

한라산은 바다와 하늘에 높이 솟았는데
그 정상에 오른 이는 (조정에서) 제일로 뽑힌 사람
우암 선생이 만년에 물색을 분별하신 곳인데
시 짓는 신선이 오늘 또 맑은 시를 짓겠네
밝으신 임금께서 신중하게 토적을 죄주려 하니
사자는 머나먼 뱃길을 탐내어 타네
저물녘에 관문에서 그대 멀리 보내고
돌아올 쯤이면 나는 귀거래사를 짓고 있겠네

【글자풀이】 • 大老 : 우암 송시열을 높여 부르는 말. • 淸篇 : 맑게 지은 글. • 貪 : 탐낼 탐. • 賦 : 글 지을 부, 조세 부. • 歸田 : 밭으로 돌아감. 귀거래사와 같은 뜻. • 李御使 : 李慶億. 字는 錫爾, 호는 華谷. 효종 원년에 제주를 안핵(按覈)하였다.

李錫爾瀛州御使之行

尹文擧

藉藉淸華摠是英　唯君才望最嚴明
烟濤渺渺耽羅國　玉事急急御使行
千里不辭濟海役　高堂那忍倚閭情
朝天館下回舟日　好借東風一帆輕

이석이 영주어사로 떠나감을 받들어 전별함

문필에 뛰어난 재주꾼들이 많고 많은데
오직 그대의 재주와 명망이 가장 엄격하고 현명하니
연기 파도 아득한 탐라국으로
바쁜 나라 일로 어사되어 떠나간다
천리 바다를 건너가는 일을 사양하지 아니하니
부모님은 마을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정을 어찌할까
조천관에서 배를 돌이켜 오는 날
좋은 동풍 빌려 돛대가 가볍기를

【글자풀이】 • 李錫爾 : 李慶億의 자(앞쪽의 시 참조).

送眉壽牧濟州

洪　暹

朝廷今日稱多士　道脉惟君得泗洙
度量於人忘喜慍　聰明觸物辨錙銖
青雲飛步年顔少　紫殿追趍眷遇殊
醞藉已知心老大　雍容但覺色敷腴
論思玉署蓮成燭　謇諤青浦栢有烏
欲見鹽梅和廟鼎　長教騏驥騁當途
耽羅縹緲浮炎海　城郭周遭在日隅
異産從來充國廐　編氓自昔是蠻奴
須知撫馭煩名勝　要有詩書化悍愚
共惜儒仙侵瘴霧　還知聖慮活焦枯
心齊夷險君偏勇　地揀親疏意獨無
北極祥雲辭玉色　南溟彩鷁颺雙鳧
浮天積水涵星日　泛海長鯨露髯鬚
嘖雪坐看迷宇宙　搏鵬初識隘寰區
平生每傍螭頭立　今日翻隨鴈影須

海若藏波空後擁　飛廉低首更先驅
由來忠節通幽顯　應見神明爲騭扶
己使西河迎騎竹　常令合浦喜還珠
居夷草陋看尼父　枕海何傷擬鑑湖
朱橘得霜香霧噀　黃柑巢葉鶴頭麤
聊携鴃舌談詩禮　竟致菁莪詠路衢
當衰方思興越俗　昌黎不厭化潮儒
堆盤仙果蠲詩渴　滿橐蘇香辟瘴瘏
僻巷猶知歌有父　窮閭誰復歎無襦
淸都象闕陪從曠　落日停雲夢想衧
海國生祠圖像儼　守鄉遺愛頌謠俱
駑材曩日追良算　崑玉當年混琓玦
經幄齊班瞻日月　春坊聯席講唐虞
曾聞高論心誠服　更許親交持自浮
不用臨分空浩歎　星霜三載亦須臾

홍섬이 제주목사로 떠나감을 전송함

오늘날 조정에 많은 선비를 헤아리지만
오직 그대만이 사수의 맥을 이었네
도량은 사람들을 대함에 기뻐함과 화냄이 없고
총명은 모든 물건의 자그마하 것까지도 분별하네
젊은 나이에 높은 벼슬자리에 날아들었고
궁궐에서는 감싸주고 대우함이 유달랐음은
마음이 노성하여 함축되어 있음을 이미 알았기 때문
조용히 활짝 펴진 얼굴빛을 들어냈을 뿐
옥당에서 의론할 때엔 연꽃이 촛불 같았고
내정에서는 곧은 말을 올려 잣나무에 상서러운 새 날아들었네
묘당에서 인품이 고루 갖추어진 이를 보려하면
장관이 기류말을 달리게 하는 길가에서
탐라는 아득한 남쪽 바다에 떠 있어
해 뜨는 모퉁이에 성곽이 둘러 있으니
특이한 물건은 궁궐의 마구간을 채웠고
옛날 남만의 노예들도 우리나라 백성으로 편입시킨 곳
이들을 다스림에는 명승지는 오히려 번거러움이 됨을 알아
시와 서로써 어리석은 이들을 감화시킴이 중요한 일일세
함께 애석함은 신선 같은 선비가 창무를 뒤집어 씀이지만

또한 임금님의 뜻이 말라 초췌한 이들을 구원하려함임을
평이와 험난에 따라 마음이 가즈런하게 치우쳐진 용기만 있고
지체와 멀고 가까움을 가림에는 유독 뜻이 없으니
서울의 상서러운 오색 구름을 하직하고
남쪽의 그림배를 타니 두 마리 오리가 뜬 듯
하늘에 닿은 물줄기에는 해와 별이 잠겼고
물위에 뜬 큰 고래는 수염을 드러냈네
눈을 뿜어낼 땐 앉아서 보면 우주가 희미하고
후리처 날으니 서울과 멀어짐을 알겠네
일평생 임금님 곁에만 서있다가
오늘은 문뜩 기러기 그림자를 따르네
바다의 신은 파도를 감추어 하늘 뒤를 옹위(擁衛)하고
바람의 신은 머리를 숙여 앞에 서서 인도한다
원래 충절이 있는 이는 어둡고 밝은 곳에 모두 통하나니
응당 천지신명의 도움으로 안정함을 볼 것이니
이미 하서에서 죽마를 탄 아이들을 만났으니
응당 합포(제주)에서는 진주를 백성에게 돌려줄테지
오랑캐 땅이 고루하지 아니하다고 공자는 말씀하셨으니
바닷가라고 하여 호남을 살핀 일을 슬퍼할게 무엇인가
자주빛 귤은 서리를 맞으면 향기 안개를 뿜어내고
황감은 잎에 둥지 튼 작은 학의 머리와 같을 테니
애오라지 남쪽지방 사람들과 시례(詩禮?)를 이야기하여
끝내는 잘 길러 내어 거리에서 시 읊는 소리가 들리게 하게
임금께서는 바야흐로 남쪽지방 풍속을 일으키려하고
한문공은 조주를 유화(儒化) 시킴을 싫어하지 않았으니

쟁반에 가득한 시선 과일은 시갈을 덜어주고
소향을 전대에 가득 담으면 장기를 피할테니
궁벽한 거리에서도 오히려 아버지 있음을 노래하고
가난한 여염집인들 누구가 저고리 없음을 탄식할 건가
궁궐에서 임금님 모심은 성겨졌으니
해 떨어지고 구름 멈추거든 큰 옷소매를 꿈꾸시게
바닷고을 생사당에 화상은 식식하고
물고장에 사랑이 남아 찬송하는 노래짓게 하게
경연의 휘장 속에서는 같은 반열이 되어 임금을 우러러 보았고
동궁에서는 자리를 같이하여 요순시대를 강론했네
일찍이 고상한 담론을 듣고 마음으로 복종하여
그의 뜻 스스로 믿고 친구가 되었엇네
이별이라 하여 공연히 한탄할게 무언가
삼 년의 세월 또한 잠간인 것을

【글자풀이】 • 錙 : 저울눈 치, 조금 치. • 銖 : 저울눈 수. • 醞 : 온자할 온. • 藉 : 함축되어 있음. • 敷 : 연할 부, 베풀 부. • 腴 : 살찔 유 • 敷腴 : 만족하여 활짝 펴진 얼굴 빛. • 蓮成燭 : 미상. • 謇 : 바른말 건. • 諤 : 곧은말할 악. • 鹽梅和鼎 : 소금 매실 등 여러 가지 양념으로 간을 맞춤. 임금을 잘 보좌한다는 뜻으로 썼다. 은나라의 부열(傅說)을 鹽梅和?이라 칭송한데서 유래된 말. • 騁 : 달릴 빙. • 捍 : 호위할 한, 팔지 한. • 颺 : 바람에 날릴 양. • 鳧 : 오리 부, 청둥이 부. • 彩鷁 : 畵鷁. • 搏鵬 : • 螭 : 교룡 리. • 螭頭 : • 海若 : 바다의 신. • 飛廉 : 風師, 바람의 신. • 騭 : 정할 즐, 숫말 즐, 오를 즐. • ???隲 : 정할 척, 수말 척. • 西河 : • 騎竹 : 竹馬를 타고 노는 아이들. • 合浦還珠 : 漢나라의 孟嘗이 合浦太守가 되어 그 곳에서 나는 진주에 관한 폐단을 바로잡은 고사. • 尼父 : 공자의 존칭. • 河西 : 물의 서쪽을 뜻하나 어느 강인지 알지 못함. 일찍이 호남관찰사를 지냈다. • 菁莪 : • 袞 : 곤룡포 곤. • 昌黎 : 한유(韓愈 : 시호 文公) • 衧 : 소매큰 옷 우. • 辟 : 避. • 襦 : 저고리 유, 유삼(襦衫) 유. • 駑 : 노둔한 말 노, 노둔할 노. • 珷 : 옥돌이름 무. • 玞 : 옥돌이름 부. 珷玞는 옥과 비슷한 돌.

走筆送高少尹

鄭道傳

耽羅在海上　　風氣接蓬瀛
右族有高氏　　實惟天所生
人物似神仙　　輝光動烈星
世世濟厥美　　朝版登姓名
少尹乃其後　　楚楚抽華英
慨然慕儒術　　北學來開京
士林服高義　　廟堂嘉衷誠
一起超四秩　　金紫擁光榮
異數膺寵錫　　杖節還其行
秋風吹宦道　　落日照驛程
駟騎去如飛　　翩翩紗帽輕
擧杯相送罷　　悵望難爲情

고소윤을 보내면서 바삐 쓰다

탐라국은 바다위에 있어
풍채와 기상은 영주 봉래에 이어졌는데

두드러진 호족은 고씨인데
실상은 하느님이 내신 바일세
사람들은 신선과 같아
광채는 별을 움직이어
대대로 그 아름다움 이어받아
조관의 반열에 이름이 올려졌네
소윤은 바로 그의 후손으로
말끔히 무리에서 빼어나
유술을 사모하여 분연히 떠나
큰 학문 배우려고 개성에 왔네
사림은 높은 의리에 감복했고
조정에선 충성을 가상히 여겨
한번 일으켜 네 자급 올렸네
금자의 영광을 띠었는데
특례로 총석을 크게 받아서
사절을 가지고 돌아가네
가을 바람은 관도에 불고
지는 해는 영정을 비추는데

역마가 나는 듯 달리니
나풀나풀 사모가 가볍구나
잔들고 송별잔치 마치니
섭섭함을 누루기 어려워라

【글자풀이】 • 高少尹 : 고씨종문회에서 高鳳禮로 확인하였다. 탐라국 마지막 성주이다.

送高將軍奉使還鄕

鄭道傳

停盃問之子　　飄飄安所適
客路秋將晩　　風氣何凜冽
行役非所憚　　無乃衣裳薄
海上有神山　　縹緲雲烟滿
戀戀朝暮情　　堂親髮如鶴
官遊非所樂　　親老亦堪惜
所以戒征　　凌晨發東郭
國家重遠人　　仍將使者節
身上著錦衣　　尊前舞綵服
盡孝當在忠　　去去毋滯跡
何以贈君行　　殷勤勤深爵

사신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고장군을 전송함

잔을 들었다 멈추고 그대에게 묻나니
나부끼는 듯 어디로 가는가
늦가을 나그네 가는 길
바람 기운이 싸늘한데도

꺼려하지 않고 길을 재촉하니
옷은 엷게 입지 않았는지
신선이 산다는 바닷고을은
구름에 잠긴 듯 아득하여라
아침저녁 사모하는 이는
머리가 하얀 집에 계신 부모님
벼슬살이가 즐거운 바 아니지만
늙으신 부모님이 애처로워
이른 새벽에 동성을 떠나가네
나랏님은 먼 곳 사람을 중히여겨
이에 사자의 부절을 주었도다
몸에 비단옷을 입었으니
잔치자리(壽延)에서 어린이 춤을 추게나
효도를 다함은 충성과 맞먹으니
떠나감을 지체 마시게
무엇을 그대에게 주어 보낼까
가득한 술잔을 은근히 권하네

【글자풀이】 • 高將軍 : 高鳳智. 靈谷 高得宗의 아버지. • 凜 : 찰 름, 지독할 름. • 錦衣 : 비단 옷. 錦衣還鄕을 뜻함. • 尊前 : 술동이 앞 부모님을 위한 잔치자리를 뜻함. • 舞綵服 :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춤. 노래자(老來子)의 고사.

四

公　廨

- 濟州(제주목 관아)
- 旌義(정의현 관아)
- 大靜(대정현 관아)

客舘東軒(瀛洲館)

李慶億

古戍居人少　　秋城橘柚香
潮聲通越分　　風便過吳檣
梔子收田賦　　蠙珠繫職方
仙槎迷舊路　　辰極暮雲長

오래된 수자리엔 사람사는 집 많지 않고
가을 성에는 귤 향기 가득하다
파도 소리는 월나라에 통하는 듯
바람이 편편하면 오나라 배 지나가네
세금으로 약재를 거둬들이고
진주조개는 특산물로 기록되어
신선의 배가 옛 길을 잃었는데
북쪽 서울의 구름 속에 아득하기만

【글자풀이】 • 辰極은 북쪽 궁궐. 임금이 계신 곳. • 客舘東軒 : 궐패(闕牌)가 모셔져 있는 제주 관아 첫째 건물인 영주관(瀛洲館)의 동쪽 대청. 객사(客舍)는 어사나 수령이 머문다는 뜻. 가운데 대청에는 궐패를 모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망궐례(望闕禮)를 행한다. 관내의 모든 정사를 이곳에서 보았으나 훗날 연희각(延曦閣)으로 옮겨왔고 어사가 왔을 때만 이곳에 머물렀다.

瀛洲館

李元鎭

地若萍浮積水中　瀛洲異境問靑童
山高窟秘千年凍　海濶濤含萬里風
誰識漆園來傲吏　自疑句漏臥仙翁
玉京迢遞空回首　惟見祥雲一朶紅

영주관

땅의 모양은 물에 떠 있는 부평초 같아
영주의 기이한 경치를 선동에게 물었네
산이 높아 신비한 굴은 오랜 세월 얼어 있고
바다는 넓어 머금은 파도 먼 바람을 맞는다
칠원에 오만한 관리로 올 줄 그 누가 알았을까
글귀를 빠뜨린 신선 늙인이가 누워 있는 느낌일세
아득한 옥경을 머리 돌려 바라보니
오직 상서로운 구름 한 무더기가 붉게 보일 뿐

【글자풀이】 • 靑童 : 선인의 시종을 드는 시동, 즉 仙童, 漆園 : 莊子의 별명으로 쓰임. 장자가 일찍이 칠원땅의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莊子 蒙人也 名周 嘗爲漆園吏－史記－). 여기서는 장자 즉, 도인(道人)이 있던 곳. 신선이 머무르는 곳으로 쓰였다. • 迢遞 : 높은 모양. • 瀛洲館 : 제주목의 객사. 동헌의 이름. 궐패(闕牌)가 모셔져 있었고 어사가 내려와서 머물던 곳(앞시 참조).

尊敬閣

金尙憲

白蠟籠紗照壁紅　愁人睡起錦屛空
夜來孤夢輕滄海　千里還家風不待

존경각

하얀 촛불 갑사 전복 빨갛게 벽에 비쳤는데
시름진 이 자다 일어나니 덩그런 비단 병풍
밤잠 외로운 꿈에는 가벼이 다닌 넓은 바다
천리 밖 집으로 돌아갈 바람은 기다릴 수 없구나

【글자풀이】 • 尊敬閣 : 영주관(瀛洲館)에 딸려 있던 건물, 어명이나 윤음(綸音)을 봉안하였음. • 白蠟 : 초(燭)를 만드는 원료. 여기서는 촛불을 뜻함. • 籠 : 전동 롱(矢服). 籠紗는 갑사로 만든 전복(戰服).

延 曦 閣

崔啓翁

海中仙府靜無喧　　鶴舞空庭日欲昏
白首迂吏何所事　　玄琴一曲感君恩

연희각

바닷고을의 신선 관청이 고요하여 시끄러움이 없는데
해가 기울어지는 빈 뜰에 학이 춤춘다
늙어가는 우활한 벼슬아치가 무엇을 할 것인가
현금이나 타면서 임금님 은혜에 감사할밖에

【글자풀이】 • 延曦閣 : 제주목 관아의 정청. 홍화각의 북쪽에 있었다. 제주목의 모든 정사는 이 곳에서 이루어졌다. 목사의 정청이다. • 喧 : 지껄일 훤. • 迂 : 굽을 우, 멀 우. • 玄琴 : 거문고.

延 曦 閣

鄭 曙

轅門無一事　　秋日掩重扃
造士與文敎　　治民佇謐寧
琴徽和玉柱　　觥錯任銀甁
況値黃花節　　何妨醉後醒

연희각

군문에 일거리가 없어
가을날 중문은 닫혀 있네
선비를 기르고 문교를 펴면
백성은 자연 편안해지나니
옥주에 기러기발을 고른 뒤
은병 가는 대로 술잔을 기우리리라
항차 국화 피는 가을이 됐으니
취하거나 깨거나 꺼릴 것이 무엇인가

【글자풀이】 • 轅門 : 군문과 같음. • 扃 : 빗장 경. 重扃은 重門의 뜻. • 謐 : 고요할 밀. • 琴徽 : 琴徽, 거문고 줄의 밑을 고여서 소리를 고르게 하는 도구, 기러기발(金徽). • 玉柱 : 琴柱, 거문고의 기둥, 이것을 이동하여 음조의 고저를 조절함(玉軫). • 觥 : 뿔잔 굉, 클 굉.

延曦閣

李元鎭

昔過方丈向蓬來　今到瀛洲又快哉
可但人間傅吏隱　只應天上錄仙才
扶桑曙色穿霞入　碣石濤聲挾雨來
已接廬敖遊汗慢　仍留紫氣共徘徊

연희각

지난날 방장산을 지나 봉래산으로 향했는데
지금 다시 영주에 오니 또한 장쾌하구나
관리되어 인간 세상 옮겨다님 안온함은
하늘 위 신선의 명단에 뽑힘에 응해서인지
부상의 아침빛은 노을 뚫어 들어오고
갈석산의 파도 소리는 비를 끼고 온다
이미 여산을 접하여 한만하게 즐기노니
이에 따라 신선 기운이 머물러 함께 가고 올 뿐

【글자풀이】 • 한만(汗漫)은 방만하여 치밀함이 없음. 들떠 있어 절심함이 없는 아주 넓은 모양. • 오유(傲遊)는 거만하게 노닒. • 碣石 : 碣石山. 여러 곳에 있다. 여기서는 동쪽 바닷가의 돌이라는 뜻. 성산일출봉을 뜻함인 듯(孔安國書傳註但海畔山).

海東神嶠是瀛洲　　高壓靈鰲勢欲浮
芳樹綴金垂橘柚　　嫩蕪披錦散驊騮
漆園世務應須闕　　句漏仙方不待求
到老尙餘耽勝癖　　天敎大眼遍靑丘

우리 나라에서 신령한 산은 바로 영주산인데
신령한 큰 자라를 누르고 있어 뜨고 싶어하는 형세여
향기로운 나무에 매달린 귤은 금빛을 점철하였고
아름답게 무성한 잔디밭엔 화류마가 흩어져 있다
칠원에서 세상일에 힘쓰려니 응당 부족함이 따르지만
구루산의 신선 술은 배우지 않겠네
늙어가도 오히려 절승은 찾는 병통이 남아
하늘이 나로 하여금 눈을 크게 뜨고 청구를 돌아다니게 하네

【글자풀이】 • 해동(海東)은 우리 나라. • 신교(神嶠)는 신선이 사는 산. • 고압영오(高壓靈鰲) : 93쪽 열자탕문편 참조. • 화류(驊騮)는 좋은 말. 주나라 문왕이 타던 팔준마(八駿馬) 중에 하나. • 구루(句漏)는 광서성에 있는 도가에서 말하는 二十二 동천이 있다는 산. 진나라 갈홍(葛洪)이 이곳에서 수련(修練)하였다 함. 272쪽 이원진 망경루시 참조. • 청구(靑丘)는 우리 나라. • 漆園 : 장자가 벼슬하던 곳. 여기서는 신선세계를 뜻함. 245쪽 이원진시 영주관 참조.

延曦閣

沈樂洙

夢中三十七年事　風送飛墻大海邊
歷歷漢拏雲外岫　依依嘉樂樹間泉
伏波故廟征巒路　石馬荒祠泝峽船
萬事人先生有定　今來裘帶詠寒天

연희각

삼십 칠년간의 꿈 같은 생활
큰 바닷가로 바람이 돛을 날리었네
구름 박에는 또렷한 한라산
나무 사이엔 희미한 가락천
남쪽으로 가는 길엔 장군의 옛사당
물을 거스려 오르면 석마가 있는 삼성사
인생의 모든 일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지금도 대물리는 일로 읊조리는 추운 날씨

【글자풀이】 • 伏波 : 복파장군을 줄여 쓴 말. 한나라의 장군 마원(馬援)의 별칭. 수군이 강성하여 파도를 잠재운다는 뜻으로 쓰는 수군의 별칭. 伏波古廟는 추자도에 있는 최영장군의 사당. • 泝 : 물내려 흐를 소, 물거스릴 소. • 石馬 : 신선이 타는 말이라는 뜻도 있다(魏張掖郡 刪舟縣 有石馬七 其一仙人騎之), 묘 앞에 돌로 만들어 세운 말. • 裘 : 대물릴 구(箕裘), 갖옷 구.

延曦閣

沈 演

耽羅節制大將軍　八月鳴弓瘴海雲
痛飮百杯仍百中　鯨波不動日西曛
九十韶光病裡過　黃簾深鎖使君家
忽驚佳節當今夕　强把閑愁坐晩衙
翠黛滿堂渾似雨　彩燈懸樹亂如花
明年此日知何處　爲酌金樽酹歲華

연희각

탐라의 절제사 대장군이
장기와 바닷구름에 팔월달에 쏘는 활
일백 잔 마시고도 백번 쏘아 모두 맞히니
넓은 바다 물결 고요하고 해가 기운다
봄 석달 따뜻한 날을 병으로 보내었네
사또의 방에는 황렴을 깊이 드리우고
오늘이 좋은 명절임에 문득 놀라서
억지로 시름을 늦추려고 저물녘 관아에 앉았다
방에 기득한 먼산 그림자는 온통 비가 내리는 듯
나무에 매달린 채색등불은 꽃 같이 어지럽다
명년 오늘밤은 어느 곳에 가 있을는지
금색 잔에 술을 따르고 가는 세월 보낸다

【글자풀이】 • 사군(使君)은 목사·어사, 부사 등 지방에 내려온 높은 관리를 부르는 말. 사또. • 취대(翠黛)는 멀리 보이는 푸른 산 경치. 눈썹을 그리는 먹 또는 붓.

弘 化 閣

崔海山

拏岳崧高枕海頭　　孤城突兀峙南州
齊風微斷幾千載　　鄉學重興已四秋
鑿井耕田蒙帝力　　去奸辨曲蕩民愁
嘗聞出谷遷喬木　　弘化應傳自我侯

홍화각

높이 솟은 한라산 바다 머리를 베개삼아
뾰족히 드러난 외로운 섬 남쪽 고을
문학의 기풍 희미하게 끊긴지 몇천 년인가
향학을 중흥함에 네 해가 흘렀네
임금님 은혜 힘입어 백성은 샘파고 밭갈며
간사함 쫓고 곡절 가려 백성 근심 씻어 주어
골짜기 벗어나 큰 나무에 날았다는 소문 들림은
널리 교화를 펴서 편찬 우리 목사로부터 일세

【글자풀이】 • 弘化閣 : 제주목 공해(公廨)의 하나. 세종 을묘년에 창건되어 처음에는 목사의 영문이었으나 훗날 영리청(營吏廳)이 되었다. • 齊風 : 문학의 기풍. 춘추전국 시대의 제(齊)나라와 노(魯)나라는 모두 문학의 근원지임. • 鑿井耕田 : 샘파 물 마시고 밭갈아 배불리 먹는 태평성대를 뜻함. • 出谷遷喬 : 시경 소아(小雅) 伐木篇의 出自幽谷 遷于喬木을 줄여서 쓴 말.

弘 化 閣

金泰廷

骨相何曾類虎頭　　濫蒙恩擢鎭雄州
一心戀主危樓曉　　雙鬢思親滿鏡秋
孤枕未能成去夢　　深尊那得洗羈愁
長風波浪還爲祟　　本不圖封萬戶侯

홍화각

골상이 일찍부터 어찌나 호랑이의 얼굴을 닮았던지
외람되이 큰 고을을 지키라는 은혜를 입었네
높은 다락에 밝아오면 한결같이 임금님 그리는 마음
어버이 생각에 가을빛 짙은 양쪽 수염은 거울에 가득
외로이 잠들어도 돌아갈 꿈은 이루지 못하고
술잔을 가득 붇는다고 나그네 시름 씻을 수 있을까
긴 바람 큰 물결 도리어 높기만 하니
본래부터 만호후를 바라지는 않았다네

【글자풀이】 • 골상(骨相) : 뼈의 생김생김을 보고 운명을 점쳐 내는 일. • 웅주(雄州) : 큰 고을. • 萬戶候 : 큰 나라의 제후. 여기서는 큰 고을의 방백.

弘化閣

李約東

曾聞海上岳無頭　　好枕青山海帶州
香透疎簾知近橘　　風生虛閣覺今秋
伊誰不肯當時樂　　却恐多添異日愁
細柳甘棠無箇事　　傍人錯道武陵侯

홍화각

일찍이 바다 위에 머리 없는 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푸른 산을 베개 삼고 바다로 띠 두른 고을 일세
향기가 성긴 발로 스며드는 걸 보니 귤밭이 가까이 있음을 알겠고
빈 누각에 바람이 스쳐가니 가을임을 알겠네
누군들 다가 온 행락을 즐겨하지 않으리오
문득 훗날 근심이 많이 겹쳐질 것을 두려워하네
세류영과 같은 규율과 소공과 같이 백성을 위하지 않았는데도
옆 사람들은 무릉후라고 잘못 말하네

【글자풀이】 • 細柳 : 細柳營, 한나라 때 주아보(周亞父)가 세류에 진을 쳤을 때 군영의 규율이 엄격하여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어 군율이 엄격한 군영을 뜻한다. • 甘棠 : 주나라 소공석(召公奭)이 백성을 위하여 일하다가 팥배(甘棠)나무 밑에서 잠깐 쉬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경애한 나머지 그 나무를 건드리지도 자르지도 않았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어 백성을 위하여 일함을 뜻함. 召公은 召穆公 虎라고도 함. • 武陵侯 : 무릉도원을 보았던 어부가 그 고을 태수에게 그 말을 하자 사람을 시켜 그곳을 알아오게 한 태수를 뜻함(도화원기). 즉 신선을 만나려는 태수를 뜻함.

觀 德 亭

趙士秀

未有胸中范老兵　欲將何事鎭夷情
少時氣節山同峻　晩歲襟懷水共淸
憂國百年無寸補　臨民三月但虛聲
巡遊到處天恩足　不用離騷學屈平

관덕정

가슴속에 범노병과 같은 병술(兵術)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장차 변방의 군정을 누를 수 있을는지
젊은 시절엔 기계가 산 같이 높았지만
나이가 늙어가니 마음 속은 물과 같이 맑기만
평생 나라 근심하였으나 한 치도 보탠 게 없고
도임하여 석달이 되었지만 헛된 명성 뿐
순력하여 보면 가는 곳마다 임금님 은혜 흡족하여
이소경을 읽고 굴원을 배울 필요없겠네

【글자풀이】 • 觀德亭 : 세종 30년(三七八一~一四四八) 목사 이숙청(李淑晴)이 창건하고 안평대군이 쓴 편액을 달고 신석조(辛碩祖)가 기문을 지었다. 정자의 뒤에는 옛날에 돌로 쌓은 사대(射臺)가 있다. 제주목 진영의 연무정이었으나 훗날 연병장을 광양과 동문 밖으로 옮겨졌고 승보시(陞補試) · 향사례(鄕射禮) 등 제주 삼읍의 도회소(都會所)가 된 호남 제일의 정자이다. • 범노병(范老兵)은 병사 다루기에 익숙한 범씨 항우가 아보(亞父)라 불렀던 범증(范增)인 듯. • 순유(巡遊)는 순력(巡歷). • 굴평(屈平)은 굴원.

觀德亭

李約東

安不忘危要鍊兵　　愧無仁政洽人情
耕田鑿井民與皞　　放馬投戈海晏淸
花柳爭妍深淺色　　管絃交作短長聲
張侯揖讓兼酬酢　　將士還同樂太平

관덕정

평온한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아 병사를 훈련하고
어진 정치가 백성들의 마음에 젖어들지 못함이 부끄러우나
배고프면 밭 갈고 목 마르면 샘을 파서 백성들 살리는 복희씨 때와 같고
바닷가 평온하니 병기는 던져 두고 말은 놓아 먹이고
꽃과 버들 짙고 옅은 빛이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고
부는 악기 타는 악기의 길고 짧은 소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과녁을 펴고 서로 사양하며 술잔을 주고 받아
장사들이 돌아와 태평성대를 함께 즐기네

【글자풀이】 • 皞 : 복희씨 호, 흴 호. • 戈 : 창 과. • 晏 : 편안할 안, 늦을 안. • 侯 : 과녁 후, 벼슬이름 후. • 揖讓 : 공수하고 서로 사양하는 예법. • 酬酢 : 서로 술을 권함.
【참고】 張侯揖讓兼酬酢은 향음주례의 장면을 묘사한 구절이다. 장사들이 활을 쏘려 대에 오를 때 서로 사양하는 예법을 지키며 연회에서도 음주의 예법을 지킨다는 뜻.

觀德亭

金 緻

白髮窮途阮步兵　世間榮辱摠忘情
自憐病裡無筋力　且喜尊中有濁淸
千里湖天迷客夢　一年官閣聽潮聲
蠻鄕秋色催遲暮　强就新詩寫不平

관덕정

늙으막에 험한 길을 가지 못한 완보병은
세간의 영화와 욕됨 모두 잊고 살았는데
병든 몸에 근력이 없어 스스로 애처럽긴 하지만
술 동이에 청주와 탁주가 있어 또한 다행스러운 일
천리 밖 남쪽 물가 나그네의 희미한 밤잠에서
일년 내내 관각에서 들물 소리를 들으며 지냈으므로
남쪽 지방 가을 경치 저물어 감을 재촉하는데
억지로 새로운 시상을 끌어내어 불평하는 말 적어본다

【글자풀이】 • 완보병(阮步兵)은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완적(阮籍)이 일찍이 보병교위(步兵校尉)를 지냈음으로 붙인 별명, 완적이 늘그막에 부름을 받았으나 길이 궁하여(窮途) 통곡하여 돌아왔다고 한다. • 호천(湖天)은 중국 남쪽 지방에 오호(五湖)가 있음을 빌어다 쓴 말.

觀德亭

金壽翼

西南獨鎭再觀兵　每趁春秋戒賊情
自傀金城方略乏　安能玉塞虜氛淸
病添衰鬢千莖雪　門掩滄波萬里聲
遲暮倦遊思退切　男兒壯志負平生

관덕정

서남쪽의 홀로 있는 진영이라 군사들을 자주 열병하고
봄가을 매양 적의 정세를 나아가 살펴보지만
성곽은 쇠 같으나 군사 쓰는 계략이 부족함이 부끄러우니
어찌 옥 같은 변방에 오랑캐의 먼지를 씻을 수 있겠는가
늙은 몸에 병이 겹쳐 머리는 천 가닥 희어지고
문을 닫아도 넓은 바다 물결 소리 멀리 들려 와
관리생활 싫증이 나 저녁이면 물러갈 생각만 간절하니
남아의 장한 뜻을 평생토록 빚을 졌네

【글자풀이】 • 독진(獨鎭)은 외로운 진영(鎭營). 제주진관을 뜻함. • 倦遊는 관리생활에 싫증이 남.

觀 德 亭

李希雍

北闕分憂按重兵　　撫綏那得協群情
旌旗影裏軍容整　　鼓角音中海宇淸
自喜聖恩推盛化　　任看邊圉溢歡聲
高亭兀坐吾何事　　喚取尖頭頌太平

관덕정

임금님의 근심을 나누려고 군사를 살피면서
어떻게 어루만져야 많은 이들의 정낭을 도울 수 있을지
깃발 그림자 속에 군용은 정비되고
고각 소리에 바다고을 말끔하여
반가운 것은 임금님의 은혜 미루어 교화되어
별방의 환호하는 소리 넘침을 보고 있으니
높은 정자에 꼿꼿이 앉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첨두목로를 끌어 당겨 태평성대를 칭송할 밖에

【글자풀이】 • 분우(分憂)는 지방관. 왕의 근심을 나눈다는 뜻으로 일컫는 말. • 해우(海宇)는 바다 경계 안. 제주를 뜻함. • 첨두(尖頭)는 첨두목로(尖頭木櫨)의 준말. 성(城)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병기의 한 가지.

觀 德 亭

閔 暉

海國千年百萬兵　　亭前觀德亦風情
山橫刀岳穿空碧　　泉出嘉羅徹底淸
朝暮烟中城四面　　古今人裏角三聲
將軍申令分明在　　誰道轅門事不平

관덕정

오래된 바다나라 많은 병사들
정자 앞에서 무예 겨룸 또한 멋일세
한라산은 비스듬히 푸른 하늘을 뚫었고
가락천에 샘이 솟아 밑이 보여 말끔하네
사면을 두루 성엔 아침저녁 연기자욱
군사들 속에서는 예나 이제나 고각소리
장군의 엄한 명령 분명히 있어
군문(軍門)이라 말을 하나 일은 평온치 못하네

【글자풀이】 • 가라(嘉羅) : 嘉樂泉을 平仄 때문에 羅로 바꾸어 썼다. 민간에서는 '가락쿳물'이라고 한다. • 원문(轅門)은 軍門, 鎭營의 門, 관청의 외문.

觀 德 亭

沈 演

從來儒者乃知兵　　漫向臺亭贋客情
踈雨過時無限好　　纖歌響處有餘淸
浮雲萬里中原色　　落日孤城大海聲
一臥蠻鄕驚歲晩　　白頭深覺負生平

관덕정

본래부터 유자인데 병법을 어찌 알리
공연히 정자에 올라 나그네 회포 시로 쓰네
끝없이 좋은 것은 지나가는 성긴 비
더 없이 정이 끌리는 것은 가는 노래의 메아리
멀리 펼쳐진 구름은 중원과 한 가지 빛
지는 해 외로운 성엔 큰 파도 소리만
남쪽 고을에 온 뒤 해가 지남에 놀라면서
백발이 되어 평생 품은 뜻 저 바람을 깊이 깨닫네

【글자풀이】 • 섬가(纖歌)는 미상. 「濟州風土記」에 나오는 春歌가 아닌가 함.

觀 德 亭

沈連源

敢擬胸藏百萬兵　　書生不合鎭邊情
推誠正欲民心洽　　宣化聊期海甸淸
日照牙旗翻火烈　　風傳畵角動龍聲
醉來起立東南望　　千仞圓山眼底平

관덕정

천만 병의 움직임을 마음 속으로 헤아릴 수 없고
변방의 실정을 알아 맞춰 지키는데 글하는 선비는 적합하지 않지만
정성을 다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 함이며
덕화를 펴는 것은 바다 고을의 경계 안을 편안하게 하려 함이네
아병의 깃발은 불꽃같이 햇살에 나부끼고
고각 소리는 용의 소리인 듯 바람결에 전해진다
취한 김에 벌떡 일어나 동남쪽을 바라보니
천길이나 되는 한라산이 눈 앞에 나지막이 보이네

【글자풀이】 • 擬 : 헤아릴 의, 의논할 의, 적용할 의. • 藏 : 감출 장. • 宣化 : 정교를 폄, 덕화를 선포함. • 甸 : 경기 전(畿內). 여기서는 지경의 뜻. • 牙旗 : 아병의 깃발. 牙兵은 衙兵. • 목사의 영문에 딸린 입번(入番)하는 군사. • 圓山 : 한라산.

次濟州觀德亭韻

金聲久

曾聞耀德不觀兵　　且道安民在結情
昭代百年覃惠化　　妖氛千里見澄淸
冲庵遺蹟秋山色　　上洛餘威大海聲
除却名區遊覽富　　客中愁緖若爲平

제주 관덕정시의 운을 빌어

덕이 빛나면 병사를 훈련할 일이 없다 들었고
백성을 편안케 함은 그 마음을 모으는데 있다 말하며
오랜 세월 태평하여 그 은혜와 교화가 미쳐서
천리의 요사한 기운이 맑아짐을 보았네
가을 산에 볼만한 건 충암의 유적이며
바다의 큰 소리는 상락의 남은 위엄인 듯
문득 이름난 곳을 넉넉히 구경하고 나니
객지생활 수심이 편안해지는 듯

【글자풀이】 • 覃 : 미칠 담. • 氛 : 기운 분. 재앙 분. • 上洛 : 洛水의 북쪽 즉 漢陽. 여기서는 임금님의 위엄을 뜻함.

【참고】 본시 제하에 다음과 같은 자주가 있다. 관덕정은 성중에 있는데 건물의 규모가 가장 커서 군사에 관한 모든 연회는 이 곳에서 열린다. 정자 뒤에는 대가 있고, 대 위에는 늙은 괴목 몇 그루가 있어 그 그늘이 밭이랑에 이어졌다. 거기에 시도(矢道)가 있고, 과녁이 이 나무들을 마주보고 있다. 바로 고을의 사장(射場)이다. 좌우에 버들과 괴목이 줄지어 심어져 있다(八吾軒集).

觀德亭

金錫哲

聖代如今不用兵　務推仁恕結人情
豈惟夷虜懷恩信　已見江河載晏淸
貫革爭看君子射　投壺仍聽雅歌聲
輕裘緩帶鈴齋下　坐見東溟鏡面平

관덕정

태평성대가 되어 지금까지 병기를 쓰지 않았으니
사랑과 용서로써 백성들의 뜻을 맺어줌에 힘써야겠네
오랑캐들은 어떻게 은혜에 대한 믿음을 품었는지
이미 강하가 편안하고 맑음이 시작됐으니
관혁에는 군자다운 활 솜씨를 다투어 볼 수 있고
투호에는 고상한 노래 소리를 따라 들을 수 있으니
가벼운 갖옷 느슨한 띠로 호위하는 병사들과
동쪽 넓은 바다의 평평한 물결을 앉아서 바라보노니

【글자풀이】 • 영재(鈴齋)는 장수가 집무하는 곳을 鈴閣이라 하고 장수를 따라다니며 호위하는 군졸을 鈴下라 하는데 영하의 듯을 합쳐서 시격에 맞추어 쓴 듯.

觀 德 亭

金尙憲

試拔愁城按酒兵　　當杯先起故鄕情
羅紈押座留人醉　　星漢低簷滿意淸
官舍橘林秋後色　　笙鶴夜來聲
何緣共着麻姑老　　坐見桑田極望平

관덕정

수성 함락을 시험하려고 술 병사를 안무(按撫)하면서
술잔을 마주 하니 고향 생각 먼저 난다
비단이 드리워진 자리에 사람들을 취하는데
처마 밑 은하수는 모든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관사의 귤림에는 가을이 지나야 볼만하고
한라산의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은 밤이 되어야 소리를 낸다
무슨 인연으로 마고 선녀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서
앉아서 동쪽의 지극히 평평한 바다를 보는지

【글자풀이】 • 수성(愁城)은 근심 걱정이 싸인 곳. 혹은 처지. • 주병(酒兵)은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것은 술이므로 일컫는 말. • 나구(羅紈)는 비단을 뜻함. • 마고녀(麻姑女)는 마고 선녀. 고여산(姑餘山)에서 도를 닦아 상전이 백해되는 것을 세 번이나 보고 봉래산으로 가는 물이 절반이나 엎어짐을 보았다고 함. • 笙鶴 : 403쪽 남구명 증보탐라가 참조.

觀 德 亭

李民宬

詩書卻穀不專兵　　緩帶輕裘伐虜情
庾亮樓中秋月白　　劉琨城上暮笳淸
雍容儒雅看尊俎　　振作威稜聽鼓聲
待得政成歸去後　　名垂海竭與山平

관덕정

시서 병법을 오로지 익히지 않았는데
가벼운 옷에 느긋이 띠를 두르고 오랑캐를 정벌하다니
유량의 다락 속에는 환한 가을 달
유곤의 성 위에는 맑은 고각 소리
선비들은 조용히 제사 예법 익히면서
임금님 위광 진작 시키는 북소리를 듣는다
정사 끝마침을 기다려 돌아간 뒤에
공평했다는 높은 명성 바다가 마를 때까지 드리워졌으면

【글자풀이】 • 유곤(劉琨)은 진나라 때의 장군. 자는 월석(越石). • 위릉(威稜)은 신령의 위엄, 전의하여 임금의 위광. • 庾亮樓 : 강서성 구강현(九江縣)에 있다. 晋나라 明穆王后의 형 庾亮(字 元規)가 지은 정자. 일명 庾公樓.

觀 德 亭

鄭麟趾

綸巾羽扇閱佳兵　　身作長城鎭下情
約束行時潮鱷徙　　威稜振處楚氛淸
千林迸火霜柑影　　萬鼓齊撾海浪聲
早暮炊烟桑拓外　　分明畵出歲豊平

관덕정

비단 두건 쓰고 깃부채 들고 병사들을 사열하여
넓은 진관 백성들의 정서를 몸소 진작시킨다
법령에 따라 단속할 때 큰 물결도 잠잠해지고
임금님 위광 크게 떨쳐 남쪽 지방 재앙 맑아진다
서리맞은 밀감은 온 숲에 붙는 세찬 불길같고
바다의 물결 소리는 많은 군사들이 북을 치는 듯
뽕나무 밭 바깥에선 아침저녁 밥짓는 연기
금년에는 분명히 풍년을 그린 그림이 나오겠구나

【글자풀이】 • 윤건(綸巾)은 비단으로 만든 두건. 교전할 때에는 군사들이 투구 안에 바쳐 쓰고 평시에는 투구를 벗고 윤건만 쓴다. 은자가 쓰는 두건. • 우선(羽扇)은 깃으로 만든 부채. 군사를 지휘할 때 씀. • 약속(約束)은 법령에 의해 단속함. • 악조(鱷潮)는 큰 물결. 큰 난리를 뜻함. • 위릉(威稜)은 신력의 위력 뜻이 일러 임금의 위광. • 초분(楚氛)은 남쪽지방의 변란을 뜻함. • 병화(迸火)는 세차게 불어 번지는 불. • 撾 : 칠 과. 撾의 오자인 듯. • 상자(桑柘)는 뽕나무나 산뽕나무. 여기서는 농사지은 밭을 뜻한다.

觀 德 亭

李元鎭

觀德由來寓習兵　　只今猶見古人情
回頭碣石塞陰散　　縱目扶桑曙氣淸
羿彀欲凋鷄宿色　　鐵弧已卻馬潮聲
當年國恥那堪說　　斗膽輪囷尙未平

관덕정

관덕이라는 이름은 군사 훈련에서 유래된 말
지금도 옛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갈석으로 머리를 돌리면 음산한 기운 흩어지고
눈을 돌리면 해뜨는 곳에 아침 기운 말끔하다
좋은 활 과녁판 맞추려니 계숙의 빛감돌고
쇠시위 튕기니 들물 소리 들리는 듯
그 때의 부끄러운 일 어찌 차마 말을 하리
간덩이 크게 엉켜 아직 펴지지 않았네

【글자풀이】 • 碣石은 산이름. 소재는 일정치 않다. 249쪽 이원진 연희각시 참조. • 羿는 하나라 때 유궁국(有窮國)의 왕으로 활을 잘 쏘았던 사람. • 當年國恥는 정묘호란.

望 京 樓

金永綏

快閣登臨愜壯遊　三山人說在瀛洲
少時龍釰傲牛宿　晩歲金丹夢玉樓
客館多年無好味　重溟何日有歸舟
北瞻宸極心逾耿　紫氣遙連禁苑浮

망경루

시원한 다락에 높이 오르니 놀기에 마음 맞아
사람들은 삼신산이 영주에 있다 한다
젊은 시절 둔한 칼로 대장군을 업신여겼고
늙어서는 금단으로 옥루를 꿈꾸었지
별 맛 없이 객사에 머무른 오랜 세월
언제면 넓은 바다에 돌아갈 배 띄울런지
임금님 계신 북쪽을 올려다 보면 마음이 번쩍
아득히 떠 있는 자색 기운은 궁궐에 이어진 듯

【글자풀이】 • 愜 : 뜻에 맞을 협. • 牛宿 : 牽牛星, 二八수의 하나. 현무칠수(玄武七宿)의 두 번째 별, 하고(河鼓)라고도 부름. 군사를 관장하는 별. 중앙의 별을 대장군, 좌우의 별을 소장군이라 부름. • 玉樓 : 하늘의 문장이 거처하는 집. 하늘 사람들은 모두 신선이므로 신선이 머무는 집(李商隱 李賀小傳 賀晝見一緋衣人 駕赤虬 持一板 書太古篆曰 帝成白玉樓立召君爲記 賀旋卒 後世因稱 少年文人 死曰 玉樓赴召 玉樓修記). • 耿 : 빛날 경, 번쩍할 경, 근심 경.

望 京 樓

洪重徵

暫趁公餘此一遊　八牕高閣俯長洲
神人窟宅三生夢　湖海風流百尺樓
把酒欲呼南極老　憑欄最喜北來舟
宸居迢遞知何處　指點禪雲五色浮

망경루

공사를 끝내면 잠깐 이 곳에 들러 놀며
누각의 여덟 창으로 물가를 내려다 본다
삼생의 꿈은 신인이 솟아난 굴집에서
바다의 참멋은 높은 다락이라야 제격
술잔을 들면 남쪽의 노인성을 불러보고 싶고
난간을 의지하면 북쪽에서 오는 반가운 배
아득한 궁궐은 어느 곳인지
오색 구름 떠 있는 곳 가르켜 본다

【글자풀이】 • 公餘 : 공사를 끝낸 뒤. • 神人 : 탐라의 시조 세 분. • 南極老 : 南極老人星, 수성(壽星)이라고도 함.

望 京 樓

李元鎭

幾荷天恩獲壯遊　蓬萊勝迹又瀛洲
雲收嶽色秋侵座　月滿濤聲夜入樓
句漏已期砂就竈　鬱林唯待石安舟
時攀絶頂開雙眼　南極星輝海上浮

망경루

유쾌하게 놀 수 있는 천은이 몇 번이던
봉래산 절승을 보고 다시 영주로 왔으니
구름 걷히면 산 경치가 앉은 자리로 다가오고
달이 쌓인 파도 소리는 밤 다락으로 들어온다
구루산 단사 굽는 곳으로 나가기를 기약하면
빽빽한 숲엔 오직 앉혀진 돌배가 기다린다
때로는 절정에 올라 두 눈을 떠서 보면
노인성 별 빛이 바다 위로 솟는다

【글자풀이】 • 句漏는 句漏山. 광서성에 있는 경치 좋은 산. 진(晉) 나라 갈홍(葛洪)이 단사를 굽던 곳. 백사(白沙)가 많이 난다. 250쪽 이원진시 연희각 참조.

友 蓮 堂

李元鎭

納凉虛閣雨初收　　鳥下苔階興轉幽
竹島淸陰移菡萏　　鏡中添作小瀛洲

우련당

비 개인 뒤 허각에서 바람을 쏘이노라니
이끼 낀 섬돌에 새가 날아와 흥취가 고요하다
대섬의 맑은 그늘에 연꽃 봉오리를 옮겨 심으니
거울 같은 물 위에 소영주가 생겼네

【글자풀이】 • 우련당은 홍화각 남쪽에 있었다. 중종 21년(1526)에 목사 이수동이 연못을 파고 집을 지었는데 목사 양대수(楊大樹)가 메꿨던 것을 목사 김정(金人政)이 복원하여 이름을 향의실(香儀室)이라 하였다. • 납량(納凉)은 바람을 쏘임. • 함담(菡萏)은 연꽃 봉오리를 이른다. • 영주(瀛洲)는 제주의 별칭. 신선이 사는 물가.

愛 梅 軒

李翊漢

日日孤襟向北開　　五雲何處望蓬萊
玉京消息春來少　　惟有寒潮寂寞回

애매헌

날마다 북쪽을 향해 외로운 마음을 펼쳐 보는데
오색 구름 쌓인 어느 곳이 봉래산인지
서울 소식은 봄이 들면서 적어지고
싸늘한 파도 소리만 적막하게 들릴 뿐

【글자풀이】 • 五雲 : 오색구름. • 蓬萊 : 삼신산의 하나, 금강산의 별칭. 81쪽 김정 한라산 시 참조 • 玉京 : 도가에서 말하는 천제(天帝)가 살고 있는 곳. 여기서는 임금이 살고 있는 곳을 뜻한다.

愛 梅 軒

李元鎭

梅花初發小軒頭　　酷愛淸香入酒甌
忘却此身留海國　　雪中詩興似楊州

애매헌

작은 난간 머리에 매화가 처음 피어
사랑스런 맑은 향기 술사발로 들어온다
내 몸이 바닷고을에 있음을 잊고
눈 속의 시흥이 양주와 같네 그려

【글자풀이】 • 楊州 : 揚州. 양자강 남쪽의 오호가의 경치좋은 고을. 당나라 杜牧이 양주의 번화함을 잊지못했다는 곳(一年一覺兩州夢 贏得靑樓薄倖名 - 杜牧의 遣懷詩 -).

愛 梅 軒

金泰廷

凍雨霏霏不肯晴　　寒潮和霧撼荒城
扶笻獨訪梅消息　　折得孤枝望玉京
歲暮羈懷鬱不平　　晩晴時復下階行
小軒寥落無人會　　可是梅兄別有情

애매헌

차가운 비 계속 내려 갤 것 같지 않은 날씨
변방 성에 덮여 있는 안개에 뒤섞인 싸늘한 썰물
지팡이 의지하여 홀로 매화를 찾아가
외로운 가지 꺾어 들고 옥경을 바라본다
한 해가 저물어 가니 나그네 시름져 답답한 불평 쌓으니
날씨 갠 때에 다시 뜰로 내려선다
작은 마루 조용하여 사람들은 만날 수 없는데
옳거니 매화꽃이 유별난 정을 가졌구나

【글자풀이】 • 비비(霏霏)는 눈이나 비가 계속 내리는 모양. • 玉京 : 252쪽 이익한시 애매헌 참조. • 梅兄 : 매화의 애칭.

延 敎 亭

金　俶

結構元非擇地形　　城門五里卽斯亭
莎鋪正路何須席　　石擁虛簷不用屛
千載以前都未暇　　一間雖小便成廳
海山奇勝呈軒砌　　從事歌詩有足聆

연교정

집을 세울 때 지형을 가린 것 아니라
성문 밖 오리여서 여기에 정자를 세웠네
정로에 자리가 깔렸으니 돗자리가 필요없고
돌이 처마 밑에 둘러 있으니 담장을 막을 일도 없네
옛날엔 정자를 세울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의 한 칸은 비록 작지만 청사로 쓸만하네
바다와 산의 좋은 경치가 뜰 앞에 다가섰으니
시 짓고 노래 하기엔 적당하겠지

【글자풀이】 • 延敎亭 : 제주성 동문 밖 三리 쯤에 있어 왕명을 맞이하던 정자. 영조 13년(4070 : 1737)에 목사 김정(金俶)이 창건했다. • 莎 : 비빌 사. 향부자 사. 여기서는 잔디를 뜻함. • 鋪 : 펼 포. 문고리 포. • 擁 : 안을 옹. • 載 : 해 재(年). 실을 재. 시작할 재. • 聆 : 들을 령. 깨달을 령.

拱辰樓

李元鎭

城通嘉樂脉　　山底又靈泉
百雉環三里　　隻虹飮一川
占風憂涅齒　　暇日醉華筵
回首滄溟濶　　歸心北極懸

공진루

성은 가락천에 이어졌고
신령한 샘은 산지포에서 샘솟는데
백치의 성이 세 마을에 둘러있고
쌍무지개가 한 냇물을 마신다
바람을 점쳐 이빨이 검어짐을 근심하고
한가한 날에는 잔치를 벌려 취한다
머리 돌려 넓은 바다를 보면
돌아갈 마음은 북극에 달렸으니

【글자풀이】 • 拱辰亭 : 제주성 북수문(北水門)의 문루. 효종 신묘년(3894 : 1651)에 목사 이원진(李元鎭)이 창건하고 순조 정묘년에 목사 한정운(韓鼎運)이 중수하였다. • 加樂는 加樂泉, 곧 '가락쿳물'을 이른다. 현 오현단 동쪽에 있었다. • 산저(山底)는 山地浦. 속칭 산지. • 百雉는 성의 크기. 一雉는 길이 3장, 높이 1장.

拱辰亭

申 纘

瀛洲山出海之東　　天地空虛積氣籠
浩浩無邊水彼巨　　盈盈不泄是誰功
魚龍莫測千尋窟　　鴻鵠能騰萬里風
別界烟霞新構屹　　憑欄北望彩雲紅

공진정

바다의 동쪽에 영주산이 빼어나 있음은
천지의 공허한 곳 기운을 쌓아 막으려 함인지
끝없이 넓고 넓은 바닷물이 저와 같이 크니
담고 담아도 새지 않음은 누구의 공덕인지
천 길이나 깊은 물 속 어룡은 헤아릴 수 없고
홍곡이 만리를 바람타고 날으는 곳
별천지의 경치를 찾아 우뚝 새 집을 세우고
난간을 의지하여 북쪽을 바라보니 상서로운 구름

【글자풀이】 • 拱 : 팔짱낄 공. 아람 공(兩手合把). • 籠 : 종다래끼 롱. 농롱. • 泄 : 샐 설. 내칠 예. • 尋 : 여덟자 심. 찾을 심. • 鴻 : 큰기러기 홍. 기운덩이 홍. • 鵠 : 고니 곡. 과녁 곡. 鴻鵠은 鵬을 뜻함. 133쪽 이원진시 천지연 참조 • 構 : 집세울 구. 이을 구. 글미리지을 구. • 屹 : 의연한 모양 흘. • 憑 : 의지할 빙. 탈 빙.

演 武 亭

李源達

鼓角喧天上將臺　　淸晨馳射試雄才
衙門二品關防重　　節制三城號令開
坐點牧人驅馬去　　行收獠戶貢珠來
乘風破浪平生志　　一笑登臨亦快哉

연무정

하늘을 찌를 듯한 고각 소리 들으며 장대에 올라
이른 아침부터 활쏘기 말달리기를 시험한다
이품의 관원이 다스리는 관방의 관청이어서
절제사의 직함으로 세 고을을 호령하여 거느린다
앉아서 목자들이 치는 말을 점고해야 하고
돌아다니며 요호의 진주 공납도 받아야 하나
평생 바람을 타고 물결을 깨칠 뜻을 품고 있어
이 정자에 오르면 통쾌하여 웃음이 절로 난다

【글자풀이】 • 演武亭 : 옛부터 광양(삼성혈 부근)에 정자의 터가 있었는데 인조 14년(3969 : 1636)에 목사 신경호(申景琥)가 창건하고 숙종 20년(4027 : 1694) 목사 이익태(李益泰)가 중수하였다. 영조 17년(4074)에 바람에 무너졌다가 영조 22년(4074 : 1746) 목사 한억증(韓億增)이 제주성 동문 밖으로 옮겨 지었다. • 節制 : 절제사의 준말. 제주목사가 실직보다 윗 품계(2品)의 군직인 방어사나 절제사의 군직을 겸대(兼帶)하여 전라감사의 권한을 가져 정의 대정 양현을 다스렸음. 그래서 제주목을 이품아문이라 한다. • 三城 : 제주・정의・대정, 제주섬 안의 세 고을. • 獠戶 : 세금을 바치는 민호.

演武亭

李元鎭

侵晨鼓角出南城　　莎綠亭前掌樣平
衡軸每從圖上起　　風雲長向握中生
衆孤耦發流星閃　　寶埒爭馳匹練橫
回首桑溟波已息　　暫停歸騎倒深觥

연무정

이른 새벽 고각소리에 성 남쪽으로 나아간다
모양이 손바닥 같은 정자 앞의 잔디밭에
진 치는 그림에 따라 가로 세로 금을 그으면
악기진(握奇陣) 속에서는 오래 풍운이 일어난다
짝 맞추어 쏘는 화살은 별이 흐르는 듯 번쩍이고
앞다투어 달리는 갈피날에선 필표를 빗겨간다
머리 돌려 동쪽 바다를 보니 파도는 잔잔한데
돌아가는 말 잠깐 멈추고 가득 따르는 술잔

【글자풀이】 • 握은 握奇를 줄여 쓴 말. 정진(正陣 : 天 · 地 · 風 · 雲)과 기진(奇陣 : 龍虎 · 蛇)외의 또 한 진. • 衆孤耦發은 향사례에서 활을 쏘을 때 짝맞추어 단에 올라 서로 사양하면서 활을 쏘는 사법. • 寶埒爭馳는 기마를 시험할 때 경계를 그어 세운 표시에 따라 달리는 기법.

運籌堂

李元鎭

飛甍迥出白雲端　　碣石扶桑指點間
幾閱貔貅軒勇氣　　更傾鸚鵡破愁顔
子房帷外乾坤正　　德裕樓前日月閑
落筆滄洲仍笑傲　　百篇詩興不能刪

운주당

나는 듯 지붕마루 흰 구름 끝에 솟구쳤고
갈석산과 부상은 손가락으로 짚어질 듯
비휴새가 날으는 듯한 용기를 몇 번 보고나서
다시 앵무잔 기울여 시름을 편다
자방의 장막 밖은 세상일 올바르고
덕유의 다락 앞에 느릿느릿 흐른 세월
푸른 물가에 붓을 던져 거만하게 웃고 나서
일백 편의 시흥을 이루다 쓰지 못하겠네

【글자풀이】 • 갈석(碣石) : 201쪽 이원진시 연희각 참조. • 앵무(鸚鵡)는 앵무새 조개 술잔. 제주신상품에 있었다 함. • 貔 : 비휴 비. • 貅 : 비휴 휴. • 子房帷 : 漢나라 공신 장자방(張子房)이 전략을 짜던 곳. 여기서는 장관(將官)들이 전략을 짜던 장소를 뜻한다. • 軒 : 주적댈 헌(自得貌), 껄껄 웃을 헌, 처마끝 헌. • 德裕樓 :

次鄕社堂沈牧使演韻

李衡祥

兵馬水軍使　　耽羅節制營
一官前後俠　　三邑古今泯
大宰曾云謫　　孤臣此亦榮
人皆欣我至　　吏或笑相迎
勒石看遺愛　　華扁記短行
六十年風在　　八千戶平役
空將當日蹟　　留感后生情
蔽蔽甘棠詠　　依俙皓月淸
功曹廳上韻　　擧和涕交橫

제주향사당 심연목사 시의 운을 따라

수군의 병마를 거느린
절제사의 제주 영문(營門)
관원은 앞서 왔고 또 뒤에 왔지만
삼읍에는 예나 지금 같은 백성들
재상께선 귀양 길이라 말했었지만
외로운 신하는 이것도 영광으로 여기네

사람들은 모두다 내가 옴을 기뻐하고
아전들은 웃으며 맞이하여 주니
비석에는 백성사랑 끼친 일 새겨져 있고
짧은 글귀 쓰여진 편액은 화려하기만
새로 만난 이들에게 풍속을 물으면서
옛 이야기에 젖어 술잔이 오고 갈 때에
육십년전 풍속이 남아 있어서
팔천호의 요역(徭役)이 공평하다네
공연히 지난 날의 치적(治蹟)에 이끌리어
후생의 마음 속에 감회가 이네
폐폐감당 싯귀 읊조릴제
어렴풋이 밝은 달 솟아올라
공조청 벽 위의 시운을 따라
받들어 화답하려니 눈물이 줄줄

【글자풀이】 • 兵馬 : 兵馬水軍節制使의 耽羅營門을 시격에 맞추어 쓴 말. • 徠 : 올 래, 위로할 래. • 三邑 : 제주, 정의, 대정, 제주도내에 있는 세 고을. • 大宰 : 정승. • 六十年 : 심연목사는 인조 무인년(一六二六)에 도임했고 작자는 숙종 임오년(一七〇二)에 도임하여 七〇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을 말함인 듯. • 蔽芾甘棠 : 시경 소남(召南). 甘棠장의 구절. 어진 관리의 인정을 찬미하는 노래. 여기서는 심연목사의 인정을 노래한다는 뜻. • 依俙 : 依稀, 어렴풋함, 분명치 않음. • 功曹廳 : 향사당(鄕社堂, 鄕廳)을 바꾸어 쓴 말. 功曹는 한라라 때 서사(書史)를 맡은 관리였는데 이를 유향소(留鄕所)의 직무에 빌어다 쓴 말.

瀛陽館(旌義客舍)

李慶億

古戍居人少　　秋城橘柚香
潮聲通越分　　風便過吳檣
梔子收田賦　　蠙珠繫職方
仙槎迷舊路　　辰極暮雲中

영양관

오래된 수자리엔 사는 사람 많지 않고
가을성에는 귤향기 가득하다
파도 소리는 월나라에 통하는 듯
바람이 편편하면 오나라배 지나가네
세금으로 약재를 거둬 들이고
진주조개는 특산물로 기록되어
신선의 배가 옛길을 잃어
북쪽 서울이 구름 속에 아득하기만

【글자풀이】 • 瀛陽館 : 정의현의 객사 정청. 영주산 남쪽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檣 : 돛대 장. • 梔 : 치자 치. 약재로 씀. • 蠙 : 진주조개 빈. • 槎 : 떼배 사. • 辰極 : 북쪽 궁궐. 임금이 계신 곳.

瀛陽館(旌義客舍)

林亨秀

形勝三分邑　城池一島東
方音驚頓別　民俗喜有同
日落林鴉定　天寒夜戍空
坐看蒼海月　來照酒樽中

영양관

땅의 형국이 세 고을로 나누어졌는데
섬의 동쪽에 성지를 쌓았네
사투리는 무디어 분별이 두렵지만
백성들의 풍속은 육지와 같아 반가워
해 떨어져 까마귀떼도 제자리 찾으니
추운 날씨에 밤 수자리는 비어 있다
앉아서 바라보니 푸른 바다의 달이
술잔 속으로 슬며시 비쳐온다

【글자풀이】 • 形勝 : 볼만한 땅의 형국. • 驚 : 놀랄 경. 두려울 경. • 頓 : 꾸벅거릴 돈. 그칠 돈. 가지런할 돈. 무딜 둔. • 戍 : 수자리 수.

次旌義縣板上韻

李衡祥

邑在要衝地　關防勢鎭東
星分房尾異　海接杭蘇同
文物隨時變　民風閱世空
最憐古今恨　牧拾付詩中

정의현아의 벽에 걸린 시의 운에 부쳐

고을은 적과 부딪치는 곳에 있어
제주진의 동쪽을 막는 관문일세
방성 미성의 자리는 다르지만
소주 항주와는 같이 바다에 이어졌네
문물은 때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백성들의 풍속은 세대가 지날수록 비어만 가니
옛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가장 애처러운 한을
시 속에 거두어 담아보지만

【글자풀이】 • 板上韻 : 명종 원년에 도임했던 임형수(林亨秀) 목사의 시. • 房尾 : 입십팔수의 하나인 방성과 미성 동쪽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동쪽을 뜻함. • 分 : 分野. • 古今恨 : 앞쪽 林亨秀 목사의 시에 차운한 시이다. 임목사는 기묘명현이다. 그의 한을 뜻한다.

旌義題詠

林　悌

吾憐林節制　　義氣滿天東
生世嗟相後　　淸樽恨未同
英魂落何處　　蒼海杳連空
感激留佳句　　孤吟夜政中

정의현에서

나는 임절제사를 사랑하오니
의로운 기운이 우리 하늘에 가득 하였기로
그 보다 뒤 늦게 태어남을 한숨 짓고
맑은 술 같이 나누지 못함을 한탄하네
영웅스런 영혼은 어느 쯤에 있는지
푸른 바다 아득하 하늘에 이어진 곳에서
남기신 싯귀가 감격 스러워
한 밤중 외로이 읊어 보네

【글자풀이】 • 林節制 : 작자 보다 앞서 제주에 절제사(節制使, 牧使兼帶)로 왔던 임형수(林亨秀). 기묘명현(己卯名賢)이다. • 留佳句 : 임형수의 정의제명 시가 있음(264쪽).

旌義題詠

柳思瑗

漢客東槎遠　瀛洲鉅浸東
層陰古堞隱　秋色亂山同
昔有淸詩響　今來陳迹空
猶存舊時月　來照橘林中

정의현에서

한나라 나그네가 먼 동쪽으로 배질한 것은
큰 물결 동쪽에 신선이 사는 영주가 있어서였네
옛 성첩엔 층층히 어둠이 깔렸고
어지러운 산에는 한결 같은 가을 빛
옛적 맑은 싯귀는 메아리로 남아 있지만
그 자취 오래되어 지금 없어졌지만
오히려 옛 달은 그대로 남아 있어
귤림 속으로 비쳐 오도다

【글자풀이】 • 漢客 : 한(漢)나라와 초(楚)나라가 싸울 때 한신(韓信)이 제(齊)나라를 평정하였다. 제나라 왕의 동생인 전횡은 자립하여 가왕(假王)이 되었다. 한나라가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고조가 등극하였다. 전횡은 무리 500여인을 거느려 동해 바다의 섬(濟州島)로 들어와 살았다. 한고조가 예의를 갖추어 전횡을 불렀다. 어쩔 수 없어 섬을 떠나 가다가 다른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장부의 절개가 아니라 여겨 자기의 뇌는 빼어내어 섬으로 던져두고 가다가 낙양(洛陽 : 漢나라의 서울) 가까이서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500여인도 따라 죽었다. 그래서 500여인의 정령이 열실의 오백장군이 되었다고 전하여진다. 이들은 전횡오백인(田橫五百人) 한객오백인(漢客五百人)이라 부른다.

瀛陽館(旌義客舍)

金尙憲

舊號瀛洲地　今稱小海東
神從何代降　風入聖廟同
閱歲荒城古　浮天積水空
客來寒日暮　孤角瘴烟中

영양관

옛날 영주라 부르던 곳
지금은 소해동이라 하네
신인은 어느 시대에 내려왔는지
풍속은 우리 조정과 똑같아서
오랜 세월 겪은 옛성에
하늘은 온통 깊은 물빛
추운 날 저물녘에 이르러 보니
연기 속에 외로운 고각 소리만

【글자풀이】 • 瀛洲 : 신선이 산다는 물가. 정의현의 주산을 영주산이라 부름. • 神 : 삼성신화의 신인을 줄여서 쓴 말. • 聖廟 : 공자의 사당. 여기서는 성조(聖朝) 즉, 우리나라 조정이라는 뜻으로 썼음. • 積水 : 깊이 고인 물. • 瘴 : 장기 장. 瘴氣는 열대 지방의 갯벌에서 일어나는 독있는 기운.

日 觀 軒

南 涑

圓嶽如吾雪滿巔　　屹然中立四無邊
天乘南極人多壽　　地絶東瀛吏近仙
卽看虛泡能化石　　可知平生此行船
高軒我欲名豊樂　　三十八材朝暮烟

일관헌

한라산 정상은 내 머리같이 흰 눈이 가득
섬 가운데 우뚝 서서 사면이 가이 없다
남극성이 하늘을 타고 있어 사람들은 장수하고
동영주에 떨어져 있어 벼슬아치도 신선과 비슷해
바라보니 빈 물방울이 돌로 변한듯
평생에 배를 타고 떠나갈 곳임을 알겠네
높은 초헌을 타고 풍성하고 좋은 명예를 얻고자 하여
삼십팔재 아침 저녁 연기를 겪었으니

【글자풀이】 • 日觀軒 : 정의현 관아의 정청. 원래는 이아(貳衙)이었다. • 圓嶽 : 한라산의 별칭. • 巔 : 산꼭대기 전. • 屹 : 우뚝할 흘. • 南極 : 南極星. 老人星. 壽星이라고도 부르며 한라산 남쪽에서만 볼 수 있고 이 별을 보면 장수한다고 함. • 東瀛洲 : 신선이 사는 물가. 제주도의 별칭. • 泡 : 물방울 포. • 化石 : 돌로 변함. 제주의 돌이 물방울과 같이 구멍이 나 있음을 표현한 말. • 三十八材 : 미상. 材자는 載자의 오사가 아닌가 한다.

日 觀 軒

李羽晋

銅魚低壓六鰲巔　　滄海迢迢夢日邊
九月園霜催橘柚　　三時山霧降神仙
暝生每喜平安火　　風起遍愁供奉船
寄語洛城多少子　　迷津何處不蠻烟

일관헌

동어가 물을 뿜어 여섯 마리 자라가 떠받쳤던 산을 눌러버린
까마득한 푸른 바다 하늘가에서 꿈을 꾸네
구월이라 귤밭의 귤유에는 서리를 재촉하고
세 계절 안개 낀 한라산에 신선이 내려오는 듯
저녁에는 평안한 봉연불(烽烟火)이 올라 매양 기쁘고
바람이 일면 조공 바치러 가는 배가 근심되지만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께 기별할 말은
나루터를 잃은 사람에게는 어느 곳인들 남쪽 풍광이 아니겠느냐고

【글자풀이】 • 銅魚 : 銅龍이라고도 하며 물을 토해내는 기구. 은나라 때에 만든 물시계에 금으로 용의 입을 만들어 붙여 물을 토하게 한데서 유래된 말. • 迢迢 : 까마득함. • 三時 : 봄, 여름, 가을. • 暝 : 저녁 명, 어두울 명. • 平安火 : 봉수(烽燧). 연대(烟臺)에서 외적의 침입을 알리는 불이 외적의 침임이 없어 평안하다는 신호를 보내온다는 뜻. • 寄語 : 기별하는 말. • 蠻 : 남쪽오랑캐 만. 남쪽을 뜻함. • 六鰲 : 81쪽 김정 한라산시 참조.

倚斗亭(依斗亭)

李禮延

倚斗新題二字扁　　微忱少叙此亭前
南來都是尋常地　　北望依然咫尺天
專制一方承陛命　　巡行三邑愧廚傳
遙看老宿如瓜出　　聖壽無彊祝萬年

의두정

북두에 의지함이라 두 글자 편액을 쓰고
이 정자 앞에서 생각나는 일을 적어본다
내려온 남쪽 땅은 예사로운 곳이며
북쪽을 바라보면 임금님은 지척에 계신 듯
대궐의 명을 받들어 한 지방을 다스리려고
삼읍을 둘러보니 끼닛거리가 부끄럽기만
멀리 솟아오른 박같은 남극성을 바라보며
임금님의 만년 장수를 빌어 봅니다

【글자풀이】 • 倚斗亭 : 정의 북쪽 성 위에 있던 정자. 순조 三〇년(四一六三 : 一八三〇) 현감 박종묵(朴宗默)이 창건하였다. • 扁 : 관청편액 편. • 忱 : 정성 침. • 叙 : 敍. 베풀 서. • 尋常 : 예사스러움. • 陛命 : 왕명 • 廚 : 부엌 주. • 廚傳 : 부엌에서 내오는 음식. 끼니. • 老宿 : 老人星. 宿는 별 수. 27쪽 이원진시 참조.

倚 斗 亭

李 熙

新揭亭名倚斗扁　　登臨如對玉樓前
捲簾指點三山路　　憑檻蒼茫十鳥天
恩德誰宣豊樂記　　絃歌奚獨武城傳
五雲深處蓬萊殿　　盃上南山倒萬千

의두정

정자 이름을 새로 지어 편액을 달고
올라와 보니 백옥루를 바라보는 듯
주렴을 걷으니 삼산의 길을 지점할 듯
난간을 의지하니 십조천이 푸르고 넓다
누구가 임금님 은덕을 펴 풍악의 기록을 남길 것이며
현가는 어찌하여 무성에만 전할 것인가
오색구름 깊은 곳 봉래전을 바라보며
남산의 술잔을 들어 천만번 기울이네

【글자풀이】 • 憑 : 의지할 빙. • 玉樓 : 白玉樓. 270쪽 김영수시 망경루 참조. • 三山 : 삼신산. • 蒼茫 : 푸르고 넓은 모양. • 十鳥天 : 미상. • 絃歌 :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武城읍재가 되어 글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다스렸던 고사(論語 陽貨). • 南山 : 정의현 남쪽의 산이름이나, 축수(祝壽)를 뜻함(南山壽). • 豊樂 : 임금의 교화를 입어 풍성함을 즐김.

靈 泉 館

李約東

靈泉形勝轉淸新　　四顧奇觀惱此身
城板漢拏頭戴雪　　乳柑山橘葉藏春
天低海濶疑無地　　犬吠鷄鳴知有人
就睡俄然趍鳳闕　　覺來怊悵夢非眞

영천관

영천의 지형이 뛰어나 맑고 시원하여
사면의 기이한 경관이 이 몸을 괴롭힌다
성판악과 한라산 머리엔 쌓인 하얀 눈
유감과 산귤의 잎은 언제나 봄빛
하늘 끝에 넓은 바다가 보여 땅이 없는 듯한데
개 짖고 닭이 울어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겠네
잠깐 동안 잠든 새에 봉궐에 추창하였는데
깨어보니 꿈이 현실이 아니어서 섭섭하기만

【글자풀이】 • 靈泉館 : 현재 서귀포시 영천동 갈산 곁의 영천 절벽 위에 있던 공관. 세조 一二년에 도임했던 절제사 이유의(李由義)가 창건하였다. • 惱 : 고달플 뇌. 한할 뇌. 번뇌할 뇌. • 城板 : 城板岳. 한라산 동쪽에서 가장 높은 산. • 乳柑 • 山橘 : 모두 귤의 일종. • 俄然 : 잠깐 사이. • 趍 : 빨리 걸어나갈 추. • 鳳闕 : 임금님이 계신 궁궐. • 惆悵 : 섭섭함. 실의(失意)함.

大　靜

金穎達

偶然相識海天涯　　幄手同嗟去國賒
別恨已知無幾日　　不妨重醉滿城花

대정에서

우연히 먼 바닷가에서 서로 알게 되어
손을 잡고 함께 나라님 떠나왔음을 한숨짓네
이별한 날짜도 몇 일 남지 않았는데
꽃이 아득한 성에서 취해본들 꺼릴 것이 무언가

大　靜

金應南

瀛海漫天未見涯　　蓬山東去路非賒
瑤臺笙鶴月明夜　　開盡碧桃天樹花

대정에서

신선 물가 하늘에 닿아 끝을 볼 수 없고
봉래산은 동쪽과의 거리가 멀지 않네
요대에는 피리 부는 학 달 밝은 밤에
많은 나무에 벽도화가 피어 있는 듯

【글자풀이】 • 賒 : 멀 사, 오랠 사, 세낼 사. • 瑤臺 : 신선이 사는 곳. 주나라 목왕(穆王)이 서왕모(西王母)와 놀던 곳. • 笙鶴 : 427쪽 남구명 증보탐라가 王喬 참조.

孤島滄茫海一涯　　東風回首故園賒
遙知漢北春猶早　　窓外寒梅未着花

외로운 섬은 아득한 바닷가에서
동풍에 아득히 먼 고향으로 머리를 돌리니
멀리 한강 북쪽도 이른 봄이 온 줄 알겠지만
창밖에 매화꽃은 아직 피지 않았겠지

鸞書昨夜下天涯　　千里雲濤望不賒
白首靑春朝北闕　　更堪扶病看鶯花

지난 밤 고향 편지가 하늘 끝에 떨어졌네
머나먼 구름 파도를 바라보니 멀지 않은 듯
백수 청춘에 궁궐에 들어갔고
병을 안은 관리가 되어 앵화를 보네

瀛安舘

李翊漢

使節逍遙海上山　　世人誰復識仙官
東吳地勢波濤外　　南斗星光几席間
紫洞淸香琴韻靜　　碧城疎雨角聲寒
奇游未洽依歸路　　萬炬烟郊薄暮環

영안관

바다 위 산을 노니는 저 사또를
세상 사람 그 누구가 신선인 줄 알리
파도밖은 동쪽 오나라 땅
책상 위는 환한 남극성 별 빛
안개 낀 골짜기에선 맑은 향기와 거문고의 여운(餘韻)
푸른 성 성긴 비에 싸늘한 고각 소리
아득한 길 기발한 놀이에도 만족을 못 느껴
모든 연대에 불이 밝혀진 늦은 저녁에 돌아왔네

【글자풀이】 • 瀛安舘 : 대정현. 객사의 동헌. • 紫洞 : 紫霞洞, 자주빛 노을이 감도는 골짝. 신선이 머무는 골짜기. • 萬炬 : 모든 봉화 불 각처 연대에서 올리는 봉화. • 烟郊 : 烟臺인 듯함. • 碧城 : 신선이 사는 성.

大　靜

沈　演

故園何處問吾廬　十載奔忙未定居
醉後身名都夢幻　客邊時序任乘除
孤城吹角轅門靜　獨夜題詩縣閣虛
雲外忽聞笙鶴響　滿天風露五更餘

대정에서

어느 곳이 내 고향 나의 집인지
10년간 바삐 돌아다니며 거처를 정하지 못하였네
취한 뒤의 명예는 모두 다 헛된 꿈
나그네살이 시운은 더했다 덜했다
외로운 성엔 고각소리뿐이고 병영은 고요한데
텅 빈 현각에서 밤에 홀로 시를 쓰려니
구름 밖에서 문득 들리는 생학의 소리가
하늘에는 바람 이슬 날이 밝아라

【글자풀이】 • 시서(時序)는 시절이 돌아가는 순서. • 승제(乘除)는 번성함과 쇠퇴함. 또는 더한 것은 더하고 덜 것은 덜어서 알맞게 함. • 원문(轅門)은 수레의 끌채를 서로 마주 세워서 문처럼 만든 것으로, 병영이나 군문(軍門)을 이른다.

大　靜

李元鎭

耽羅小縣結茅廬　瀟灑眞如宋玉居
風送橘香侵几席　月移梅影上階除
回頭北陸橫圓嶠　極目南溟接太虛
明發角聲催使節　壯遊詩興幾分餘

대정에서

탐라의 작은 현에 띠집을 엮어지으니
시원하기가 정말 송옥의 집 같구나
바람 따라 오는 귤향기 자리에 베고
달이 감에 매화 그림자 섬돌로 오른다
머리 돌려 북쪽을 보니 한라산이 높직하구나
남쪽으로 눈을 주니 텅 빈 하늘
밝아 오자 고각소리 사또 행차 재촉하니
장쾌한 놀이의 시흥이 얼마나 남겠는가

【글자풀이】 • 소쇄(瀟灑)는 산뜻하고 깨끗함. 산뜻하여 질이 좋음. • 송옥(宋玉 : B.C. 290?~B.C. 292?)은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초나라 사람으로 궁정시인이었다. 굴원(屈原)의 제자로서, 굴원에 다음 가는 부(賦)의 작가로 두 시인을 아울러서 '굴송(屈宋)'이라 하였다. • 원교(圓嶠)는 한라산의 별칭.

次鄭桐溪韻

李翊漢

蓬壺山勢壓衡廬　　下有孤城是邑居
橘柚香生侵戶牖　　驊騮影落匝庭際
身遊萬里年光暮　　夢落三淸夜色虛
畫角一聲催曉發　　五更殘月半簾餘

정동계의 운을 빌어

형주와 여산을 누른 신선 사는 산
그 밑에 고을을 정한 외로운 성
귤유의 향기는 창 틈으로 스며들고
화류마 그림자는 뜰 앞에 다가와 있다
만리 밖 떠나온 나그네 나이는 늙어가고
삼청으로 떨어진 꿈을 꾸니 밤 빛이 허무하다
한결같은 고각 소리 아침 출발 재촉하니
오경의 지는 달 주렴에 걸려 있네

【글자풀이】 • 蓬壺 : 신선이 산다는 섬. 그 모양이 병과 같다고 함. • 衡 : 중국의 형산. • 廬 : 廬山(140쪽 김정시 정방폭포 참조). • 驊騮 : 대추 빛깔의 좋은 말. 주나라 목왕이 천하를 돌아다닐 때 탔던 여덟 필 좋은 말 중의 하나.

潤 經 堂

南壽賢

羈蹤天外遠　　愁髮鏡中明
瘴雨三時氣　　海濤十里聲
爲官要省事　　多病學長生
一嘯依南斗　　幽蘭歲暮情

윤경당

먼 하늘 가에 나그네 신세
거울 비친 머리털을 보면 시름 뿐
장기 어린 비는 언제나 번져오고
파도 소리는 십리 밖에서
관청 일 되도록 줄여
병이 많아 장생술을 배우려고
남극성 바라보며 휘파람 부니
섣달인데도 그윽한 난초의 정취

【글자풀이】 • 潤經堂 : 대정현의 정당. • 羈 : 羈, 나그네 기. • 蹤 : 자취 종. • 愁髮 : 근심 서린 머리털, 즉 늙음을 알리는 흰 머리털. • 瘴雨 : 바닷기운이 어린 비. • 三時 : 하루 세 끼 밥먹을 때, 즉 언제나 長生 : 長生術. 신선이 됨. • 南斗 : 南極星, 老人星. • 壽星 : 장수를 주는 별(27쪽 이원조시 참조).

次板上韻

李益泰

皮以爲衣茅以盧　　蕭條邑里少人居
屯牛場馬童看牧　　黍畝豆田草不除
俗尙巫風神鬼雜　　備踈陰雨鎭防虛
孤城落日思歸切　　雲海茫茫極目餘

판상시의 운을 빌어

가죽으로 옷을 짓고 띠로 집을 얽어
쓸쓸한 고을 성안 사는 사람이 적다
목장의 말과 소는 목동이 살피고
기장 밭 콩 밭은 김을 매지 못하였네
풍속은 무당을 숭상하여 귀신이 많고
대비가 소홀하여 진을 지키는 일 소홀하다
외로운 성 해질 무렵 돌아갈 생각 간절한데
아득한 구름 바다 끝은 보일 듯 말듯

題 壁 上

安 塾

明時無補已多羞　　尙許遙分百里憂
身病不妨爲吏隱　　官閑猶喜得仙遊
波連日域天邊遠　　雨送山光檻外浮
休說殊方鄕思苦　　也知隨處聖思優

벽에 씀

밝은 세상에 보탬이 없어 부끄러움이 많은데
오히려 먼 곳 백리의 땅을 맞기므로
몸은 병들었으나 꺼려하지 않고 왔더니
관청 일 한가한 때 즐거운 신선 놀이
파도는 아득한 하늘 끝 해뜨는 곳에 이어졌고
비가 내리면 산빛은 난간 밖에 떠 있네
객지에서 고향 생각 괴롭다 말하지 말게
또한 가는 곳마다 임금님 은혜 두터움을 알 뿐이니

【글자풀이】 • 百里憂 : 백리되는 지방관을 맡아 임금의 근심을 나누어 드린다는 뜻. 즉 지방관을 뜻함.

五

防 護 所

- 禾北鎭(화북진)
- 朝天關(조천관)
- 別房鎭(별방진)
- 水山鎭(수산진)
- 西歸鎭(서귀진)
- 遮歸鎭(차귀진)
- 涯月鎭(애월진)
- 明月鎭(명월진)

禾北鎭

朴成珩

吹送長風動去橈　　海程千里正迢迢
由來此地腸堪斷　　故使鎭名又別刀

화북진

느린 바람 불어오면 노저어 떠나는 배
천리 바닷길이 아득하기만
옛부터 이 곳은 애간장 끊는 곳
그래서 진(鎭) 이름이 이별시키는 칼이란다

【글자풀이】 • 禾北鎭 : 구화북초등학교가 화북진성이다. 관원의 영송이 모두 이 화북포에서 이루어졌다. 지금도 진에 따랐던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 橈 : 노 요, 흔들 요, 꺾을 요. • 海程 : 바닷길. 程은 리(里). • 堪 : 자못 감. 견딜 감. • 鎭 : 군사가 주둔하여 있는 곳. • 別刀 : 별도봉. 화북진의 별칭.

禾北鎭

金　俶

劃然長嘯立城頭　　萬里滄溟濶不流
北望長安何處是　　天涯從古逐臣愁

화북진

획연히 길게 숨을 쉬며 성 머리에 올라보니
만리의 푸른 바다 넓어서 흐르지 않고
북쪽으로 바라보면 서울은 어디쯤인지
옛부터 이 곳은 귀양온 이 시름짓던 곳

【글자풀이】 • 劃 : 그을 획. 새길 획. 계획할 획. 劃然은 명확하게 구별된 모양. • 嘯 : 세게 뿜을 소(荒息吐出). 휘파람 소. • 長安 : 서울. • 逐臣 : 쫓김을 당한 신하. 귀양 온 신하.

禾 北 鎭

宋載恒

巍然城閣壓波頭　　海水洶洶日夜流
遙望北雲歸意促　　戀親思國不勝愁

화북진

높직한 성각이 파도를 눌렀으나
날마다 바다 물결 세차고 어지럽네
멀리 북쪽을 바라보면 돌아갈 생각뿐
어버이와 나랏님 생각 못이기는 수심이여

【글자풀이】 • 巍 : 우뚝할 외. • 洶洶 : 파도가 어지럽게 일어 세찬 모양. 법석대고 떠들음.
• 國 : 나랏님 국.

朝　天

趙誠立

路入瀛洲兩腋輕　　冷然笙鶴引三淸
回首却灰飛已盡　　碧桃花下訪安生

조 천

영주의 길목 들어서니 양쪽 겨드랑이가 가볍구나
피리 부는 말끔한 학이 삼청으로 인도하다가
머리를 돌려보니 문득 사라져 버린 뒤
벽도화 꽃 밑의 안기생을 만났네

【글자풀이】 • 朝天 : 朝天鎭. 현재 조천읍 조천리이다. 진상하는 말은 모두 이곳 포구를 통하여 나갔다. • 생학(笙鶴)은 신선이 불며 타고 다니는 학. 403쪽 남구명 증보탐라가 참조. • 삼청(三淸)은 신선이 산다는 옥청(玉淸). 상청(上淸) · 태청(太淸). • 벽도화(碧桃花)는 신선들이 먹고 오래 산다는 복숭아. • 安生 : 安期生. 93쪽 김치시 백록담 참조.

朝天所

金尙憲

天涯無日不回頭　一日思鄕抵九秋
醉裡欲忘歸路濶　夢中猶覺此身浮
空今崔顥烟波句　難幻陳卿竹葉舟
漫說向來輕遠別　孤亭今夕自生愁

조천소

하늘 끝으로 머리를 돌리지 않는 날이 없으니
고향 그리는 하루가 구추에 맞먹는다
취하여 돌아갈 길 먼 것을 잊으려 하나
꿈속에서 오히려 이 몸이 유람하고 있음을 느껴본다
공연히 최이의 강 위에 열기 낀 싯구를 읊어보지만
진경의 죽엽주를 느껴 보기는 어렵네
지난날 이별을 가볍게 하였음을 말하지 말게
오늘날 외로운 정자에서 수심이 절로 이네

【글자풀이】 • 최이(崔顥)는 당나라 시인. 黃鶴樓(황학루) 시가 유명함. • 연파구(烟波句)는 烟波江上使人愁 陳卿(陳卿竹葉舟: 元나라 范子安이 지은 劇曲에 陳秀卿이 異人을 만나 竹葉舟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말이 있다.) • 九秋 : 九春秋의 준말. 9년.

朝　　天

李民宬

公館岩嶢城上頭　　登臨客意怳逢秋
地漂島嶼星辰轉　　天路滄溟日月浮
漢使定隨西極馬　　海風阻送鬱林舟
蠻村處處杵歌起　　獨倚闌干多少愁

조 천

공관이 높직이 성머리에 치솟아
올라가면 나그네는 가을을 맞이한 느낌
땅 끝의 섬들은 별들이 구르는 듯
하늘길의 물결에는 해와 달이 떠있는 듯
한나라 사신은 서쪽 지방의 말을 따랐고
바닷바람은 보내는 신선의 배를 막은 곳
남쪽 시골 곳곳에 방아 찧는 소리 일어나니
홀로 난간을 의지하니 수심이 조금

【글자풀이】 • 한사(漢使)는 한나라 사신. 한나라 효무제(孝武帝)가 불사약을 캐러 보냈다는 전설에 따라 많이 쓰여지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원나라에서 말을 길렀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 • 西極馬 : 서극은 먼 서쪽. 서쪽 지방에 있는 大宛國 말이 유명함으로 그 말을 뜻함이 아닌가 한다. 宛자는 나라이름일 때는 平聲으로 元자 운목(韻目)이 됨. • 울림주(鬱林舟)은 많은 신선이 타는 배. 울림은 빽빽히 무성한 숲이지만 宋玉의 高唐賦註에 신선이 많아 숲과 같다.(鬱然仙人盛如林木)라는 글귀가 있다.

朝　天

睦長欽

此日來尋南海頭　還如東海去年秋
誰憐宇宙身將老　自笑風塵跡更浮
萬里烟雲頻極目　孤城波浪獨維舟
憑軒却羨洲遨鳥　不管人間無限愁

조 천

오늘 남쪽 바닷머리를 찾아드니
오히려 지난해의 동해바다 가을 같구나
세상일에 늙어가는 몸 누가 애처로이 여기리
풍진 따라 돌아다닌 행적 스스로 웃음만
멀리 구름 쌓인 곳으로 눈을 돌리면
외로운 성 물결에 메어져 있는 배 한 척
난간에 의지하니 물가의 노니는 새 부럽기만
인간의 무한한 시름을 아는 채 않고 있으니

朝　天

李元鎭

回首蓬萊跡已陳　今來圓嶠又尋眞
玉人自解占南極　銕母誰知戀北辰
弩外潮聲回日城　槎邊星彩動天津
何當鳧舃霞飛去　九尺龍墀賀晩春

조 천

봉래산을 바라보니 자취는 이미 오래되었고
지금 원교에 와서 다시 신선을 찾는다
옥인은 스스로 남극성을 점칠 줄 알고
철모가 북극성을 연연함을 그 누가 알까
활 시위 밖 조수 소리는 날마다 성으로 돌아오고
노 곁의 별빛은 하늘 나루터에 움직인다
어떻게 항상 효사가 이슬비같이 날아가서
높은 임금님 뜰에 만수무강을 하례드릴고

【글자풀이】 • 玉人은 옥을 다듬는 사람이다. • 銕母 : 미상. • 鳧 : 물오리 부. • 舃 : 클 석, 아람찰 석. • 霞 : 짝 척, 소낙비 확.

朝　天

鄭　崑

戀北亭臨大海頭　　朝暉夕靄幾春秋
鵬搏萬里風斯下　　鰲戴三山地欲浮
平昔壯心看尺劒　　晩年行李寄孤舟
淹留忘却嚴程若　　日暮烟波莫浪愁

조 천

연북정이 넓은 바다 머리에 임하여
아침 구름 저녁 노을 몇 해를 겪었는지
붕새가 만리를 날다 바람 따라 내려온 듯
큰 자라가 삼신산을 이어 땅이 떠 있는 듯
지난날은 항상 장한 뜻 품고 짧은 칼을 보았고
늙어서는 나그네의 짐을 외로운 배에 부쳤네
막히어 나가지 못하여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괴로움 잊고
저무는 날 저녁 물결 한탄과 시름 거두어야지

【글자풀이】 • 연북정(戀北亭)은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바닷가에 있는 정자. • 붕단(鵬搏)은 붕새가 멀리 떨쳐 날아감(149쪽 이원진시 천지연의 大鵬 참조). • 오대(鰲戴)는 81쪽 김정시 한라산 참조. • 행리(行李)는 여행 짐 또는 여행 준비. 심부름꾼. • 엄류(淹留)는 막히어 나가지 못함. • 본문에는 淹留忘却嚴程若라고 되어 있으나, 끝자 若은 苦의 잘못으로 보인다.

戀北亭春帖子 二首

金尙憲

欲問春消息　　閑吟獨自來
東風還有意　　先放一枝梅

연북정에 춘첩하다

봄 소식을 묻고자 하여
한가로이 읊조리며 홀로 있었더니
봄바람도 뜻이 있어서
먼저 피게한 한가지 매화

【글자풀이】 • 春帖子 : 봄을 축하하여 기둥에 써 붙이는 시. • 靑帝 : 봄을 관장하는 신. • 繡衣 : 어사의 별칭. • 戀北亭 : 현재에도 조천리에 남아 있다. 창건연대 미상. 선조 23년(己亥 : 一五九九) 목사 이옥(李沃)이 쌍벽정(雙碧亭)이라 이름 붙인 것을 선조 32년 목사 성윤문(成允文)이 연북정이라 고쳤다. 여러 진신(縉紳)의 제영게판(題詠揭板)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없어졌다.

青帝初宣化　　東風盡日吹
經年繡衣客　　去鷁疾如飛

봄을 관장하는 신령이 덕화를 베풀어
따뜻한 바람이 종일 불어온다
어사는 한해를 이 곳에서 보냈는데
떠나가는 배는 빠르기가 새와 같다

【글자풀이】 • 去鷁 : 鷁은 빠르고 오래 나는 새인데 배의 안녕을 빌어 뱃머리에 이 새를 새기거나 돛대위에 형상을 만들어 세웠다. 그러므로 전의하여 배라는 뜻으로 쓰임. 여기서는 떠나가는 배.

戀北亭

趙誠立

路入瀛洲兩腋輕　　冷然笙鶴引三淸
回首劫灰飛已盡　　碧桃花下訪安生

연북정

영주로 들어오니 양쪽 겨드랑이가 가벼워
생학이 시원스럽게 삼청의 경지로 인도하는 듯
머리를 돌려 보니 겁회는 멀리 날아가 벼렸고
벽도화꽃 밑으로 안기생을 찾아가네

【글자풀이】 • 腋 : 겨드랑애 액. • 笙鶴 : 신선이 타고 피리를 불며 날아다니는 학. 427쪽 남구명시 증보탐라가 王喬 참조. • 三淸 : 도가에서 말하는 玉淸・上淸・太淸. 즉, 가장 높은 신선. 또는 그 신선이 사는 곳. • 劫灰 : 세계가 파멸될 때에 일어난다는 큰 불의 재. • 碧桃花 : 한 알을 먹으면 천년 산다는 신선계의 나무. • 安生 : 安期生. 진나라 때의 도사. 장수하였으므로 백세옹(百歲翁) 또는 천세옹이라고도 부름. 진시황이 동유하였을 때 만나 도가의 설을 이야기하였고 신선이 되어 봉래산으로 들어갔다고 전함. 109쪽 김치 백록담시 참조.
【참고】 심재집에는 본시 제목이 조천진으로 되었다.

戀北亭

李 選

飄然旌節片帆開　　萬里滄溟一瞬來
明月滿天波正濶　　北行知是訪蓬萊

연북정

정절을 나부끼며 조각배에 돛을 올려
만리의 푸른 바다를 순식간에 건너왔네
하늘에는 밝은 달 바다에는 넓은 물결
이번 오는 길은 신선을 찾아오는 듯

【글자풀이】 • 飄 : 회리바람 표. 飄然은 바람에 가볍게 나부끼는 모양. • 旌節 : 정기(관청을 표시하는 기)와, 부절기(符節旗 : 직위를 표시하는 기). • 瞬 : 눈깜짝할 순. • 蓬萊 :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의 하나.

別 防 鎭

金　倣

五馬魚遊東海隅　　慣看紅旭上雲衢
始知海與天同大　　南極來看也不殊

별방진

오마로 동해가를 돌아다니면서
습관처럼 아침해가 하늘로 떠오름을 보고
바다와 하늘이 모두 넓은 줄을 알았는데
남쪽 지방에 와서 보아도 다르지 않네

【글자풀이】 • 別方鎭 : 조천읍 하도리에 있다. 조천진에서 분리되어 간 진이다. 성곽 반이 무너졌던 근래에 완전 복원하였다. • 五馬 : 미상. • 魚遊 : 미상. • 隅 : 모퉁이 우. 기슭 우. • 衢 : 네거리 구. 雲衢는 天衢(천상(天上)의 통로.

別 防 所

沈 演

絶島三秋後　　孤城十月中
烟沈殘日暮　　霜重衆山空
行役身將老　　留連歲又窮
寒潮打荒堞　　窓外正天風

별방소

멀리 떨어진 섬에 세 가을 지난 뒤
외로운 성엔 시월달 접어드네
저무는 날 연기에 잠겼고
서리가 거듭 내려 여러 산이 공허하네
행역에 몸은 점점 늙어가고
떠나지 못해 하는데 또 흉년이
싸늘한 조수가 성머리를 치는데
창밖에는 북풍이 부네

【글자풀이】 • 행역(行役)은 징용 당하여 공사를 하거나 국경을 수비하는 부역. • 유련(留連)은 주저하여 떠나지 못하는 모양.

別 防 所

李元鎭

城壓鰲頭上　　樓浮蜃氣中
三山身已到　　四海眼仍空
碣石猶堪踣　　扶桑直欲窮
何時搏九萬　　正待負鵬風

별방소

성은 자라의 머리를 눌렀고
다락은 신기루에 떴다
삼신산에 이미 이르렀으니
동서남북 바다에 눈이 비인듯
갈석산은 오히려 누어 있는 듯
부상은 끝 없이 아득하기만
어느 때면 떨쳐 구만리를 날아올라
바로 붕새가 바람타기를 기다릴까

【글자풀이】 • 碣石 : 碣石山. 249쪽 이원진시 연희각 참조. • 부상(扶桑)은 해가 뜨는 곳. • 단구만붕풍(摶九萬鵬風)은 『장자(壯子)』「소요유(逍遙遊)」에 나오는 말. 붕새가 바람을 타면 하루에 구만리를 날은다.

首 山 城

李元鎭

古城城上駐征騑　　客裡光陰換授衣
渡海已傷迷北望　　隔山那忍向西歸
霞開日道扶桑近　　霜滿天津析木稀
却憶塔羅初放牧　　獨摩龍釰一長唏

수산성

고성의 성 윗쪽에 달리는 말을 멈추니
나그네 살이에 세월이 흘러 어느덧 구월 달
바다를 건너온 뒤 북쪽길 잃을까 근심되지만
산이 막혔으니 서귀포는 어떻게 갈까
일도에 안개 걷혀 부상이 가깝고
시절은 서리 내릴 때가 되어 장작 패는 일 드물어졌다
문득 타라치가 방목한 일 생각하면
슬며시 용검을 만지며 한숨이 절로 난다

【글자풀이】 • 首山城 : 水山城. 지금의 수산초등학교가 수산진 옛터이다. 선조 30년(1597)에 목사 李慶祿이 성산으로 옮겼다가 동왕 32년 환진하였다. 수군만호(수군만호)를 둔 때도 있었다. • 授衣는 음력 9월의 이칭. • 扶桑은 동해 가운데 있는 큰 신목. 여기에서 해가 뜬다고 함. • 天律은 천시. 계절이 바뀜. • 塔羅는 塔羅赤를 줄인 말. 고려 충렬왕 3년에 원나라에서 제주 동서 아막(阿幕)을 두어 다로가치[達魯花赤]로 하여금 목축을 감독하게 했는데, 이 때에 수산평(首山坪 : 현 고성)에 우마를 방목하는 관리. 塔羅赤은 '타라치'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水山廢城

金尙憲

寒雲衰艸掩荒城　　云是胡元放馬坰
舊致牧奴多跋扈　　屢勸都統遠興兵
通精驚血秋螢碧　　肖古妖魂鬼火靑
聖化只今覃內外　　海邦耕鑿樂遺氓

수산의 무너진 성

싸늘한 구름 시든 풀이 덮인 거친 성을
원나라 오랑캐들이 말을 기르던 곳이라네
옛날 목호들이 많이 발호하였을 때
도통사가 멀리서 여러 번 군대를 일으켰네
가을날 반딧불은 김통정의 놀란 핏빛 같고
파란 도깨비불은 필사초고의 요사한 넋이네
나라 안과 밖이 임금님 교화를 입은 지금
바닷나라 백성들은 밭을 갈고 샘을 파고

【글자풀이】 • 水山廢城 : 현재 성산읍 수산리에 남아 있는 옛 성. 당시에는 수산진이 성산(지금의 일출봉)에 옮겨져 있었다. • 牧馬坰 : 충렬왕 26년에 원나라 기황후(奇皇后)가 탐라적(塔羅赤)을 시켜 이 곳에 말·소·낙타·양을 방목하게 하였음. • 牧胡跋扈 : 고려 공민왕 二三년에 원나라 목자인 필사초고(必思肖古)·합적석질리(哈赤石迭里) 등이 명나라에 말을 바치라는 명령을 어겨 난리를 일으켰을 때 문하찬성사 최영(崔瑩)을 양광(楊廣)·전라·경상 삼도 도통사(都統使)로 삼아 평정하였음. • 通精 : 金通精. 고려 원종 一二년 김통정이 삼별초의 여당을 끌고 들어와 내외 토성을 쌓았음.

西歸所次壁上韻

金聲久

萬里南溟捲晩霞　　此身重覺在天涯
夜來穩做還家夢　　正値秋風理釣絲

서귀방호소에 걸려 있는 시의 운을 따서

머나먼 남쪽 바다에 안개가 걷히니
이 몸이 하늘 끝에 있음을 다시 깨닫네
밤 들면 안온한 고향 돌아간 꿈은
바로 가을 바람이 부러 낚시 줄 손질할 때

【글자풀이】 • 西歸所 : 西歸防護所를 줄인 말. 지금의 서귀포시 서귀동(속칭 솔동산)에 있었다. 처음에는 홍로천 위에 있었는데 선조 22년(1589) 목사 이옥(李沃)이 이곳으로 옮겼다. • 穩 : 편안할 온. • 做 : 지을 주(造). • 正値秋風 : 李白詩. 張翰江東去　正値秋風時에서 뜻을 따온 말.

西歸所次壁上韻

金聲久

南北兼山海　東西挾兩淵
城荒餘古堞　溝隱引長川
世事愁眉外　羈懷醉眼邊
悠悠日將夕　烟戶起炊煙

서귀방호소에 걸려 있는 시의 운을 빌어

남쪽에는 바다 북쪽에는 산
동쪽과 서쪽에는 두 곳에 폭포
거친 성 위엔 옛 여장(女牆)이 남아 있고
구지(溝池)엔 길게 냇물을 끌어 들였네
세상 일은 눈썹을 찌푸리게 하고
나그네 회포는 눈가를 붉게 하네
유유히 저녁 해 저무는데
연호에 저녁 연기 인다

【글자풀이】 • 西歸所 : 西歸鎭 防護所의 준말. • 壁上韻 : 벽위에 걸려 있는 시(題詠). • 羈 : 나그네 기. 말굴레 기. • 堞 : 성위담 첩(城上女牆). 첩구(堞口 : 담안에 들어가는 입구)로 풀이할 수 있다. • 溝隱 : 溝池인듯하나 미상. • 烟 : 원문에는 蜒자로 되어있다. 烟戶는 세금을 내는 백성들의 집.

遮歸鎭

金尙憲

西溟無極接昆邱　萬里紅波落日收
靑雀未傳王母語　白雲空憶故園秋
遠游孤幘頻看劒　多事新毛易換頭
不用詩篇富如許　由來苦調唱難酬

차귀진

끝없는 서쪽 바다 곤구에 닿았는데
저녁 해 거두어 가매 드넓은 빨간 물결
푸른 새는 서왕모의 말을 전해오지 않고
공연히 고향 생각만 더해 주는 흰 구름
칼만 자주 살피는 멀리 온 외로운 사람
일거리가 많아서인지 흰 머리 더해지는데
시편 많이 짓는게 능사가 아니라
옛부터 괴롭게 지은 글 화답할 이 없었으니

【글자풀이】 • 遮歸鎭防護所 : 지금의 고산리에 있던 방호소. 제주 구진(九鎭)의 하나. 228쪽 참조. 대정현에 속해 있었다. • 昆邱 : 한무제가 곤명지(昆明池 : 섬서성)를 파 수전을 익히게 하던 언덕인 듯하다. 지금도 논이 많음. • 西王母 : 주나라 목왕(穆王)이 요대에서 만났다는 신선. • 幘 : 머리수건 책. 투구 속에 쓰던 수건을 뜻하여 孤幘은 장군이 전복을 벗고 있음을 뜻함. • 苦調 : 괴롭게 부르는 노래. 춘추시대 晋나라 사광(師廣)의 백설가(白雪歌)를 뜻함.

遮歸城

李元鎭

雨後瀛洲氣象新　　獨登城上岸綸巾
北望大陸三分水　　西隔中原一點塵
田夫築垣防馬吃　　野翁持酒酹蛇神
卽今竹島風波少　　無事將軍醉綿茵

차귀성

비 온 뒤 영주의 천기가 말끔하여
홀로 윤건을 벗고 성 위에 올랐네
북쪽으로 대륙을 바라보니 삼분은 물에 잠긴 듯
서쪽으로 가리워진 중원의 한 가닥 티끌
농부는 담을 쌓아 말이 뛰어 들불 막고
시골 늙은이는 술을 따라 뱀 귀신에 제사하네
지금은 죽도에 풍파가 적어
일거리 없는 장군은 비단 같은 잔디밭에 취하였네

【글자풀이】 • 遮歸城 : "石城 周一千一百九十尺 高十尺 有二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石城 周五百尺 高八尺", 『제주읍지』에는 "石城 周三百十五尺 高十二尺", 『제주대정정의읍지』에는 "石城 周一千六百四十四步"로 기록되어 있다(남사록). • 윤건(綸巾)은 비단으로 만들어 투구에 바쳐 쓰는 수건. 岸綸巾(안윤건)은 '윤건을 벗고 머리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 三分水는 3/10이 물에 잠겼다는 말. • 뢰(酹)는 술을 땅에 붓고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다. • 죽도(竹島)는 지금의 비양도(飛揚島)를 이른다. 이곳을 근거하여 왜구가 많았다.

次板上韻(遮歸鎭)

李益泰

秋月揚明明月樓　　故鄕歸思正悠悠
戍臺縹緲剡山角　　石堞崢嶸枕海頭
九所設防斯重鎭　　一旬探勝最淸遊
琴瑟彈處仙娥唱　　把酒都忘遠客愁

판상의 운을 빌어

가을 달 환히 밝은 명월성 다락
고향 돌아갈 생각 유유하기만
산 모퉁이 깎은 곶에 아득한 수자리
바다 머리 베개한 아득한 성첩
아홉 곳 방호소 중진 중에서
일 순에 절승 찾아 가장 맑게 놀았네
거문고 비파 튕기며 선녀가 노래하니
잔 들고 나그네 시름 모두 다 잊어지네

【글자풀이】 • 戍臺 : 수루. • 剡 : 깍을 산. • 崢嶸 : 높고 험한 모양. • 九所設防 : 제주에는 방호소(防護所)가 아홉 곳임. 명월은 아홉 곳 방호소중 가장 중진인 만호진(萬戶鎭)임. • 仙娥 : 신선. 娥는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의 뜻으로 순임금의 비를 뜻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달나라에 사는 미인인 항아(姮娥)를 뜻함. 항아는 원래 예(羿)의 아내였는데 예가 서왕모에게 청하여 얻은 불사약을 훔쳐 마시고 선인이 되어 달나라로 올라가 달의 요정이 되었다고 함. 한나라 문제의 이름이 항(恒)이었기 때문에 姮을 嫦으로 고침.

遮歸防護所

林亨秀

殘樓崩堞介荒丘　　瘴雨蠻烟未肯收
客子光陰槐已夏　　田家契濶麥遲秋
殊方骨肉誰青眼　　未路勳名自白頭
多病漸嗟筋力減　　此生那復聖恩酬

차귀진 방호소

쇠잔한 다락 무너지는 성첩 아주 거친 언덕
장기어린 비 남쪽 지방 연기 쉬이 걷히지 않네
나그넷길 세월 흘러 이미 여름이 되었는데
부지런한 농가에는 늦어지는 보리 추수
먼 지방에 있지만 가족들 누가 청안으로 보며
공명 찾아 다니다 보니 머리는 저절로 희어져
병든 몸 근력이 점점 덜해짐을 한탄하노니
이 세상에서 어찌 다시 성은에 보답할꼬

【글자풀이】 • 契濶 : 부지런히 노력함. 오래 만나지 않음. • 青眼 : 친한 사람을 대할 때의 눈빛. 晉나라 완적(阮籍)의 고사에서 유래된 말.

遮歸鎭次林節制韻

柳思瑗

愛山耽月宿高丘　　細雨濃烟一樣收
銀漢昭回光拂袖　　楓巒爛熳壁藏秋
烏翻免躍前溟裡　　鯤化鵬騫傍岸頭
雲外飄然何處篴　　倘逢王母酒相酬

차귀진에서 임절제사의 운을 빌어

산을 아끼고 달을 탐내어 높은 언덕에 누웠더니
가는 비 짙은 연기 한결같이 걷히네
은하수 빛 돌아와 옷 소매 나부끼고
난만한 단풍 봉우리 벽에 감춘 가을 빛
앞 바다에는 뛰기를 벗어난 까마귀 날고
언덕 머리에는 곤어가 변한 붕새 다리를 절었네
구름 밖 어느 곳에서 아득히 들려오는 피리소리는
아마도 서왕모가 술잔을 서로 주고 받나보다

【글자풀이】 • 林節制 : 林亨秀　목사.　• 鯤化鵬 : 北冥有魚其名爲鯤…… 化而爲鳥其名曰鵬(莊子 逍遙遊). 여기서는 힘이 센 새라는 뜻. • 篴 : 피리 적. 날라리 적. • 王母 : 주나라 목왕이 요대에서 만나 놀았다는 西王母. • 倘 : 아마도 당. 문득 당. 갑자기 당.

【참고】 차귀진은 지금의 고산리 자구내인데 그 옆 마을 용수리에는 매주제기라는 돌탑이 있고 그 위에 새의 형상을 한 돌이 세워져 있다. 옛날 호종단(胡宗旦)이 제주의 수맥을 끊고 돌아가는 것을 한라산 산신이 매로 변하여 쫓아가 쪼아 죽였으므로 그를 기념하여 이 탑을 세웠다고 전한다.

遮歸鎭次林節制韻

金忠烈

鰲頭圓嶠是丹丘　　半腹雲開雨乍收
客子浮游驚萬里　　風光蕭瑟屬三秋
殊音異服難靑眼　　疊浪洪波易白頭
瀟洒一亭幽興足　　此中詩酒共誰酬

차귀진에서 임절제의 운을 빌어

큰 자라의 머리에 있는 한라산은 신선이 사는 곳
산허리에 구름이 열리고 비가 잠깐 개었다
나그네는 놀랍게도 만 리를 떠돌아 다녔고
풍랑은 가을이 깊어 쓸쓸하기만
유다른 말씨 특이한 복장 청안으로 보기 어렵고
겹친 물결 넓은 파도에 머리가 쉬이 희네
시원한 정자에 조용한 흥취 충분하니
이 곳에서 누구와 더불어 시와 술을 주고 받을꼬

【글자풀이】 • 鰲頭 : 81쪽 김정 한라산시 참조. • 圓嶠 : 한라산의 별칭. • 丹邱 : 신선이 산다는 가상적인 곳. • 殊音 : 제주도의 방언을 가리킨 말. • 異服 : 제주도의 특이한 복장. 즉, 갈옷 · 가죽두루마기 · 가죽모자 등.

涯 月 鎭

李翊漢

孤島環首北　　海關鎭勢雄
天連平楚濶　　地接浙江通
山影驊騮外　　城陰橘柚中
馬前吹鐵笛　　月落戍樓空

애월진

외로운 섬의 북쪽 머리에
바다를 지키는 웅장한 진관
하늘은 넓은 초나라에 이어졌고
지세는 절강성과 통할 수 있네
산과 들엔 화류마가 보이고
성 안엔 귤나무 그늘져
날라리가 인도하여 들어가니
달 지는 밤 빈 수자리

【글자풀이】 • 涯月鎭 : 현재 애월읍에 있던 방호소 제주 9진의 하나이었다. • 關鎭 : 방호소(防護所)를 뜻함. • 驊 : 절따말 화. • 騮 : 월따말 류. 驊騮는 대추빛 같이 붉은 말. 주나라 목왕이 타고 천하를 돌아다녔던 팔준마 중의 하나. • 戍 : 수자리 수.

涯月所

李元鎭

毛羅開別城　　環海鏡澄淸
日氣分桑島　　秋陰隱水城
攻駒仍舊事　　包橘卽今情
大陸雲山遠　　迢迢望玉京

애월소

탁라를 개국한 별천지
둘러 있는 바다는 거울같이 맑기만
해의 기운이 부상과 나누이면
가을 그늘은 물의 성에 안온하다
망아지 기르던 옛 일
귤 진상은 지금도 이어지고
대륙의 구름산 멀기만 한데
아득히 옥경을 바라보니

明 月 鎭

沈 演

海上孤城城上樓　　登臨此日意悠悠
眼穿溟渤天窮處　　脚踏蓬壺地盡頭
浮世百年同夢幻　　男兒幾箇辨仙遭
樽前不覺寒宵永　　一醉都忘萬古愁

명월진

바닷가 외로운 성 성 위에 있는 다락에
오늘 올라와 보니 마음은 유유하기만
눈으로는 넓은 바다 하늘 끝 뚫어보고
다리로는 땅 끝의 신선산을 밟았으니
오랜 세월 꿈속 환상에 살던 세속사람이
대장부 몇 번이나 신선 놀이를 계획했던가
술상 앞에 앉아 추운 밤 긴 줄 모르고
한껏 취하여 온갖 근심 잊어 보네

【글자풀이】 • 명월진 : 제주9진에서 가장 큰 진이다. 다른 진에는 助防將을 두었는데 이곳에는 水軍萬戶를 두었다. 현재에도 성지가 남아있다. • 蓬 : 쑥 봉. 엉킬 봉. 蓬壺는 蓬丘와 같이 蓬萊山의 별칭. 93쪽 김정시 한라산의 열자탕문편 참조. • 夢幻 : 꿈 속의 환상. • 宵 : 밤 소.

【참 고】 본 시는 심재탐라지에는 조천조에, 응와 탐라지에는 명월조에 있다.

明 月 所

李元鎭

暮投孤舘駐行旌　古戍蒼茫枳棘平
都統餘威風捲海　侍郎遺迹月臨城
天低碣石陰霏合　地壓扶桑霽旭生
八詠隱侯今不見　碧紗籠下淚沾纓

명월소

저물녘 정기를 멈추고 관에 머무니
아득한 수자리에 탱자성 평온하다
도통사의 남은 위엄은 바닷바람을 걷게하고
고시랑의 유적의 성엔 달빛이 환하다
하늘밑 갈석산엔 어두운 안개
성을 누른 부상에서 아침 햇빛이
팔영은후를 지금 만날 수 없으니
비단초롱 밑에서 눈물을 흘린다

【글자풀이】 • 枳棘平 : 최영장군이 목호를 토벌할 때 성을 쌓을 겨를이 없어 탱자나무 가시로 성을 두른 고사에 따라 제주성을 枳棘城, 枳城이라 부른다. • 侍郎 : 高兆基의 직함. 탐라의 성주로 고려에 벼슬하여 侍郎平章事가 되었다. • 碣石 : 249쪽 이원진시 연희각 참조. • 八詠隱候 : 미상.

明 月 鎭

李翊漢

旗鼓登臨海上樓　　水光山色摠悠悠
孤城十月香生橘　　絶域三秋雪滿頭
浮世百年誰壯觀　　此生今日最奇遊
樽前琴瑟多新調　　若解將軍去國愁

명월진

깃발 들고 북치고 바다 다락에 높이 오르니
물 경치 산 경치 모두다 유유하다
시월 외로운 섬엔 풍기는 귤 향기
떨어진 곳이라 가을에도 머리에 눈이 가득
백년 사는 뜬 인생 누가 장대한 경치를 볼까
이 세상에서 오늘은 가장 기이한 구경하네
술동이 앞 금슬에 올려진 새 곡조는
장군이 임금 떠난 시름 알아주는 듯

六

長 篇 詩

- 耽羅歌
- 毛羅歌
- 金尙憲補毛羅歌
- 壯觀篇
- 南九明補毛羅歌
- 南九明補毛羅歌
- 南九明補毛羅歌
- 漢拏山歌(申光洙)
- 潛女歌(申光洙)
- 潛女歌(미상)

耽 羅 詞

崔　溥

一

渤海之南天接水　　鰌潮鼉浪無涯涘
耽羅國在渺茫中　　一點彈丸六百里

탐라사

첫째 수

발해의 남쪽 물과 하늘이 맞닿은 곳
조수에 밀린 큰 물결 끝없이 구비치는데
그 가운데 아득히 탐라국이 있으니
한점의 탄환 같지만 주위가 사백리

【글자풀이】 • 渤 : 바다 발. 안개자욱할 발. 渤海는 山東半島와 遼東半島에 둘러싸인 黃海의 한 灣. 大祚榮이 세운 나라이름. • 鰌 : 해추 추. 길이가 수천리나 되는 바다 밑의 굴 속에 사는데 굴 밖에 나오면 썰물이 되고 들어가면 밀물이 된다고 함(海鰌 : 長數千里穴居海底入穴則海水爲潮出穴則潮退). 미꾸라지 추. • 鼉 : 악어 타. • 涘 : 물가 사(凝窩耽羅誌에는 埃로 되어있음).

【참고】 一點彈丸六百里는 탐라의 주위가 四百里인 것을 잘못 알고 하였거나 당시 리수가 지금과 달라서 당시의 리수로 육백리였는지 알 수 없음.

二

中有靑螺駕六鰲　　巨靈劈破勢周遭
撑天圓嶠無頭處　　翠壁一重千尺高

둘째 수

섬 가운데 자라를 탄 듯 소라꼬리 같은 파란 봉우리
위대한 신령이 뻐갠 듯 주위가 둥그렇다
하늘을 바친 높은 산은 머리가 없고
겹쳐진 푸른 절벽 아주 높다네

【글자풀이】 • 螺 : 소라 라 . 靑螺는 한라산을 가리킴. • 鰲 : 자라 오. • 劈 : 뻐갤 벽(凝窩 玧羅誌에는 擘). • 遭 : 빙둘릴 조. 만날 조. • 圓嶠 : 한라산의 별칭인 圓山을 바꾸어 쓴 말. • 無頭 : 한라산 정상에 백록담이 있으므로 한라산을 無頭岳이라 부름.

【참고】 翠壁一重은 심재집의 기록을 따른 것이고 凝窩玧羅誌에는 一里로 기록되어 있다. 이 구절은 無頭處(백록담 주위)를 읊은 구절이므로 백록담 주위가 一里가 될 수 없다. 만약 一里를 취한다면 一里는 方巖을 읊은 것으로 보아 끝구절은 '일리의 푸른 벽은 아주 높다네'로 풀이하면 좋을 것이다.

三

誰從壁頂鑿靈沼　　含蛤幾回貢貢鳥
折峙山房果若然　　奇觀問却知多少

셋째 수

누가 정상 절벽에 신령스런 못을 파서
조개가 입벌린 듯한 곳을 새들만 날아드네
우뚝한 봉우리가 잘려 산방산이 되었단 말 과연 그럴싸한데
기이한 경관을 물어 찾는 이 많지 않으니

【글자풀이】 • 鑿 : 뚫을 착. 깎을 착. • 靈沼 : 신령스러운 못. 백록담을 뜻함. • 貢貢 : 새 우는 소리. • 峙 : 산우뚝할 치. • 山房 : 산방산을 가리킴(안덕면 사계리).
【참고】 含자는 응와탐라지에 啣자로 되어 있고 山房은 동서(同書)에 山旁으로 되었으나 심재집을 따랐다. 啣자는 銜자와 같은자로 뜻과 음은 머금을 함. 재갈 함. 직함 함임. 한라산 봉우리가 뽑혀나가 떨어져 산방산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으므로 전구(轉句)에 언급된 것임.

四

蒼松綠竹紫檀香　　赤栗乳柑橘柚黃
白雪丈餘紅錦樣　　四時留得靑春光

넷째 수

푸른 솔 푸른 대 자단향나무
빨간 밤 단 밀감 귤과 유자 함께 익고
흰 눈이 한 길이나 쌓여도 빨간 꽃 피어
사시절 언제나 봄 경치라네

【참고】 • 자단향 : 한라산의 구향목(枸香木). • 赤栗 : 구실잣밤나무. 속칭 저밤나무, 열매는 도토리와 비슷하나 떫지 않다. 저의 음에서 赤. 밤의 뜻에서 栗을 빌어다 적율이라 기록했다. • 柚柑 : 시지않은 밀감이며 귤은 꼭지가 뾰족하고 유는 꼭지가 둥그런 유자이다. 빨간 꽃(紅綿)은 동백꽃을 가리킴. 모두다 제주의 특산이다.

五

世傳東角東巫峽　　絃管遙聞菀幾疊
百里香雲繚繞中　　仙曹此處應登躡

다섯째 수

동쪽 모퉁이 동무협 골짜기에 전해져 오는 전설
겹겹한 골짜기에 악기 소리 들리고
향기로운 구름이 아득히 가려 있을 땐
신선의 무리가 올라온 때라고

【글자풀이】 • 東巫峽 : 한라산 상봉 동남쪽 진손천(辰巽川 : 介路川)이 발원하는 골짜기. • 遙 : 멀 요, 노닐 요. • 疊 : 거듭 첩, 쌓을 첩. • 繚 : 둘릴 료, 동일 료, 얽을 료. • 繞 : 둘릴 요, 동일 요, 얽을 요. • 躡 : 오를 섭, 밟을 섭.

【참고】 심재집에 絃管이 管絃으로 遙자는 遼자로 되어 있으나 응와탐라지의 기록을 따랐다. 동무협 골짜기에는 구름이 끼어 있을 때가 많은데 이 때는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 있을 때라는 전설이 있다.

六

俯瞰人間隔世蹤　　海中別有瀛洲峰
秦童漢使枉費力　　遺與三韓作附庸

여섯째 수

내려다 보면 인간과는 자취가 끊긴 곳
바다 가운데 별천지인 영주봉이 있으니
진동과 한나라 사자는 헛된 곳에 힘을 써서
버려두어 삼한의 부용국이 되게 했네

【글자풀이】 • 俯 : 구부릴 부. • 瞰 : 굽어볼 감. 내려다볼 감. • 蹤 : 자취 종. • 秦童 : 진시황이 서불(徐市)에게 동남동녀를 주어 영주에 가서 불사약을 캐어오게 한 진나라의 동자. • 漢使 : 한나라 효무제(孝武帝)가 선약을 구하려고 방사를 바다로 보낸 일. 이 때에 영주에도 방사를 보냈다 함. • 遺 : 남을 유. 遺與는 남겨 줌. • 枉 : 굽을 왕. • 附庸 :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부속됨.

【참고】 진나라와 한나라에서 영주(제주)를 다녀 갔지만 불사약을 캐는 헛된 일에만 힘을 써서 자기네 영토로 만들지 못하고 삼한의 땅이 되게 했다는 말.

七

南畔是山北畔海　　毛興古穴中間在
雲烟埋沒世茫然　　欲問遺風今幾載

일곱째 수

남쪽은 산을 마주하고 북쪽엔 바다를 등져
그 사이에 옛날의 모흥혈이 남아 있으니
세월 따라 옛적 일 까마득히 잊혀져서
그 풍속이 몇 해나 전해 왔는지 모르겠네

【글자풀이】 • 毛興古穴 : 제주의 개벽시조로 전해지는 삼을나가 용출했다는 곳. 지금의 삼성혈. • 載 : 해(年) 재. 실을 재.

八

憶昔神人開國初　　山從遊獵水從漁
身如野鶴無歸着　　地闊天高未有廬

여덟째 수

옛날 신인들이 나라를 세울 때엔
산에서 수렵하고 물에서 고기 잡아
몸은 학과 같아 여기 저기 돌아다녀
넓으나 넓은 천지에 집없이 지냈다네

【글자풀이】 • 開國 : 삼을나(三乙那)가 탐라국을 세움. • 獵 : 짐승잡을 렵. • 廬 : 초가집 려.

九

石函當日來何處　　知向郊原播稷黍
歲久朱陳成一村　　子孫乃爾多如許

아홉째 수

돌함은 그시절에 어느 곳에서 떠왔던고
이 때부터 들로 나가 피 기장 씨를 뿌려
해가 거듭됨에 주진촌을 이루어서
저와 같이 자손들이 많아졌으니

【글자풀이】 • 函 : 함 함. • 黍 : 기장 서. • 爾 : 저 이. 뿐 이. 너 이. • 朱陳 : 중국 서주(徐州) 고풍현(古豊縣)에 주진촌(朱陳村)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주씨와 진씨가 세거하는 집성촌이다. 다른 성씨가 없기 때문에 두 성씨만이 혼인을 한다. 오래된 집성촌를 지칭하는 말로 쓰임.

【참고】 삼을나가 성산읍 온평리 속칭 황루알에서 석함에 떠밀려 온 벽랑국(碧浪國)의 세 왕녀를 맞아 혼인하였다는 전설을 읊었다.

十

星芒初動鷄林天　　已艤耽津一葉船
恰似老人朝北斗　　從今始與通人烟

열째 수

계림에 이상한 별이 처음으로 나타난 뒤에
탐진에 일엽편주 들이댔으니
노인성이 북두성에 조공하는 뜻과 같아
이 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왕래했네

【글자풀이】 • 星芒 : 성운(星雲). 성무(星霧). • 鷄林 : 신라의 서울 경주. • 艤 : 배닿을 의. • 老人 : 노인성(老人星;南極星)의 준말. • 北斗 :북극성을 뜻함. • 耽津 : 지금의 강진이라 전함.

【참고】 탐라의 고후(高厚)·고청(高淸)·고계(高季)·삼형제가 지금의 강진에 상륙하여 신라에 조공하였는데 이에 앞서 신라의 서울에는 객성(客星)이 나타났다는 전설이 있다.

十一

好爵旋封兄及弟　　榮還故國傳來裔
梯航疑叩不辭頻　　朝事新羅暮百濟

열한 번째 수

좋은 벼슬을 주선하여 형제에게 봉해주니
영화롭게 고국에 돌아와 자손에게 전해졌네
산 넘고 물을 건너 잦은 조공 사양치 않아
신라와 백제를 때따라 섬기었네

【글자풀이】 • 爵 : 벼슬 작. • 旋 : 주선할 선. 돌이킬 선. • 裔 : 자손 예. • 梯航 : 사다리(梯)를 타고 산을 넘고 배를 저어 바다를 건넘을 뜻함. 먼길을 간다는 뜻. • 疑 : 정할 응. 의심할 의. 머뭇거릴 의. 혐의 의. • 叩 : 꾸벅거릴(굽신거릴) 고. 두드릴 고. 군왕을 알현하는 예법에 머리를 세번 조아림(三叩頭)가 있다. • 疑叩는 문을 두드림, 굽신거림(朝貢을 뜻함)을 일정하게 정함. • 辭 : 사양할 사. 말씀 사. • 頻 : 자주 빈.

【참고】 고씨 삼형제가 신라에 조경하고 (앞시 참고) 성주(星主)· 왕자(王子)· 도내(都內)의 작위를 받고 돌아와 후손에 세습되었고, 훗날 백제에도 조공한 일이 있음을 읊은 시이다.

十二

松岳龍興歸黑金　　預先歸去獻其琛
奈何變作逋逃**수**　　流入胡元染惡深

열두 번째 수
송악에 왕이 일어나 북쪽으로 마음이 돌아가므로
미리 돌아갈 마음있어 보배를 바쳤는데
무슨 일로 난을 일으켜 숲속으로 도망가서
오랑캐인 원나라가 들어와서 못된 습속 물들여지게 했나

【글자풀이】 • 松岳 : 개성. • 龍興 : 용은 왕을 뜻하므로 용흥은 개국한다는 뜻. • 黑金 : 黑은 북쪽을 뜻하므로 북쪽의 金나라를 뜻함이 아닌가함. • 琛 : 보배 침. • 逋 : 도망갈 포, 포흠할 포. • 逃 : 달아날 도, 피할 도. • 藪 : 숲 수. 제주 방언으로 곶이라 하며 아주 넓은 빽빽한 숲을 뜻함.

【참고】 고려 원종(元宗) 12년(1271)에 김통정(金通精)이 이끄는 삼별초(三別抄)가 제주에 들어왔다가 원종 14년(1273)에 패배함에 따라 원나라가 제주를 강점하였다. 그 후 공민왕(恭愍王) 23년(1374)에 도통사(都統使) 최영(崔瑩)이 목호(牧胡)를 소탕하였다. 삼별초의 난으로 말미암아 오랑캐인 원의 세력이 유입되었음을 읊었다.

十三

候風島口金方慶　　明月浦頭都統瑩
前後旌旗盖海來　　渠心厭亂知相應

열세 번째 수
추자도에서 바람을 기다리던 김방경 장군
명월포로 상륙했던 도통사 최영
앞과 뒤의 많은 군사 바다를 건너올 때
저들도 어지러움을 싫어하여 서로가 내응(內應)했네

【글자풀이】 • 候風島 : 고려 도통사 최영장군이 목호를 토벌하러 오다 추자도에서 바람을 기다렸으므로 추자도를 후풍도라고도 부름. • 明月 : 지금의 한림읍 명월리. 최영장군이 목호를 치러 올 때 이 곳으로 상륙하였음. • 渠心 : 저들의 마음. 김방경이 삼별초를 칠 때 투항한 이순공(李順恭)·조시적(曹時適) 등을 가리킴.

十四

通精暴血濺池潢　　哈赤頑魂飛釰錔
網盡鱣鯨付鼎鑊　　年來無復海波揚

열네 번째 수

김통정의 포악한 피가 쏟아져 웅덩이를 이루고
합적의 완악한 영혼은 둔한 칼날에 날아갔네
큰 고기를 모두 잡아 정확에 삶아 버린 뒤엔
다시는 거친 파도 일지 않았으니

【글자풀이】 • 濺 : 쏟아져흐를 천. • 潢 : 웅덩이 황. 지황은 물이 괴어 있는 못. • 哈赤 : 목호(牧胡)의 우두머리. • 頑 : 완악할 완. • 釰 : 둔할 일. • 錔 : 칼날 망. 서슬 망. • 網盡 : 일망타진 (一網打盡)의 준말. • 鱣 : 전어 전(鯉類黃魚). • 鯨 : 고래 경. • 鼎 : 솥 정. 새로울 정. 마땅할 정. • 鑊 : 가마 확(발이 없는 솥. 고기를 삶는데 썼음). 鼎鑊은 죄인을 처형하는 기구.

【참고】 승구의 錔자는 심재집에 芒자로 되어있다. 두 글자가 뜻이 같고 양운목(陽韻目)운이므로 어느 글자를 써도 무방할 듯하다.

十五

到頭安堵復蘇息　　弋獵謀生任所得
解棹扁舟向北風　　却將土物供臣職

열다섯 번째 수

편안히 살게되니 (충후한 마음) 다시 되살아나
직분따라 일을 하고 수렵으로 삶을 꾸려
북쪽의 풍물을 사모하여 작은 배에 닻을 풀어
나아가 토산품을 바쳐 신하된 직분 닦았나니

【글자풀이】 • 到頭 : 도저(到底)와 같은 말. • 堵 : 편안히살 도. 담 도. 저것 도. • 蘇 : 되살아날 소. • 弋 : 주살 익. 취할 익.

十六

邇來一百十餘年　　嬴得王家德化宣
文物盡從周禮樂　　版圖編入禹山川

열여섯 번째 수

서로 왕래하여 백여 년이 지나는 동안
왕가에서 펴는 덕치(德治)와 교화를 터득하여
문물은 모두다 조선의 제정함을 따랐고
다스리던 나랏땅은 모두 조선의 영토에 편입되었더니

【글자풀이】 • 嬴 : 풀 영(解). 아름다울 영. 찰 영. • 周禮樂 : 주나라 천자의 예악. 조선의 예악을 뜻함. • 版圖 : 한 국가에서 통치하는 국토. 조선을 뜻함. • 禹山川 : 우공편(禹貢編)에 들어 있는 산천. 즉 중국 구주에 편입된 산천. 여기서는 조선의 판도에 편입된 산천을 뜻함.

【참고】 태종 2년에 성주(星主)를 좌도지관(左都知管), 왕자를 우도지관으로 삼아 국호를 삭제하였다. 첫 글자는 응와탐라지를 따른 것임 심재집에서는 通자로 되었음.

十七

我今萬里擎丹詔　　跋涉遠來並海徼
又有同舟許使君　　一番傾盖膽相照

열일곱 번째 수

나는 지금 임금님 명령을 받들어
멀리 바닷변방으로 건너가는데
같은 배에 허목사가 타고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통하는 듯

【글자풀이】 • 擎 : 받들 경. • 跋 : 건르 발, 글 발. • 涉 : 건늘 섭. • 徼 : 변방 요, 구할 요, 지름길 요. • 傾盖 : 길에서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눔. • 膽 : 마음 담, 쓸개 담. • 許使君 : 사군은 使相과 같이 목사, 부사 등의 지방관을 높이는 말. 제주목사 許熙를 가르킴.

十八

舘頭巖畔卸征鞍　　海色天光入望寒
貫月槎浮縱所適　　南溟無際學鵬搏

열여덟 번째 수

관두포 바위 밑에 말 안장의 짐 부리니
바다빛 하늘빛이 모두다 싸늘하여
달 넘겨 배를 띄워 닻줄을 풀어놓으니
끝없는 남쪽 바다를 후리쳐 나는 듯

【글자풀이】 • 舘頭 : 舘頭浦. 해남현에 있는 포구. • 卸 : 짐부릴 사. • 貫月 : 달을 넘김. • 縱 : 놓을 종. 세로 종. • 南溟 : 남쪽 바다. • 鵬 : 붕새 붕(莊子). • 搏 : 후려칠 단. 鵬搏은 鵬擧와 같은 뜻. 붕새와 같이 하늘을 후리쳐 높고 멀리 날아오름. 149쪽 이원진시 천지연 참조.

十九

孤騷却被天風好　　驀地飛經火脫島
暫試靑蛇掣海雲　　蜃樓蛟室紛顚倒

열아홉 번째 수

돛대는 문득 맑은 날씨에 좋은 바람을 힘입어
갑자기 나는 듯 화탈도를 지나는데
청사를 시험한 듯 잠깐 바다구름이 걷히니
넓은 바다엔 신기루가 거꾸로 섰네

【글자풀이】 • 聊 : 애오라지 료. 힘입을 료 . 원할 료. • 騷 : 돛 범. 말달릴 범. • 驀 : 말탈 맥. 뛰어넘을 맥. 驀地는 갑자기. 별안간. • 火脫島 : 추자도와 제주도 사이에 있는 섬. 대·소 두 섬이 있음. • 暫 : 잠깐 잠. 얼른 잠. • 靑蛇 : 시퍼런 칼날빛을 형용한 말. 白虹坐上飛 靑蛇匣中吼. 唐元稹 折劒詩 • 蜃 : 조개 신(氣를 토하면 누대가 나타난다고 함). • 蜃樓는 蜃氣樓 : 바다나 사막에서 먼데 있는 물체가 거꾸로 나타나 보이는 현상. • 蛟 : 교룡 교. 蛟室은 교룡이 사는곳. 넓은 바다.

【참고】 첫 글자가 심재집에서는 聊자로 되었으나 웅와탐라지를 취했음.

二十

底處一聲送櫓歌　　迓船來趁疾於梭
蓬窓揭了問前程　　舘在朝天影醮波

스무 번째 수

낮은 곳에서 어렴풋한 한 가닥 노젓는 소리
마중 나온 배가 북같이 달려오네
봉창을 걷어 올려 갈 길이 얼마나 남았느냐 물으니
파도에 비치는 곳이 바로 조천관이라 하네

【글자풀이】 • 底 : 이를 저, 밑 저, 그칠 저, 무슨 저. • 迓 : 맞을 아. 迓船은 마중 나온 배. • 趁 : 趂 : 쫓을 진. 머뭇거릴 진. • 疾 : 빠를 질. 병 질. • 梭 : 북 사(織具). • 蓬窓 : 쑥을 엮어서 만든 창. 여기서는 선실의 창. • 舘在朝天 : 관이 있는 조천(地名). 조천에 방호소(防護所)가 있었음. • 醮 : 蘸(잠길 초)와 동자로 썼음.

二十一

海吐瑞山供逸趣　　龍蟠牛島呈祥霧
山川喜我泛槎來　　我亦有情堪指顧

스물한 번째 수

바다가 토해 낸 서산에는 한가한 흥취가 배어 있고
용이 웅크린 듯한 우도에는 상서로운 안개가 싸여 있어
산천이 내가 물 건너 온 것을 기뻐하는 듯하니
나도 또한 정겨웁게 산들을 돌아볼 수밖에

【글자풀이】 • 瑞山 : 고려 목종 10년에 바다에서 용출했다는 안덕면 군산(軍山). • 蟠 : 쌓을 반. 서릴 반. • 泛 : 뜰 범. 물빨리흐를 펌. • 堪 : 산모양이 기괴할 감. 견딜 감.

二十二

燕尾峰腰千萬形　　爭流競秀不知名
微茫樹色畵圖裏　　日暈紅霞照眼明

스물두 번째 수

허리 뒤에 보이는 천만 가지 모양새들
빼어난 봉우리 흐르는 물줄기 이름을 이루다 알 수 없고
아득한 나무숲이 그림 속에 있는 듯한데
눈 앞이 환한 것은 햇무리 붉은 안개

【글자풀이】 • 燕尾峰 : 제주시 신제주 가까이 있는 산명. 연미촌의 뒷산 • 暈 : 햇무리 운(日月傍氣). • 微茫 : 희미하고 아득한 모양. • 爭流競秀 : 빼어난 여러 물줄기가 여러곳에 흘러 다투는 듯 함.

二十三

遠人頗識尊王命　　扶我登途笳鼓競
浦口巉巖道士羊　　路周磊落仙人境

스물세 번째 수

먼 지방 사람들이지만 자못 왕명을 높힐 줄 알아
나를 부축하여 음악을 연주하며 갈을 인도 하는데
포구의 울뚝불뚝한 바위는 도사양인듯
길 주위의 시원한 경치는 신선의 경계일세

【글자풀이】 • 頗 : 치우칠 파. 자못 파. • 笳 : 초금 가. 笳鼓는 피리와 북을 울림. • 巉 : 높을 참. 깍아지를듯할 참. • 磊 : 돌무더기 뢰. 깨끗할 뢰. 磊落은 활달하여 구애됨이 없는 모양. • 道士羊 : 初平羊. 初平起石을 바꾸어 쓴 말. 한나라때 丹溪에 黃初平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나이가 50이 되어도 집에서는 그를 羊을 치게 하였다. 어떤 도사가 그가 성품이 순량하고 부지런함을 보고 金華山石室로 데려다 40년간 도를 닦게 하였다. 그의 형 初起는 오래도록 동생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다가 어느날 저잣거리에서 한 도사를 만나 동생이 있는 곳을 알고 금화산으로 들어가 동생을 만났다. 동생을 보고 치던 양은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었다. 산 동쪽에 두었다는 대답을 듣고 그 곳에 가보았으나 양은 없었고 하얀 돌덩이들만 널려 있었다. 초기가 다시 금화산으로 가서 동생을 데리고 와서 양을 찾았다. 동생 초평이 돌들을 꾸짖어 일으키니 돌이 변하여 양 수만 마리가 되었다.

二十四

靑鳥彩鸞如有期　　護予呵擁城中馳
奔迎拜跪稍知禮　　聒耳語音譯後知

스물네 번째 수

청조와 채색 난새가 기약함이 있는 듯하고
나를 옹위하여 성중으로 달려가니
분주히 나와 맞이하는데 고루 예절 알고 있지만
떠드는 말소리는 번역을 거쳐야 알 수 있네

【글자풀이】 • 靑鳥 : 사자 . 편지. 신선을 뜻함. 서왕모의 사자인 세발 달린 새가 한나라 궁전에 왔다는 고사가 있음. • 鸞 : 난새 란. 난새는 천하가 평안하면 나타나며 닭모양인데 털이 붉고 오색 광채가 나며 오음을 갖추어 운다. • 呵 : 내불 가(氣出). 呵擁은 가사없는 소리. 관장을 모시고 갈 때 부르던 제주지방의 민요인 장원질 소리가 아닌가함. • 跪 : 무릎꿇고 절할 궤. 꿇어앉을 궤. • 稍 : 작을 초(小也). 점점 초. 고를 초. • 聒 : 떠들썩할 괄. 어리석을 괄.

二十五

便從父老問風土　　冬苦風威夏苦雨
草木昆虫傲雪霜　　禽無鵂鶹獸無虎

스물다섯 번째 수

노인들을 찾아가 기후와 풍속을 물으니
겨울에는 거센 바람 여름에는 비가많아 괴롭고
초목과 벌레들은 눈서리를 없수이 여기며
까치새 호랑이 짐승은 없다고 하네

【글자풀이】 • 傲 : 업신여길 오. 거만할 오. • 鵂 : 수알치 휴. 부엉이 휴. • 鶹 : 까치 작.

二十六

人知種植飽齁齁　　不羨江陵千戶候
渾把生涯登壽域　　閭閻到處杖皆鳩

스물여섯 번째 수

사람들은 모두다 귤나무를 심어 생활이 풍족하여
강릉의 천호후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혼후하게 살아가므로 모두다 장수하여
여염집 곳곳마다 팔구십의 노인들

【글자풀이】 • 齁 : 코골 후. 齁齁는 코고는 소리를 형용한 말. • 羨 : 부러워할 선 (※羨은 넓을 이). • 江陵千戶候 : 촉한(蜀漢) 때에 강릉에 귤나무 천 그루를 심으면 그 사람은 천호후와 비등했다는 고사. • 渾 : 혼후할 혼. 섞일 혼. 흐릴 혼. • 閭閻 : 촌마을. • 杖皆鳩 : 鳩杖은 비둘기 장식이 붙은 노인의 지팡이. 옛날 팔십 구십된 노인에게 비둘기 모양의 장식이 붙은 지팡이를 하사하였으므로 나이많은 노인을 뜻함.

二十七

嫌將歲月虛抛擲　　照里鞦韆傳自昔
僧刹了無香火時　　駢闐簫鼓燃燈夕

스물일곱 번째 수
아쉽게 흘러간 세월 다시 오지 않지만
조리희와 추천놀이는 옛부터 전해오네
절에는 도무지 향 피우는 때가 없고
초파일이 되면 요란한 북소리 퉁소소리

【글자풀이】 • 嫌 : 싫어할 혐. 의심할 혐. • 抛 : 버릴 포. 던질 포. • 擲 : 던져버릴 척. 抛擲은 돌아 보지 않는다는 뜻. • 照里 : 照里戱. 민속놀이의 일종. 줄다리기 또는 조리돌림 • 鞦 : 그네 추. • 韆 : 그네 천. • 駢 : 두말 한멍에멜 변. • 闐 : 북소리 전 . 성할 전. • 簫 : 퉁소 소. • 燃燈 : 초파일.

二十八

革帶芒鞂葛織衣　　石田茅屋矮柴扉
負甁村婦汲泉去　　橫笛堤兒牧馬歸

스물여덟 번째 수

맥 빠진 가죽신에 갈옷을 입고
돌담 쌓은 밭 초가집 엮은 정낭
시골 아낙은 허벅으로 물을 긷고
말 치는 목동들은 피리 불며 돌아온다

【글자풀이】 • 芒 : 맥없을 망(罷倦貌). 가스랑이 망. • 鞂 : 짚신 혜. 芒鞂는 헌 짚신. • 負甁 : 병을 등에 진다. 여기에서 甁은 제주지방에서 물을 길어 나르던 허벅이라는 병과 같이 생긴 물담는 그릇을 뜻함. • 葛織衣 : 제주 특유의 노동복인 갈옷.
【참고】 革帶芒鞂 : 제주 특유의 노루나 개의 가죽으로 만든 버선에 짚신을 신은 것을 뜻함이 아닌가 생각되며 矮柴扉는 살정(矢楨)에 짚을 엮은 것을 문자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二十九

民風淳儉看來取　　不必彎弦徒尙武
絃誦東西精舍中　　元來人傑鄒魯鄕

스물아홉 번째 수

백성들의 풍속이 순박하고 검소하여 시취(試取)하여 볼만하고
반드시 활쏘기를 익혀 무예만을 숭상하지 않아
동서 학당에는 글읽는 소리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호걸스러워 추로향을 이루었네

【글자풀이】 • 看來取 : 옛날 제주에는 별견어사가 직접 과장(科場)을 열어 취사(取士)하여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는 일이 많았음. 여기서 취는 취사(取士)의 뜻임. • 彎 : 활에 살먹일 만. 당길 만. • 絃 : 활시위 현. • 東西精舍 : 제주의 동서 학당. • 鄒魯鄕 : 鄒는 맹자의 고향, 魯는 공자의 나라.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숭상하여 예절이 밝은 고장. • 絃誦 : 가야금 따위를 타며 글을 읽는 일. 낭낭한 소리로 글을 읽는 소리. 학문이 융성함을 뜻함.

三十

路人杏壇謁素王　　靑衿揖我明倫堂
誰知萬里滄溟外　　有此衣冠禮義鄕

서른 번째 수

길가는 사람도 행단에 나아가 공자님께 배알하고
유생들은 허리를 굽혀 명륜당으로 나를 맞이하니
누가 알았으랴 머나먼 바다 밖에
이와 같이 예의바른 고장이 있을 줄을

【글자풀이】 • 路人 : 길 가는 사람. 평범한 사람. • 杏壇 : 공자가 강학했던 은행나무 밑. 향교를 뜻함. • 素王 : 공자. • 靑衿 : 향교에서 공부하는 유생. • 揖 : 손을 깍지끼고 허리를 굽혀 상대방을 공경하는 예법.

三十一

更誇物産荊揚府　　珍寶精華那可數
玳瑁蠙珠貝與螺　　靑皮白蠟石鍾乳

서른한 번째 수

물산은 형주 양주 보다 더욱 자랑스럽고
정화로운 진보는 헤아릴 수 없구나
파란 거북이 등 전복속의 진주조개와 소라는 귀중한 보배
청피 백랍 석종유는 진귀한 약재로세

【글자풀이】 • 誇 : 자랑할 과. • 荊揚 : 중국의 형주와 양주. 귤이 많이 나는 지방. • 精華 : 깨끗하고 순수함. • 玳瑁 : 진귀한 거북. 등껍질의 빛깔이 변화가 많음. 관복의 요대를 만드는데 쓰이므로 전의하여 관복과 요대를 뜻함. • 蠙珠 : 전복 개웃에서 나오는 구슬. • 螺 : 소라 라. • 靑皮 : 청귤(靑橘)의 껍질 말린 것. 약재로 씀 (陳皮의 일종). • 白蠟 : 양초 만드는 원료. • 石鍾乳 : 바위틈에서 캐어 내는 약재. 제주에서는 굴이라 부름.

三十二

乃知仙藥百千般　　箇裏分明有煉丹
收拾鐺中九轉後　　定應白日可飛翰

서른두 번째 수
백 가지 천 가지의 선약을 알지만
낱 개 속에 분명히 연단의 재료가 들었으니
솥 속에 모아 놓아 아홉번을 굴린 뒤에야
응당 먹으면 대낮에도 날을 수가 있을테지

【글자풀이】 • 煉 : 반죽할 련. 煉丹은 신선이 만든 불사약. • 鐺 : 솥 당(鼎). 쇠사슬 당. • 翰 : 날개 한. 날 한. 글 한. 분 한. • 九轉 : 九轉神丹, 九還丹. 도가에서 장생불사약을 90주야에 걸쳐 9회 달인다. 이 약을 먹으면 3일만에 신선 또는 흰 학이 된다.
【참고】 煉자는 심재집의 기록을 따랐다 웅와탐라지에는 鍊자로 기록되어 있다.

三十三

我來得到神仙宅　　採了天台劉阮藥
願學麻姑看海桑　　應將此身壺中託

서른세 번째 수

신선이 사는 섬에 나도 와 있으니
유령과 완적이 캐던 약을 신선산에서 캐어먹어
마고선녀가 상전벽해를 본 일을 배우려 한다면
이몸을 응당 선경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지만

【글자풀이】 • 神仙宅 : 속세를 떠나 불로장생의 세계에 사는 사람. • 天台 : 산이름(浙江省). 신선이 산다고 함. • 麻姑 : 신선 이름. 천태산에 살며 불로장생하여 상전이 벽해됨을 세 번이나 보았다고 전함. • 海桑 :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준말. 세상이 여러번 바뀌는 오랜 세월. • 壺中 : 壺中天을 줄여서 쓴 말. 별천지 선경을 뜻함. 한나라 때 선인인 호공(壺公)이 하나의 항아리를 집으로 삼고 술을 즐기며 속세를 잊었다는 고사가 있음. • 劉阮藥 : 劉阮返棹. 劉阮天台를 바꾸어 쓴 말. 한나라 때 섬현(剡縣)에 사는 유신(劉晨)과 완조(阮肇)가 天台山에 들어갔다가 굶어서 거의 죽게되었다. 마침 산 위에 큰 복숭아를 보고 힘겹게 올라가 따 먹은 뒤 힘을 얻어 돌아오다가 시내에 다달았을 때 파란 무 잎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사람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증거라고 여겨 산을 내려오다 큰 시냇가에서 어여뿐 두 여자를 만나 그들을 따라 그 집에 가서 10일간을 유쾌히 지내고 고향에 돌아와 보니 친구는 한 사람도 없고 주위가 모두 달라져 있었다. 집을 찾아 가보니 자기의 칠대손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신선을 만났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三十四

紫殿九重憶聖君　　白雲千里戀雙親
此身猶未全忠孝　　不忍堪爲方外人

서른네 번째 수
구중궁궐의 임금님을 생각하고
천리 밖의 부모님을 사모하면서도
효도와 충성을 다하지 못했으나
차마 외방인은 될 수가 없어

【글자풀이】 • 紫殿 : 궁전을 뜻함. 당나라 때 자신전(紫宸殿)이 있었음. • 九重 : 궁중. • 方外人 :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여기서는 속된 일을 벗어난 신선(方外士)을 뜻함.

三十五

豈獨瀛洲在此地　　求之人世不難致
莫如還鄕華山陽　　保我平生伊尹志

서른다섯 번째 수

신선이 사는 곳이 어찌 이 곳뿐이겠는가
인간세상에서 찾는다면 찾기가 어려우니
고향인 화산 남쪽으로 돌아가서
이윤의 뜻을 보전함만 같지 못하리로다

【글자풀이】 • 瀛洲 : 신선이 사는 곳. 제주도의 별칭. • 華山陽 : 華山은 미상. 陽은 남쪽을 뜻함. 화산은 작자의 고향에 있는 산인 듯. • 伊尹志 : 은나라의 어진 재상인 이윤과 같은 충성심.

毛羅歌

金宗直

乙酉二月二十八日宿稷山之成歡驛濟州貢藥人金克修亦來
因夜話略問風土物産遂錄其言爲賦毛羅歌十四首

一

郵亭相揖若相親　　包重般般藥物珍
衣袖帶腥言語澁　　看君眞是海中人

탁라가

을유년(1465) 2월 28일 직산의 성환역에서 묵었는데 제주에서 약물을 진상하러 가는 김극수가 왔다. 밤에 이야기를 하여 그 곳 풍토와 물산에 관해서 대략 듣고 그가 한 말을 적어 탁라가 14수를 지었다.

첫째 수

우정에서 인사를 나누니 서로가 친구와 같아
무거운 보자기엔 가지 가지 진기한 약물
옷 소매엔 비린내 끼었고 말씨는 더듬는 듯하니
그대는 정말 바다 섬속 사람일세

二

當初鼎立是神人　　伉儷來從日出濱
百世婚姻只三姓　　遺風見說似朱陳

둘째 수

처음 나라를 세운 이들이 바로 신인이었는데
해 뜨는 곳에서 온 아들과 짝지어 살았네
오랜 세월 세 성씨가 혼인을 하여
전해오는 풍속이 주진촌과 같다네

【글자풀이】 • 伉儷來從日出濱은 제주를 계황한 삼을나가 碧浪國의 세 처자를 맞아 혼인하였다는 고사. • 朱陳은 朱陳村이다. 348쪽 최부 탐라사 9번째수 참조.

三

星主已亡王子絶　　神人祠廟亦荒凉
歲時父老猶追遠　　簫鼓爭陳廣壤堂

셋째 수

성주의 작호는 이미 없어지고 왕손도 대가 끊겨
신인의 사당은 황량하게 되었지만
해마다 늙은이들이 옛 조상을 추모하고
광양당에서는 북소리 쟁소리가 들린다네

【글자풀이】 • 追遠 : 追遠報本의 준말. 먼 윗대 조상을 제사함. • 廣壤堂 : 제주목의 음사(淫祠) 대정에 廣靜堂, 정의에 兎山堂이 있었다.

四

水路奚徒數千里　　年年來往飽曾諳
雲帆掛却馳如箭　　一夜便風到海南

넷째 수

물길 수천리를 어찌 걸어서 다니리
해 마다 왕래하여 일찍부터 잘 안다네
구름돛 올려서 살 같이 달려
편풍을 만나면 해남 땅도 하룻밤 길

【글자풀이】 • 飽 : 배부를 포. • 諳 : 알 암, 기억할 암, 익히 들을 암, 다할 암. • 海南 : 해남현.

五

漢拏縹氣通房駟　　雲錦離披水草間
一自胡元監牧後　　驊騮歲歲入天閑

다섯째 수

한라산 아득한 기운이 방성과 통하여서
물과 풀 사이에는 살찐 말들이 많은데
몽고의 오랑캐들이 목장을 관리한 때부터
좋은 말들을 궁궐로 들어 보냈네

【글자풀이】 • 縹 : 옥생빛 표. • 房 : 별이름. • 離披 : 이리저리 흩어진 모양. • 雲錦 : 아침 노을. 여기서는 좋은 말(馬)을 형용한 말. • 驊騮 : 주목왕이 타던 팔준마의 하나. 좋은 말을 뜻함. 312쪽 이익한시 애월진 참조.

六

烏梅玳瑁黑珊瑚　　附子靑皮天下無
物産非唯東府庫　　精典盡入活人須

여섯째 수

오매와 거북의 등껍질과 흑산호와
부자와 청귤의 진피는 다른 곳 어디에도 없는 것
이것들은 동부의 창고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미롭고 영특한 효능은 사람들을 살려내네

【글자풀이】 • 烏梅: 껍질 벗긴 梅核을 연기에 그을린 것. 설사, 기침, 消渴 등에 쓰임. • 玳瑁: 玳瑁甲. 거북의 등. 약재와 공예품으로 쓰임. 특히 관복의 요대를 만들므로 전의하여 관복과 요대를 뜻하기도 한다. • 靑皮: 청귤의 껍질을 말린 것. 陳皮 중에서 으뜸으로 친다.

七

車螯海月與蠔山　　巨口文鱗又幾般
日暮腥烟羃鄉井　　水虞千舶泛鮮還

일곱째 수

거오와 명합과 바위에 붙은 굴과
입이 큰 물고기와 문어의 종류는 또 몇 가지인지
해질녘 온 마을엔 비린내가 번져옴은
근심하던 모든 배들 생선 실고 돌아오기 때문

【글자풀이】 • 車螯(차오) : 대합의 일종. 여기서는 가재 종류를 가르킴인 듯. • 海月 : 전복. 오분자기를 뜻하는 듯(출전 미상). 남사록에는 螟蛤으로 되어 있다. • 蠔山 : 바위 틈에 산봉우리같이 첩첩이 싸여 서식하는 굴의 일종. • 巨口 : 巨口細鱗(後赤壁賦 巨口細鱗)을 줄여서 쓴 말. 농어(鱸魚). 여기서는 비늘달린 고기를 총칭해서 쓴 말인듯. • 文鱗 : 문어. • 水虞 : 물에서 항해 중에 당하는 환난에 대한 근심.

八

萬家橘柚飽秋霜　　採着筠籠渡海洋
大官擎向彤墀進　　宛宛猶含色味香

여덟째 수

가을 서리 깊어 오면 집집마다 귤과 유자가 익어
광주리에 가득 따 담아 바다를 건너 보내면
대관이 받들어 임금님께 바쳐 올림을
빛과 맛과 색이 완연히 온전하여야 하네

【글자풀이】 • 筠 : 껍질 균. • 籠 : 대상자 롱, 통 롱, 종다리께 롱. • 擎 : 받들어 올릴 경. • 彤 : 붉게 단장할 동. • 墀 : 축대위섬돌 지. 彤墀는 궁궐의 섬돌.

九

使君車騎簇長圍　　雉兔麕麚百族披
海島但無態虎豹　　林行路宿不驚疑

아홉째 수

사또의 기마대가 빽빽이 에워싸면
꿩 토끼 고라니 노루 온갖 짐승 잡혀든다
그렇지만 바다속 섬이라 곰과 호랑이는 없어
숲속에서 노숙하여도 놀라게 할 놈은 없다네

【글자풀이】 • 麕 : 사슴 균, 고라니 균. • 麚 : 숫사슴 가.

十

庭除草際遇錢龍　　祝酒焚香是土風
北人驚怕爭相笑　　還怨吳公在竹筒

열번째 수

뜰의 풀 속에서 구렁이를 만나면
술 따르고 향 피워 비는 이 지방 풍속
육지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함을 다투어 비웃지만
도리어 죽통에 있는 지네까지도 원모하네

【글자풀이】 • 北人 : 육지에서 온 사람. • 怨은 怨慕의 뜻. • 吳公 : 蜈蚣. 지네. • 怕 : 두려울 파. • 錢龍 : 여러 마리 검은 빛 뱀이 서려 있는 것.

十一

閭閻子弟游庠序　　絃誦而今樂育多
滄海何曾斷地脉　　翹材往往棍巍科

열한째 수

여염집 자제들도 향교에 유학하여
지금껏 글을 읽어 즐거이 많은 인재 길렀네
넓은 바다라고 일찍이 지맥이 끊었을까
뛰어난 이가 왕왕 문과에 오르기도

【글자풀이】 • 庠序 : 상과서는 학교. 향교를 뜻함. • 斷地脉 : 호종단(胡宗旦)이 제주에 영웅이 나지 못하도록 지맥을 끊으려 다녀갔다는 전설이 있다. • 翹 : 우뚝할 교, 들 교, 꼬리 긴 털 교. 翹材는 범인에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 • 樂育 : 孟子의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 세번째 즐거움이다(得天下英材教育之三樂. 맹자 진심장)

十二

頭無岳上靈湫水　　旱不能枯雨不肥
霹靂雲嵐生造次　　遊人疇敢褻神威

열두째 수

한라산 정상에는 신령스런 못이 있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비가 와도 불지 않고
벼락 천둥 구름 아지랑이 갑자기 일어남으로
노니는 이들은 신령의 위엄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네

【글자풀이】 • 頭無岳 : 341쪽 최부 탐라사 두번째 수 참조. • 靈湫 : 백록담(靈沼). • 造次 : 다급하게. • 疇 : 무리 주, 누구 주, 밭이랑 주. • 褻 : 사복 설. 설만(褻慢 : 어진 사람을 친압하여 공경함)을 줄여서 쓴 말.

十三

火脫島西水相擊　　風雷噴薄怒濤高
萬斛海鰌傾側過　　行人性命若鴻毛

열셋째 수

화탈도 서쪽에는 물 흐름이 서로 부딪쳐
바람에 우레 치듯 뿜어 대는 높은 파도
만작을 머금은 해추가 지나가 배가 기울어지면
지나가는 사람 목숨은 새털같다네

十四

候風淹滯朝天舘　　妻子相看勸酒杯
日中霢霂霏霏雨　　知是鰍魚噴氣來

열넷째 수

순풍을 기다려 조천관에 머물러서
식구들 서로 만나 술잔을 권할 때에
대낮에도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듯함은
큰고래가 숨을 내뿜어 그렇다고 알고 있지

【글자풀이】 • 霢 : 이슬비 맥. • 霂 : 장마 림. • 鰍 : 鰌. 해추 추. 길이가 수천리의 바다밑 굴 속에 사는데 나오면 밀물이 되고 들어가면 썰물이 된다고 함(340쪽 본시 첫째수 참조).

補毛羅歌敬次佔畢齋韻

金尙憲

民知畏吏不知親　自視千金未敢珍
聞說向來多枉死　可憐孤寡幾家人

공경하여 점필재의 운을 따라 탁라가를 보충함

백성들은 아전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할줄 모르며
스스로 천금을 보아도 감히 보배롭다 못한다
듣건대 지난 날 횡사한 이가 많았다하니
가련하다 고아와 과부의 집 얼마일는지

【글자풀이】 • 佔畢齋 : 김종직의 호. 탁라가를 지은 시인(374쪽). • 孤 : 외로울 고. 고아를 뜻함. • 寡 : 과부 과, 적을 과. 과부를 뜻함. 孤寡는 가장 곤궁한 백성. 鰥寡孤獨의 준말

冲庵祠外悄無人　苦竹寒松老澗濱
欲向城南尋故事　先生遺跡已成陳

밖은 사람 없어 고요한 충암선생 사당 밖에
푸른 대 푸른 솔이 시냇가에 늙어가네
성 남쪽으로 가서 옛 일을 묻는 것은
선생께서 남긴 자취 이미 오래 되었기 때문

【글자풀이】 • 冲庵祠 : 충암 김정선생을 모신 사당. 현재의 오현단 자리에 있었다.

一邦時候由來別　春熱冬溫夏亦凉
十月北風常卷屋　民家處處土爲堂

한 지방 기후가 옛 부터 유달라서
봄엔 무덥고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서늘하다
시월 북풍에는 지붕이 걷혀가니
곳곳의 민가들은 흙으로 집을 짓네

扶桑萬里東風起　浦口老人心自諳
問爾從來何所驗　只看雲脚轉山南

멀리 동쪽에서 봄바람 일어나니
포구의 노인은 마음속으로 자기 일을 기억한다
당신은 무슨 일을 겪었느냐 물었더니
산남으로 옮겨가는 구름만 바라본다

【글자풀이】 • 諳 : 기억할 함, 알 암, 익히 들을 암.

逢人處處多鯨面　北望叩心黃霧間
蹈海投崖更無適　仙區仍作囿辜閑

곳곳에서 만난 얼굴에 검은 점이 많은 사람들은
가슴치며 북쪽하늘 어두운 안개 바라본다
바닷가 벼랑에 몸을 던질 수 밖에 없었으니
신선의 고향이 바로 감옥이 되었구나

【글자풀이】 • 蹈海投崖 : 벼랑에서 몸을 던져 바다를 밟았다. 물에서 죽은 남편을 따라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뜻. • 叩心 : 심장을 친다. 즉 가슴을 친다는 말.

通判趙侯金節制　共言淸簡古今無
年來漸見苞苴重　惟悴民生困百須

통판인 조인후(趙仁侯)와 절제사 김응남(金應南)은
모두다 청간이라 고금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요즈음엔 점점 짐꾸러미가 무거워져
찌드는 백성들의 살림 모두다 곤궁하네

【글자풀이】 • 通判 : 判官의 별칭. 반자(半刺)라고도 한다. • 趙侯 : 판관 趙仁後 선조 10년(1577) 도임하여 선정을 폈다. • 金節制 : 목사 金應南 선조 16년(1583) 도임하고 다음 해에 체임되었다. 거사비(去思碑)가 있었다. • 苞 : 쌀 포, 무성할 포. • 苴 : 꾸러미 저, 마름풀 차.

蒭蕘雉兎共圓山　三邑民家事百般
落日試登城上望　樵人纔過獵夫還

원산에서 꼴 베고 나무하고 꿩 토끼 잡으면서
삼읍 백성들의 집은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저물녘 시험삼아 성 위 올라 바라보니
나무꾼 지나간 뒤 사냥꾼 돌아오네

【글자풀이】 • 圓山 : 한라산. • 蒭 : 꼴 추. • 蕘 : 풀 벨 요, 나무할 요. 蒭蕘는 꼴 베고 나무함.

烟臺戍卒滿衣霜　獨向中宵望大洋
時有破颿漂到客　浙閩商船載沈香

연대의 수졸은 옷에 서리 가득히 내려도
한 밤에도 홀로 서서 넓은 바다 바라본다
어떤 때는 돛이 찢겨 표도하는 사람들 중
침향목이 실려있는 절강 민월 상선들

【글자풀이】 • 颿 : 帆의 옛 글자. • 折 : 浙江省. • 閩 : 지금의 복건성 경계. 절민은 중국의 남쪽 지방. • 沈香 : 沈香木. 물에 가라앉는 향나무.

二月南園解籜龍　舟人停棹罷占風
燃燈過節都無事　燕社家家酒滿筒

이월 되어 남쪽 과원에 죽순이 펴질 때면
뱃사공 돛을 거두고 점풍도 아니한다
영등달 지날 때까지 아무일도 하지 않으니
집집마다 동이술로 신당에 잔치하네

【글자풀이】 • 籜 : 죽순 탁. 籜龍은 죽순. • 燃燈 : 제주 지방에서는 음력 2월달을 영등달이라 하여 영등신이 바람을 몰고 온다고 믿어 바다 일을 하지 않는다.

壯觀篇

金尙憲

漢拏何雄哉　千年鎭南軸
厚根壓巨鰲　高處磨朱雀
域內衆名山　誰爲仲與伯
在南有頭流　在北有長白
金剛及妙香　奇秀不敢獨
自古稱瀛洲　神仙之所宅
山經屢聞見　職方偶遺錄
曾無穆王轍　況到謝公屐
靈神儼守護　凡骨窺不得
四時雲霧深　秋晴出半額
我辭玉皇案　先驅戒海若
天風送一颸　高浪視平陸
祥雲擁芝檢　導向頭無岳
山中何所有　紫檀與赤木
密竹覆線路　天荒纔一尺

是時秋之末　紅葉霜初着
清泉引渇人　照映皆發赤
崎嶇躡危磴　偃蹇臨絶壑
行行至日斜　最高峯下宿
浮嵐乍起滅　暝色生邃谷
清颸俄西來　天宇增肅穆
積陰捲海面　山容淨如沐
安知衡嶽雲　感通由正直
三更明月出　萬里同一色
攝衣更凌危　披披還憩息
柱極陷成凹　屛岩勢如削
云昔小虞人　張弧觸天腹
上帝赫然怒　靴靴尖一角
崩頹任顚倒　百里走亂石
孤高尙千仞　指點見騰擲

山僧飽奇談　一行共嘖嘖
盥手白鹿潭　前跪黃華席
瑤壇簇雲車　怳惚成良覿
燭影颺鑪香　仙樂淹笙鶴
須臾天地明　火輪昇虛碧
勝遊難可再　奇賞恣登陟
捫崖出嶺罅　倚石送遠目
茫茫天海間　四顧渾無極
鯨奔不覺小　鵬起無論隘
日脚漏元氣　虛無迷指摘
却訝造化鑪　鎔金灌四瀆
凝神北望久　眼中失鄉國
時時見毫末　無等微如粟
依俙明月浦　出沒龍巖曲
平生井幹蛙　今日冲霄鵠

錯愕心魂驚　　逡巡思返足
歸來了一夢　　倏忽疑夙昔
衰容覺再丹　　華髮看重綠
倘無三生緣　　安能托塵跡
仍題壯觀篇　　寄謝羽衣客

장관편

한라산은 얼마나 이다지도 웅장하던가
천년을 내려오며 남축(南軸)의 지켰네
근기(根基)가 두터우니 큰 자라를 눌렀고
높은 봉우리는 주작(朱雀)에 닿았어라
이 나라 영역 안에 많은 명산과
형이 되고 동생 됨을 가리기 어려워라
남쪽에 있어서는 두류산이 유명하고
북쪽에 있어서는 장백산이 유명하다
금강산과 그리고 묘향산이 있으나
기이하고 빼어남을 독차지는 못하리라
예부터 영주라고 불려오는 이곳은

신선이 집짓고서 살아온 곳이어서
누누히 산해경서 듣고 보아 왔고
이따금 태수들이 기록을 남겨 왔네
일찍이 주목왕의 지난 적 없는데
하물며 사영운의 이 산을 올랐을까
영험스런 신령이 엄연히 수호하니
속인들이 감히 엿보지도 못하리라
사시에 구름과 안개가 깊이 쌓여있고
가을날 그 이마가 반쯤만 보이도다
이몸이 옥황님의 안전을 하직하고
바다 귀신을 징계하려 앞서서 달려왔네
천풍이 한 조각 돛단배를 보내주니
드높은 물결도 평지처럼 여겼더니
상서로운 구름은 조서(詔書)를 옹위하여
두무악 꼭대기로 인도해 주었도다
산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묻는다면
자단나무 그리고 적율목(赤栗木)이라
빽빽한 조릿대는 실낱길을 덮어 있고
넓은 하늘과 땅 사이는 한 자 남짓한 듯

때는 바야흐로 늦은 가을
서리 맞은 잎은 붉어지기 시작하는데
맑은 샘물 떠마시어 갈증을 달래니
저녁 햇살에 모두가 붉게 뵈네
꼬불꼬불 위태로운 돌계단을 오르고
높이 솟아오른 절벽위에 이르르니
가고 또 가니 해가 저물어
최고봉 그 아래서 야숙을 하였도다
떠다니는 아지랑이 일었다 사라지고
깊은 골짜기에 어둔 빛이 감돈다
맑은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니
하늘과 우주는 더욱 엄숙하여라
쌓인 구름이 해면에서 걷히니
산들의 모습은 씻은 듯 깨끗하다
어찌 알리요 형산(衡山) 구름이
정직함을 알고서 감통할 줄이야
삼경에 밝은 달이 떠올라서
만리밖을 바라보니 모두가 한 빛이라
옷자락 걷고서 다시 위태로운 곳을 오르다

안개를 헤치고 잠깐 쉬도다
주극이 함몰되어 움푹하게 패어있고
병풍같은 바위 형세는 깍은듯만 하여라
옛날 옛적 숲지키는 우인(虞人)이 있었는데
활끝으로 하늘의 배를 건드렸네
옥황상제가 대단히 진노하사
가죽신 끝으로 한귀퉁이 밟으셨네
우루루루 쿵꽝 무너지고 뒹구르니
백리에 크고 작은 돌들이 쫙 깔렸네
높고 높게 아직도 천길이나 되는 데서
돌을 자꾸 던지는걸 볼 수가 있다하네
산승은 기이한 얘기 많이도 알고 있어
일행은 누구나 다 혀를 찼었네
백록담 맑은 물에 깨끗이 손을 씻고
들국화 깔린 자리에 나아가 무릎 꿇고
신선이 사는 단에 운거를 모으니
황홀하게 신선들의 좋은 모임 이루었네
촛불 그림자와 향로의 향 바람에 날리는데
신선의 풍악소리에 생학이 머무르는 듯

잠깐 동안에 천지가 밝아지니
태양은 푸른하늘 위로 떠오르네
이렇게 좋은 유람 다시 하기 어려우니
좋은 경치 감상하러 산 위로 올라서네
벼랑을 더듬고 봉우리 틈을 나와
돌에 기대서서 먼 곳을 바라보니
망망하기 그지없는 하늘과 바다는
사방을 돌아봐도 혼연히 끝이 없네
고래가 치달려도 작은줄 모르겠고
붕새가 일어나도 좁다고는 못하겠네
옮기는 해그림자 원기가 새 나올뿐
허무하게 텅 비어 지적할 곳이 없네
문득 만물을 만드는 화로에
쇠를 녹여서 사해에 부은듯
모든 강물에다 흐르게 한 것인지
정신차려 오래도록 북쪽을 바라봐도
두 눈 가운데 고향은 안보이네
때때로 무엇인가 털끝처럼 보이는데
무등산이 작기가 좁쌀만 하고

가까이 명월포도 희미하게 보이고
용두암도 보일 듯 말듯 하는구나
평생을 우물가의 개구리 되었다가
오늘사 하늘의 큰 고니 된듯하네
당황하고 놀라와서 심혼이 떨리는데
머뭇머뭇거리면서 돌아갈 길 생각하네
돌아오니 꿈을 한번 꾼 것 같고
갑자기 옛날 일이 아니었나 의심하네
시들은 얼굴이 다시금 붉어지고
흰머리는 또 다시 검은 머리 되어진 듯
진실로 삼생의 인연이 없었다면
어찌 티끌을 밟던 몸을 의탁할 수 있었으랴
이에 장관편 글을 지어
고맙다는 뜻으로 신선에게 부치노라

補毛羅歌 幷序

南九明

佔畢齋金先生　嘗過成歡驛　遇濟州人藥材陪持者. 因夜話問風土物産　錄其言爲毛羅歌十四首.　後人亦有補之者. 余於病伏中　再步其韻　間附述懷　書事等語. 終篇大抵遊山日記. 雖其文字不能得古人之髣髴, 而若其目見詳於耳聞, 足踏勝於口傳　則不敢辭矣. 亦令愼明和之.

탁라가를 보충하고 序文을 붙인다

점필재 김종직 선생께서 일찍이 성환역을 지나시다가, 약재를 진상하러 가는 제주사람을 만났다. 밤이 되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풍토와 물산을 묻고, 그 들은 바를 기록하여 탁라가 14수를 지었다. 뒷 사람들이 이것을 보충하였다. 나는 병으로 누워 있으면서 다시 그 운을 빌어서 시를 지었는데, 느낀 것과 할 일들을 더붙였다. 끝부분은 대저 한라산을 유람한 기록이다.
비록 글자를 쓰는 재주는 옛사람을 따를 수 없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상세함은 입으로 듣고 그 말을 다시 전하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감히 사양할 수 없겠다. 또 신명에게도 화답하게 하였다.

殊音異服强相親　　時獻驪龍頷下珍
亭長初非從汝索　　看君知是有求人

말과 옷 특이한 이들과 억지로 친해지면
때로 검은 용이 입에 물었던 구슬도 바치네
역장이라도 처음에 너를 찾으려 않았는데
그대를 보니 사람들이 구해 탐냄을 알겠구나

【글자풀이】 • 殊音 : 특이한 말소리. 제주도 방언을 뜻함. • 異服 : 육지와 유다른 옷. 제주도 갈옷을 뜻한다. • 驪龍 : 온몸이 검다는 龍이다. 驪龍頷下珍은 검은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 • 亭長 : 여기서는 제주판관을 말함이다.

朝廷初不稅蠻人　　藥物惟供絶海濱
內局卽今多責應　　船船滿載是靑陳

조정에선 남쪽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지 아니하고
먼 바닷가의 귀한 약물만 바치게 했지
이제는 내의원의 많은 요구에 응하다 보니
배마다 가득히 청귤 진피를 싣는구나

【글자풀이】 • 內局 : 궁궐의 內醫院이다. • 靑陳 : 청귤의 진피, 청귤껍질 여러 해 묵여 말린 것.

衙軒東北勢空豁　　瘴雨腥風入戶凉
病骨不堪尖利氣　　斜陽移上橘林堂

아헌의 동북쪽은 시원히 트여서
축축한 비 비린 바람 문틈으로 스며드네
병든 몸 날카로운 기세 감당할 수 없어서
저녁볕에 귤림당으로 걸음을 옮긴다

【글자풀이】 • 衙軒 : 관청의 중심이 되는 집(政堂). 여기서는 판관이 집무하던 하영(下營 : 판과 영). 현 제주의료원. • 橘林堂 : 제주성 남쪽 과원에 있던 건물. • 中人 : 시골 관아의 아전을 이르는 말이다. 천역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 捷 : 날랠 첩, 빠를 첩.

賣妻鬻子尋常視　　此地人情不可諳
王化卽今無內外　　只緣風氣限天南

아내 팔고 자식 파는 일 보통으로 보아 넘긴다
이곳 사람들의 정리를 알 수 없어라
임금님 가르침은 지금 온 나라에 미쳤는데
다만, 풍토와 기후 때문에 먼 남쪽만 막혔구나

【글자풀이】 • 鬻 : 팔 육, 미음 죽. • 諳 : 알 암, 깨닫을 암, 기억할 암. • 王化:백성을 교화시킴. 백성을 가르쳐 깨우쳐서 문화를 새롭게 함.

鈴下趨蹌多刻面　　前年纔脫黑縲間
朝朝向日祈無死　　願得田園半餉閒

대장에게 여러 번 찾아가 사정하여
지난해에 겨우 죄인 신세 벗어났네
아침마다 해를 보며 죽지 않기를 빌고
원컨대 고향에서 잠깐동안 한가함을 얻었으면

【글자풀이】 • 鈴下 : 대장에 대한 敬稱. 제주 목사를 뜻함(제주목사는 방어사를 겸대함으로). • 趨蹌 : 예의를 갖추어서 발뒤꿈치를 들고 빨리 걸어감. 종종걸음과 같다. • 多刻 : 여러 번. • 面 : 만날 면, 얼굴 면, 바라볼 면. • 縲 : 포승줄. • 黑縲 : 죄인을 묶는 줄. 여기서는 관직에 얽매인 것을 말함이다. • 餉 : 먹일 향. 여기서는 食頃(식경 : 한 끼의 밥을 먹을 동안)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본다. 半晌(반상)은 반나절이다. 晌은 正午, 점심밥의 뜻이다.

青螻纓子隔珊瑚　　異彩玲瓏世所無
縱橫石上磨礱跡　　盡入侯門別簡須

푸른 자개 산호와 어울려 갓끈을 만드니
영롱하게 뛰어난 빛 세상에 다시 없는 것
돌 위에서 굴리고 갈아 빛이 나게 만든 것은
모두다 별간을 따라 존귀한 집으로 들어간다

【글자풀이】 • 螻(루) : 소라. 소라나 전복 껍데기를 갈아서 구슬처럼 만든 것을 자개라고 한다. 빛이 영롱하다. 螻纓子는 구슬 자개를 띠엄띠엄 꿰인 갓끈. • 別簡 : 편지의 끝에 붙이는 別紙. 대게 物目이나 별도로 부탁하는 말을 기록한다. • 磨礱(마농)은 갈다. 갈아서 빛나게 하다.

仙府深深在漢山　　神官羅列幾重般
有人手執羸粮袋　　不見眞元面目還

신선세계는 깊고깊은 한라산에는
여러 겹으로 신관들이 늘어서 있다 하여
어떤 사람 양식 자루 메고 찾으려 갔으나
신선들의 흔적도 얼굴도 못 보고 돌아왔다네

【글자풀이】 • 般 : 펼칠 반, 가지 반. • 羸 : 남다. 넉넉하다. • 眞元 : 참된 원기. 여기서는 신선.

【참고】 목사 최계옹이 스스로 생각을 잊은 신선이라 칭하면서 말소리와 웃는 소리를 듣는 것을 피하여 여러 대의 양식을 가지고 홀로 한라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 아주 피곤한 뒤에 돌아왔다(崔牧使啓翁 自稱忘懷子以仙人, 聞笑語輒避. 手持數升糧 獨上漢拏山, 迷失道困頓乃還).

名區珍木傲風霜　　納錫年年犯大洋
半夜別關星火急　　尙方催進紫檀香

신선세계의 모진 비바람도 견딘 진귀한 나무들
해마다 거친 바다 건너야 하네
한밤중에 별도관에서 성화같이 다급하게
상방에서 자단향을 진상하라 최촉한다고

【글자풀이】 • 納錫 : 명령을 내려서 들여 보내게 함이다(賜命而納之也.). • 犯 : 무릅쓸 범. • 星火 : 별똥별. 일이 다급한 모양을 뜻한다. • 尙方 : 임금과 왕후의 의복을 만드는 곳. • 紫檀香 : 향나무의 일종. 임금의 옷에 그 조각을 넣는다.

羅綺香風陣陣圍　　芳心先向入房披
那堪聽取靑樓曲　　厭薄官人不自疑

비단 옷, 분 내음 이음이어 에워싸서
미인들은 먼저 방에 들어가서 펼 것을 생각하고
어찌 청루의 노래 소리 참아 들으랴
벼슬아치를 미워하여 눈흘기는 것을 알고 있으니

【글자풀이】 • 羅(라), 綺(기). 모두 비단을 뜻한다. • 陳陳 : 겹겹이 에워둘린 모습이다. • 芳心 : 미인의 마음. 여기서는 관기를 뜻함. • 入房 : 관기가 수청드는 일. • 披 : 찢어지다. 헤치다. 꽃잎이 벌어짐을 듯한다. • 靑樓 : 花柳界(화류계)의 여자들이 있는 집. • 厭薄 : 박대하고 싫어함이다.

朝爲赤子暮蛇龍　　芽孽時能敗古風
甫介已亡嚴卜死　　家家花月醉郫筒

아침에 어린 새끼 저녁엔 이무기 되듯
작은 싹이 때로 좋은 풍속 허물기도 한다네
甫介와 嚴卜도 이미 망해 죽었는데
집집마다 仲春인데도 郫筒酒에 취하는구나

【글자풀이】 • 蛇龍 : 이무기가 幻退(환퇴)하여서 된 龍이다. • 芽 : 싹 아. • 孽 : 싹 얼, 첩자식 얼. • 古風 : 오래 이어온 좋은 풍속. • 甫介(보개)는 1372년에 제주에서 난을 일으킨 牧胡(元나라에서 파견하여 말을 기르게 했던 사람.)이다. (明洪武五年-恭愍王二十年, 春三月牧胡叛殺御馬使劉景元及牧使李用藏. 時明帝貢本國馬. 王以秘書監劉景元爲揀選御馬使 偕禮部尙書吳季南來. 牧胡石加乙碑尙古道甫介等自稱東西哈赤作亂. 遂殺景元用藏及護帝弓兵三百餘名. 季南不克入乃還. 향도자료총서2 心齋集 72쪽) 嚴卜(엄복)은 1318년에 난을 일으킨 목호이다.(元延祐五年-忠肅王五年. 草賊士用嚴卜等起兵作亂. 王子文公濟等擧兵盡誅之. 聞于元復置官吏 : 心齋集 67쪽) • 郫 : 땅 이름 비. • 筒(통) : 대나무통. 郫筒은 술을 담아 두는 그릇이기도 하고, 술의 이름이기도 하다.

絃誦洋洋衣帶整　　嶺湖風習不爭多
可憐土俗輕題品　　官妓虛當第一科

경서 읽는 소리 막힘 없고 옷차림도 단정해
영남 호남의 풍습과 크게 다르지 않네
안타까워라 등급 매김을 경솔히 하여
관기가 공연스럽게 제일품이 되었도다

【글자풀이】 • 絃誦 : 음율을 붙여 글을 읽는 소리. • 洋洋 : 막힘이 없는 모양. • 題品 : 品題. 물건에 품질을 논하여 등급을 매기는 일. 여기서는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순서를 매김이다.
【참고】 方言有 一妓生 二官奴 三衙前 四假率 五鄕所 六先輩之語.
(지방 사람들 말에 첫째 기생, 둘째 관청 사령, 셋째 아전, 넷째 임시직 捕卒. 다섯째 향소, 여섯째 선비라는 말이 있다. 瀛軒處坎錄.)

山陰橡栗秋來熟　　獐鹿成群日漸肥
告獲不堪充俎豆　　悍兵元是傲官威

산 북쪽 기슭 도토리와 밤은 가을 되어 익었고
노루 사슴 떼지어 날로 점점 살쪘는데
사냥하여 잡은 짐승, 쟁반에 채우지 못함은
병사들 모질어 관장을 위엄 업신여기기 때문

【글자풀이】 • 橡 : 도토리 상. • 栗 : 밤 율. • 告獲 : 군사들이 전렵(田獵)하여 잡은 짐승을 보고함. 祭需(제수)로 쓸 사슴을 잡는다고 山神에게 제사함을 표현함이라고 본다. 사냥을 하도록 허락함의 뜻이기도 하다. • 俎豆 : 祭器. • 悍 : 독살스러울 한, 모질 한. • 脯醢 : 말린 고기와 절인 고기. • 兩丁 : 陰曆 2월과 8월의 첫째 정일(丁日).

【참고】 春秋兩丁 自營出牙兵二哨, 獵山獸 以供各祭脯醢. 而卒習甚悍 不肯盡力於捕捉, 祭需每患窘束.(봄 가을의 丁日에 軍營에서 牙兵 두 개 哨隊를 내보내서 산짐승을 잡게하여, 각 祭壇에 말린 고기와 절인 고기를 보냈다. 그러나 병졸의 습성이 매우 사나와 짐승잡이에 힘을 다하지 않아서 매양 부족함을 걱정한다.)

牧馬千群半故斃　　爲言南地雪風高
冷丞只解箝書尾　　都付營門數鬣毛

목장마다 말떼 천이 넘는데, 반이 죽으니
남녘땅 눈과 바람 사납기 때문이라 하네
낮은 감목관은 다만 서류로 숫자를 마감하여
다 목사의 영문에 바쳐서 털가죽 수만 맞추네

【글자풀이】 • 冷丞 : 冷官. 지위가 낮은 관리. • 箝 : 재갈 겸, 잠글 겸.
【참고】 南地風雪甚惡, 牧場馬故斃 多至數千. 皮鬣皆入營門. 所謂牧官學行文書而已, 毫末不與焉(남녘땅 눈과 바람이 몹시 사나와 목장의 말이 많이 죽는데 수천에 이르렀다. 털가죽은 다 營門에 들여가니, 이른바 牧官이라는 자는 文書만 거행할 뿐이고, 조금도 관여하지 못한다.)

到口生憎瞿麥酒　　淺紅時上小螻盃
雲安此去無多地　　須取醺人麴米來

구맥주 입에 대면 역겨움이 일건만
옅은 붉은빛 술도 때로 소라잔에 올려지네
雲安땅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니
모름지기 반가운 사람 麴米酒를 들고 왔으면

【글자풀이】 • 瞿麥 : 패랭이꽃 열매. 패랭이꽃 열매는 보리쌀과 모양이 비슷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 瞿麥酒 : 제주에서 만드는 하루 익은 술(쉰다리)인듯. • 淺紅 : 조금 붉은 것. 청주를 뜻함. • 雲安 : 중국의 땅이름. 술의 별명. • 醺 : 취할 훈.

重補毛羅歌

南九明

炎洲鷗鷺日相親　　虎杏神瓜味味珍
太守風流惟自樂　　是非都付北方人

다시 탁라가를 보충하다

남쪽땅에서 갈매기 백로 서로 친해지는데
虎杏과 神瓜는 맛이 일품일세
태수의 멋은 오직 스스로 즐거워함이니
시비 가림은 모두다 북쪽 사람들에게 맡겨야지

【글자풀이】 • 炎洲 :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 고을의 이름이다. 여기서는 濟州島(제주도)를 이르는 말이다. • 鷗鷺 : 갈매기와 백로. 즉 텃새와 철새를 이르는 말. 濟州人과 자신을 비유한 표현이다. • 虎杏 : 미상. • 神瓜 : 미상. • 太守 : 조선시대에 지방관리의 일반적인 호칭으로 쓰인 것이다. • 北方人 : 북쪽에 있는 사람들. 서울의 벼슬아치들을 가르켜 한 말.
【참고】 • 시인은 당쟁이 대북 소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좌천되어 왔다.

一逕通樵不見人　　孝林神宇小溪濱
宗工曉告供禋祀　　丹荔黃蕉次第陳

덤불 뚫은 좁은 길 사람 드믄 곳
효림의 작은 시냇가에 신당이 있고
새벽에 아전이 제사 올린다고 알려왔네
단려와 황초들 차례로 벌여 놓았네

【글자풀이】 • 孝林 : 아마 땅이름인 듯하나 미상. • 神宇 : 神의 위패를 모신 祠堂. • 宗工 : 관장을 받드는 사람. 여기서는 고을 아전을 뜻함. • 禋 : 정성들여 제사모실 인. • 丹荔, 黃蕉 모두 제사에 썼던 향기풀이다.
【참고】 神宇는 神人(三乙那)의 사당으로 볼 수 있다. 삼성사 제향에 초헌관으로 참가한 소감을 읊은 시이다.

小隊旌旗出廣壤　　一方山水不凄凉
明朝擊鼓祈田祖　　浴罷孤眠演武堂

군대의 깃발 날리며 광양 땅으로 나가니
한 고을 산과 물이 조용하지 않구나
내일 아침 풍악 울리며 풍년을 비는 제사 드리려니
목욕재계하고 나서 연무당에 홀로 잠자리 폈네

【글자풀이】 • 廣壤 : 濟州城의 남쪽에 있는 땅이름이다. • 田祖 : 農事를 관장하는 신이다. 여기서는 농포제(農酺祭)를 뜻함. 연무정 옆 현 삼성초등학교 부근에 포제단이 있었음. • 演武堂 : 演武亭. 무사들에게 무예를 연습시켰던 정자의 이름이다. 仁祖14年에 牧使 申景琥가 南門 밖 5리 쯤의 광양 땅에 軍官廳과 判官伺候處를 세워서 군사 훈련을 시키게 했다. 英祖22年에 牧使 韓億增이 동문 밖으로 옮겼다.

乘閒偶上望辰閣　　水戶山村歷歷諳
高處還嫌風氣惡　　華筵移設小溪南

한가함을 틈타 짝지어 망진각에 오르니
어촌과 산촌까지 또렷또렷 낯익은데
높은 곳 에워부는 사나운 바람기 역겨워
잔치 자리 작은 개울 남쪽으로 옮겨 벌였네

【글자풀이】 • 望辰閣 : 拱辰樓를 바꾸어 쓴 말. 북수구문루이다. • 諳 : 알 암, 기억할 암.

翠屛潭中牽錦纜　　鼓角笙歌兩岸間
歸來尙有扶桑恨　　更占靑鞋半日閒

취병담 한가운데 비단 닻줄 내리니
북, 피리, 생황 소리 양 언덕에 울리네
돌아오려니 오히려 동쪽 바다가 한스러워
짚신으로 갈아 신고 반나절이나 한가로움 즐겼는데도

【글자풀이】 • 翠屛潭 : 龍淵에 붙인 다른 이름이다. 용연의 절벽에 翠屛潭이라는 마애명이 있다. • 纜 : 닻줄 남. • 靑鞋 : 짚신. 靑鞾라고도 쓴다.

暇日將尋廣成約　　荷衣新拂一塵無
滇池赤杖靑猿酒　　分付仙童應所須

한가로운 날에 광성자와 약속 지키려
연잎옷을 다시 떨어 세속 먼지 없앴으니
백록담 신선이 청원주를 마시면서
선동에게 분부하여 나를 만나게 하겠지

【글자풀이】 • 廣成子 : 황제 시대의 신선 이름이다. 여기서는 漢拏山의 신선을 뜻한다. • 荷衣 : 기하의. 연잎을 엮어 만든 옷이다. 楚辭에 「마름과 연을 엮어 옷을 만듦이여(製芰荷以爲衣兮)」라는 구절이 있다. • 淸高 : 맑고 고상한 사람. 隱逸者(은일자)의 신분을 비유한 표현한 말이다. • 滇池 : 물이 넘실대는 못. 여기서는 白鹿潭을 이르는 말이다. • 赤杖 : 붉은색의 지팡이이다. 神仙의 신분을 상징한다. • 猿酒 : 원숭이가 깊은 바위굴 속에 만들어 둔다는 술이다. 좀처럼 얻기 어렵다고 한다. • 所須 : 기다리는 일, 바라는 일의 뜻으로 썼다. • 應 : 응대(應對)의 뜻.

風送藍輿上遠山　　洞天奇態各千般
雲軿漸下笙蕭近　　知是王喬駕鶴還

남여 타고 바람에 실려 먼 산을 올랐네
골짜기마다 기이한 모습 제각기 달라
구름수레 내려오는듯 생황 소리 가까우니
알겠노라, 이것이 왕교가 학을 타고 돌아옴임을

【글자풀이】 • 雲軿 : 天女가 타고 다니는 수레. 구름수레. • 軿 : 부인이 타는 수레 병. 가벼운 수레 병. • 王喬 : 王子喬이다. 周나라 靈王의 태자로서 이름은 晉이다. 直諫하다가 廢位되어 庶人이 되었다. 笙簧을 불어 봉황의 소리를 내며, 伊水와 洛水 사이에서 노닐었다. 흰 학을 타고 다녔으며 緱氏山(구씨산 : 中國 河南省에 있는 산이다.) 꼭대기에 살았다.(周靈王太子名晉 直諫廢爲庶人. 吹笙作鳳鳴 遊伊洛之間. 乘白鶴 駐緱氏山頂. : 中文大辭典) 神仙이 된 것이다.

四月深山夜有霜　　冷風駕腋入茫洋
遊人卻傍仙巖宿　　草舍終宵樺燭香

사월에도 깊은 산엔 밤서리 내리니
차운 바람에 팔짱끼고 어쩔 줄 모르네
나그네는 선암으로 물러나 잠들려니
띠집에선 밤새도록 자작나무 타는 향내

【글자풀이】 • 茫洋 :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다.(無所知貌. 猶茫然) • 仙巖 : 한라산 서남쪽 절벽을 이르는 말이다. 神仙이 놀았다는 바위이다. 달리 方巖이라고도 부른다. • 樺燭 : 모닥불. • 腋 : 겨드랑이 액. • 卻 : 却. 물리칠 각, 반대할 각, 사양할 각.

山下滄溟碧四圍　　煩襟時向北風披
路傍無數瓊瑤樹　　異彩玲瓏欲把疑

산 아래 푸른 바다로 사방이 둘러있어
번거로운 생각 때로 북풍에 떨어내네
길가 따라 수없이 신선세계의 나무들
특이한 빛 아름다와 잡아 보고 싶어라

【글자풀이】 • 煩襟 : 마음에 근심이 일어 산란함이다. • 襟 : 옷깃 금. 여기서는 마음을 비유함이다. • 瓊瑤樹 : 옥같이 아름다운 나무. 瓊瑤는 옥의 이름.

頂上靈湫秘毒龍　　遊人到此怯雷風
扶笻暮入三梅洞　　臥聽蠻童吹竹筒

산꼭대기 신령한 못 독룡이 사는지
나그네 이 곳에 이르니 우레 바람에 겁먹어
지팡이 의지하여 저물녘에 삼매동 들어가
남쪽 땅 아이가 부는 퉁소 소리, 누워서 듣고 있네

【글자풀이】 • 三梅洞 : 서귀진 방호소를 뜻함. 천지연 서쪽에 三梅峰이 있고 삼매봉 서쪽 산자락에 남성리(南城里)가 있다. 옛 서귀성(선조 연간에 현위치로 옮기기 이전의 성) 바로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귀진을 평측(平仄)에 맞추기 위하여 바꿔 썼다.

莫恨仙源窮未了　　平生還覺此遊多
因風直欲凌波去　　簿牒明朝閱幾科

신선의 처소를 다 찾아가지 못했다 한탄 말지니
평생동안 이 유람을 생각할 때 많으리라
바람 타고 곧바로 파도 밟고 떠나고 싶어도
내일 아침엔 다시 문서 몇 조각 살펴야 하네

【글자풀이】 • 仙源 : 神仙이 사는 곳. • 凌波 : 美人이 가볍고 아름답게 걸어가는 모양. 여기서는 가벼이 파도를 건너감을 뜻함.
【참고】 乘雲步虛越海凌波 出入無間呼吸千里 : 神仙賦(허공을 밟고 파도를 밟아 바다를 건너며, 드나듦에 막힘이 없고 한숨에 천리를 간다.) 凌波微步羅襪生塵 : 曹植 洛仙賦(파도를 밟듯 가벼운 걸음에 비단 버선은 먼지를 일으키네.)

尋幽遠入天池瀑　　春雨初還水正肥
顧語兒童莫轉石　　雷喧恐犯神靈威

잠깐 뒤 그윽한 곳 멀리 천지연폭포 찾아드니
봄비 방금 그쳐서 물이 자못 가득했네
아이를 돌아보며 돌 굴리지 말라 타이르니
시끄러운 소리 신령의 위엄 거슬릴까 걱정된다

【글자풀이】 • 尋 : 잠깐뒤 심, 찾을 심.
【참고】 濟州島의 속담에 신선이 산다는 말이 전해지는 곳에 가서 큰 소리를 치면 비가 내린다고 한다.

遊鞭晩駐遮歸浦　　西見中洋石扇高
霹靂午過風雨急　　雛鵬當午浴新毛

나그네의 채찍 저녁 늦게 차귀진에 이르느니
서쪽 바다 가운데 돌부채 바위 높이 솟았네
천둥소리에 급한 비바람 잠깐 스치는 듯
한낮에 새끼 붕새 고운 털 씻은 듯 하네

【글자풀이】 • 遊鞭 : 여행하는 사람이 가지는 물건. 나그네를 뜻한다. • 石扇 : 부채같이 생긴 바위. 여기서는 차귀도를 이르는 말이다. • 雛鵬 : 장자 소요유에 나오는 붕새의 새끼.
【참고】 제주의 지맥을 끊으러 왔다 돌아가는 胡宗旦을 한라산 산신이 독수리로 화신하여 쪼아죽였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차귀도를 마주보고 있는 용수리에는 바닷가에 돌로 높이 탑을 쌓아 독수리 같이 생긴 돌을 항상 올려놓는다. 이를 매주재기라 부름.

名區閱盡錦囊富　　爲向江山勸一盃
也識前生緣果重　　此行非是偶然來

좋은 경개 보고 나니 비단주머니가 두둑해서
강산을 향해 한 잔 술을 권하노라
알겠노라. 전생에 인연이 많았음을
이번 길이 정말 우연히 온 것이 아닌 것도

【글자풀이】 • 錦囊 : 비단주머니이다. 잘 지어진 글귀, 또는 詩句를 말함이다. • 緣果(연과)는 因緣의 果報이다.

又補毛羅歌

南九明

纖毫起梗便忘親　　一束枯芻認至珍
太守好將鄒魯待　　汝家猶是化中人

또 毛羅歌를 보충하다

조금만 근심 있으면 문득 친함을 저버리면서도
한 묶음의 마른 꼴을 지극한 보배로 알지
태수가 추노의 고장을 기대하려 하니
이들의 집에 깨우친 사람이 있을 것이라

【글자풀이】 • 纖 : 가늘 섬. 纖毫는 솜털이다. • 梗 : 해로울 경, 막힐 경. 梗塞은 이치나 사물 금전 등이 통용되지 못함이다. • 鄒魯 : 孔子의 고향이 魯國이고, 맹자의 고향은 鄒(땅이름)이다. • 化中人 : 敎化된 사람이다.

相逢渾是異鄕人　　樽酒從容寂寞濱
莫把皮毛當面過　　天涯何處覓雷陳

만나는 건 모두 타향사람들
술병 들고 조용한 바닷가나 찾아가네
고을 사람들 붙잡지 않으면 얼굴 봐도 그냥 지나니
천애의 땅 어디서 애기 나눌 벗 찾으랴

【글자풀이】 • 皮毛 : 털가죽. 토착민을 일컫는 말. • 雷陳 : 친구의 友誼가 매우 두터운 것을 이르는 말이다. 번개가 친 뒤에 우레가 울려퍼지는 것을 비유한 표현이다.

氓俗耐寒兼耐暑　　不關天氣變炎凉
齁齁鼻息眠猶穩　　白板家家掩土堂

사람들 습성이 추위 더위 잘 참는데
천기 덥거나 차거나 상관하지 않고
코골며 잠들어 안온하게 쉰다
치장도 없는 소박한 집집, 흙벽 방에서

【글자풀이】 • 齁 : 코고는 소리 후. 齁齁는 태평스러움을 뜻하기도 한다. • 穩 : 안온할 온. • 白板 : 아무 조각도 없는 널빤지. 아무런 치장도 없는 장소를 말함이다. 제주도 가옥의 대청문을 판지로 함을 뜻하는 듯도 하다.
【참고】 • 육지와 같이 온돌이 발달되지 않았음을 읊은 시.

月下歌聲相杵杼　　音調凄澀聽難諳
夜深變奏思歸引　　樓上愁人憶嶺南

달 아래 노래소리 방아공이와 어울려
가락은 거칠어 듣고 기억하기 어려운데
밤 깊어 사귀인으로 가락 변하면
누각 위 나그네 쓸쓸히 영남땅을 그린다네

【글자풀이】 • 杵(저) : 방이공이. 방망이. • 凄(처) : 차다. 찬바람. 심하다. 澀(삽) : 떫다. 깔깔하다. 조삽하다. • 諳(암) : 알다. 깨닫다. 기억하다. • 思歸引(사귀인)은 거문고 노래의 곡목이다. 달리 離枸操(이구조)라고도 부른다.

獠面猶能知禮讓　　每逢冠蓋伏田間
逡巡細報喉中語　　爲訴生涯不暫閒

남쪽 사람들은 예의와 겸양을 알아서
벼슬하는 이를 만나면 밭에서도 엎드리네
말은 멈칫멈칫 목구멍에 기어드는 목소린데
평생을 살며 잠시도 한가하지 못하다 푸념이네

【글자풀이】 • 獠 : 남쪽오랑캐 조(부족의 이름). 사냥개 요. 제주도의 위치를 빗대어 말함. • 冠蓋 : 네 마리의 말로 끄는 수레이다. 높은 신분인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 逡 : 머뭇거릴 준, 주저할 준. • 巡 : 굽신거릴 순, 돌아다닐 순. • 細報 : 자세하게 알린다. 여기서는 가는 소리로 대답하다의 뜻이다.

靈丘瓊樹雜珊瑚　　多事人間說有無
神翁曉劈麒麟腊　　爲進儒仙案上須

신령한 땅엔 불사약인 경수가 산호와 섞여 있어
말 많은 세상에선 있다느니 없다느니
신옹이 새벽에 말린 기린고기 끊어줌은
신선 선비의 밥상에 올리라는 뜻이겠지

【글자풀이】 • 瓊樹 : 仙界에 있는 나무. 꽃은 먹으면 장수하는 약이 된다고 한다. 옥과 같이 아름다운 나무, 눈꽃이 핀 나무를 비유한 표현이기도 하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을 표현하기도 한다. • 腊 : 말린 고기 석. • 須要 : 없어서는 안될 것, 아주 소중한 것. • 儒仙 : 신선같이 고상한 선비.

隔海纔分點點山　　望鄕心事幾千般
開牕忽聽偵人報　　巨艦今從陸地還

바다 저쪽에 점으로 보이는 산들
고향 그리는 심사 몇 천 가지인지
창 열고 문득 망보는 병졸 얘기 들으니
큰 배가 지금 육지로 돌아간다 하네

【글자풀이】 • 般 : 많을 반, 모두 반, 가지 반. • 偵 : 정탐할 정, 엿볼 정.

田間墟墓埽秋霜　　從古冤魂泣大洋
家人謾拾衣巾葬　　痛哭荒原注瓣香

밭 가운데 헛무덤 가을서리를 쓸어내어도
원통한 옛 영혼 바다에서 울겠구나
식솔들은 정성스레 옷가지 모아 장사를 치루고
황량한 들에서 슬피 울며 술 따르고 향 피운다

【글자풀이】 • 埽 : 쓸 소. 埽墳의 준말. • 從古 : 옛날부터. • 瓣 : 瓜部14劃. 실과씨. 외씨. 꽃잎. 瓣香은 한 묶음의 香. 禪僧이 남을 추모할 때 이 향을 사용한다. 남을 존경하고 사모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 注 : 물부을 주, 灌注의 준말(제례에서 강신한 의식).

士女傾城族四圍　　分曹相搏勢紛披
老翁亦自忘筋力　　執索呼耶不少疑

성에 가득 남녀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편을 가르고 서로 어르며 세력을 돋우면
노인들도 또한 자기 근력 헤아리지 않고
줄잡고 으샤! 으샤! 조금도 꺼려함 없네

【글자풀이】 • 分曹 : 편을 가르다. 分輩(분배)와 같다. • 搏(박) : 어루만질 박. 손바닥으로 칠 박. • 紛披 : 꽃이 만발하게 피다. 흩어져 어지럽다. • 筋力 : 근육의 힘이다. 筋은 힘줄. • 呼耶 : 함성소리의 의성어로 쓴 것이다.
【참고】 州誌 八月十五日 男女曳大索決勝負 謂之照里戲.(州志에 8월 15일에 남녀가 큰 밧줄을 당겨 승부를 겨루는데 이것을 照里戲라 이른다.)

生男只解怨蛟龍　　重利輕身不畏風
一半閭閻皆寡婦　　天寒背上水鳴筒

아들을 낳아도 교룡에 대한 원망이 풀릴 뿐
벌이가 중요하니 몸 아낌도 잊고 바람도 두려워 않네
한 동네의 여염댁은 태반이 과부러니
추운 날씨에도 테왁을 지고 다녀야하네

【글자풀이】 • 蛟龍 : 비늘(鱗甲)이 있는 龍이다. 풍파를 일으키는 귀신을 뜻함. • 水鳴筒 : 아마 潛女(잠녀)들이 물에 떳을 때 몸을 의지하는 도구. 태왁이라 부름.

漁郎能釣不能網　　爲說南溟石嶼多
黠吏休言漁稅薄　　此翁元是拙催科

어부들 낚시질 능하고 그물질은 못해
남쪽 바다에 돌섬이 많기 때문이라지
교활한 아전들 어세 적게 거둔다 타박을 마오
이 늙은이는 원래 세금 최촉 미숙하오

【글자풀이】 • 催科 : 租稅(조세)의 납부를 최촉하는 일이다.

丘陵木石有淫祀　　百數巫男日覺肥
槎馬已灰錚鼓歇　　滿山蛇虺失神威

언덕마다 돌 나무마다 음신 섬겨 제사하네
수백의 무당과 박수들 날로 살쪄갔지
차마는 이미 재가 됐고 징과 북 소리 멎었고
산에 우굴대는 뱀들도 신위를 잃었는데

【글자풀이】 • 淫祀 : 사특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 淫神(음신)도 못된 귀신을 말한다. 즉 迷信(미신) 행위를 말함이다. • 巫男 : 남자 무당. • 槎馬 : 무속에서 짚으로 만든 배에 닭과 음식을 싫어 먼 바다로 떠나보내어 용왕을 위한다. 무속에서는 닭을 말이라 부른다.
【참고】 州志 俗尙淫祀, 每歲元日作儺戱.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戱, 以娛神. 又地多蛇虺 見灰色蛇以爲神, 禁不殺. 壬午牧使李衡祥撤淫祠.
(州志에 풍속이 淫神祭祀를 섬겨 매해 元日에 儺禮戱를 여는데, 말머리 모양의 뗏목을 만들어 채색된 비단으로 꾸미고, 말처럼 뛰는 춤을 추어서 神을 즐겁게 한다. 또 땅에 뱀들이 많은데, 悔色의 뱀을 보면 神으로 여겨 꺼리어 죽이지 않는다. 壬午年에 李衡祥 牧使가 淫神의 祠堂들을 없앴다.

使君秋設養老宴　　觀德亭前綺席高
四百餘人皆百歲　　紫驄冠下土猪毛

사또께서 가을들어 양노연을 열며
관덕정 앞 마당에 비단 자리 화려하다
백 살이 넘는 사백여 노인들
붉은 말총 모자에 오소리 털옷 입었구나

【글자풀이】 • 綺 : 무늬 놓은 비단. 아름답다. • 土猪 : 오소리.

塵封硯匣綠生印　　兒妓時擎掌上盃
牆角梅花開爛熳　　香風吹入小牕來

벼룻집엔 먼지 앉고 도장엔 이끼 돋았고
때마침 어린 기생 잔 받들고 들어온다
울담 구석엔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매화꽃
향기로운 바람 작은 창을 넘어온다

【글자풀이】 • 塵封 : 먼지가 덮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 牆角 : 울타리의 구석 모서리이다. • 擎 : 받들다. 높이 들다. • 起句는 일이 없어 한가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시인소개

• 郭期壽 : 經歷 未詳

• 具齡錫 : 經歷 未詳

• 權近 : 1352(공민왕 1)~1409(태종 9) 고려·조선. 문신. 학자. 초명은 진(晋), 자는 가원(可遠)·사숙(思叔), 호는 양촌(陽村), 본관은 안동(安東), 검교정승(檢校政丞) 희(僖)의 아들. 1367년(공민왕 16) 성균시(成均試)를 거쳐 이듬해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춘추관검열(春秋館檢閱)이 되고, 조선이 개국되자 1393년(태조 2) 예문춘추관학사(藝文春秋館學士)·대사성(大司成)·중추원사(中樞院使) 등을 역임하였다. 1401년(태종 1)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으로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에 봉해졌으며, 예문관 대제학(大提學)·대사성(大司成)·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세자좌빈객(世子左賓客)·이사(貳師) 등을 역임, 왕명으로 ≪동국사략(東國史略)≫을 찬(撰)했다. 문장에 뛰어났으며, 경학(經學)에도 밝아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구결(口訣)을 정했다. 또한 그의 ≪입학도설(入學圖說)≫은 후일 이황(李滉)·장현광(張顯光) 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성리학자(性理學者)이면서도 문학을 존중하여 시부사장(詩賦詞章)의 학을 실용 면에서 중시하고 이를 장려, 경학(經學)과 문학의 양면을 조화시켰다. 시호는 문충(文忠). [著書] 陽村集, 五經淺見錄, 四書五經口訣, 入學圖說, 東賢事略.

• 金坵 : 고려때 판관.

• 金麟厚 : 1510(중종 5)~1560(명종 15) 조선. 문신・유학자.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담재(澹齋), 본관은 울산(蔚山). 김안국(金安國)의 제자로 성균관에 들어가 이황(李滉)과 함께 학문을 닦고, 1540년(중종 35)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 등용되었다가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후에 정자(正字)・박사(博士)・설서(說書)・부수찬(副修撰)을 거쳐 부모의 부양을 위해 옥과 현령(玉果縣令)으로 나갔다. 명종이 즉위하고 1545년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난 후에는 병을 이유로 고향 장성(長城)에 돌아가 성리학의 연구에 정진, 누차 교리(校理)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성경(誠敬)의 실천을 학문의 목표로 하고, 이항(李恒)의 이기일물설(理氣一物說)을 반대하여 이기(理氣)는 혼합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문・지리・의약・산수・율력(律曆)에도 정통했다. 문묘(文廟)를 비롯하여 장성(長城)의 필암서원(筆巖書院), 남원의 노봉서원(露峰書院), 옥과(玉果)의 영귀서원(詠歸書院) 등에 제향(祭享), 시호는 문정(文正).
[著書] 河書集, 周易觀象篇, 西銘事天圖, 百聯抄解.

• 金尙憲 : 1570(선조 3)~1652(효종 3) 조선의 문신.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 석실산인(石室山人), 본관은 안동(安東), 도정(都正) 극효(克孝)의 아들. 윤근수(尹根壽)의 문인. 1596년(선조 29)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1608년(광해군 즉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을과(乙科)로 각각 급제, 정언(正言)・교리(校理)・직제학(直提學) 등을 역임, 1615년(광해군 7)에 지은 공성왕후책봉고명사은전문(恭聖王后冊封誥命謝恩箋文)이 왕의 뜻에 거슬리어 파직(罷職)되었다. 서인(西人)으로 인조반정(仁祖反正)에 가담하지 않은 청서파(淸西派) 영수로서 1624년(인조 2) 다시 등용되어 대사간・도승지(都承旨)・대사헌・대사성・대제학을 거쳐 예조・공조・형조・이조의 판서를 역임했다.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예조 판서로서 척화(斥和)를 주장한 탓으로 이듬해 강화되자 파직되고, 1639년 청나라에서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요구한 출병(出兵)을 반대하는 상소(上疏)를 하여 이듬해 심양(瀋陽)으로 잡혀갔다. 1645년 석방되어 귀국 후 좌의정・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등을 역임했다. 숭명파(崇明派)

로 절의(節義)가 있어 신망을 받았다. 글씨는 동기창체(董其昌體)를 잘 썼다. 효종 묘정(廟庭)에 배향(配享), 시호는 문정(文正). [著書] 野人談錄, 豊岳問答, 南漢紀略, 讀禮隨抄, 淸陰集.

• 金錫哲 : 제주목사. 1511년(중종 6) 도임. 동왕8년 체임되었다..

• 金聲久 : (인조 19)~1707(숙종 33) 조선. 문신. 자는 덕휴(德休), 호는 팔오헌(八吾軒), 본관은 의성(義城), 부제학(副提學) 우굉(宇宏)의 후손, 생원(生員) 추길(秋吉)의 아들. 의성 출신. 1662년(현종3)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669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갑과(甲科)로 급제, 지평(持平)·정언(正言)·대사성(大司成) 등을 거쳐 1693년(숙종 19) 강원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안동(安東)의 백록사(佰麓祠)에 제향(祭享). [著書] 八吾軒集

• 金壽翼 : 1600(선조 33)~1673(현종 14) 조선. 자는 성로(星老), 호는 청악(靑岳), 본관은 안동(安東), 현령(縣令) 광위(光煒)의 아들. 1624년(인조 2)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참봉(參奉)이 되고, 1630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兵科)로 급제, 전적(典籍)·예조랑(禮曹郞)·지제교(知製敎) 등을 역임했다. 1636년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 치욕적인 화의 성립 후 척화론자(斥和論者)로서 스스로 근신하다가 1640년 괴산 군수(槐山郡守), 이어 응교(應敎)·의주부윤(義州府尹)을 지냈다. 1648년 병조참의(兵曹參議), 이듬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부임했으나 탐관오리(貪官汚吏)로 탄핵받아 영남(嶺南)에 유배, 1685년(효종 9) 방환(放還)된 후 여주 목사(驪州牧使)를 잠시 지냈다. 시호는 충경(忠景). [저서(著書)] 청악집(靑岳集).

• 金永綏 : 1778년(정조 2) 도임. 운주당, 연무정, 남문루를 중수하고 십목장 경계의 담장과 광제교를 증축하였다. 정조 5년에 돌아갔다.

• 金容植 : 순조 년간에 제주에 들어와서 매계(梅溪) 이한진(李漢震)과 교유가 깊었다.

• 金應南 : 1546(명종 1)~1598(선조 31) 조선조의 문신, , 자는 중숙(重叔), 호는 두암(斗巖), 본관은 원주(原州), 충청도 병마절도사 말손(末孫)의 중손자. 1567년(명종 22) 생원이 되고 1568년(선조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예문관·홍문관에 등용되었다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다. 삼사(三司)에 있을 때는 동서 분쟁의 완화에 힘썼고, 1583년 동부승지(同副承旨)로서 병조판서 이이(李珥)를 논핵한 삼사(三司)의 송응개(宋應漑)·허봉(許篈)등이 도리어 유배당할 때 그들과 일당이라는 혐의를 받고 제주 목사로 좌천되었으나 성심껏 다스려 기민을 구휼, 2년 후 우승지(右承旨)가 되었다. 좌부승지·대사헌·대사간·부제학·이조 참판 등을 역임하고, 1591년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한성부 판윤(判尹)이 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에 병조 판서·부체찰사(副體察使)로서 평안도로 피란하는 선조를 모셨고, 이조 판서로서 왕을 따라 환도, 1594년 우의정, 1595년 좌의정이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에는 안무사로서 영남에 내려가 풍기(豊基)에서 병이 위독해져 귀경 후 사직했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으로 원성부원군(原城府院君)에 추봉(追封), 시호는 충정(忠靖)이라 했다.

1583년 10월, 최여림(崔汝霖)의 후임으로 부승지 김응남이 제주 목사로 도임하고 1585년(선조 18) 4월에 떠나니 선정을 베풀어서 추사비(追思碑)가 세워졌다.

• 金儆 : 1670(현종 11)~1737(영조13)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 본관은 풍산이며 경상도 영주(榮州)태생으로 자는 사달(士達). 호는 노봉(蘆峯)이고 아버지는 휘봉(輝鳳)이며 어머니는 봉화김씨 성휘(聖徽)의 딸이다. 1708년(숙종 34년) 문과에 급제 내첨시직장(內瞻寺直長)이 되었고 그 뒤 사헌부 감찰, 함경도 경성판관(鏡城判官), 함경도

사, 병조정랑, 충청도 옥천군수, 강원도 강릉부사, 사간원 정언, 제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지방의 수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양역(良役)의 여러 가지 폐단을 개선하기에 힘쓰는 등 목민관으로서의 치적을 많이 남겼다. 경상북도 오천서원(梧川書院)과 제주의 상현사(象賢祠)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노봉집> 4권이 있다.

• 金宗直 : 1431(세종 13)~1492(성종 23) 조선 세종 때의 성리학자(性理學者). 자는 계온(季昷), 호는 점필재(佔畢齋), 밀양(密陽) 출신. 1459년(세조 5) 문과에 급제하여 정자(正字)를 거쳐 경상도 병마평사(慶尙道 兵馬評事) 등을 역임했고, 성종 초 경연관(경연관)이 되어 한성부윤(한성부윤)·공조참판(공조참판)·형조판서·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학문과 문장이 뛰어나 영남학파(嶺南學派)의 종조(宗祖)가 되었고, 성종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자기 문인(門人)들을 관직에 많이 등용시켰으며 기성 세력인 훈구파(勳舊派)와 심한 반목과 대립을 일으켰다. 일찌기 ≪조의제문 : 弔義帝文≫을 지은 바 있는데 1498년(연산군 4) 제자 김일손(金馹孫)이 사관(史官)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사초(史草)에 넣은 것이 원인이 되어 무오사화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 총재관으로 ≪동국여지승람≫ 55권을 증수하고 서화(書畫)에도 뛰어났다. 밀양(密陽)의 예림서원(禮林書院), 선산의 금오서원(金烏書院) 등에 재향,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 金緻 : 1577(선조 10)~1625(인조 3). 조선. 문신. 자는 사정(士精), 호는 남봉(南峰)·심곡(深谷), 본관은 안동(安東), 부사(府使) 시회(時晦)의 아들. 1597년(선조 30)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설서(設書)를 거쳐 1608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다. 광해군 때 사복시정(賜僕寺正)·이조참의(吏曹參議)·동부승지(同副承旨)·대사간을 거쳐 병조참지(兵曹參知)에 올랐으나 독직사건으로 파면되었다. 인조반정(仁祖反正:1623) 후 한때 대북(大北)으로 몰려 유배,

뒤에 풀려 나와 동래부사(東萊府使)를 거쳐 1625년(인조 3)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천문(天文)에 밝았으나 재물을 탐내어 비난을 받았다. [著者] 深谷秘訣.

• 金泰廷 : 조선조의 문신, 선조 때의 제주목사. 1541년(중종 36) 생, 자는 형언(亨彦), 본관은 광산(光山), 백간(伯幹) 의 아들,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하생, 1561년(명종 16) 진사시(進士試)에 적중하고 1569년(중종 36) 문과알성시(謁聖試)에서 을과(乙科)로 급제, 벼슬은 전라도 관찰사에 이르렀다. 1581년(선조 14) 3월, 신각(申恪)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임하고 1582년 8월에 부친상을 만나 떠났으니 세상 사람들이 명환(名宦)이라 칭하였다. 제주향교를 고령전(高齡田)으로 옮겼다.

• 南九明 : 1661(현종 2)~1719(숙종 45) 조선. 문신. 자는 기서(箕瑞), 호는 우암(寓菴), 본관은 영양(英陽), 상주(尙周)의 아들. 1687년(숙종 13) 사마시(司馬試)에 합격, 1693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고향에 내려가 10여 년 간 은거, 형 노명(老明)의 강권으로 전적(典籍)을 지내고, 1711년(숙종 37) 제주통판(濟州通判)으로 부임, 흉년에 도민 구호에 공을 세웠다. 뒤에 순천부사(順天府使)를 지내고 다시 향리에 돌아가 풍류를 즐기다 죽었다. 순천에 동비(銅碑)가 세워졌다.

• 南涑 : 정의현감

• 南壽賢 : 經歷 未詳

• 閔暉 : 본관은 여흥(驪興), 민형손(閔亨孫)의 아들, 1479년(성종 10) 문과 별시(別試)에서 병과(丙科)로 급제, 벼슬은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다. 행정을 함에 있어 청렴하고 검소하였다. 1498년(연산군 4)

2월, 정인운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임하고 1500년(연산군 6) 8월에 상호군(上護軍)으로 제수되어 떠났다. 재임중 청렴하고 공정하게 선정을 베풀어 명환(名宦)이라 칭하였다.

• 朴成行 : 經歷 未詳

• 徐居正 : 1420(세종 2)~1488(성종 19) 조선. 문신・학자. 자는 강중(剛中), 초자(初字)는 자원(子元), 호는 사가정(四佳亭)・정정정(亭亭亭), 본관은 달성(達城), 목사(牧使) 미성(彌性)의 아들, 권근(權近)의 외손(外孫). 1444년(세종 26)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 사재감직장(司宰監直長)을 지내고 1451년(문종 1)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고 집현전박사(集賢殿博士)・부수찬(副修撰)・응교(應敎)를 역임, 1456년(세조 2)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 이듬해 문신정시(文臣庭試)에 장원했다. 후에 공조참의(工曹參議)・예조참의(禮曹參議)를 지내고 이조참의(吏曹參議)가 되어 1460년 조선시대 최초로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이 되었으며 1466년 발영시(拔英試)에 또 장원, 이후 6조(曹)의 판서를 두루 지내고 1470년(성종 1) 좌찬성(左贊成)에 올라 이듬해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으로 달성군(達城君)에 봉해졌다. 여섯 왕을 섬겨 45년간 조정에 봉사, 수찬 전형(銓衡)을 담당했으며, 세조 때 ≪경국대전(經國大典)≫≪동국통감(東國通鑑)≫의 편찬에 참여, 성종 때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또한 왕명으로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의 국역(國譯)했고, 성리학(性理學)을 비롯한 천문・지리・의약 등에 이르기까지 정통했다. 한편 시화(詩話)의 백미인 ≪동인시화(東人詩話)≫와 ≪동문선(東文選)≫등을 남겨 신라이래 조선 초기에 이르는 시문을 선집, 한문학을 대성했다. 대구의 귀암서원(龜巖書院)에 제향(祭享), 시호는 문충(文忠). [著書] 四佳亭集, 歷代年表, 太平閑話, 筆苑雜記, 滑稽傳.

• 宋相琦 : 1657(효종 8)~1723(경종 3) 조선. 문신. 자는 옥여(玉汝),

호는 옥오재(玉吾齋), 본관은 은진(恩津), 판서 규렴(奎濂)의 아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 1684년(숙종 10)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저작(著作)·박사(博士)·검열(檢閱)·수찬(修撰)을 지내고 1689년 부교리(副校理)가 되었다가 이해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나 남인이 집권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落鄕),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甲戌獄事)로 남인이 제거되자 장령(掌令)에 임명되었다. 1702년에 민회빈(愍懷嬪) 시호(諡號) 개정을 반대하다가 한때 파직, 곧 예조판서에 기용되고, 다시 이조 판서와 판돈령부사(判敦寧府事)를 지내다가 1722년(경종 2) 신임사화(辛壬士禍) 때 강진(康津)에 유배되어 배소(配所)에서 죽었다. 영조 초 관작이 복구되었다. 학문이 뛰어나고 문장에 능했다. 시호는 문정(文貞). [著書] 玉吾齋集

• 宋麟壽 : 1487(성종 18)~1547(명종 2) 조선. 문신. 자는 미수(眉叟), 호는 규암(圭庵), 본관은 은진(恩津), 건원릉 참봉(健元陵參奉) 세량(世良)의 아들. 1521년(중종 16)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정자(正字)로 있다가 1523년 사가독서(賜暇讀書) 했으며, 1526년 수찬(修撰)을 거쳐 대간(臺諫)으로 있을 때 김안로(金安老)의 재집권을 막으려다가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좌천, 1534년 병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김안로 일당의 미움을 사서 사수(泗水)로 유배되었다. 1537년(중종 32) 김안로 등이 제거되자 예조참의(禮曹參議)·승지(承旨)를 거쳐 병조·예조의 참판(參判)을 역임, 1544년 형조참판으로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유생(儒生)들에게 성리학을 강론했다. 그 뒤 대사헌을 거쳐서 1545년 을사사화(乙巳士禍)에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에서 파직, 청주(淸州)에 은거중 윤원형·이기 등에 의해 사사(賜死)되었다. 성리학(性理學)의 대가로 선비들의 추앙을 받았다. 청주(淸州)의 신항서원(莘巷書院), 문의(文義)의 노봉서원(魯峰書院), 전주(全州)의 화산서원(華山書院), 제주(濟州)의 귤림서원(橘林書院)에 제향(祭享), 시호는 문충(文忠). [著書] 奎庵集

• 宋載恒 : 經歷 未詳

• 申纘 : 제주교수 여러 공해의 가문이있다.

• 沈樂洙 : 1739(영조 15)~?. 조선 정조 때의 문신. 자는 경문(景文), 호는 은파(恩坡).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을 거쳐 1779년 홍문관에 등용되었다. 교리(校理)로 있을 때 대신 홍국영(洪國榮)의 죄를 탄핵하여 한때 삭직되었다. 그후 수찬(修撰)으로 있을 때 김귀주(金龜柱)를 탄핵하다가 원배되었다. 그후 수찬으로 재기용됐다가 제주위유안핵순무시재어사(濟州慰諭按覈巡撫試才御史)로 파견됐다. 이듬해 제주도에 기근이 들자 제주 목사가 되어 기민(飢民)의 구제에 만전을 기했다. 죽은 뒤 1801년(순조 1)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게 된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에 의해 앞서 그녀의 오빠 김귀주를 탄핵했던 일로 벼슬을 추삭(追削)당했다가 1807년 아들 노숭(魯崇)의 상소로 신원(伸寃)되었다.

• 沈演 : 1587(선조 20)~1646(인조 24) 조선. 문신. 자는 윤보(潤甫), 호는 규봉(圭峰), 본관은 청송(靑松), 진사(進士) 대형(大亨)의 아들. 1624년(인조 2)에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를 공주(公州)에 호종, 내시교관(內侍敎官)이 되고,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또 왕을 모시고 강화(江華)에 들어가 조지서 별제(造紙署別提)·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지냈다. 이 해 식년문과(式年文科)에 갑과(甲科)로 급제, 사섬시직장(司贍寺直長)이 되었다. 1633년 광산 현감(光山縣監)으로 부임, 선정을 베풀어 현(縣)으로 강등되었던 것을 다시 주(洲)로 승격시키고 목사(牧使)가 되었다. 1635년(인조 13) 경상도 관찰사에 승진, 이듬해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군대를 이끌고 쌍령(雙嶺)싸움에 나갔으나 패배, 이어 문경에 이르러 군사를 모아 재기를 도모하던 중 강화가 성립되었다. 뒤에 패전의 책임을 지고 임피(臨陂)에 유배되었다가 1638년 등용되어 제주목사(濟州牧使)로 부임, 서정을 베풀어 비변사당상(備邊司堂上)이 되었다. 이어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거쳐 승지(承旨)·도순찰사(都巡察使)·평

안도와 경기도의 관찰사 등을 역임, 1644년(인조 22)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임지에서 병사했다.

• 沈連源 : 1491(성종 22)~1558(명종 13) 조선. 문신. 자는 맹용(孟容), 호는 보암(保庵), 본관은 청송(靑松), 영의정 회(澮)의 증손, 사인(舍人) 순문(順門)의 아들. 김안국(金安國)의 문인. 1516년(중종 11) 생원(生員)이 되고, 1522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승문원 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를 거쳐 검열(檢閱)·대교(待敎)·봉교(奉敎) 등을 역임했다. 1526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병과(丙科)로 급제, 1531년 검상(檢詳)·사복시부정(司僕寺副正)을 거쳐 진휼경차관(賑恤敬差官)에 뽑혀 기민(飢民)을 구제했고, 1533년 의주부사(義州府使)에 올랐다. 1537년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고 2년 후 예조참판(禮曹參判)으로 진향사(進香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와 병조참의(兵曹參議)·대사간을 역임, 1541년 대사성, 이듬해 특진관(特進官)·형조참판(刑曹參判), 1543년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다음 해 호조참판(戶曹參判)이 되었다. 1545년(명종 즉위) 호조판서로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직, 이 해 을사사화(乙巳士禍)가 일어나자 위사공신(衛社功臣) 2등으로 청성군(靑城君)에 봉해진 후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가 되어 ≪인종실록(仁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했다. 1547년(명종 2) 좌참찬(左參贊)·예조판서·우찬성(右贊成) 등을 역임, 우의정에 오르고 좌의정을 거쳐 1551년 영의정이 되었고, 1558년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 명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 시호는 충혜(忠惠).

• 安墊 : 經歷 未詳

• 元相曉 : 대정현감

• 劉淡 : 순조 년간에 제주에 들어와 살았다. 매계(梅溪) 이한진(李漢

震)과 교유가 깊었다.

• 柳思瑗 : 1541(중종 36)~1608(광해군 즉위) 조선. 문신. 초명은 응룡(應龍), 자는 경오(景晤), 초자는 운보(雲甫), 본관은 문화(文化), 강화부 경력(江華府經歷) 질(秩)의 아들.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585년(선조 18)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승문원(承文院)에 보직되고, 이어 전적(典籍)·병조좌랑(兵曹佐郎)을 역임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성천(成川)에 피란 간 세자를 시종, 전적(典籍)·평안도도사(平安道都事)·장령(掌令)·문학(文學) 등을 지냈다. 1596년 청병(請兵)을 위한 급고주문사(急告奏聞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이듬해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명군(明軍)을 영남 지방에 인도했으며, 이듬해 호조 참의(戶曹參議)·여주목사(驪州牧使), 1601년 고성 군수(高城郡守)를 역임했다.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3등으로 문흥군(文興君)에 봉해졌으며,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겸 부총관(副摠管?)이 되고, 1606년 진주부사(陳奏副使)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다.

• 李慶億 : 1620(광해군 12)~1673(현종 14) 조선. 문신. 자는 석이(錫爾),호는 화곡(華谷), 보관은 경주(慶州), 시발(時發)의 아들. 1644년(인조 22)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장원, 1653년(효종 4) 순안어사(巡按御使)가 되어 영남지방을 순찰했다. 이듬해 정언(正言)·수찬(修撰)을 걸쳐 1659년 대사간(大司諫)이 되고 1664년(현종 5) 부제학(副提學), 이듬해 다시 대사간·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도승지(都承旨)를 역임, 1668년 대사헌으로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와 이조·호조·형조·예조의 판서를 지냈다. 1672년(현종 13)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익(文翼 : 세종원년에 제목사로 다녀갔다.). [著書] 華谷遺稿

• 李慶徽 : 1617(광해군 9)~1669(현종 10) 조선. 문신. 자는 군미(君

美),호는 묵호(墨好)·춘전거사(春田居士), 본관은 경주(慶州), 형조판서 시발(時發)의 아들. 1633년(인조 11)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644년(인조 22)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승문원(承文院)에 등용된 뒤 이듬해 검열(檢閱)을 거쳐 1647년 지평(持平)에 올랐다. 1653년(효종 4) 행홍문관수찬(行弘文館修撰)·지제교(知製敎) 겸 경연 검토관(經筵檢討官)을 역임하고, 춘추관 기사관(春秋館記事官)으로 ≪인조실록(仁祖實錄)≫편찬에 참여, 헌납(獻納)이 되었다. 1665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대사성을 겸임, 1669년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시호는 익헌(翼憲).

• 李禮延 : 1767(영조 43) -? 조선 후기의 문신, 충청도 목천(木川)에서 출생하고 자는 성정(聖庭)이며 호는 녹하(麓下)이다.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이지응(李址膺)의 아들이고 1809년(순조 9) 증광전시(增廣殿試)에서 을과로 급제하였다.

1830년(순조 30) 3월, 이행교(李行敎)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임하고 1832년 2월에 파직되어 떠났다. 재임중인 1831년 화촌(花村-舊左邑細花)에 좌학당(左學堂), 명월촌(明月村)에 우학당(右學堂)을 세우고, 재생(齋生)과 늠료(廩料)를 설정하였다. 또 공진정(拱辰亭)을 삼천서당(三泉書堂) 동쪽에 옮겨 세웠다.

• 李明漢 : 1595(선조 28)~1645(인조 23) 조선. 문신. 자는 천장(天章), 호는 백주(白洲), 본관은 연안(延安), 좌의정 정귀(廷龜)의 아들. 1616년(광해군 8)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정자(正字)·전적(典籍)을 거쳐 공조 좌랑(工曹左郞)에 이르러 앞서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났을 때 이에 참여치 않았다 하여 파면되었다.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경연 시독관(經筵侍讀官)이 되고, 이괄(李适)의 난 때 왕을 공주(公州)로 호종(扈從)하여 8도(道)에 보내는 교서(敎書)를 지었다. 여러 조(曹)의 참의(參議), 대사간·부제학(副提學)을 지내고 1639년(인조 17) 병조 참의(兵曹參議)·도승지(都承旨)

를 거쳐 1641년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이 되고, 이해 대사헌·도승지 겸 대제학(大提學)·이조 판서 등을 역임, 1643년 이경여(李敬輿)·신익성(申翊聖) 등과 함께 척화파(斥和派)라 하여 심양(瀋陽)에 잡혀가 억류되었다. 이듬해 세자 이사(世子貳師)가 되어 볼모로 잡혀간 세자를 모시러 심양에 갔으며, 1645년에 명나라와 밀통(密通)하는 자문(咨文)을 썼다 하여 다시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뒤에 풀려 나와 예조 판서에 이르렀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고, 시와 글씨에 뛰어났다. 병자호란 때 척화파로 심양까지 잡혀갔던 의분을 노래한 시조(時調) 6수가 전한다. 시호는 문정(文靖). [著書] 白洲集

• 李選 : 1632(인조 10)~1692(숙종 18) 조선. 문신. 자는 택지(擇之), 호는 지호(芝湖)·소백산인(小白山人), 본관은 전주(全州), 우의정 후원(厚源)의 아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 1657년(효종 8) 진사(進士)가 되고, 1664년(현종 5)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에 초임(初任), 이듬해 봉교(奉敎), 1667년 정언(正言), 다음해 교리(校理)·이조 좌랑(吏曹佐郞) 등을 역임하고, 1673년 응교(應敎)로 재직중 노산군(魯山君)의 묘소(墓所)에 시제(時祭)하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의 신원(伸寃)을 상소했다. 1675년(숙종 1)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있다가 송시열이 쫓겨나고 남인(南人)이 득세하자 사직, 1680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함경도 관찰사로 등용, 1683년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 1686년(숙종 12)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예조참판(禮曹參判)을 역임,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온 후 이조 참판을 지내고,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다시 서인이 숙청 당하자 기장(機張)에 유배되어 배소(配所)에서 죽었다. 1694년 신원(伸寃)되었다. 시호는 정간(正簡). [著書]芝湖集
[編書] 諡法摠記, 黃岡先生實記.

• 李承召 : 1422(세종 4)~1484(성종 15) 조선. 문신. 자는 윤보(胤保),

호는 삼탄(三灘), 본관은 양성(陽城), 고려의 시중(侍中) 춘부(春富)의 현손(玄孫). 1447년(세종 29) 식년문과(式年文科)에 장원, 집현전 부수찬(集賢殿副修撰)이 되고, 같은 해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 1450년 부교리(副校理), 이듬해 사가독서(賜暇讀書)한 후 응교를 거쳐 1454년(단종 2) 장령(掌令)이 되었다. 이어 좌필선(左弼善)·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보덕(輔德)을 역임, 1457년(세조 3)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이 되어 왕명으로 ≪명황계감(明皇誡鑑)≫을 한글로 옮겼고,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대사성(大司成)에 올랐다. 이듬해 이조·형조·예조의 참의(參議)를 역임한 뒤 호조 참의(戶曹參議)로서 사은부사(謝恩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468년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을 겸직, 1471년(성종 2) 좌리공신(佐理功臣) 4등으로 양성군(陽城君)에 봉해지고 예조판서에 승진, 우참찬(右參贊)을 거쳐 1481년 정헌대부(正憲大夫)에 올라 이조·형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이듬해 좌참찬(左參贊)이 되었다. 당대의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으며, 예악(禮樂)·음양(陰陽)·율력(律曆)·의약(醫藥)·지리(地理)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조예가 깊었다. 1474년(성종 5) 신숙주(申叔舟)·강희맹(姜希孟) 등과 함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편찬했다. 시호는 문간(文簡) [著書] 三灘集

• 李約東 : 1416(태종 16)~1493(성종 24) 조선. 문신. 자는 춘보(春甫), 호는 노촌(老村), 본관은 성주(星州), 현령(縣令) 덕손(德孫)의 아들. 1441년(세종 23)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1451년(문종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 사섬시직장(司贍寺直長)을 거쳐 1454년(단종2) 감찰(監察)·황간 현감(黃澗縣監) 등을 역임했다. 1458년(세조 4) 지평이 되고, 이듬해 사직했다가 1464년 선전관(宣傳官)으로 복직, 1466년 종부시정(宗簿寺正)·구성부사(龜城府使) 등을 역임, 1468년 병으로 사직했다. 1470년 제주목사(濟州牧使)에 발탁되어 관아 이속(吏屬)들의 부정을 단속하고 민폐를 근절, 공물(貢物)의 수량을 감하여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1474년(성종 5)경상

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 1477년 대사헌이 되어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78년 경주부윤(慶州府尹), 1482년 호조참판(戶曹參判), 1491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치사(致仕)했다. 제주 목사로 있다가 떠날 때는 가지고 있던 채찍도 그 곳의 물건이라 하여 두고 오니 후에 도민들이 채찍을 그려 그의 청렴함을 기념했다. 경사(經史)에 밝았고, 김종직(金宗直)과 교유가 두터웠다. 금산(錦山)의 경렴서원(景濂書院)에 제향(祭享), 시호는 평정(平靖).

• 李羽晋 : 經歷 未詳

• 李源達 : 1783(정조 7) -? 조선 후기의 문신, 자는 백심(伯心)이고 본관은 전주이며 현묵(顯默)의 아들이다. 1835년(헌종 1)문과 증광시(增廣試)에서 을과로 급제하였다. 1837년(헌종 3) 11월, 조우석(趙禹錫)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임하고 1839년 3월에 사직을 하고 떠났다. 거사비가 있다.

• 李源祚 : 1792(정조 16)~1871(고종 8) 조선. 문신. 초명은 영조(永祚), 자는 주현(周賢), 호는 응와(凝窩), 본관은 성산(星山), 형진(亨鎭)의 아들, 정언(正言) 규진(圭鎭)에게 입양(入養). 1809년(순조 9) 증광문과(增廣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1837년(헌종 3) 정언(正言)을 거쳐 1850년(철종 1) 경주 부윤(慶州府尹)에 재직중 경상좌도 암행어사(慶尙左道暗行御史) 김세호(金世鎬)의 탄핵으로 삭직(削職)당했다. 뒤에 등용되어 1854년 대사간에 오르고 공조 판서에 이어 1856년 대사간에 재임되었다. 시호는 정헌(定憲). 1841년(헌종 7년)에 제주목사에 도임하여 동왕 9년에 떠나갔다. [著書] 凝窩集

• 李元鎭 : 1594(선조 27)~? 조선. 문신. 자는 승경(昇卿), 호는 태호(太湖), 본관은 여주(驪州), 지완(志完)의 아들. 1630년(인조 8)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삼사의 벼슬을 역임, 1644년

(인조 22)집의(執義)가 되고, 이듬해 동래부사(東萊府使)에 올랐다. 1653년(효종 4) 제주목사(濟州牧使)로 하멜(Hamel) 등 화란인(和蘭人)이 표착하자 이들을 서울에 압송했으며, ≪탐라지(耽羅志)≫를 편수했다. 현종 때 부호군(副護軍)을 지내고 관찰사에 이르렀다.

• 李益泰 : 1633(인조 11)~? 조선조 때의 문신, 숙종 때의 제주목사. 전주(全州) 태생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대유(大裕)이다. 1668년(현종 9) 문과 별시(別試)에서 을과(乙科)로 급제, 벼슬은 승지(承旨)에 이르렀다.

1694년(숙종 20) 7월 이기하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임하고 1696년 9월에 떠났다. 재임중인 1694년에 연무정(演武亭), 운주당(運籌堂)을 중수하였다. 선조(宣祖) 임금의 어필(御筆)을 개간케 하여 모든 공해(公廨:관청)의 관문의 액자로 만들어 게시하였다. 호적을 보수하던 곳이다. 1695년 봄에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을 귤림서원(橘林書院)에 배향(配享), 본래 충암묘(冲庵廟)가 있어 김정(金淨)을 제향하더니 1682년 신경윤(愼景尹) 목사가 귤림서원을 개원하여 김정(金淨)·송인수(宋麟壽)·김상헌(金尙憲)·정온(鄭蘊) 등 사현(四賢)을 배향하여 왔으며 이 때에 와서 송시열을 배향하였다.

• 李翊漢 : 1659(효종 10)~? 조선. 문신. 자는 명숙(明淑), 본관은 전주(全州), 상연(尙淵)의 아들. 1700년(숙종 26) 생원(生員)으로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에 장원. 장령(掌令)을 거쳐 필선(弼善)·헌납(獻納)을 지내고, 1709년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10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듬해 나주 목사(羅州牧使), 1714년 좌부승지(左副承旨) 등을 역임하고 1722년(경종 2)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다. 이듬해 승지(承旨)가 된 후 경기 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를 거쳐 1727년(영조 3)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지냈다. 1732년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1734년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역임했다.

• 李齊賢 : 1287(충열왕 13년)~1367. 초명은 지공(之公)이며 자는 중사(仲思), 호는 익재(益齋), 본관은 경주이며 검교정승(檢校政丞) 진(瑱)의 아들이다. 15세에 등과하여 6대왕을 섬기면서 내번재상(宰相)에 올랐다. 성리학을 처음으로 전교(傳敎)한 대학자이며 시와 문에 뛰어난 문호(文豪)이다. 공미왕 묘정에 배향되었다.

• 李衡祥 : 1653(효종 4)~1733(영조 9) 조선. 문신. 자는 중옥(仲玉), 호는 병와(甁窩)·순옹(順翁), 본관은 전주(全州),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 1677년(숙종 3)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680년(숙종 6)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호조 좌랑(戶曹左郞)을 지내다가 덕유산에 도적이 창궐하자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 추천되어 금산군수(錦山郡守)로 부임, 도적을 토평(討平)하고 선정을 베풀었다. 1703년(숙종 29) 제주목사(濟州牧使)가 되어 3읍(邑)의 성묘(聖廟)를 수리, 덕망 높은 선비를 뽑아 교학(敎學)을 담당케 했으며, 三姓詞를 건립하는 한편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장려하여 송덕비(頌德碑)가 세워졌다. 1727년(영조 3)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영천(永川)에 홍연정(洪然亭)을 세워 학문에 열중하면서 ≪둔서록(遯筮錄)≫이라는 팔외십악의 만언소(萬言疏)를 초안했다. 1728(영조 4) 가선대부(嘉善大夫)가 되고, 소론(少論)의 일파인 이인좌(李麟佐)가 난을 일으키자 경상도 소모사(召募使)가 되었으나 같은 소론으로서 당론을 발설했다는 무고로 한때 투옥되었다. 후에 한성부윤(漢城府尹)에 이르렀다. 1796(정조 20)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고, 영천(永川)의 성남서원(城南書院)에 제향(祭享). [著書] 甁窩集

• 李熙 : 經歷 未詳

• 林悌 : 1549(명종 4)~1587(선조 20) 조선. 문인. 자는 자순(字順), 호는 백호(白湖)·겸재(謙齋)·풍강(楓江)·소치(嘯痴). 1577년 문과에 급제 후 예조정랑(禮曹正郞) 겸 지제교(知製敎)를 지내다가 동서

(東西) 양당의 싸움을 개탄하고 명산을 찾아다니며 여생을 마쳤다. 당대의 명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고, 호방·쾌활한 시풍(詩風)으로 그의 작품(作品)이 널리 애송되었다. [著書] 花史, 愁城志, 白湖集, 浮碧樓觴詠錄.

• 林亨秀 : 1504(연산군 10)~1547(명종 2) 조선. 문신. 자는 사수(士遂), 호는 금호(錦湖), 본관은 평택(平澤). 1531년(중종 26)에 진사(進士)가 되고 1535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주서(注書)·기사관(記事官)·사서(司書) 등을 지내고 사가독서(賜暇讀書)한 후 설서(說書)·수찬(修撰)·회령 판관(會寧判官)·전한(典翰) 등을 거쳐 부제학(副提學)에 승진했다. 1545년(명종 즉위) 을사사화(乙巳士禍)때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쫓겨났다가 파면되고 1547년(명종 2) 양재역(良才驛) 벽서(壁書) 사건이 일어나자 소윤(小尹) 윤원형(尹元衡)에게 대윤 윤임(尹任)의 일파로 몰려 절도안치(絶島安置)된 뒤 곧 사사(賜死)되었다. 학문과 문장에 뛰어났다. 1702년(숙종 28) 나주(羅州)의 송재서원(松齋書院)에 제향(祭享). 인종 원년 제주목사에 도임. 다음해에 10월에 떠나갔다.[著書] 錦湖遺稿

• 張寅植 : 조선 후기의 무신, 헌종 때의 제주목사. 호는 묵암(默庵)이다. 1848년(헌종 14) 3월, 이의식(李宜植)의 후임으로 제주에 부임하고 1850년 6월에 사직하고 떠나자 그를 기리어 동비(銅碑)를 세웠다. 1848년 정의현감 강이진(康履鎭)과 수산진 조방장 김기찬(金沂璨)이 보고에 의해 방두포(方頭浦) 해변에 일본인 선장 다나카(田中情四郎:49) 등 5명이 내박(來泊)하니 문정(問情)하고 감시하였다.

• 鄭道傳 : ?~1398(태조 7) 고려·조선. 문신·학자. 자는 종지(宗之), 호는 삼봉(三峰), 본관은 봉화(奉化), 형부상서(刑部尙書) 운경(云敬)의 아들. 이색(李穡)의 문인. 1362년(공민왕 11)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1375년(우왕 1) 성균사예(成均司藝)·예문응교(藝文應

敎)·지제교(知製敎) 등을 역임하고, 이 해 권신 이인임(李仁任)·경복흥(慶復興) 등의 친원 배명(親元排明) 정책을 반대하다 회진현(會津縣:羅州)에 유배되었다. 2년 후 풀려 나와 후진들을 양성하다가 1383년 동북면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 이성계(李成桂)의 참모가 되었고, 이듬해 전교 부령(典敎副令)을 거쳐 성절사(聖節使) 정몽주(鄭夢周)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385년 성균 좨주(成均祭酒)·남양부사(南陽府使)를 지내고, 이성계의 천거로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에 승진, 1388년 위화도(威化島)의 회군(回軍)을 계기로 신진 세력이 집권하게 되자, 이성계의 우익(右翼)으로서 지공거(知貢擧)·지신사(知申事)를 역임, 조준(趙浚)의 전제개혁안(田制改革案)을 단행토록 건의하고 척불(斥佛)을 주장하며 조민수(曺敏修) 등 구세력을 탄핵, 유배케 하여 조선 개국의 정지작업을 시작했다. 조준·남은(南誾) 등과 이성계를 추대, 조선건국 후 개국공신 1등으로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가 되어 사은 겸 정조사(謝恩兼正朝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1392년(태조 3) 한양천도(漢陽遷都)를 주장하여 실현케 했다. 이듬해 정총(鄭摠) 등과 ≪고려사(高麗史)≫ 37권을 찬진(撰進)했고, 1397년 동북면 도선무순찰사(東北面都宣撫巡察使)가 되어 성을 수축하고 역참(驛站)을 신설했으며 성균 제조(成均提調)가 되었다. 이듬해 명나라에서 정조사(正朝使)가 올린 표문이 잘못되었다 하여 기초자를 잡아오라 하자 그는 명나라와 실력으로 항쟁할 것을 주장, 군사의 훈련, 군량미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다가 남은 등과 방석(芳碩)을 옹호하고 정실 소생의 왕자들을 죽이려 한다는 혐의로 방원(芳遠:太宗)에게 참수(斬首)되었다(제1차 왕자의 난). 유학(儒學)의 대가로 조선 개국 후 군사·외교·성리학·역사·행정·저술 등 다방면에 걸쳐 조선의 건국 작업에 활약했으며, 척불숭유(斥佛崇儒)를 국시로 삼게 하여 유학의 발전을 기했다. 글씨에 뛰어났다. 시호는 문헌(文憲).

[作品] 納氏歌, 靖東方曲, 文德曲, 新都歌 [著書] 三峰集, 經濟六典, 經濟文鑑, 心氣理篇佛, 氏雜辨, 心問天答, 陳法書, 錦南雜題.

• 鄭曙 : 經歷 未詳

• 鄭運經 : 經歷 未詳

• 鄭岦 : 1574(선조 7)~1629(인조 7) 조선. 문신. 자는 여수(汝秀), 본관은 연일(延日), 돈령부 주부(敦寧府主簿) 경순(景淳)의 아들. 1600년(선조 33)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이 해 검열(檢閱)이 되고, 정언(正言)·헌납(獻納)·지평(持平)을 거쳐 이조 좌랑(吏曹佐郎)에 이어 이조 정랑(吏曹正郎)으로 승진했다. 이듬해 임진왜란 때 소실(燒失)된 역대의 실록(實錄) 재간(再刊)에 참여했으며, 부교리(副校理)를 거쳐 1607년 다시 이조 정랑이 되었다. 광해군 초 지평(持平)으로 임숙영(任叔英)의 과방(科榜) 삭탈을 반대, 여러 번 직간(直諫)했다. 1611년(광해군 3) 집의(執義)·사인(舍人)·전한(典翰)을 역임, 1613년 승지(承旨)가 되었다. 1616 ≪선조실록(宣祖實錄)≫ 편찬에 참여, 1618년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이어 형조 참의(刑曹參議)를 거쳐 1621년 황연도 관찰사(黃延道觀察使)가 되었으며, 뒤에 강원도와 충청도의 관찰사 등을 지냈다. 1623년 인조가 즉위하자 도승지(都承旨)로서 광해군 때 제주(濟州)에 안치(安置) 되었던 연흥부인(延興夫人)을 모시고 돌아와 인목대비(仁穆大妃)로부터 보검(寶劍)을 상으로 받았다. 1624년(인조 2) 회답사(回答使)로 일본에 건너가서 도꾸가와(德川家光)의 습위식(襲位式)에 참가, 이듬해 포로로 잡혀갔던 146명을 데리고 돌아와 공조 참판(工曹參判)에 올랐다.

• 趙誠立 : 선조 37년(1604) 4월에 구황어사(救荒御使)로 제주에 다녀갔다.

• 趙泰采 : 1660(현종 1)~1722(경종 2) 조선. 문신. 자는 유량(幼亮), 호는 이우당(二憂堂), 본관은 양주(楊州), 군수(郡守) 희석(禧錫)의 아들, 태구(泰耉)의 종형(從兄). 1686년(숙종 12)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수찬(修撰)·교리(校理)·공주 목사

(公州牧使)·정언(正言)·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호조참판(戶曹參判) 등을 역임, 1703년(숙종 29) 호조 판서에 올랐다. 1713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동지사(冬至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오고, 1715년 우의정이 되었다. 이듬해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전직, 1720년(경종 즉위) 사은사(謝恩使)로 다시 청나라에 갔다 이듬해 귀국 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健命)·이이명(李頤命) 등과 함께 노론(老論) 4대신의 한사람으로 세제(世弟:英祖) 책봉을 건의, 이를 실현시켜 세제로 하여금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게 했으나,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 등 소론(少論)의 반대로 대리청정의 명이 철회되자 사직하고, 이어 소론의 과격파 김일경(金一鏡)의 사주를 받은 목호룡(睦虎龍)의 고변(告變)으로 진도(珍島)에 유배된 뒤 사사(賜死)되었다. 1725년(영조 1) 복관(復官)되었다. 과천(果川)의 사충서원(四忠書院), 진도(珍島)의 봉암사(鳳巖祠)에 제향(祭享), 시호는 충익(忠翼). [著書] 二憂堂集

• 趙緯韓 : 1558(명종 13)~1649(인조 27) 조선. 문신. 자는 지세(持世), 호는 현곡(玄谷)·서만(西巒)·소옹(素翁), 본관은 한양(漢陽), 참판(參判) 방언(邦彦)의 증손. 1601년(선조 34)에 사마시(司馬試)를 거쳐 1609년(광해군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갑과(甲科)로 급제, 지평(持平)·수찬(修撰)을 지내고 1613년(광해군 5) 계축옥사(癸丑獄事) 때 파직 당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사성(司成)에 등용, 이어서 장령(掌令)·집의(執義) 등을 지내고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을 토벌하여 품계(品階)가 오르고, 1627년 정묘호란(丁卯胡亂) 때는 관의병(官義兵)을 거느리고 항전, 동부승지(同副承旨)·직제학(直提學)을 역임한 뒤 공조참판(工曹參判)에 이르렀다. 명필(名筆)이었으며, 그의 작품으로 당시 어지러운 정치에 시달린 민생고를 그린 ≪유민탄(流民嘆)이 있었다 하나 전해지지 않는다. [著書] 玄谷集

• 崔啓翁 : 1654(효종 5)~? 조선. 문신. 자는 내심(乃心), 호는 동량(幢梁), 본관은 삭녕(朔寧),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행(荇)의 손자, 휘지(徽之)의 아들. 남원(南原) 출신. 1681년(숙종 7)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설서(說書)를 거쳐 1695년 지평(持平)으로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후 정언(正言)·지평을 지내고, 1704년 장령(掌令)으로서 앞서 단종이 폐위될 때 이를 지지한 대신들의 관작을 추탈(追奪)을 주장하다 파직, 1706년 보덕(輔德)으로 기용되고 집의(執義)·사간(司諫)을 역임, 홍문관(弘文館)에 등용되었다가 1710년 과격한 상소를 하여 제주목사(濟州牧使)로 좌천당했다.

• 崔 溥 : 1454(단종 2)~1504(연산군 10) 조선 연산군 때의 문신. 자는 연연(淵淵), 호는 금남(錦南). 1482년(성종 13) 진사로 문과(文科)에 급제, 교서관(校書館)의 저작(著作)·박사(博士)·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수찬(修撰)을 지냈다. 1486년 문과중시(文科重試)에 을과로 급제, 사가독서를 한 뒤 교리로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람≫ 등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1487년 제주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부임했다가 이듬해 부친상을 당해 돌아오던 중 풍랑으로 중국, 절강성 영파부에 표류하여 반년만에 귀국했다. 왕명으로 ≪표해록 : 漂海錄≫을 저술, 중국 연안의 해로·기후·산천·도로·관부(官府)·풍속·민요 등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수차(水車)의 제작과 이용법을 배워 뒤에 충청도 지방의 한발 때 이를 사용케 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때 김종직의 문인으로 붕당을 조직하여 국정을 비방했다는 죄로 단천(端川)에 유배,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때 참형당했다.

• 崔海山 : 1380(우왕 6)~1443(세종 25) 조선. 무신. 본관은 영천(永川), 검교참찬문하부사(檢校參贊門下府事) 무선(茂宣)의 아들. 1395년(태조 4) 아버지의 유명(遺命)에 따라 아버지의 저서 ≪화약수련법

(火藥修鍊法)≫ ≪화포법(火砲法)≫을 통해 그 비법(秘法)을 전수 받고 1400년(태종 즉위) 군기시(軍器寺)에 등용되어 주부(注簿)에 올랐다. 1408년 경기우도 병선군기점고별감(京畿右道兵船軍器點考別監), 이어 군기감승(軍器監丞)·군기소감(軍器少監)을 지내고, 1415년 좌군절제사(左軍節制使)로서 파저강(婆猪江) 야인 정벌 때 군기(軍機)를 누설한 죄로 파직되었다. 그후 복직되어 세종 초에 대호군(大護軍), 1425년(세종 7) 군기감사(軍器監事), 1431년 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이듬해 우참찬(右參贊), 1433년에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좌군절제사(左軍節制使), 다음해 제주 안무사(濟州按撫使), 1436년(세종 18)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지냈다. 그 동안 화차(火車)·완구(碗口)·발화(發火)·신포(信砲) 등 신화기(新火器)를 창제(創製) 했으며, 1400년 당시 우리나라 보유량이 화약 4근 4냥, 화기 2백여병(柄)이던 것을 1418년에는 화약 6천 9백여근, 화기 1만 3천 5백여병, 화포 발사군(火砲發射軍) 1만 여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군비를 정비 보충시켜 화약과 화기의 발전에 공헌했다.

• 韓鼎運 : 1741(영조 17)-? 조선 후기의 문신. 경기도 통진(通津-서울에 편입)에서 출생하고 자는 사규(士揆)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1768년(영조 44) 문과 식년전시(式年殿試)에서 병과로 급제하였고 벼슬은 참의(參議)에 이르렀다.

1807년(순조 7) 3월, 박종주(朴宗柱)의 후임으로 제주에 도임하고 1809년 1월에 떠났다. 1807년 공진정(拱辰亭)을 중건하고 1808년 봄 주성 동성문에 있는 연상루(延祥樓-일명 濟衆樓)를 중수하였다.

• 洪暹 : 1504(연산군 10)~1585(선조 18) 조선 선조때 문신, 자는 퇴지(退之), 호는 인재(忍齋), 영의정 언필(彦弼)의 아들, 조광조(趙光祖)의 문인. 1531년(중종 26)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수찬(修贊)·부제학(副提學)·대사헌이 되었다. 1552년(명종 7) 청백리

에 녹선(錄選)되었으며, 1558년 좌찬성(左贊成)으로 이조판서를 겸하고 이듬해 대제학(大提學)을 겸하게 되자 삼대임(三大任)을 겸할 수 없다 하여 좌찬성을 사임했다. 1567년 예조판서가 되었다가, 이 해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하자 원상(院相)으로 서정(庶政)을 처결하고 이어 우의정에 올랐다. 1571년(선조 4) 좌의정이 되어 1573년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영의정을 세 번에 걸쳐 중임(重任), 1579년 병으로 사직하고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었다. 문장에 능하고 경서(經書)에 밝았다. 남양의 안곡사(安谷祠)에 제향(제향)되고, 시호는 경헌공(景憲公)이다.

• 洪重徽 : 1693(숙종 19)~1772(영조 48) 조선. 문신. 초명은 중흠(重欽), 자는 석여(錫餘), 호는 오천(梧泉), 본관은 풍산(豊山), 판서 만조(萬朝)의 아들. 1711년(숙종 37) 진사(進士)가 되고, 1713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갑과로 급제, 장령(掌令)·병조 참지(兵曹參知)를 거쳐 1747년(영조 23) 승지(承旨)가 되었다. 그후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형조 참판(刑曹參判)을 거쳐 1753년 노인직(老人職)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가 되고 이듬해 공조 판서에 이르러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문장에 능했고, 만년에는 ≪주역(周易)≫을 연구, 많은 저서를 남겼다. 1737년(영조 13년)에 제주목사에 도임하여 동왕 14년에 떠나갔다.

찾 아 보 기

ㄱ

가도(賈島) 191
가락천(嘉樂泉, 加羅泉) 261, 278
가죽두루마기 333
가죽모자 333
갈석산(碣石山) 249
갈옷 333
갈직의(葛織衣) 367
강남(江南) 65
강릉천호후(江陵千戶候) 365
강희안(姜希顔) 61
개로천(介路川) 344
거오(車螯) 381
거익(去鎰) 318
건장궁(建章宮) 107
견우성(牽牛星) 270
경수(瓊樹) 441
계림(鷄林) 349
고계(高季) 349
고도(孤島) 65
고득종(高得宗) 241
고봉례(高鳳禮) 239
고봉지(高鳳智) 241
고여산(姑餘山) 266
고조기(高兆基) 337
고청(高淸) 349
고후(高厚) 349
곤구(昆邱) 328
곤륜산(崑崙山) 96
곤명지(昆明池) 328
공조청(功曹廳) 284
공진루(拱辰樓) 424
관덕정(觀德亭) 256
관두포(館頭浦) 357
광성자(廣成子) 426
광양당(光壤堂) 377
광정당(廣靜堂) 377
교래촌(橋來村) 34
구령석(具齡錫) 121
구루(句漏) 250, 272
구맥주(瞿麥酒) 421
구양수(歐陽修) 228
구장(鳩杖) 365
구전(九轉) 371
구전신단(九轉神丹) 371
구주(九州) 104
구향목(枸香木) 343

구환단(九還丹) 371
국미주(麴米酒) 421
굴원(屈原) 256, 302
굴평(屈平) 256
권근(權近) 99
궐패(闕牌) 245
귀거래사(歸去來辭) 230
귀문관(鬼門關) 154
귤림당(橘林堂) 410
금궐(金闕) 104
급용(汲篛) 41
기성(箕星) 28
기죽(騎竹) 233, 236
기황후(奇皇后) 325
김방경(金方慶) 352
김상헌(金尙憲) 30, 59
김석철(金錫哲) 265
김성구(金聲久) 69, 100
김수익(金壽翼) 141, 259
김영달(金穎達) 296
김영수(金永綬) 270
김용식(金容植) 162, 168, 180, 219
김응남(金應南) 25, 297
김정(金侹) 77, 93
김인후(金麟厚) 97
김종직(金宗直) 375, 407
김좌근(金左根) 183
김청음(金淸陰) 76
김충렬(金忠烈) 333
김치(金緻) 91, 96
김태정(金泰廷) 254, 276
김통정(金通精) 325, 351, 353
김휘(金徽) 220

나구(羅紋) 266
난학(鸞鶴) 128
남구명(南九明) 167, 175
남극노(南極老) 271
남극성(南極星) 28
남두(南斗) 304
남명(南溟) 158
남사록(南槎錄) 329
남속(南涑) 291
남수현(南壽賢) 304
남악(南岳) 189
노숙(老宿) 293
노인성(老人星) 29

다로가치[達魯花赤] 324
단구(丹邱) 333
담라(儋羅) 18
대붕(大鵬) 149
대여(垈輿) 93
대완마(大宛馬) 215
도근천(都近川) 31
도롱이 옷 113
도사양(道士羊) 362
동무협(東巫峽) 344
동어(銅魚) 292
동영주(東瀛洲) 291

두목(杜牧) 275
두무악(頭無岳) 402
둔라(屯羅) 18
등자(橙子) 58

ㅁ

마고녀(麻姑女) 266
마고선녀(麻姑仙女) 372
만호진(萬戶鎭) 330
만호후(萬戶侯) 254
망진각(望辰閣) 425
매주제기 332
맹교(孟郊) 191
명월진(明月鎭) 173, 336, 338
명월포(明月浦) 352
명해(溟海) 94
목왕(穆王) 297
목장흠(睦長欽) 314
목호(牧胡) 325
무두악(無頭岳) 341
미원장(米元章) 111
민월(閩越) 396
민휘(閔暉) 261

ㅂ

박종묵(朴宗默) 293
발해(渤海) 340
방성(房星) 71
방암(方巖) 118
방장산(方丈山) 249
방호(方壺) 93
백록(白鹿) 105
백리해(百里奚) 70
백설가(白雪歌) 328
백옥루(白玉樓) 294
범자안(范子安) 312
범증(范增) 256
벽도(碧桃) 25
벽도화꽃 319
벽랑국(碧浪國) 348
벽성(碧城) 300
벽해선(碧海仙) 76
보개(甫介) 417
보허사(步虛詞) 171
봉구(蓬丘) 336
봉도(蓬島) 24
봉래산(蓬萊山) 24, 93, 95, 237
봉방석(蜂房石) 33
봉새 71
봉소(鳳簫) 96
봉호(蓬壺) 336
봉호산(蓬蒿山) 194
봉황새 149
부상(扶桑) 24
부요(扶搖) 149
부절기(符節旗 320

ㅅ

비통주(鄙筒酒) 417
사귀인(思歸引) 439
사마(槎馬) 447

사서도(斜鼠島) 213
사선(槎船) 39
산다화(山茶花) 224
산저(山底) 278
산해경(山海經) 402
삼매동(三梅洞) 431
삼별초(三別抄) 351
삼사석(三射石) 76
삼성혈(三姓穴) 74
삼청(三淸) 319
생학(笙鶴) 428
서거정(徐居正) 22, 24
서극마(西極馬) 313
서불(徐市) 345
서산(瑞山) 360
석종유(石鐘乳) 370
선산(仙山) 183
선아(仙娥) 330
섭라(涉羅) 18
성윤문(成允文) 317
성주촌(星主村) 26
성판(城板) 295
세공마(歲貢馬) 69
세유영(細柳營) 255
소고(小袴) 48
소승(小乘) 26
소식(蘇軾) 190
소악부(小樂府) 31
소영주(小瀛洲) 273
소중이 47
소탐(蘇耽) 67
송상기(宋相琦) 68
송옥(宋玉) 302
쇄의(簑衣) 113
수산진(水山鎭) 119
수산평(首山坪) 324
수성(壽星) 28
수의(繡衣) 113
숙종대왕(肅宗大王) 18, 158
시랑평장사(侍郎平章事) 337
신경호(申景琥) 280
신과(神瓜) 422
신광수(申光洙) 33, 45
신기루(蜃氣樓) 358
신석조(辛碩祖) 256
신찬(申纘) 279
심악수(沈樂洙) 251
심연(沈演) 252, 262
심연원(沈連源) 263
십주(十洲) 114
쌍벽정(雙碧亭) 317

ㅇ

아막(阿幕) 324
안기생(安期生) 110
안숙(安塾) 306
안평대군(安平大君) 256
안홍(安弘) 18
애매헌(愛梅軒) 276
앵무(鸚鵡) 282
약목(若木) 84
양대수(楊大樹) 273
양주(楊州) 275

엄복(嚴卜) 417
여산(廬山) 141
연교정(延敎亭) 277
연단(煉丹) 371
연무정(演武亭) 424
연북정(戀北亭) 316
연희각(延曦閣) 247
영리청(營吏廳) 253
영소(靈沼) 342
영안관(瀛安館) 300
영양관(瀛陽館) 285, 286, 290
영주(瀛洲) 93, 319
영주관(瀛洲館) 245
영천관(瀛川館) 295
영추(靈湫) 386
영해(瀛海) 25
예구(羿彀) 269
오고대부(五羖大夫) 70
오배(鰲背) 93
오정빈(吳廷賓) 194
오태직(吳泰稷) 190
옥경(玉京) 274
옥당(玉堂) 104
옥두어(玉頭魚) 26
옥루(玉樓) 270, 294
완보병(阮步兵) 258
완적(阮籍) 258
왕모(王母) 332
왕자교(王子喬) 427
요뇨(驍褭) 22
요단(瑤壇) 171
요대(瑤臺) 25, 297
요양학(遼陽鶴) 76
용검(龍劍) 324
우련당(友蓮堂) 273
우숙(牛宿) 270
운병(雲軿) 427
운주당(運籌堂) 282
울림주(鬱林舟) 313
원교(圓嶠) 341
원산(圓山) 341
원상요(元相堯) 120
원악(圓嶽) 291
월대칠성도(月臺七星圖) 77
위백양(魏伯陽) 130
유곤(劉昆) 267
유득공(柳得恭) 20
유량(劉亮) 267
유량루(庾亮樓) 267
유령(劉伶) 371
유사원(柳思瑗) 289, 332
유원약(劉阮藥) 371
육도삼략(六韜三略) 164
윤경당(潤經堂) 304
윤문거(尹文擧) 231
은구어(銀口魚) 137
응와(凝窩) 124
의두정(依斗亭) 293, 294
이경억(李慶億) 79, 113
이경휘(李慶徽) 229
이례연(李禮延) 293
이명한(李明漢) 230
이민성(李民宬) 267, 313
이선(李選) 147, 151, 320

이숙청(李淑晴) 256
이순공(李順恭) 352
이승소(李承召) 23
이아(貳衙) 291
이약동(李約東) 255, 257, 295
이옥(李沃) 317
이우진(李羽晋) 292
이원달(李源達) 132, 280
이원조(李源祚) 27, 28
이원진(李元鎭) 70, 78
이유의(李由義) 295
이의겸(李義謙) 127
이익태(李益泰) 95, 133
이익한(李翊漢) 146, 274
이제현(李齊賢) 31
이한진(李漢震) 180
이형상(李衡祥) 34, 283, 287
이희(李熙) 294
이희옹(李希雍) 260
일관헌(日觀軒) 291, 292
임제(林悌) 26, 74
임형수(林亨秀) 287, 288

ㅈ

자동(紫洞) 300
자미(紫微) 29
자신전(紫宸殿) 373
자전(紫殿) 372
자하동(紫霞洞) 300
장개구(杖皆鳩) 365
장인식(張寅植) 29
적송자(赤松子) 96
적율목(赤栗木) 402
전단해(旃檀海) 124
전용(箭筩) 41
전횡(田橫) 115, 289
점필재(佔畢齋) 18, 389, 407
정도전(鄭道傳) 232, 237, 240
정동계(鄭桐溪) 303
정립(鄭岦) 316
정모소 141
정방연(正方淵) 142
정방폭포(正方瀑布) 139
정서(鄭曙) 248
정운경(鄭運經) 123
정인지(鄭麟趾) 268
정절(旌節) 320
정조대왕(正祖大王) 57
조리희(照里戲) 443
조사수(趙士秀) 256
조성립(趙誠立) 311, 319
조시적(曹時適) 352
조위한(趙緯韓) 228
조인후(趙仁侯) 394
조정철(趙貞喆) 212
조태채(趙泰采) 21
조희순(趙羲純) 130
존경각(尊經閣) 246
존자암(尊者庵) 78, 79
좌도지관(左都知管) 356
주아보(周亞父) 255
주진촌(朱陳村) 348
죽도(竹島) 173, 329

죽엽주(竹葉舟) 312
지극성(枳棘城) 337
진동(秦童) 345
진손천(辰巽川 344

ㅊ

참동계(參同契) 130
천지소(天池沼) 147
첨두(尖頭) 260
청계학(淸溪鶴) 202
청도(淸都) 153
청사(靑蛇) 358
청우(靑牛) 70, 114
청원주(靑猿酒) 427
청조(靑鳥) 363
청총마(靑驄馬) 71
초란도(草蘭島) 155, 156
초평양(初平羊) 362
최계옹(崔啓翁) 414, 247
최부(崔溥) 23, 223, 376, 340
최영(崔瑩) 351
최영장군(崔瑩將軍) 215, 251
최이(崔顚) 312
최해산(崔海山) 253
추(鰌) 340
추사(秋史) 194
충암(冲庵) 153, 264, 390
충암사(冲庵祠) 390
취병담(翠屛潭) 426
칠분(七分) 86
칠성대(七星臺) 86
칠성동(七星洞) 77
칠원리(漆園吏) 245

ㅌ

탐라록 125
탐라사 23, 340, 376
탐라적(塔羅赤) 325
탐모라(耽牟羅) 18
탐부라(耽浮羅) 18
탐진(耽津) 20, 349
탑라(塔羅) 324
탑라적(塔羅赤) 324
태백(泰伯) 228
태왁 46, 47
토산당(兎山堂)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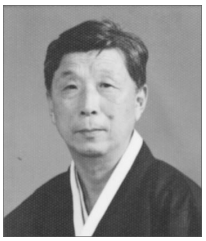
ㅍ

팔공산 173
팔준마(八駿馬) 18
필사초고(必思肖古) 325

ㅎ

하의(荷衣) 427
한림원(翰林院) 104
한수(漢峀) 30
한신(韓信) 289
한억증(韓億增) 280, 424
한정운(韓鼎運) 122, 129, 278
합적(合赤) 353

합적석질리(哈赤石迭里) 325
항아(姮娥) 330
향사당(鄕社堂) 284
향안리(香案吏) 155
향의실(香儀室) 273
현포(玄圃) 96
형산(衡山) 313, 403
혜일(慧日) 80, 160
호공(壺公) 120
호생(胡生) 138
호성(狐星) 30
호종단(胡宗旦) 332, 434
호행(虎杏) 422
혼돈(混沌) 176
홍교무(紅蛟舞) 215
홍중징(洪重徵) 128, 271
화류(驊騮) 18, 250
화탈도(火脫島) 358
황독탄(皇瀆灘) 136
황모랑(黃帽郎) 31
황정견(黃庭堅) 190
황초평(黃初平) 70
황학루(黃鶴樓) 312
효림(孝林) 423
효무제(孝武帝) 313, 345
후풍도(候風島) 352
黑珊瑚 380
흰꿩 215



吳 文 福

- 字 廉之 號 素農
- 1938년생

- 著書
  瀛洲風雅, 畵題를 위한 漢詩選
  濟州島磨崖銘, 詩集 白鹿潭

- 濟州道 南濟州郡 城山邑 新豊里 816
- 電話 : (064) 782-0587 · 726-5880
  FAX 726-5880

판 권
소 유

인쇄 2001년 9월 5일
발행 2001년 9월 20일

저자 : 吳 文 福
발행 : 도서출판
인쇄 : 경 신 인 쇄 사
(☎ 746-2044)

* 300부 한정판 값 30,000원

ISBN 89-88949-19-6-04810
ISBN 89-88949-00-5(세트)

※ 이 책은 제주도문예진흥기금을 제작비의 일부로 지원받고 만들어졌습니다.